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태양찬가

남 대 현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0(2011)년

서 장

1

날이 어두워지자 파도는 더 사나와졌다.

일본의 오랜 도시 교또가까이에 있는 마이즈루항을 떠날 때는 물론 이 고장 사람들이 흔히 큰 섬, 작은 섬이라고 부르는 갓무리지마, 꾸즈지마를 지날 때까지만 해도 사뭇 잠잠하던 바다였으나 삼라만상이 어둠에 묻혀가는 지금에 와서는 점점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마치 여태까지는 대지에 절대불가항력의 존재인 광명이 깃을 펴고있어 어쩔수 없었지만 어스름이 짙어가는 이제부터야말로 검고 사납기로 소문난 바다의 위용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단단히 시위해보려는것 같았다. 그러고보면 바다 역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캄캄한 밤에야 본성을 드러내는 야수와 같은것인지, 정말 허연 거품을 가득 문채 배를 향해 느물느물 육박해오는 파도는 악마의 이발같이 무시무시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덕수는 그런 바다를 줄곧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고있었다. 두툼한 회색솜옷을 어깨에 걸친채 선실에 기대여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두눈은 세찬 맞바람으로 쪼프러져있기는 했으나 류다른 광채로 빛나고있었다. 눈도 눈이지만 량쪽입가에 괄호모양으로 새겨진 주름가운데 한일자로 쭉 가로 그어진 두툼한 입술은 한결 인상이 각별했다.

여느때도 다소 아래입술이 나와있는 그였으나 기분이 내킬 때면 더욱 밖으로 밀려나오군 했는데 더는 나올수 없을 정도로 한껏 삐여진것을 보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흡족한 때임이 틀림없었다. 남들이 볼 땐 무슨 비위가 상한 일이 있거나 몹시 심사가 꼬인것 같이 보이는 그런 때가 그에게는 이상하게도 제일 흐뭇한 때였다.

사실 그에게는 모든것이 좋았다. 지금처럼 세상만물이 아름답고 황홀하게 여겨진적은 일찌기 없었다. 산악같이 덮쳐드는 격랑도 좋았고 어둠속을 뚫고 기운차게 달리는 배의 발동소리도 좋았다. 이따금씩 배머리를 후려갈기는 야무진 파도며 그때마다 머리우에 뿌려지는 얼음쪼각같은 물방울은 더욱 마음을 상쾌하게 했다.

(이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있단 말인가?)

벌써 스무번도 더 외워본 말이지만 그는 다시금 속으로 되뇌였다. 자기가 어디로 가고있는가 하는 생각에 미치자 그의 가슴은 이제까지의 신비하고 아름답게만 느껴지던 감정과 함께 또 하나의 감정, 비상한 충격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벅찬 격정으로 하여 부르르 떨렸다. 그는 이번에도 차마 자기가 가는 그곳을 입밖에 내여 말할수 없어 다만 《아ㅡ》하는 벅찬 환희의 탄성만 쏟아놓을뿐이였다.

문득 생각이 깊어지면서 가슴이 후더워올랐다.

자기가 가는 이 길이 단지 그 치욕의 을사년, 악독한 일제가 조선에 총독정치를 세우고 야수적인 폭압통치를 실시한 때로부터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나라를 잃고 낯선 이 이역땅으로 건너왔던 그 길이여서가 아니였다. 두차례의 전쟁,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왜놈들이 징용과 징병이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수백만이 넘는 우리의 무고한 청장년들을 강제로 끌어왔던 원한서린 그 비애의 바다여서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망국노의 설음에 가슴뜯을 때마다 그토록 간절한 꿈으로, 희망의 등대로 여기며 기어이 안기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좌절되지 않으면 안되였던 길, 그래서 살아 못 가면 죽어서라도 가리라 그처럼 벼르던 그 길을 오늘에야 비로소 가고있기때문이였다.

(정녕 이 길이 조국으로 가는 길이란 말인가!)

그는 저도 모르게 흠칫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도 꿈만 같은 사실이여서 도저히 믿을수가 없었다.

(내가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국으로 가고있다니!)

저절로 숨이 막히면서 가슴이 후두두 뛰였다. 누구나 평생을 두고 바라마지 않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때면 기쁨보다 의혹이 앞서고 지어는 자기가 어떤 엄청난 착각에 빠져있지나 않나 하는 두

려움에 휩싸이게 되듯이 그도 아직 그런 정신상태에 처해있었다.
석달전이였다.
동방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전야에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일본에 있는 조련(재일본조선인련맹)에 국제전보를 보내시여 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재일조선인축하단을 친히 조국으로 불러주시였다.
말그대로 마소와 같이 온갖 천대를 다 받으며 살아온 재일동포들에게는 공화국이 창건된것만으로도 꿈만 같은 일이였다. 자기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어머니조국이 생긴것만으로도 더없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행복이 아닐수 없었다. 그런데 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축하단까지 조국에 불러주시다니!
장군님의 사랑에 목이 메인 동포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고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러다가 설음에 멍든 가슴을 부여안고 꺼이꺼이 통곡을 터뜨리기도 했다.
조련중총(조련중앙총본부)에서는 곧 100여명의 대표들을 축하단성원으로 선출하여 일본에 대한 일체 통치권을 행사하고있는 미군정청에 출입국신청을 냈다. 그러나 군정실시 첫날부터 재일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줄곧 적대시정책을 실시해온 맥아더사령부는 종시 그 신청을 부결해치웠다.
어떻게 할것인가? 어떻게 해야 합법적인 승인을 쟁취하여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되는 력사적인 조국방문을 실현할수 있을것인가?
중총의장단성원들은 매일같이 아침에는 한자리에 모여앉아 대책을 토론하기에 골몰했고 낮부터는 동포들과 함께 도꾜역사앞에 있는 미군정청으로 몰려가 항의와 진정운동을 벌리였다.
일본은 항복서에 도장을 찍은 그 순간부터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군정청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자체의 립법, 사법, 행정기관이 있기는 했으나 그것은 허상에 불과할뿐 일본을 실지 움직이는것은 그우에 군림한 미군정청 즉 맥아더사령부였다.
태평양전쟁당시 혼마중장이 지휘하는 일본군에 의해 남태평양

의 막바지섬 코래히드까지 쫓기여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그때 오스트랄리아로 달아나면서 그가 한 말은 《나는 다시 돌아올것이다.》라는것이였지만 쫓기면서 하는 빈주먹질같은 그 소리를 믿은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도 그냥 돌아온것이 아니였다. 이번에는 극동군사령관이 아니라 일본의 항복을 접수할뿐더러 패전국 일본을 마음대로 주물러댈 권한까지 가진 련합군사령관이 되여 나타난것이였다. 그때부터 그는 일본을 통치할 최고권한을 가진 《총독》이 되였고 일본은 하루아침에 그의 천하로 변하고말았다.

《그러니 아직도 미군정청의 허가를 바라고 이렇게들 앉아있단 말이요?》

그새 간사이지방에 출장을 다녀온 한덕수가 방안에 들어서기 바쁘게 머리를 맞대고있는 의장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 역시 다섯명의 의장들중 한사람이였다.

《그들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게 뭐요? 지난 4월 그들한테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하는걸 벌써 잊었단 말이요?》

한덕수는 불만이 어린 어조로 말했다.

지난봄 일본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조선인학교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일본반동당국은 민족교육을 탄압할 목적밑에 《조선인설립학교의 취급에 대하여》라는것을 들고나왔다. 그때 한신지방동포들은 이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미군정이 당장 사태를 바로잡아주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군정청은 너무나도 응당하고 정당한 동포들의 요구를 지지해줄 대신 도리여 군정실시후 처음으로 되는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하여 동포들의 투쟁을 총칼로 막아나섰다. 그 횡포한 탄압으로 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났고 수백명이나 되는 일군들과 동포들이 검거투옥되였다. 동정과 지지를 바랐던 미군정청으로부터 뜻밖에도 총칼세례를 받은데 격분한 동포들은 더욱 완강한 기세로 일떠섰다. 근 다섯달동안이나 필사적인 투쟁을 벌려 끝끝내 민족교육의 권리를 쟁취하고야말았던것이다.

《그러니 어쩐단 말이요? 그들의 승인이 없이야 갈수가 없는걸!》

그중 나이가 많은 윤의장의 말에 덕수는 대뜸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럼 그들이 승인하지 않는다고 가지 않을 길이란 말입니까? 그럴수야 없지요. 목숨을 내대고라도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일본이라는 섬나라는 미군이 타고앉은 배가 되였고 그 배의 키는 맥아더가 틀어잡고있습니다. 이런 배우에 실린 동포들의 운명이 어찌될지 우리자신도 모르고있지 않습니까.

더우기 미군이나 일본은 우리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우리가 공화국기를 게양하는것조차 총칼로 탄압하고있습니다. 그래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가르쳐줄분이 누굽니까. 가야 합니다. 기어이 조국에 가서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사실 여느때도 그랬지만 공화국이 창건된 이후 동포들을 어느 길로 어떻게 이끄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가 아닐수 없었다.

우선 재일조선인운동의 총적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당면하게는 어떤 과업들을 내세워야 하는가 하는 토론이 벌어질 때마다 서로의 견해가 달랐다.

어떤 사람들은 조국의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것을 지켜보다가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동포들이 일본에 사는 이상 일본정부의 태도와 립장에 따라 과업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을 통치하고있는 맥아더사령부와의 관계부터 잘 가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했다. 그때마다 덕수는 언제나 조국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그래야 재일동포들이 정확하고도 옳바른 길을 갈수 있다고 주장했다.

덕수의 말을 긍정하면서도 일본이라는 고립되고 소외된 현실속에서 살아온 의장들에게는 조국이 하늘너머 허공에서 반짝이는 별처럼 아득하게만 여겨졌다.

《그럼 내 결심을 말하지요.》

언제나 자기의 결심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데 버릇돼있고 아무 일이나 미리 말을 하고 하는것은 말없이 하는것에 비해

그 가치가 백분의 일도 안된다고 믿는 덕수라는것을 잘 아는 의장들은 이 량반이 벌써 무슨 일을 꾸며놓지나 않았나 하는 호기심이 어린 눈길로 지켜보았다. 아니나다를가 자기 일에 대한 자신을 느낄 때면 늘 그러듯이 비죽하니 내밀리였던 덕수의 아래입술이 쩝하는 소리를 내면서 웃입술과 떨어졌다. 이럴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늘 놀라운 말이 튀여나오군 했다.

《이번에 교또에 가서 배를 한척 구했습니다. 실은 장군님께서 축하단을 불러주신 그때부터 교섭해왔는데 이번에야 겨우 합의를 봤지요. 그런데 문제는 배가 자그마한 어선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탈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아무리 타산해보아도 대표단을 예닐곱명정도로밖에 구성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의장들은 하나같이 눈이 휘둥그래졌다. 백명으로 예견된 축하단이 일곱명으로 줄어들었다는데도 있지만 보다는 겨우 일곱명이나 태우는 배라면 전마선이나 다름없는 쪽배에 지나지 않겠는데 그런 배를 타고 어떻게 파도사나운 바다를 건느랴 하는, 이 량반이 지금 제정신이기나 한가 하는 기색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몇사람의 이름이 적힌 종이장을 꺼내놓으며 하는 덕수의 말에 더 아연해지고말았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조국에 갈 대표들입니다. 길이 험하니만치 젊은 사람들로 꾸렸는데 의장동지들 의견이 어떤지…》

《…》

침묵이 깃들었다.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동포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누구든 바다를 건너야 하며 또다시 건너와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으나 그것이 성공을 기약할수 없는 모험이라는것도 모르지 않았다. 그 모험이 바다 한복판에서 결딴날 때에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앞날은 물론 동포들의 장래를 떠메고나가야 할 덕수며 젊은이들이 바다에 묻히거나 철창속의 이슬로 사라지고만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였다.

이윽고 윤의장이 가슴에 눌러박았던 턱을 천천히 쳐들었다.

《내 생각은…》

벌겋게 피발이 선 그의 눈에서 의미심장한 불꽃이 번뜩이였다.

《여기 모인 의장들중에서 내 나이 그중 많은 사람이요. 이역살

이도 오래 했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이 시각에 흘러간 한생을 되돌아보면 걸음걸음 피눈물뿐이고 빛이 나는 자욱들은 보이질 않소. 이역땅에서나마 민족의 얼을 지켜보려고 동포들과 어깨를 겯고 모지름을 썼지만 한층의 탑도 쌓아올리지 못했소. 그래서 내 언제부터 죽기 전 한번은 우리 동포들을 위해 공을 세우리라 다짐했던 사람이요. 한의장, 내가 조국에 가겠소.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몸이지만 조국에 갔다올 기운은 남아있소. 한의장은 아직 젊기도 하거니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소. 파도속에 묻혀도 안되고 옥중에 갇혀도 안될 몸이란 말이요.》

덕수는 뜨거운 눈길로 윤의장을 바라보았다.

《우릴 중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덕수의 목소리는 떨리고있었다.

《조국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파도에 배가 부서질수도 있고 적들과 맞다들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젊은이들을 데리구 가야 합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리해해주길 바랍니다.》

새삼스레 의장들은 덕수의 기질적인 특성, 한번 결심한 일에 대해서는 사소한 드팀도 없는 완강한 성미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 놀라움으로 하여 그들은 덕수가 선발한 대표단성원들에 대한 의견은 물론 그 어떤 다른 사소한 요구조차 꺼내놓지 못했다.

그렇듯 간절한 마음과 열렬한 뜻을 품고 운명의 등대, 태양이 빛나는 조국으로 떠난 덕수네였다.

덕수가 추억에 잠긴새에도 대표단을 실은 배는 여전히 풍랑을 헤치고있었다. 별빛 한점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무섭게 뒤설레는 대양의 한복판에 뛰여든 너무나도 작고 가냘픈 쪼각배였지만 대표단성원들의 불같은 환희와 격정에 떠밀려 앞으로 앞으로 힘차게 내달렸다.

《바람이 찬데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덕수가 돌아보니 눈잔등까지 푹 눌러쓴 털모자를 끈으로 턱밑에 든든히 비끄러맨 리진규가 서있었다.

중총에서 교육사업을 책임지고있는 그는 이번 축하단의 총무이기도 했다. 나이는 자기보다 열살아래인 서른이지만 니홍대학 교육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데다 아무리 복잡한 일도 덤비거나 스치는 일없이

아주 정확하게 처리하군 하는 그를 덕수는 못내 미덥게 여기는터였다.

지난 4월에 있은 한싱교육투쟁때도 그는 현지에 내려가 끈질긴 노력으로 현지사를 담판장으로 끌어냈을뿐아니라 빈틈없는 론거를 들이대여 종내 우리가 요구하는 서약서에 도장을 누르게 하고야 말았던것이다.

《난 여기가 좋네! 그래, 다른 친구들은 어떤가?》

《사기들이 났습니다. 무슨 유람선이라도 탄 기분들이지요.》

《유람선?… 허, 어디 얼마나 더 견디나 두고보세. 아마 래일 새벽쯤엔 모두들 풀자루가 돼있을걸.》

덕수의 말에 진규가 웃으며 뒤를 달았다.

《왜요? 그래서 다들 배꼽에다 반창고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에 덕수도 웃지 않을수 없었다.

배에 오르기 전 《해방신문》기자로서 조국방문기간 대표단의 취재를 담당한 현우가 멀미를 막는 결정적인 대책이라면서 모두에게 손바닥만 한 크기의 반창고를 나누어주고는 그것을 배꼽에다 붙이라고 지시했다.

제가 맡은 임무를 취재에 국한시키지 않고 범위를 훨씬 넓혀 대표단의 전반활동을 돌보는 고문격으로 확신하고있는 현우였다. 누가 시킨것은 아니지만 그는 스스로 걸머진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에 온갖 열성을 다 쏟아붓고있었다. 그 권한이 어떤 때는 단장인 덕수나 총무인 진규보다도 훨씬 더 절대적이였다. 소지품은 무엇무엇인데 누가 건사하고 어느것은 어떻게 보관해라, 어떤 음식은 먹되 무엇만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하여튼 시시콜콜한 지시가 끝이 없었다.

하지만 반창고를 배꼽에 붙여야 한다는데는 모두들 어리둥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모두가 하나같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으나 그의 열성을 편들어주고싶었던데다가 또 그다지 품들 일도 아니여서 덕수는 제 먼저 그것을 받아 붙였다. 그 바람에 다른 사람들도 할수없이 따라붙였는데 여태껏 멀미를 하지 않는것이 그 덕인지도 모를 일이였다.

《진규! 자넨 어떤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진규를 돌아보며 덕수는 생각깊은 어조로 말했다.

《난 아직도 우리가 조국으로 가고있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질 않

네. 첨엔 내가 꿈을 꾸고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었댔지만 이젠 이건 결코 꿈이 아니라 분명 내가 배를 타고 동무들과 함께 바다를 건느고있다는건 알지. 그런데 이번엔 이 엄연한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고 지난날의 일들과 겹쳐지면서 혹시 그때 일이 어떤 환영으로 눈앞에 펼쳐지는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단 말일세.》

덕수는 두눈을 쪼프린채 배전으로 밀려드는 파도를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그 일렁이는 파도를 타고 잊을수 없는 추억들이 하나 또 하나 눈앞에 서서히 다가오는것이였다.

2

덕수가 처음으로 장군님을 찾아가려고 결심한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단나추도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였을 때였다.

단나추도공사는 일본철도의 간선인 도까이도선상에 있는 아따미에서 시작하여 이즈반도의 산줄기를 동서로 관통시켜야 하는 길이가 20리나 되는 긴 기차굴을 뚫는 일이였다.

일제는 16년간으로 계획된 이 력사이래의 난공사에 수천명이나 되는 조선인로동자들을 몰아넣고 인간이하의 노예로동을 강요했다. 놈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몰아대였으면 매일처럼 이어지는 사망자로 하여 이 공사를 단나사도공사(남편을 죽음에로 내모는 공사)라고까지 했겠는가!

놈들의 이런 억압에 맞서기 위해 덕수는 같이 일하던 고향친구인 로재호와 함께 조선인로동자들로 야학을 조직했다. 그 야학을 곧 로동조합으로 발전시킨 그는 로동조건을 개선하라는 투쟁과 태업, 나아가서는 폭동까지 조직했는데 이것을 구실로 경찰이 그를 체포했던것이다. 그러나 놈들이 그를 체포한 리유는 다른데 있었다.

시즈오까형무소의 독감방에 갇힌 그는 첫날부터 악착한 고문을 당했다. 놈들은 사상범이라면 의례히 있기마련인 심문이나 문초따위는 하지도 않고 무작정 그를 두들겨패기만 했다. 부러진 목검채가

취조실구석에 수북이 쌓여졌을 때에야 담당특고(특별고등경찰)가 조심스레, 그러면서도 동정이나 하는듯 한 어조로 말했다.

《자, 이젠 솔직히 자백하는게 어때? 우린 당신이 어째서 이 공사장에 왔으며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걸 다 안다. 또 그게 누구의 지시라는것도 다 알고있다.》

덕수는 특고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퉁퉁 부어오른 얼굴이며 터진 입술로 하여 말을 하기 어렵기도 했거니와 말끝마다 가느다란 혀바닥으로 얇은 입술을 핥아대는 특고의 간사스런 꼴이 구역질이 날만치 가증스러웠기때문이였다.

《당신이 이 공사장에 온것은 하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왔다. 그 목적을 위해 야학과 조합을 조직했고, 말하자면 겉으로는 로동운동을 하는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은 공작임무를 수행했단 말이다. 자, 이쯤하면 다 털어놓는게 어때? 내지에 파견된 **김일성**부대 공작원동지!》

(**김일성**부대 공작원?)

저절로 가슴이 활랑거리였다.

김일성장군! 실로 그 이름은 덕수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고 기쁨이였으며 더없는 자랑이기도 했다. 놈들의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나라잃은 비분에 가슴이 터져오면 터져올수록 그는 오직 **김일성**장군 한분의 이름을 되뇌이며 살아왔다. 백두산에서 왜적의 무리들을 삼대베듯 쓸어눕히신다는 그이, 그래서 그 이름만 들어도 삼도왜적들이 벌벌 떤다는 통쾌한 사실에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군 했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이 일본땅에까지 공작원을 파견하시다니? 그렇다면 여기에도 장군님께서 지도하시는 지하조직이 뻗어있다는것이 아닌가? 쿵— 하는 충격이 다시금 흉벽을 때리였다.

그제야 덕수는 어째서 놈들이 자기를 처음부터 일반사상범과는 달리 취급했는가 하는것을 알아차릴수 있었다.

(그러니 내가 장군님께서 파견하신 공작원이란 말이지!)

마음속에 솟구쳐오르는 어떤 희열을 누를길 없었던 그는 자기를 마주보고있는 특고, 자기를 일약 공작원으로까지 여겨주는 《고마운》특고에게 그만 미소를, 그것도 더없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

어보였다. 그리고는 어깨를 철썩 두드려주며 큰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퉁퉁 부어오른 얼굴에 웃음을 짓는 덕수의 괴상한 모습에 어리둥절해진 특고는 곧 정색을 하며 되물었다.
《고맛다? 나니가 고맛다?》(야단났다구? 무엇이 야단이라는거냐?)
조선말을 일본말로 잘못 듣고 정말 무슨 야단이라도 났는가 해서 눈알이 꾯꾯해진 특고를 보며 덕수는 껄껄 웃었다. 나불나불하여 얄밉게만 보이던 그 주둥아리마저 더없이 고맙게 여겨졌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공작원이 아니라는것을 부인하기는커녕 도리여 될수록 공작원이라는것을 암시해보이려고 했다. 그것으로 하여 고문은 몇배 더 심하게 당했지만 그 대가로 놈들한테서 알아낸 사실들은 참으로 귀중한것이였다.
일본공안청자료나 내무성 경보국의 보고에 의하면 장군님께서는 유격대를 이끌고 수차 조국땅에 진출하여 큰 승리를 이룩하시였으며 앞으로 진행할 대대적인 진공전투를 위해 국내각지뿐아니라 일본에까지 공작원들을 파견하고계신다는것이였다. 오까야마6고를 비롯한 여러군데의 학교들에서는 벌써 조국광복회의 하부조직이 꾸려졌는가 하면 수많은 청년들이 그 조직과의 련계밑에 항일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있다는것이였다. 유격대를 찾아 간도로 떠나간 청년들도 많다고 했다.
덕수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그야말로 불덩이우에 끼얹어진 기름이였다. 여태껏 하많은 갈래로 흩어져있던 그의 정력이 이때부터는 하나의 신념, 하나의 희망으로 뜨겁게 불타올랐다.
(가자! 어떤 일이 있어도 간도로 가야 한다!)
감옥에서 나설 때 그의 육체는 찢어지고 부서졌으나 마음속에는 이런 결심이 굳어져있었다. 걸음을 옮길수가 없어 육중한 철문밖에 쓰러지는 순간에도 백두산의 숭엄한 웅자가 눈앞에서 얼른거리였다.
(아—백두산!)
그는 차거운 땅바닥에 멍든 몸을 늘어뜨린채 가없이 열린 푸른 하

늘을 바라보며 소리내 웃었다. 희망의 빛발, 인생의 봄빛이 가득찬 우주가 가슴속에 통채로 안겨들었다.

《형님!》

누군가 덕수를 부둥켜안았다. 재호였다. 함께 잡혔다가 먼저 출옥한 그가 손수레를 끌고 감옥앞에 와있었다.

《형님이 공작원이라고 혼자 뒤집어쓰는통에 난 먼저 풀려나왔소. 그런데 이게 무슨 꼴입니껴? 예? 놈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사람을 이 지경으로…》

《됐다! 재호!》

덕수는 어깨를 떨며 부르짖었다.

《이젠 우리도 가자! 당장 차빌 해가지구 떠나잔 말이다!》

《어디로 말입니껴?》

《백두산이지. **김일성**장군님 계신 백두산으로 말이다!》

눈물이 가득했던 로재호의 눈에서도 금시 환희의 빛발이 타번지였다. 희망의 봄빛은 그의 심장에도 불을 달았던것이다.

몇달동안에 걸쳐 준비를 끝낸 덕수는 뜻을 같이하는 몇명의 동료들과 함께 쯔가루해협을 건너 북해도의 하꼬다떼에 다달았다. 거기서 라진으로 가는 배를 탈 계획이였다. 라진까지만 무사히 가면 간도는 지척이였다.

당시 일제는 만주에 있는 자기네 기관들에 가끔씩 위문단과 의약품을 실어보내군 했는데 그 민간수송선이 하꼬다떼에서 덕수네를 태워주기로 약속되여있었다. 징용을 피해 고향으로 도망가는 기피자처럼 가장한 그들은 선주에게 적지 않은 목돈까지 찔러주었다.

그런데 떠나기 며칠전 갑자기 하꼬다떼일대에 형사들이 들이닥치더니 일체 선박들에 대한 출항을 금지시키고 전에 없는 검문검색소동을 들이댔다. 처음엔 무슨 영문인지 몰랐으나 그게 바로 자기들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이라는것을 덕수는 후에야 알았다.

동료들중 대학에 다니던 한 친구가(그는 유족한 집안의 외아들이였으나 좌익사상으로 하여 부모들과는 늘 알륵관계에 있었다.) 집으로 써보낸 편지에서 자기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간도로 가니 해방이 될 때까지 찾지 말라고 한것이 그만 단서로 되였던것이다. 이

일로 하여 재차 놈들에게 체포된 덕수는 3년간의 복역후에도 《치안유지법》으로 해방이 될 때까지 항시 형사들의 감시속에 있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때 일을 돌이킬 때마다 덕수는 그처럼 간절한 소망을 이루지 못한 절통한 아쉬움과 함께 자기의 본의아닌 과실로 친구들에게 피해를 입힌 자책감때문에 감옥에서 자결한 성훈이로 하여 가슴이 저리군 했다.

그가 두번째로 장군님을 찾아가려고 결심한것은 해방이 되여 조련이 결성된 이듬해인 46년 봄이였다.

처음과는 목적도 달랐고 동기도 달랐다. 전에는 무장을 잡고 싸우기 위해 장군님을 찾아가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앞날에 대한 가르치심을 받자는것이였다. 전번에는 자기 혼자의 소원을 이룩하기 위해서였다면 이번에는 100만재일동포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걸음이였다.

해방이 되자 미군정과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인들에 대해 교활하고도 음흉한 태도를 취했다. 귀국의 배길을 막은 놈들은 동포들을 어떤 때는 적국인으로 대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일본인이나 외국인으로 취급하면서 저들이 편리한대로 탄압하려고 했다. 외국인으로 취급하려고 한것은 동포들을 《외국인 등록법》에 걸어 억압하기 위해서였고 일본인으로 취급하려 한것은 형벌제도, 세금제도 등 외국인으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본사람과 똑같이 적용하려는데 있었다.

놈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은 처음부터 시련을 겪게 되였다. 게다가 정확한 투쟁로선을 찾지 못해서 내부형편도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민단》을 조직한 박룡이였다. 일본《천황》암살을 기도하다가 경찰에 붙들려 23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한 박룡은 출옥직후엔 덕수를 만나 자기도 조련에서 일하겠노라고 했으나 무엇때문인지 돌연히 태도를 바꾸어 《건동》(새 조선 건설동맹)을 조직하고는 그것을 다시 《민단》으로 바꾸어 조련일이라면 한사코 방해해나섰다. 심지어 백주에 조련조직들을 습격하는가 하면 공공연히 일군들에 대한 테로를 감행하기도 했다. 그 박룡의 《민단》에 조련에서 축출된 반동들과 민족반역자들

이 합세해나섬으로써 형세는 더 착잡해졌다.

새로운 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빚어지는 일들은 그뿐이 아니였다. 갑자기 서울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에 있는 유명무명의 단체며 사람들과 손을 잡고 제딴의 재일조선인운동의 방향에 대해 력설했다. 그들은 서울에 있는 어떤 《공산당》인물과 련계를 맺고는 그를 《진정한 애국자》라느니, 《조선의 영웅》이라느니 하며 잔뜩 춰올리기까지 했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그때마다 덕수는 벼락같은 소리를 지르며 따지고들었다.

《감옥살이를 몇해 한게 그렇게도 영웅인가? 지하투쟁 몇해한게 그렇게도 애국자인가 말이요! 그래 감옥살이나 지하투쟁한걸 20성상 손에 직접 무장을 잡고 강도왜적을 때려잡으신, 그래서 마침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신 **김일성**장군님의 업적에 비길수 있소? 있는가 말이요! 어디라구 감히… 명백히 말해두지만 해빛이 있고야 초목도 있는 법이요!》

그럴 때면 그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보아하니 당신은 일본에서 사는 100만 동포들을 몽땅 북으로 끌고가려는것 같은데 그렇게 될것 같소? 고향이 남쪽인 동포들이 그리로 쏠릴것 같은가 말이요!》

《고향? 도대체 고향이 무슨 상관이요?》

덕수는 더욱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고향이 남이건 북이건 조선사람이면 갈길은 하나요. 어느 길인가? 그건 바로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길이지. 왜냐하면 조선은 철저히 장군님의 조선이기때문이요. 장군님이 계셔서 조선도 있고 조선사람도 있단 말이요!》

이 확고부동한 신념에는 사소한 드팀도 없는 덕수였다. 그러나 동포들을 자기가 믿고있는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가 없었다. 정세는 재일동포들이 나아갈 길을 하루속히 정할것을 요구했다. 더우기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정책이 로골화되기 시작해서 재일동포들의 일본재류의 장기화가 명백해졌던것이다.

(가자! 이 복잡한 일본땅에서 우리들이 나갈 길을 가르쳐주실분은 오직 **김일성**장군님뿐이시다!)

덕수는 곧 준비를 서둘렀다. 먼저 부산으로 건너가 이미 서울에 파견돼있는 조련서울련락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38도선을 넘을 계획이였다.

바로 그때였다. 재일동포들의 이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친히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라는 력사적인 공개서한을 보내주시였다. 공개서한에는 덕수가 암중모색하던 문제, 재일동포들이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뚜렷이 밝혀져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서한에서 조국의 운명의 귀추가 재일동포들의 운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것이다, 통일정부의 수립으로 우리 조선이 완전히 독립되여야 해외동포로서의 권리를 찾고 보호도 받게 될것이다, 모든 동포들이 민주주의적민족통일정부수립을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호소하시였다.

온 일본땅 동포들이 사는 곳마다에서 환호의 메아리가 울려퍼졌다.

모든 동포들은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투쟁에로! 덕수는 곧 일군들과 함께 이 하나의 구호에 동포들을 묶어세웠다. 조국의 북과 남에 수립된 인민위원회를 지지성원하는 사업,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헌법초안토의사업, 미제와 리승만역도의 망국적인 5.10단선을 반대하는 투쟁…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때에는 서울에 있는 조련서울련락위원회 성원들을 조련대표로 평양에 직접 파견하기까지 했다.

드디여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이 온 세상에 선포되였다. 감격의 그날, 일본땅 방방곡곡에서는 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동포들의 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그날 덕수는 조국이 있는 서북쪽하늘을 우러르며 경건히 옷깃을 여미였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잃었던 나라를 찾아주시더니 오늘은 또 공화국을 창건하시여 저희들을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 내세워주시니, 이제부턴 오직 장군님만을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젠 조국이 있고 추켜들 기치가 있어 동포들은 확고한 신심에 넘쳐 새삶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군정과 일본당국은 공화국창건을 계기로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로골화하기 시작했다. 놈들은 공화국을 합법적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을뿐아니라 남조선괴뢰들과 한층 결탁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조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저애해나섰다. 각종 악법들을 새로 만들어 들씌우는가 하면 공화국기를 게양하는것조차 금지했다. 오죽하면 일본 각지에서 벌어진 국기게양투쟁으로 하여 사상자가 나고 체포투옥된 사람들이 수천명이나 되겠는가.

(놈들이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리라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미제와 일제의 탄압속에서 살아야 할 재일동포들이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존엄을 빛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생활권과 교육권을 옹호고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남조선괴뢰들의 부추김을 받는 《민단》의 책동은 어떻게 물리치고 일본인민들과의 친선은 어떻게 강화할것인가?)

덕수의 머리속에는 공화국창건의 환희와 함께 이런 새로운 우려가 떠날줄 몰랐다. 그런데 바로 이때 장군님께서 재일조선인축하단을 조국으로 불러주신것이였다.

(그래! 우리가 나갈 앞길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친히 불러주시는것이다!)

이역만리에 있는 자기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보살펴주시는 장군님의 은정에 목이 메인 덕수는 전보를 받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축하단을 무어 조국으로 가야 하며 가되 자기가 가야 한다고 마음다졌다. 그에게는 어쩐지 장군님께서 축하단을 불러주신것이 바로 자기, 그토록 장군님의 품에 안기려고 애쓰던 자기를 불러주신것으로 여겨졌던것이다.

그가 다른 의장들과 사전협의를 보기 전부터 조국에 갈 준비를 해온데는 이런 불같은 마음이 깔려있었다.

갑자기 발밑이 꺼져내려가면서 몸이 허공으로 솟구쳐오르는 바람에 덕수는 저도 모르게 조타실문턱을 붙잡고 배전너머를 굽어보았다.

어둠에 묻혀 잘 보이진 않았으나 산악같이 일떠선 파도마루우에

배가 달랑 올라앉은것이 분명했다. 이제 저 까마득하게 내려다보이는 파도의 심연을 향해 배가 곤두박질하리라는 생각이 들자 저절로 소름이 끼쳤다. 과연 이 가랑잎같은 배가 무섭게 회오리치는 파도속에 파묻혔다가 다시 솟아날수 있겠는지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미끄러지듯 그 횡포한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들었던 배는 용케도 다시 이물코를 쳐들고 하늘로 솟구쳐올랐다.

《타당! 땅땅땅!》

이번에는 고막을 찢어내는 야무진 금속성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틀림없이 몰방으로 갈겨대는 기관총성같았기때문이였다. 얼른 예리한 눈길로 어둠속을 더듬는데 조타실창문으로 고개를 내민 선장 령감이 석쉼한 목청으로 소리질렀다.

《걱정마이소. 파도가 심해서 스크류(추진기)가 물밖에 나오모 그런 소리가 납니더. 여기가 기중 파도가 험한데라요.》

빼빼마른 몸집에 키도 크지 않았지만 목소리만은 엄청나게 굵은 령감이였다.

《의장선생! 여기가 어덴지 압니껴?》

(여기가 어디라니?)

여느때도 대가리, 꽁지 없는 말을 곧잘 해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놓기가 일쑤인 선장이였다.

《바로 여기지요. 〈우끼시마마루〉가 폭파된기 말입니더.》

《우끼시마마루》라는 소리에 덕수는 흠칫했다.

해방의 환희에 넘쳐있던 1945년 8월 24일, 노예살이멍에를 벗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재일동포들을 가득 태운 일본해군소속 려객수송선 《우끼시마마루》가 난바다복판에서 갑자기 원인모를 폭발을 일으켰다. 그 참사로 하여 수천명이나 되는 동포들이 무참히 희생되였다. 하지만 일본당국은 아직까지 사죄 한마디 없었고 그 원인조차 밝히려 하지 않았다.

(여기란 말이지! 그 배가 여기에서 폭파되고 여기에서 우리 동포들이…)

덕수의 눈앞에는 해방의 감격에 눈물을 머금은 동포들의 모습, 한많은 이국살이원한을 이제 만나게 될 부모처자들과의 상봉으로 달

래며 그 꿈같은 순간을 고대하면서 가슴들먹였을 동포들의 모습이 우렷이 떠올랐다. 난생처음 보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좋아라 웃고 떠들며 갑판을 뛰여다녔을 아이들 모습도 생생하니 상기됐다. 그러나 갑자기 터져오른 폭음과 치솟는 물기둥! 일대 수라장으로 변한 선실과 갑판, 서로 안타까이 찾고 부르고 하다가 가라앉는 배와 함께 한많은 원을 가슴에 품은채 난바다에서 수중고혼이 되였을 불쌍한 동포들…

저절로 숨이 막히였다. 수천명이나 되는 동포들의 원혼을 그대로 삼키고도 무심하게 설레이는 바다를 덕수는 이윽토록 굽어보았다. 이 바다는 물론 얼마나 많은 동포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현해탄인가! 피와 눈물로 얼룩졌다기보다 동포들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아니, 그들의 사무친 원한으로 설레이는 현해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찌 현해탄뿐이랴! 탄광이면 탄광, 광산이면 광산, 일본땅 그 어느곳을 파헤친다 해도 우리 동포들이 묻혀있지 않는데가 어데 있으랴! 북해도의 유바리나 규슈의 찌꾸호탄광에는 아직도 버럭돌 하나만 댕그라니 놓여있는 동포들의 묘아닌 묘가 얼마나 많고 저 시모노세끼의 해저턴넬속에는 또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묘지도 없이 수장당하고말았는가! 관동대진재때 자경단의 죽창에 찔려죽고 생매장당해 죽은 2만3천여명의 동포들은 아직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그 원한과 수난과 설음, 그것은 오로지 나라없는 죄로 하여 당한 설음이였고 나라잃은 백성이여서 겪어야 했던 수난이였다.

(하지만 이제부턴 안된다! 우리에게도 이젠 우리를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어머니품, 조국이 있다. 지난날 죄없이 흘린 피의 대가를 받아낼테다. 기어이 받아내고야말테다!)

이런 생각에 젖어있는데 다시 선장이 소리질렀다.

《의장선생은 고향이 어뎁니껴?》

조타실창문으로 얼굴을 내민 선장은 덕수가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제 말부터 했다.

《내 고향은 포항인데 지금 가는 이 길로 곧바로 가믄 거기가 바

로 포항이라요.》

덕수도 배가 포항을 향해 가다가 다시 원산쪽으로 북상하게 된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으나 포항이라는 말은 은연중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내 고향도 포항에서 멀지 않지요. 대구니까요.》

《대구요? 아이고 그라믄 우린 서로 같은 문둥이가 아닙니껴, 예?》

선장은 마치 어떤 신기한것을 발견하기라도 한것처럼 또 그것은 자기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틀림없이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는듯 한 그런 눈길로 덕수를 바라보았다.

《그라믄 선상도 거기에 친척들이 있겠십니더?》

《아버님과 누님이 계시지요.》

고개를 끄덕이던 선장은 갑자기 무슨 징후를 발견했는지 조타를 한쪽방향으로 팽이처럼 돌려대기 시작했다. 미리 배머리를 돌려 덮쳐드는 파도를 피하려는것 같았다.

(고향이라…)

덕수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고향을 그릴 때면 먼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때면 또 언제 한평생 고생만 한 그 아버지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지난날의 일들을 사죄할가 하고 고대해왔으나 오늘까지도 그 소원을 풀수가 없었다. 더우기 지금 고향땅을 가까이 하고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더없이 아프게 허비였다.

(아버님!)

그는 조용히 입속으로 되뇌였다.

(마흔이 다 된 오늘까지도 아버님께 효도 한번 드리지 못한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전 지금 아버지가 기다리신다는것을 알면서도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가는것이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나서자란 곳을 고향이라 부르고 그 고향이 있는 곳을 조국이라 하지만 저는 나서자란 곳도 아니고 아버지는 물론 일가친척 하나 없는 곳을 조국이라 부르며 그리로 가고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땐가는 아버지도 제가 품은 뜻을 아시게 되고 그때면 꼭 기뻐하실것입니다.)

어느새 눈을 뜨기 어렵게 불어치는 맵짠 바람과 무섭게 울부짖는 파도소리, 곧추 일어선 파도의 검은 장벽이 배머리를 후려쳤다. 그러나 덕수의 가슴속에서는 이루 형언할수 없는 흥분과 격정이 사품쳐올랐다.

그것은 꿈만 같은 현실에 대한 무한한 기쁨과 환희였으며 자기 생에 대한 뜨거운 희열과 랑만이였다. 그리고 또 앞으로 조국에서 겪게 될 가지가지의 일에 대한 흐뭇한 기대의 정이였다.

평소에도 감정이 북받치면 노래를 부르거나 즉흥시를 읊군 하는 그였지만 지금은 여느때의 그런 흥분이나 충동이 아니라 난생처음 체험해보는 그런 류다른 격정이 가슴을 태우는것이였다. 더없이 열광적이고도 숭엄한 감정에 도취된 그는 조용히 시를 읊기 시작했다.

조국애에 불타는 60만동포들의
뜨거운 마음을 이 한몸에 안고
조국으로 가는 길 성스러운 이 길!

은연중 목이 메여오른 그는 고개를 들고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조국이 있는 북쪽하늘을 바라보았다. 북두칠성이 자리잡은 그 웃쪽에서 유난히 밝은 빛을 뿌리고있는 새별을 바라보느라니 그의 가슴은 더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 쪼각배야 력사의 이 배야
격랑을 헤치고 어서어서 달려라
바다너머 저 멀리 그리운 조국땅에
우리를 기다리실 장군님이 계신다
우리를 안아주실 장군님이 계신다
…

덕수의 격정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배전을 후려갈긴 드세찬 파도가 다시금 야광주같은 은구슬들을 밤하늘 가득히 황홀하게 뿌려놓았다.

제 1 장

1

눈이 내리고있었다. 함박눈이였다.

기세좋게 펑펑 쏟아져내리는 눈송이들이 얼마나 크고 소담스러운지 귀를 기울이면 어떤 정가로운 소리가 들릴것만 같았다.

아침까지만 해도 좁쌀알같은 싸락눈을 조금씩 쥐여뿌리던 하늘이 한나절이 되면서부터는 호함진 눈송이들을 마구 쏟아놓았다. 어느덧 이해도 다 저물어가는데다가 오늘은 년간계획을 앞당겨끝냈다는 자랑찬 소식도 있으니 그걸 위해 한껏 축하의 꽃보라를 뿌려주는듯싶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집무실의 창가에 서시여 흰눈이 내려덮이는 정원을 바라보고계시였다.

방금 있은 내각산업부문일군회의에서 48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과업들이 빛나게 수행됨에 따라 규모가 작고 복구하기 쉬운 공장들은 물론 나라의 중요한 공장, 기업소들까지 거의나 복구된것을 자랑차게 총화지으신 그이이시였다. 만장이 환희로 끓던 그 시각의 흥분이 아직도 그이의 가슴속에 그대로 어리여있었다.

공화국이 창건된지 석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는 놀라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었다.

황철로동계급은 단 이태사이에 왜놈들이 10년이 걸려도 다시 돌리지 못한다고 한 해탄로와 용광로를 살려냈으며 올해에는 또 선재압연공장까지 확장하여 강재를 쾅쾅 뽑아내고있었다. 얼마전에는 평양화학공장과 부령발전소를 비롯한 큰 기업소들이 복구개건되고 지방에 있는 중소규모의 공장들과 합작사들도 자체의 힘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있었다. 농민들의 기세도 좋았다. 평남도에서는 수

백리밖에서 물줄기를 끌어오는 관개공사를 농민들자체의 힘으로 해제끼고있었다.

정녕 공화국의 창건과 더불어 착취받고 압박받던 인민대중이 동방에서 처음으로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위용을 떨치고있었다. 새 조국건설의 나날에 인민들은 벌써 자기들이야말로 사회와 국가의 당당한 주인이며 자기들이 떨쳐일어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굳게 가지게 되였다. 공화국창건은 그야말로 인간탄생의 장엄한 선언이기도 했다.

인민들의 이런 불같은 기세와 신심을 헤아려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앞으로 단 두해사이에 진행할 부흥기의 과업 즉 아직 채 복구하지 못한 공장들을 완전히 복구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해방전 수준을 훨씬 뛰여넘어서기 위한 웅대한 전망을 펼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끓어오르는 열정을 느끼며 먼 하늘쪽으로 시선을 옮기시였다. 눈발이 자욱히 드리운 광막한 하늘을 바라보느라니 문득 여태껏 잊고있었던 한가지 생각이 되살아나시였다.

(그러니 오늘도 소식이 없는 모양인가?)

은연중 무거운 숨을 톺으시였다. 공화국창건절을 계기로 조국에 초청한, 그래서 이제는 올 때가 되였다고 믿고있는 재일조선인대표들에 대한 생각이시였다. 날이 갈수록 그들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지기만 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들려오는 새 소식을 접할 때는 물론 크고작은 일들을 끝낸 깊은 밤이면 의례히 그들에 대한 생각에 젖어들군 하시였다. 혹시 놈들의 방해책동으로 떠나지 못하지나 않았는지? 아니, 《해방신문》에는 분명 공화국창건축하단을 무어 기어이 조국으로 간다고 했었다. 그럼 지금쯤 난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있지나 않는지? 그들을 마중할 사람을 원산에 내려보냈고 동해안의 해군부대에까지 해당한 지시를 주었지만 자못 근심이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장령복차림의 강건이 문앞에 서있었다.

최근 인민군대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고 그를 부르시였던것이다. 아울러 제1중앙군관학교사업이 아직도 제대

로 진척되지 못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였기에 강건을 통해 실태를 알아보시고 오늘 그와 함께 현지에 나가볼 계획이시였다.

강건의 표정에서 떠날 때가 되였다는 기미를 읽으신 장군님께서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나서 말씀하시였다.

《아직 시간이 있지 않소. 그렇게 한자리에 굳어있지 말고 이리 오오. 담배나 한대 피우고 떠나기요.》

언제나 짧게 말하고 짧게 대답하면서 지나치게 절도를 중시하는 강건이여서 마주할 때면 은근히 불편스러워지는 장군님이시였다. 일부러 한두마디 롱담도 던져보지만 그에게만은 그것도 잘 통하지 않았다. 워낙 유격대에서 싸울 때부터 오직 맡은 임무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행동해온 그가 요즘에 와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라는 직책과 어깨우에 놓인 장령별로 하여 한결 더 심중해진것 같았다.

가까이 다가서는 강건을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시였다. 언제 봐야 변함없이 규칙적인 강건이라는 느낌도 느낌이였지만 방금까지 경제문제를 놓고 사색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군사문제를 놓고 론의해야 한다는, 말하자면 사색의 지나친 비약과 함께 그런 비약을 필수적으로 하는 새 조국건설사업자체가 가져다주는 열정과 흥분으로 하여 새나오는 미소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런 벅찬 소용돌이속에 계시는 자신이 기뻤고 만족스러우시였다.

원탁우에 있는 담배곽에서 담배를 꺼내드신 그이께서는 강건에게 권하시였다.

이때 손기척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서 책임부관 최진이 방안으로 들어섰다. 그뒤에는 키가 성큼한 림춘호가 따라서고있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회의지도를 하시는 사이 전화가 있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경위중대원이였던 최진은 예나 지금이나 장군님을 보좌하는 임무는 물론 군복차림새며 지어는 엄숙한 표정까지도 변함이 없었다.

《전화라니?》

《원산에 내려가있는 지영동무한테서 왔습니다.》

《지영이한테서?!》

장군님의 눈에서는 대뜸 밝은 불꽃이 번쩍하고 작렬했다. 성큼 최진이앞으로 다가서신 그이께서는 다그쳐 물으시였다.

《그래, 그가 뭐라고 했소?》

《재일조선인대표단일행이 마침내 오늘 새벽 쪽배나 다름없는 조그마한 어선을 타고 원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재일조선인대표단이?!》

이렇게 되받아 외우신 장군님께서는 그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할지 어떨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는듯 다시 물으시였다.

《아니, 그게 사실이요?》

그이께서는 마치 최진의 표정을 통해 그 진실여부를 확인하려는듯 그를 유심히 지켜보시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곧 미소가 실리였다. 눈가에 어리였던 밝은 빛이 점점 입가에 번지는듯 하더니 어느새 환한 불길이 되여 만면을 활활 태우는것이였다.

《왔구만, 음? 마침내 오고야말았어!》

기쁨이 넘치는 눈길로 최진을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이것 보오, 강건동무! 우리가 그처럼 기다리던 재일조선인대표들이 조국에 왔다오. 그래 누가 왔다오, 몇명이나 되고?》

장군님께서는 다시 최진을 마주보시였다.

《조련의장중의 한사람인 한덕수동무가 여섯명의 대표들과 함께 왔다고 합니다.》

《한덕수? 역시 한덕수동무가 왔구만. 나도 그가 올줄 알았소. 그가 오리라고 믿었단 말이요!》

장군님께서는 그제야 모든 사실을 믿어마지 않는다는듯 호탕한 웃음을 터치시였다.

《한덕수동문 조련의장들중에 제일 젊은 동무요. 지영동무 말에 의하면 남달리 대가 세고 애국심이 강해서 동포들속에서 아주 신망이 높다고 합니다. 지영동무를 4월련석회의때 조련대표의 한사람으로 평양에 보낸것도 바로 그였다니까…》

강건은 물론 방금 들어선 림춘호까지도 이처럼 기뻐하시는 장군님을 보기가 드문 일이여서 눈을 슴뻑이였다.

《저…》

아직도 자기의 보고가 끝나지 않았다는것을 알리려는듯 고개를 든 최진이 재일조선인대표들이 왔다는 소식이 있으면 림춘호를 자신께 보내달라고 하신 장군님지시대로 그를 불러왔다는것까지 덧붙이고나서야 뒤로 물러섰다.

《알겠소. 내가 림동무를 찾은건 림동무가 재일조선인대표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기때문이요. 처지는 서로 다르다 해도 일본에서 일하나 중국에서 일하나 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일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니요. 그래서 동북에 들어가는 길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강건동무!》

장군님께서는 곧 강건에게로 돌아서시였다.

《아무래도 우리가 계획했던 일은 뒤로 미루어야 할것 같습니다. 재일조선인대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른 일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할 여유가 생기지 않는구만.》

여느때없이 기뻐하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통해 자기가 계획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리라는것을 짐작하고있었다는듯 강건은 꽉 다문 입술에 더욱 힘을 주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던 사람들입니까. 또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글쎄 얼마나 조국이 그리웠으면 쪽배나 다름없는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겠나 말입니다. 혹시 추운 날씨에 동상이라도 입지 않았는지… 자, 우리 이젠 앉아서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겠는가 하는걸 토론해봅시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조국에서 벌어지는 이러저러한 일들로 하여 마음이 즐거우셨다면 이번에는 조국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해외에서 사는 교포들의 문제, 당장은 조국에 처음으로 온 재일조선인대표들을 맞이할 일로 해서 더욱 벅찬 희열을 느끼는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또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급전된 사색속에 잠겨들면서 먼 해외에까지 닿아있는 새 조국건설사업의 거대한 폭과 깊이를 새삼스레 절감하시였다.

의자가 있는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던 장군님께서는 강건을 돌아보시였다. 변함없이 꼿꼿한 자세로 한자리에 서있는 그의 표정이 마음에 걸리시였다.

《왜 그러구 섰습니까? 강건동무도 해외교포들과는 무관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초까지 재중동포들이 있는 동북지구에서 활동했으니 말입니다.》

사실 강건은 장군님의 지시에 따라 해방직전부터 동북에서 활동했었다.

1945년 8월,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성전을 위해 조국으로 진군하는 강건에게 부대를 이끌고 중국동북지구에 진출하여 발악적으로 나오는 일본관동군을 제압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었다. 한창 고조기에 이른 중국혁명을 도우려는 의도와 함께 그 일대 주민의 절대다수인 조선사람들을 패잔병들의 만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강건은 그때 길동분구사령원으로서 조선사람들을 보호하는 임무와 함께 국민당반동군벌들을 소탕하는 동북해방전투까지 빛나게 치르었다. 그 과정에 그는 오랜 세월 청춘을 바쳐 받들어온 혁명이라는 거창한 사업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심장으로 깨달았다. 혁명은 조국해방이라는 위대한 성업인 동시에 자기 동포들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처절한 혈전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중국 전령토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이 결정적인 우세를 차지하게 되자 그를 조국으로 소환하시고 대신 이미부터 재중동포들과 련계가 있던 림춘호를 동북에 파견하시였다. 그의 임무는 군사활동이 아니라 연변지구에 있는 동포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것이였다.

그때부터 림춘호는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길에 들어가 사업하는터였다.

얼마전 조국에 온 림춘호에게서 그동안의 사업정형과 재중동포들의 생활정형을 보고받으신 장군님께서는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올수 있다는것을 예견하시고 그를 대기시키시였던것이다.

《일본땅에서 갖은 천대를 다 받으며 살던 그들이 지금 조국땅을 밟고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긴 의자가 놓여있는 곳에 이르신 장군님께서는 흥분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 역시 오랜 세월 이역땅에서 싸우다가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때의 감정이 순수 감격이나 기쁨만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역땅에 살면서 조국을 애타게 그리던 사람들만이 조국의 귀중함을 잘 알고 또 그런 사람들이기때문에 결코 눈물없이는 조국땅을 밟을수가 없는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림동무!》
《…》
림춘호는 언제나처럼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옆에 있는 강건을 슬며시 건너다보았다. 장군님께 말씀을 올리고싶지만 자기의 변변치 못한 구변을 생각하고는 그것을 좀 대신해주었으면 하고 쳐다보는 눈치였으나 큰 별이 번쩍이는 장령복을 입고있는 강건은 그런데는 상관해서 안된다는듯이 네모난 턱을 쳐들고 부동자세로 서있기만 했다.
그런 두사람을 지켜보던 장군님께서는 웃음을 머금으시였다. 다정한 사람들의 낯익은 버릇을 대하게 될 때 지으시는 미소였다.
림춘호와 강건, 성격은 물론 살아온 경위도 판이한 두사람이였다. 경상도에서 태여나 어려서부터 로동판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유격대에 들어와 지휘관이 된 강건은 그야말로 모루우에서 벼려낸 강철같이 굳고 모가 서있다면 중학을 거쳐 고려의학을 밑천으로 유격대군의로, 나아가서는 정치일군으로 성장한 림춘호는 누가 봐도 인심좋은 약국장이였다.
림춘호는 원래 말이 없을뿐더러 웬만한 감정은 내비치기 싫어하는 성미였다. 아무리 우스운 일이 있어도 덤덤한 태도로 낯색 한번 달리하지 않는것은 물론 남들이 배를 그러쥘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입귀를 소리없이 실룩해보이는게 고작이였다.
실은 남달리 다감하고 섬세한 감정을 타고나서 공청시절에는 연예공작도 훌륭하게 감당했으나 그후에 시작된 유격대군의생활이 그를 무뚝뚝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말았다. 마취제는 고사하고 수술칼 하나 변변한것이 없는 조건에서 생살을 도려내고 파편을 꺼낸다음 봉합까지 해야 하는 그 간고한 처치과정이 그를 어느새 근엄한 인간으로 변신케 했던것이다.
《장군님!》

이윽고 강건이 한걸음 앞으로 나서며 무겁게 닫긴 입을 열었다.

《한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하시오.》

《다름이 아니라 저는 3시까지 제1중앙군관학교에 도착해야 합니다. 장군님께서 그리로 가시리라는것을 예견하고 지휘관들을 거기에 다 모이도록 지시해놓았는데 이젠 시간이…》

《음, 그렇지.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댔구만. 어찌겠소, 지휘관들에게 전달해주시오. 내가 오늘은 못 가지만 며칠후엔 꼭 간다고 말이요.》

장군님말씀이 끝나기 바쁘게 강건은 원탁우에 있는 모자를 쓰고 차렷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당장 돌아설듯싶던 강건이 잠시 주춤거리였다. 장군님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한순간 자리를 뜨기 서운해하는 표정이 스쳤다.

《걱정마오. 일본에서 온 동무들한테는 내가 대신해서 강건동무의 인사도 전할테니.》

《고맙습니다, 장군님.》

그제야 강건은 힘주어 대답하고는 문쪽으로 돌아섰다.

그런 모습을 미더운 눈길로 지켜보던 장군님께서는 강건이 문을 열고 나가자 림춘호에게로 다가서시였다.

《림동무! 지금 밖에는 눈이 내립니다. 꽃같은 눈입니다. 하늘도 일본에서 우리 동무들이 온줄 아는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에 시원히 눈을 맞아보는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자… 우리 밖으로 나갑시다.》

림춘호가 미처 대답도 올리기 전에 장군님께서는 그의 팔을 잡고 출입문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2

정원으로 나오신 장군님께서는 소담스레 쏟아지는 눈을 그대로 맞으며 느티나무가 서있는 아래쪽으로 향하시였다. 꽃잎같은 눈송이

들이 머리우에, 어깨우에 쉽없이 내려앉았지만 그이께서는 그렇게 눈을 맞는 멋이 더 즐거운듯 마냥 다감한 표정이시였다.

《재일조선인대표들이 조국에 왔다는 말을 들으니까 난 어쩐지 혁명의 초시기 함께 싸우던 전우들 생각이 납니다. 특히 김혁이나 차광수생각이 간절해집니다. 그들도 한때는 일본땅에서 고생을 하다가 혁명을 하겠다고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였습니까.》

미덥고 다정한 사람에 대해 상기할 때면 늘 그런것처럼 장군님의 눈가에는 따뜻한 정회의 빛이 어리였다.

《한덕수동무도 벌써 오래전에 우릴 찾아오려다가 놈들에게 붙잡혀 숱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땐 공부를 해보겠다고 대학에 적을 붙이고 신문배달, 철공로동 지어는 하늘중천에 몸을 내대야 하는 연공노릇까지 했는데 그래도 학업을 계속할수 없게 되자 동포들이 일하는 로동판에 뛰여들어 본격적인 로동운동을 시작했다는겁니다. 혁명을 하기 위해 장가도 가지 않을 결심을 하고 말이요. 참! 내 그 동무 늦장가들던 얘길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오.》

장군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손을 내저으시였다. 그 모습은 이제 들어보면 누구나 웃지 않을수 없는 일이라는것을 암시하는듯 하였다.

《그 동문 왜놈들밑에서 무슨 가정이고 행복이냐면서 나라가 해방될 때까지는 절대로 장가를 가지 않을 작정이였답니다. 그런데 고향에 있는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평생 총각으로 늙게 만들것 같아 이웃에 사는 집과 사돈을 맺고는 그 집 처녀를 다짜고짜 일본에 있는 덕수동무한테로 보냈다는겁니다. 궁벽한 산골에서 수줍게 자란 촌처녀가 현해탄을 건너 불쑥 덕수동무앞에 나타났습니다. 난생처음 보는 처녀를 마주한 덕수동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시오. 장가들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수천리밖에 있는 고향땅에서 자기를 찾아온 처녀를 되돌려보낼수도 없고… 그래서 울상이 되여있는데 그 눈치를 알아차린 처녀가 눈물이 글썽해서 덕수동무를 마주보다가 자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것입니다. 그러자 글쎄 덕수동무

가 와닥닥 자리를 차고일어나 못 간다고 두팔을 벌리고 막아나섰다는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서른일곱에 난 로총각이 열여덟살난 처녀를 신부로… 하하!》

고개를 젖히고 호탕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림춘호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윽고 느티나무아래에 이르신 장군님께서는 발을 구르며 신발에 묻은 눈을 터시였다. 그리고는 고개를 드시고 눈이 쏟아져내리는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사실 망국노의 피눈물나는 설음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재일동포들입니다. 우리와 한피줄을 타고난 그들이 어째서 부모처자와 정든 고향을 버리고 일본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까? 재일동포라는 말속에는 일본에서 산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일제의 침략력사가 빚어낸 우리 민족의 수난과 피눈물이 어리여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장군님께서는 재일동포들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군 하는 가슴아픈 사연들이 상기되시였다.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30년대말과 40년대초에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을수 없었던 사람들, 더우기 징용, 징병이라는 명목아래 노예처럼 일본땅에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재일동포들이였다.

일제는 840여만이나 되는 조선사람들을 전쟁대포밥으로 끌어갔다. 일본인로동자들이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않는 비밀공사장들과 탄광, 광산의 지옥같은 막장들에 몰아넣고는 하루 16시간이상의 노예로동을 강요했는가 하면 그렇게 마소같이 부려대면서도 초보적인 생활조건마저 지어주지 않았다. 동포들은 개우리만도 못한 다꼬베야나 함바에서 주린 창자를 달래지 않으면 안되였고 각종 로동재해나 린치를 면할수 없었으며 군사비밀엄수라는 리유로 집단적으로 무참히 학살당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일본사람들속에서 《조선사람도 사람인가》 하는 성구아닌 성구가 생겨났겠는가!

나라없는 설음을 가슴저리게 체험한 재일동포들이여서 나라가 선

오늘에 와서는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였지만 의연히 미제와 일본당국의 탄압대상으로 되고있다.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이 창건되여 우리 인민들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이역살이고생을 면치 못한 재일동포들때문에 가슴이 쓰리시였다.

늘 생각하시던 이런 문제로 하여 마음이 무거웠으나 장군님께서는 흔연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공화국창건때 초청했던 대표들이 석달이 지난 오늘에야 온걸 보면 일본이 결코 가까운 이웃은 못되는것 같습니다.》

그이의 말씀을 듣는 림춘호의 머리속에는 불현듯 석달전 공화국창건기념행사때의 일들이 떠올랐다.

공화국창건절행사에 참가하라는 련락을 받고 조국에 온 그는 당일날부터 재중동포대표와 함께 주석단에 초대되군 했었다. 경축대회와 군중시위를 비롯한 여러 기념행사들에 참가할 때마다 그는 한가지 의아스러운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장군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리 하나가 언제나 비여있는것이였다. 첫날부터 비여있는 자리가 계속 비여있기만 했다.

그는 곧 행사안내를 주관하느라고 분주히 돌아치는 리지영을 붙들었다. 4월련석회의때 조련대표로 와서부터 외무성에서 대외관계사업을 맡아보는 그와는 이미부터 사업상련계로 하여 인연이 있었다. 특히 아직도 총각인데다가 일가친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를 장군님께서 각별하게 여기신다는것도 잘 알고있는터였다.

《지영동무! 저 빈 자리는 누구 자리요? 어째서 늘 비여있기만 하오?》

《저 자리 말입니까?》

언제나 무슨 말을 할 때면 처녀처럼 곱살하게 생긴 얼굴에 홍조부터 띠우군 하는 지영이였다. 그만치 순진하면서도 방정한 젊은이였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자린 장군님께서 직접 내놓으라고 지시하시였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시는것 같습니다.》

림춘호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 올 사람은 다 온것 같았다. 멀리

중국땅에 있던 자기들까지 왔으니 빠진 사람이 있을수 없었다. 외국손님들도 예견했던대로 다 왔다고 했다. 누구를 기다리실가? 오랜 세월 장군님을 모셔온 자기가 공화국이 창건된 이 기쁜 시각에 그이께서 그리도 간절히 기다리시는 사람을 모른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여직껏 오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고 물어볼수도 없었다. 그는 장군님곁에 놓인채 늘 비여있는 의자를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군 했다.

경축연회가 있은 날이였다.

수많은 연회참가자들이 서로마다 앞을 다투어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장군님께 축배잔을 올리려 하였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사양하시면서 자신께서 먼저 술병을 드시고 매 사람들의 잔에다 손수 술을 부어주시였다. 뜻깊은 술잔을 받아든 대표들은 감사의 마음에 어쩔바를 몰라했다. 모두들 장군님을 우러르며 그이의 말씀을 기다렸다. 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이 력사적인 연회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가. 어떤 감격과 영광을 위해 첫 잔을 들자고 하실것인가! 눈부신 불빛이 그이께서 쳐드신 잔에 금빛으로 어리여 황홀하게 반짝이였다.

《동무들!》

이윽고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목소리가 만장에 울려퍼졌다.

《나는 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이 자리에서 이 첫 잔을 일본에 있는 60만재일동포들을 위해 들것을 제의합니다. 거치른 이역땅에서 나라없는 설음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누구보다도 공화국창건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았을 그들이 아닙니까. 나는 그들의 대표들만이라도 공화국창건절행사에 꼭 참가하리라고 믿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오지 못했습니다. 어쩐지 올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자리를 비워두었는데… 끝내 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리여 이 잔을 바로 그들을 위해 들자는것입니다.》

연회참가자들은 일제히 숭엄한 감정에 젖어들었다. 혈육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잔을 선뜻 입으로 가져갈수가 없었다. 감격의 선풍이 연회장을 소리없이 휩싸안았다.

(바로 그들이였구나. 여태껏 그들을 기다리시였구나. 바다건

너 먼곳에 있는 그들을 앉히시려고 자리까지 내놓고 기다리시다니!)

림춘호는 저절로 눈굽이 달아올랐다.

문득 장군님자신께서도 조국에서보다 이역땅에서 더 많은 세월을 보내시였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나라가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심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신 그때로부터 장장 20년, 만주광야의 설한풍속에서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시면서도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시고 오늘은 마침내 당당한 민주국가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장군님!

이역의 황야에서 모진 풍상고초 다 겪으신 그 장구한 나날 그 누구보다도 또 어느 한시도 조국을 애타게 그리지 않으신적이 없는 장군님이시기에 조국에 오지 못한 재일동포들에 대해 이토록 뜨겁게 여기시는것이 아니랴!

지금도 그때의 감격이 가슴에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

어느새 몇걸음 앞서신 장군님의 모습이 눈에 띄워서야 림춘호는 추억에서 깨여났다.

《같은 해외동포들이라 해도 재일동포들인 경우에는 재중동포들과는 처지가 다릅니다.》

장군님께서는 가지마다 눈을 떠이고 나란히 서있는 노가지나무들을 여겨보시면서 말씀하시였다.

《중국에 있는 재중동포들은 멀지 않아 탄생될 인민중국에서 살게 되겠지만 재일동포들은 반대로 이제까지 우리를 억압해왔을뿐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적대시할 일본이라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살게 됩니다. 더우기 지금은 미군정이 일본을 통치하고있어 재일동포들은 미제와 일제의 이중적인 탄압속에 놓여있습니다. 중국인 경우에는 쉽게 련계도 취할수 있고 림동무를 파견하듯이 사람을 보낼수도 있지만 일본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정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재일동포들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중하고도 책임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림춘호는 장군님의 말씀을 새겨들으면서 그이께서 세계 각처에 널린 해외동포들의 운명을 두고 얼마나 걱정하고계시는가를 새삼스럽

게 느끼였다.

(조국은 창건되였지만 장군님의 무거운 짐은 여전하구나.)

림춘호는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만약 우리가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한다고 하여 자기 조국의 령토안에서 사는 인민의 존엄과 권리만을 주장하고 해외에서 사는 동포들은 여전히 탄압과 억압의 대상으로 남아있게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민족적의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는것으로 될뿐아니라 자기 임무를 포기하는것으로 됩니다. 세상에 제 자식이 남의 집에서 구박을 받으며 사는것을 보고도 그대로 참는 부모는 없을것입니다. 지금 재일동포들이 비록 일본땅에 몸을 두고있기는 하지만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 머리를 들고 떳떳이 살아나갈수 있게 하는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 대한 우리의 동포애적도리이고 의무입니다.》

림춘호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흔히 있는 평범한 사실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물론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경우에도 대뜸 리해될수 있게 명백하게 일깨워주시는 장군님이시였다. 그러나 얼핏 듣기에는 응당하고 명백한것 같지만 따져보면 볼수록 그 명백하고 응당한것이 더없이 심오한 뜻과 천근의 무게를 가지고 안겨오군 했는데 그때면 장군님의 사색의 폭과 깊이에 대해 새삼스레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모르긴 해도 세상사의 모든 리치를 그렇듯 심오하게 투시해보시면서도 명백하게 결론지으시는 바로 거기에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독특한 예지와 안목이 있는듯싶었다.

《전에도 말했지만 재중동포들인 경우에는 하루빨리 생활을 안착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자면 왜놈들의 조중민족리간책동으로 생긴 엄중한 후과부터 빨리 가셔내야 합니다.

지난 4월, 길림성장 주보중동무가 왔을 때 그도 바로 그 문제가 제일 골치거리라고 했습니다. 주보중동무야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림동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난 림동무가 그와 합심해서 이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어린 눈길로 림춘호를 여겨보시던 그이께서는 저 앞쪽에

시선을 멈추고는 의아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아하, 저 동무들이 눈을 칠 잡도리구만.》

림춘호는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거기에는 웃동을 벗어붙인 여러명의 경위대원들이 겨울내의바람으로 모여있는데 손에 눈가래나 싸리비자루를 들고있는것으로 보아 이제부터 눈을 치려는상싶었다. 싱글벙글 웃으며 허리를 굽혔다폈다 하기도하고 팔을 빙빙 돌리며 기세를 올리는 품이 하나같이 사기들이 나있었다. 겨울내의소매까지 둥둥 걷어붙인 경위대원들이 어느새 눈을 치기 시작했다. 기다란 비자루로 커다란 호를 그어나가는가 하면 어떤 대원은 심술궂게도 숫눈이 하얗게 깔린 차도 한복판을 뭉청 동강내고있었다. 눈가래나 비자루가 미치는데마다 하얀 눈이 벗겨지면서 시꺼먼 세멘트바닥이 상처처럼 드러났다.

림춘호는 장군님의 기색을 얼핏 돌아보았다. 장군님께서는 아름답게 이루어지던 설경이 망가지는것이 못내 아쉬운듯 모두숨을 내쉬시였다.

《제가 저 동무들한테 가서 눈을 차차 쓸라고 말해보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듯 고개를 저으시였다.

《그런다고 저 동무들이 그런 사정을 들어줄것 같습니까. 괜히 그랬다간 자기네 임무와 규정들을 하나하나 내리꼽으면서 되려 동물규정위반자로 몰아댈겁니다. 하지만 한번 말은 해봅시다.》

장군님께서는 눈치기가 한창인 후문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경위대원들은 점점 더 성수가 나는듯 두세사람씩 짝을 무어 윽윽소리까지 지르면서 눈가래를 밀어댔다.

《동무들,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겠소?》

경위대원들앞으로 다가서신 장군님께서는 누구에게라없이 말씀하시였다. 일손을 멈춘 경위대원들이 하나같이 자세를 바로잡았다.

《이제 여기로 귀중한 손님들이 오게 되오. 먼곳에서, 수천리 떨어진 머나먼 이국땅에서 오게 된단 말이요. 조국을 보러, 조국의 향기를 맡으러 난생처음 오는 동무들인데 어떻소? 오늘은 눈을 쓸지 않는게 말이요. 조국의 겨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것을 있

는 그대로 보여주잔 말이요. 제 나라, 제 조국의 자연은 우리모두한테 어머니모습과 같은것이 아니겠소.》

장군님께서는 벌써 덕수네 일행을 맞이하는 심정인듯 명상에 잠겨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따뜻한 눈길이 가닿는 곳에 그 어떤 아름답고 신비한 세계가 펼쳐지는듯싶었다. 경위대원들도 장군님께서 그려보시는 그 황홀한 세계에 휩싸이는듯 하였다.

3

덕수는 숨을 죽인채 내각청사로 들어섰다.

현관 맞은켠에 엄청나게 큰 화분이 량쪽에 놓여있고 그가운데로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었으나 그는 거기에 눈을 팔기는커녕 옆사람조차 돌아보지 못했다. 너무도 가슴이 활랑거려 숨이 가빠지기만 했다. 자기들이 어떻게 원산에서 기차를 탔는지 또 언제 평양에 도착하였고 또 언제 눈내리는 정원길을 지나 장군님 계시는 이 내각청사로 들어섰는지 알수가 없었다. 발밑에 밟히는 푸른 주단도 하늘처럼 느껴지는가 하면 계단을 오르는 자기들은 그 하늘 어디론가를 향해 둥둥 떠가는것만 같았다.

2층에 올라섰을 때였다. 한쪽굽인돌이를 향해 돌아서는데 갑자기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반갑습니다, 동무들!》

대표단성원들은 모두 한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곤색양복에 빗살문양의 넥타이를 매신 장군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띠우신채 이쪽으로 다가오고계시였다.

《정말 반갑습니다. 머나먼 이역땅에서 조국을 찾아온 동무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대표단성원들에게로 다가서신 장군님께서는 매 사람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추운데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겠다고, 어디 다친데는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대표단성원들을 살피시는 그이의 다정한 눈길에는 잃었던 자식들을 다시 찾은 어버이의 다함없는 기쁨과 사

랑이 뜨겁게 타오르고있었다.

《덕수동무!》

장군님께서는 덕수를 바라보시며 다정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난 이미부터 동무를 알고있습니다. 동무가 동포들을 위해 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다는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린 오늘 처음 만나지만 구면인셈입니다.》

《…》

덕수는 여전히 멍하니 서있기만 했다. 마치 장군님께서 자기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것 같이 생각되였다.

사실 그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있었다. 갖가지 상념들과 충격이 너무나도 일시에, 또 너무나도 강하게 마음을 차지했기때문에 눈을 뜨고있기는 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고개를 숙인 대표단성원들은 어느새 어깨를 들먹이기도 하고 눈언저리를 씻어대기도 했지만 그는 그 흐느낌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장군님을 뵙게 되면 올리리라 그처럼 속으로 벼르고벼르던 인사의 말마디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가슴속에는 오직 흉곽을 때리는 심장의 박동소리만 꽉 차있을뿐이였다. 바로 그 심장의 박동이 더더욱 온몸의 피를 끓게 하면서 잠시도 무엇을 생각하거나 따져볼 여유를 주지 않는것이였다.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하는것은 눈앞에 서계시는 장군님모습이 자기가 여태껏 머리속에 그려오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점이였다.

장군님모습을 그릴 때면 그의 눈앞에는 언제나 지울래야 지울수없이 새겨지는 한폭의 뚜렷한 영상이 있었다. 그 영상은 백두광야의 설한풍을 헤치며 일제야수들에게 무리죽음을 선고하고 놈들을 삼대베듯 쓸어눕히시는 백전로장의 도도한 위풍과 함께 삼천만겨레를 한품에 안고 재생의 활력을 부어주시는 구세주와 같이 거룩하신 모습이였다.

이미 여러차례 장군님의 사진을 보아온 그였지만 가슴속에 새겨진 그이의 영상은 이처럼 따로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앞에 서계시는 장군님모습은 여태껏 그토록 확신해마지 않던 모습과는 너무나

도 판이하지 않은가? 우선 너무나도 젊고 너무나도 평범한 차림새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들과 같은 수수한 옷을 입고 자기들이 쓰는 평범한 사무실에서 자기들이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이분이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라니?

그로서는 어디까지나 장군님이시라면 자기를 포함한 일반사람들과는 다를뿐아니라 달라야 하며 또 달라도 엄청나게 다르지 않을수 없다고 믿어마지 않던터였다. 그래서 줄곧 꿈을 꾸고있는 사람처럼 굳어져있는것이였다.

덕수가 그런 정신상태로 하여 망연자실해있었다면 장군님께서는 장군님대로 생각이 많으시였다. 덕수의 표정을 통해 그가 지금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한가지 생각에 옴해있다는것과 거기에서 미처 헤여나오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짐작하시였다. 그러나 첫눈에도 나이에 비해 걸늙어보이는 모습은 못내 마음에 걸리시였다.

(이제 겨우 세살짜리 아들 하나를 둔 사람이 이렇게 늙어보이다니? 풍파사나운 이국살이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지만 전체 모습, 크지 않은 다부진 몸매며 둥그스름한 얼굴, 우뚝한 코마루는 그에 대한 말을 들을적마다 눈앞에 그려지군 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어딘가 무뚝뚝하고 과묵하게 느껴지기는 했으나 눈빛이며 숱진 눈섭 그리고 량옆으로 벗어져 올라간 이마까지도 상상하던 그대로였다. 다만 생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남달리 고집이 세다는 그였으나 얼굴전체에서 풍기는 인상은 도리여 성이라고는 한번도 내본적이 없는 푸수한 농부와도 같이 더없이 온화한, 그런 순박하면서도 무던한 표정으로 해서 다시금 웃음을 머금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풀어줄겸 다감한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화제를 돌려야겠다고 생각하시였다.

《자, 이젠 그만하십시오. 너무 그러면 조국을 찾아오는 동무들을 고생시킨 우리 마음도 괴롭지 않습니까. 자— 인사들 하시오. 부수상동무들입니다. 그리고 재중동포들과 사업하기 위해 동북에 파견돼있는 림춘호동무입니다.》

뒤쪽에 서있는 박헌영과 홍명희, 림춘호를 차례로 가리켜보이신 그이께서는 이제부터는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해보자는 뜻으로 집무

실안에 있는 긴의자쪽으로 향하시였다.
《동무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 모두들 조국이 처음일텐데 처음보는 인상이 어떻습니까?》
그이께서는 한쪽옆에 자리잡은 진규에게로 시선을 옮기시였다.
《어디 진규동무부터 말해보시오. 조국땅을 밟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대답을 올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는 진규를 그이께서는 손목을 잡아 자리에 앉히시였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량반가문의 장손으로 례절바르게 자라온데다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식과 도덕을 체질로 겸비한 진규는 장군님앞에 앉아서 말씀드리기가 송구한듯 몸을 궁싯거리다가 종내 자리에서 일어나고야말았다.
《장군님! 전 사실 조국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제때긴 하지만 대학을 다닐 때 며칠동안 평양이며 동룡굴이며 금강산을 돌아본적이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뜻밖이라는듯 놀라운 시선으로 진규를 바라보았다.
그때 여러곳을 다니던 일이며 그때와 달라진 오늘의 평양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는 이번에 조국에 와서 무엇보다 인상깊은것은 고향을 떠난 후 처음으로 온돌방에서 자본것이라고 말씀올렸다.
《온돌방이라… 하긴 일본에는 구들집이라고는 없을테니까.》
진규의 솔직한 대답에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래, 그 온돌방에서 자면서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누비돗자리가 아닌 딴딴한 구들이여서 그랬는지 넓은 신작로에 네활개를 펴고 누워있는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어느새 진규의 얼굴에도 웃음이 어리였다.
《신작로에 네활개를 펴고 누웠다.… 좋은 꿈이요. 그런 꿈을 꾼건 남의 나라, 남의 집에서 불편한 세방살이를 하다가 제집에 왔기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진규옆에 앉아있는 서민이에게 물으시였다.
《서민동무는 아마 온돌방을 처음 보겠는데…》
《그렇습니다, 장군님!》

자리에서 일어난 서민은 지명을 받은 학생처럼 두손을 허벅다리에 붙인채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대답올렸다.

《전 정신이 들었을 때 방바닥이 절절 끓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불이 난게 아닌가 해서 얼른 부엌문을 열어보았는데 글쎄 사람이 자는 방에다 굴을 뚫어놓고 불을 땔줄이야…》

여기저기서 웃음이 일었다.

《그걸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래지더니 사람을 튀기할 작정이냐면서 당장 이불을 걷어안고 웃방으로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맞은켠에 앉아있던 지영이의 말에 폭소가 터져올랐다.

《장군님!…》

이번에는 한쪽이마에 반창고를 붙이고있는 현우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이제 당장 자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누가 빼앗는다고 여기는것 같았다.

이마에 붙어있는 반창고는 멀미에 녹초가 돼버린 그가 골패쪽처럼 이리저리 내굴리우다가 선실구석에 있는 화로를 들이받아 생긴 화상때문이였다. 그러고보면 그가 멀미를 막는 대책이라면서 모두의 배꼽에다 붙이게 한 반창고가 그자신에게는 이마에 올라가붙은 꼴이 되고만셈이였다.

《저는 날이 밝기 바쁘게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려관앞 골목길로 치마저고리를 입은 한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동이를 머리에 인 모습! 더우기 처녀의 길게 땋은 머리태에 갑사댕기까지 달려있는것을 보자 저절로 고향에 있는 누님생각이 나면서 아— 바로 여기가 조국이구나 하는 충격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어쩐지 목이 메여올랐습니다.》

《물동이를 인 처녀의 모습이라…》

장군님께서는 나직이 되뇌이시였다.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조국이라는 표상은 언제나 그렇게 구체적인것으로부터 시작되는것 같습니다. 나 역시 산에서 싸울 때 고향을 그릴 때면 늘 집앞뜰에 있는 자그마한 박우물부터 눈앞에 떠오르군 했습니다. 그 박우물이 어머니모습을 불러오고 그 어머니모습이 다시 조국에 대한 생각과 련결되군 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다른 대표단성원들에게도 일일이 소감을 다 물어보신 다음에야 덕수쪽으로 돌아앉으시였다. 그러나 덕수의 표정을 통해 아직까지도 그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아보시였다.

아닌게아니라 덕수는 여전히 자기 상념의 바다에서 헤여나지 못하고있었다.

이제는 장군님의 모습, 더없이 부드러우면서도 예지가 넘치는 안광이며 열정이 끓는 우렁우렁한 목소리, 특히 웃으실 때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절로 마음이 즐거워지게 하는 볼우물까지도 똑똑히 가려볼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나도 뛰여나게 수려하신 장군님의 그 미목으로 하여 어리둥절해있었다. 방금전에는 장군님모습이 자기가 상상해오던 모습과 차이를 이루고있어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면 이제와서는 너무나도 광휘로운 장군님의 모습으로 하여 정신을 가다듬을수 없었다.

(저 웃음을 머금은 부드러운 눈길, 얼마나 따뜻한 사랑과 인정에 넘쳐있는가! 활짝 웃으시기만 하면 주위는 물론 온 세상이 다 환해지지 않는가!)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가슴을 후덥게 달구었다. 어디에 또 무엇에 감사하다는것이 없이 단지 장군님께서 이렇게도 젊으시고 이렇게도 환하시다는 사실자체에 그저 열번이고 백번이고 머리숙여 감사드리고싶을뿐이였다.

이런 생각에 젖어있는 그로서는 장군님께서 자기쪽을 얼핏 보시기만 해도 마치 해빛을 마주보았을 때와 같은 그런 눈부심으로 하여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졌다. 한데 다른 사람들은 장군님을 스스럼없이 마주보기도 하고 말을 주고받으며 웃기까지 하는데 그런 모습이 덕수에게는 마치 어떤 불가사의한 현상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덕수동무!》

장군님께서 자기를 마주보시는 순간 덕수는 그 눈부신 해빛이 이번에는 정면으로 자기를 비친다는것을 똑똑히 느끼며 번쩍 정신을 차렸다.

《일본에 있는 동무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조련에서 일하는 동무들 말입니다. 해방이 됐다고는 하지만 어려움이 많을텐데…》
그이의 말씀에 덕수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군님께 대답을 올리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문득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기때문이였다. 서둘러 양복안주머니에 손을 넣은 그는 거기서 한장의 사진을 꺼내들었다.
《제가 조국으로 올 때 같이 일하는 동무들이 이 사진을 저에게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장군님을 뵈올 때 꼭 이 사진을 품에 지니고 인사를 올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같이 인사를 드리는것으로 되지 않느냐면서 그렇게라도 장군님께 인사를 올리고싶다는것이였습니다.》
의외의 일이라는듯 한 표정으로 부수상들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사진을 받아드시였다.
《바로 이 사람이 김운해동무입니다.》
덕수는 나란히 서있는 사람들중 키가 크고 목이 쑥 빠진 사람을 가리켜보이였다.
《아, 이 동무가 김운해동무입니까? 오래동안 감옥살이를 했다는데 몸은 어떻습니까?》
《이젠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요직에 있으면서 조련고문으로 활약하고있습니다.》
덕수는 해방전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의 책임자였던 그가 1927년 국제공산당의 일국일당원칙이 나오자 총국을 해산하고 일본공산당에 망라되여 책임적인 위치에서 활동해온데 대해 그리고 일본공산당의 도꾸다규이찌, 시가요시오 등과 함께 군국주의를 반대해 투쟁하다가 체포되여 18년간이나 감옥생활을 하다나니 마흔이 넘은 오늘까지도 아직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있는데 대해서도 말씀올렸다.
덕수는 김운해옆에 서있는 키가 작고 몸이 똥똥한 사람을 가리켰다. 머리가 류달리 많이 벗어진것이 유표했다.
《윤덕곤이라고 동포들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일해오는데 학교를 세우는것도, 교재를 만드는것도 대체로 이 동무와 진규동무가 말

아해왔습니다. 고향이 함북 성진이여서 이번에 자기도 기어이 조국에 오겠다는걸 겨우 말렸습니다. 지금 학부형회 회장직을 맡고있습니다.》

덕수의 눈앞에는 문득 로재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방에 있는것으로 하여 사진을 찍지 못한데도 있지만 그에게는 조국에 온다는것을 알리지 않았던것이다. 그 리유는 흥분하기만 하면 두서를 가리지 못하는 성미로 하여 어떤 화단이라도 일으킬것 같아서였고 보다는 그가 요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일본공산당계렬의 일군들이라는 점이 어쩐지 조심케 만들었던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이미부터 장군님께 보고드리리라 맘먹고있었다.

《사진에는 없지만 로재호라고 가나가와현본부위원장으로 일하는 동무가 있습니다. 고향도 저와 한고향이고 로동운동도 같이하다가 감옥살이까지 함께 했습니다.》

《로재호라… 그런 동무가 있구만.》

장군님께서는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니 모두가 다 귀중한 혁명동지들이 아닙니까.》

부수상들에게 사진을 넘겨주신 장군님께서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덕수를 바라보시였다.

《혁명투쟁을 하는데서 동지들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습니다. 혁명투쟁을 하면서 내가 얻은 가장 큰 교훈도 바로 그것입니다. 억만재부를 주고도 살수도, 바꿀수도 없는것이 바로 혁명동지가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아닌 이역땅에서 투쟁하는 경우에는 그 진리가 더욱 절대적인것으로 된다고 봅니다. 이 동무들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텐데 유감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동석한 간부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시였다.

《자,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시오. 우리가 얼마나 만나고싶던 동무들입니까.》

그제야 덕수는 격정과 환희로 하여 널뛰듯 하던 심장은 물론 삼거웃처럼 마구 엉켰던 생각까지도 어느 정도 정상이 된듯싶었다.

4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덕수는 집무실에 있는 기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 계시는 집무실치고는 너무나도 소박했다.

책상이며 책장들은 말할것도 없고 창문가에 놓여있는 원탁도 더 크고 윤기가 도는것이면싶었고 쪽무이를 깐 마루바닥도 좀더 이를 맞추고 면을 고루었으면싶었다.

출입문옆에 놓여있는 화분에 시선이 미친 그는 은연중 미간이 쪼프려졌다. 그것은 그 나무가 볼만한 관상용화초도 아닌 평범한 고무나무라는데도 있었지만 한쪽으로 삐여져나간 가지를 끈으로 비끄러맨것이 분명 장군님께서 직접 손을 대신것이 헨둥했기때문이였다.

(그러니 이 내각청사에 원예사나 정원사도 한명 없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는 옆에서 자기를 유심히 지켜보고있는 사람과 눈길이 마주쳤다.

박헌영부수상이였다. 검은테안경속에서 자기를 곧바로 응시하고있는 두눈이며 꾹 다물린 입모습은 첫눈에도 무척 과묵한 사람이라는 인상과 함께 모르긴 해도 그가 첨부터 자기를 주시하고있었다는것을 짐작케 했다.

박헌영에 대해서는 덕수도 어느 정도 알고있었다.

일찌기 상해에서 청년운동을 시작한 후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다가 체포되여 감옥생활, 그러나 곧 정신병이라는 위장진단으로 가석방되여 쏘련으로 탈출, 거기서 대학을 다니다가 다시 상해로 들어왔으나 재차 검거, 해방후 서울에서 공산당을 조직했지만 놈들의 탄압이 심해지자 월북…

해외활동과 감옥살이로 일관되다싶이 한 그의 경력이였다. 그러나 덕수는 처음부터 그를 소격하게 대했는데 그 리유는 바로 지금 일본공산당 중앙후보위원으로 있으면서 조련일군들의 양

성기지의 하나인 3.1정치학원 원장이기도 한 원철이때문이였다. 해방직후 서울에 있는 박헌영을 찾아가 만나군 한 원철은 일본에 돌아오기만 하면 박헌영을 마치 무슨 영웅처럼 떠들어댔던 것이다.

오직 **김일성**장군 한분만이 조선은 물론 5대양 6대주가 다 쳐다보는 세계의 위인이라고 확신해마지 않는 덕수에게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다고 떠드는 사람을 볼 때면 그 사람에 대한 가소로움은 말할것도 없고 그가 우상으로 받드는 사람까지도 저절로 우습게 여겨졌는데 처음보는 박헌영에 대해 소외감이 생기는것도 바로 원철이때문이였다.

다른 문제도 그랬지만 사람에 대한 평가에서는 아주 명백한 견해를 가지고있는 덕수였다. 누구에 대해서건 그 사람을 제대로 알자면 후에 가서 바로잡기 힘든 오해나 편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두고두고 심중히 그리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는것을 철칙으로 여기고있는 그였으나 그 철칙이 보다 더 철저한 하나의 원칙에 준해있었다. 그 원칙이란 바로 상대가 장군님을 어떻게 받들고 따르는가 하는 그것이였다.

아무리 빛나는 투쟁경력이 있고 아는것이 많다 해도 그가 이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일 땐 사소한 아량이나 묵과도 없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드러내놓고 타매하고 질시하는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아직도 하늘이 어디고 땅이 어딘지 분간도 못하는 불쌍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가련한 존재로 치부해버리는것이였다.

《원철동무가 잘 있습니까?》

마침내 박헌영이 입을 열었다. 어조는 부드러웠으나 변함없이 곧은 시선에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에 대한 안부를 묻는다기보다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물음이라는 뜻이 더 강조되여있었다. 보매 그는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는 누구한테나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버릇돼있는것 같았다.

《난 이번에 그 동무도 올줄 알았는데…》

《그 동문 요즘 몹시 바쁜것 같습니다. 아마 다가오는 중의원선거때문에…》

덕수는 하던 말을 중동무이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의 커다란 목소리로 하여 대표단성원들과 담소하시던 장군님께서 이쪽으로 돌아보시였기때문이였다.

무슨 말을 할 때면 때와 장소에 맞게 나직한 목소리로 말할줄도 알아야겠으나 그런 조절을 제대로 할줄 모르는 덕수여서 본의아니게 분위기를 휘저어놓을 때가 있었다.

《원철이라고 일본공산당에서 김운해동무와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헌영이 안경을 밀어올리며 자리를 고쳐앉는 품이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그에 대해 장군님께 보고드려야겠다고 맘먹은것 같았다.

《감옥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여서야 출옥한 동문데 일류대학 정치과 출신으로 리론에도 밝고 통솔력이 있어서 일본공산당내에서는 유망한 일군으로 꼽히고있습니다. 해방직후 서울에 온 그를 두어번 만나보았는데 열정도 있고 포부도 아주 큰 동무였습니다.》

《나도 일본공산당안에 조선인활동가들이 여럿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중책을 지니고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장군님께서는 덕수를 보며 물으시였다.

《중앙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을 합치면 도합 열세명인데 그중 다섯명이 조선사람입니다. 김운해동무가 중앙위원이고 나머지 네사람은 후보위원들입니다.》

《열세명중 다섯명이면 근 절반이라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수밖에 없었던 사정이기도 했습니다.》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덧붙이는 박헌영의 태도는 그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사정을 잘 알고있다는것을 확신해마지 않는 태도였다.

《원래 해방전부터 일본공산당에는 조선인활동가가 적지 않았는데 그들은 해방이 되자 곧 조련을 뭇고 독자적인 활동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일본공산당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리유는 당핵심들이 투옥돼있어서 당을 재건할수가 없었던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석방을 위한 투쟁을 벌린것이 바로 조련과 재일동포들이였습니다. 결국 그 투쟁으로 하여 핵심들이 감옥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당장 당을 재건할 조직적지반이나 물질적기초는 없었습니다. 이런 때 그들을 다시 도와준것이 또 조련이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정으로 해서 자연 일본공산당안에는 조선인일군들이 늘어난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당핵심들이 감옥에서 나온것은 말할것도 없고 그들이 당을 재건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조련때문이였습니다.》

덕수는 내심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외무상을 겸한 부수상이긴 하지만 그가 조련과 일본공산당과의 관계를 그처럼 깊이 파악하고있을줄은 몰랐었다. 한마디로 표현한데 지나지 않지만 일본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고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였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본공산당이 조련에 의해 재건됐다 그 말입니까?》

장군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눈길로 박헌영을 바라보시였다.

《…》

박헌영은 웬일인지 말을 잇지 못했다.

덕수는 일본의 형편에 대해서는 자기가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고개를 들었다.

《장군님! 재건된 일본공산당은 사실 조련에 의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덕수동무도 그렇게 생각한다?》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을 도와준것이지 조련이 일본공산당을 재건시켰다고 할 근거로는 되지 못합니다. 일본공산당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일본공산당원들자신입니다. 핵심들이 오래동안 감옥에 있은것으로 하여 조직적기초가 약했다 해도 결코 당의 명맥이 끊어진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나는 일본공산당이 가따야마때부터 자기의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고 오늘은 그 전통을 실천으로 보여주고있다고 봅니다.》

덕수는 새삼스런 눈길로 장군님을 우러렀다. 일본공산당이 재건

되고 그 력량이 확대된것이 전적으로 조련의 도움때문이라고 여겨온 자기의 일면적인 생각이 돌이켜지기도 했거니와 세상을 대하시는 장군님의 안목, 특히는 한 나라 당의 존엄을 귀중히 여겨주시는 장군님의 넓으신 도량에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졌다.

《나도 45년말에 일본으로 돌아가는 노사까 산조를 만난적이 있습니다. 오래동안 국제당에서 사업하다가 2차대전시기에는 중국연안에서 반제운동에 종사했던 그가 15년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평양에 들렸댔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나는듯 장군님께서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시였다.

《그때가 지금처럼 추운 겨울인데도 그는 해진 군복을 그대로 입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결심만은 훌륭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의 민주화를 위해 또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 공산당을 인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는 당으로 만들겠다는것이였습니다. 바로 그런 정신이 다 일본공산당의 오랜 전통에서 이루어진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돌아가도 지금은 옷 한벌 해입기가 바쁠테니 여기서 해입고 가라고 외투감을 주었더니 그는 그것을 기념으로 가지고 가겠다면서 종내 해진 군복을 그냥 입은채 돌아갔습니다.》

그때 일본으로 돌아온 노사까가 신문에 발표한 장군님에 대한 인상기의 구절이 지금도 덕수의 머리속에는 생생하니 기억되였다. 오래동안 국제당집행위원으로 있으면서 각국 공산당활동가들을 많이 접해본 노사까가 쓴 글이라는데서 더 관심을 가졌는지도 몰랐다.

…그이의 소탈한 인품과 다심한 인정에 감동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보다 더 나를 감동시킨것은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뜨거운 동포애였다. 국제적으로는 아직 전후처리가 결속되지 않았고 남북관계 역시 복잡했지만 그이께서는 그런것은 후차라고 하시였다. 찾아놓은 나라야 어디로 가겠느냐고 하시며 이제부터는 겨레를 찾고 민족을 하나로 묶어세우는것이 선차라고 하시였다.

그중에서도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들이 걱정이라고 하시면서 해방전에 남다른 고생을 한 그들이기에 더욱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였다.

두차례 만날 때마다 그이께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그들에 대한 걱정이였고 그들을 옆에서 잘 도와달라는 부탁이시였다. 나는 그이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이처럼 뜨거운 지도자가 있었던가 하고 국제당에서 만나본 여러 나라 지도자들을 상기해보았다. …

《덕수동무! 이젠 우리 동포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제까지는 서론에 지나지 않고 이제부터야말로 본론이라는듯 장군님께서는 자리를 고쳐앉으며 말씀하시였다.

《대체로 직업이 없이 살아가고있다는건 알고있는데 그런 형편에서 식량은 어떻게 해결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있습니까?》

동포들의 생활형편에 대해 말씀드리자고 생각하니 덕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것이 장군님께 보고드릴 내용중에서 중요한 문제여서 머뭇거릴수가 없었다.

절대다수의 동포들이 탄광이나 광산, 군용기지건설장에서 고용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맞았기때문에 온전한 직업을 가질수가 없었다는 사정과 전후 파국상태에 이른 일본경제가 동포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는데 대해 덕수는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며 말씀올렸다.

사실 대다수의 동포들이 하루살이막벌이를 하고있는 형편이였다. 넝마나 파철을 줏는가 하면 남새를 길러 팔기도 하고 돼지를 치기도 했다. 로력자가 없는 집에서는 부득불 술을 고아 팔기도 했는데 놈들은 이것마저 갖가지 구실을 붙여 탄압하고있었다.

장군님의 안색이 흐려지신것을 본 덕수는 얼른 힘을 주어 뒤를 달았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놈들의 부당한 탄압에 단합된 힘으로 맞서고있습니다. 동포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길은 오직 생활권을 확보하는데 있다는 구호를 내걸고 일본당국에 안정된 직업을 줄것을 완강하게 들이대고있습니다. 이젠 우리도 자신의 권익을 요구할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덕수가 하는 말마디에 담긴 의미들을 가늠해보신듯 잠자코 계시던 그이께서는 혼자소리처럼 되뇌이시였다.

《그러니 동포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있습니까. 물론 공화국이 창건된것으로 하여 동포들의 지위가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포들에 대한 미군정과 일본당국의 태도입니다. 지금 미제와 일본당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있는데 앞으로도 그 립장에는 변함이 없을것입니다. 한달전에 일본에 건너간 리승만이가 맥아더나 요시다를 만나 떠들어댄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앞으로는 동포들의 처지가 더 어려워질수도 있다는것을 말해줍니다. 그건 그렇고 모든 동포들이 그처럼 어렵게 사는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문득 반가운 일이 상기되신듯 그이의 눈가에는 밝은 미소가 어리시였다.

《우리도 지난 4월에 있은 교육투쟁에 대해서는 〈해방신문〉을 통해 알고있습니다. 한싱지방동포들이 근 다섯달동안이나 완강한 투쟁을 벌린 끝에 끝끝내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켜낸 사실 말입니다.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 특히 자기 나라 말과 글까지 빼앗겼던 지난날의 원한을 자식들에게는 다시 되풀이되게 할수 없다는것을 자각한 우리 동포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희생적으로 싸울수 있으며 또 승리할수 있겠습니까. 아주 자랑찬 성과입니다. 그래 지금 일본전국에 우리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근 500개의 학교에 6만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있습니다.》

덕수가 올리는 대답에 장군님께서는 무척 놀라시였다.

《500개의 학교에 6만명의 학생이라… 대단하구만, 대단해!》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쁜 일이 아닐수 없다는듯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이때 출입문이 열리면서 최진이 방안으로 들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군복차림인 그에게 쏠렸지만 그는 그런것은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성큼성큼 장군님께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뭐라고 조용히 말씀올렸다.

《준비가 됐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갑시다. 그런데 조국에 온 대표동무들이 섭섭하지 않게 차렸는지 모르겠구만, 자－ 이젠 우리 가

서 식사나 하면서 얘길 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장군님께서는 따라일어서는 덕수에게 말씀하시였다.

《오늘은 밤새껏 동무들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래일부터 며칠간 평북도와 수풍지구로 출장을 떠나야 하기때문에 부득불 오늘은 밤샘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 동무들도 아예 눈을 붙일 생각은 않는게 좋겠습니다. 자신있습니까?》

장군님의 건강이 념려된 덕수는 어떻게 대답드릴가 하고 망설이는데 옆에 있던 현우와 서민이가 일시에 환성을 올렸다.

《좋습니다, 장군님!》

좋아서 어쩔바를 몰라하는 그들을 장군님께서는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내가 출장가있는 사이 동무들은 평양이며 가까이에 있는 공장이나 농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기세가 어떤가를 다소나마 알게 될겁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덕수를 앞세우고 출입문을 나서시였다.

5

지방참관을 위해 평양을 떠난 덕수네 일행은 먼저 남포유리공장을 돌아보았다.

장군님을 모시고 지난밤을 꼬박 밝히다싶이 했지만 모두들 피곤한 기색은커녕 형용할수 없는 기쁨에 떠있었다. 일군들의 사업정형이며 동포들의 생활형편에 대해 알아보시다가도 대답을 올리는 대표들의 눈에 눈물이 어리면 서둘러 화제를 돌리군 하시던 장군님이시였다.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은 행복한 밤이였다. 장군님께서 권하시는 소문난 평양랭면이며 군밤, 황주사과를 맛있게 들며 어머니조국의 뜨거운 정을 한껏 체험한 잊지 못할 밤이였다.

창가에 아침노을이 비끼고 부관이 들어와 평북도로 떠나실 시간이 되였다고 말씀드릴 때에야 대표들은 비로소 하루밤을 꼬박 밝혔

음을 깨달았다. 장군님께서 쉬지도 못하시고 먼길을 가셔야 한다는 생각에 죄송함을 금할수가 없었으나 그이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동무들은 눈을 좀 붙이라고 하시였다.

하지만 대표단일행은 그시로 평양을 떠나 남포유리공장을 돌아보았고 다시 경치가 좋기로 소문난 우산장에서 하루밤 쉬고나서 오늘 황해제철소에 이르렀다.

남포에서도 그랬지만 황철을 돌아보면서 덕수는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기세를 더욱 절감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최고의 애국열의로 용해로안의 용금처럼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있었다.

어딜 가나 새해부터 시작될 첫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승리로 장식할 힘있는 구호들이 기폭처럼 나붓기는가 하면 또 어딜 가나 《장하고나 우리들은 힘찬 근로자》하는 노래소리가 노래그대로 정말 힘차게 울려퍼지고있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한결같이 싱싱한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고있었는데 그것은 비로소 참된 생활을 맛보는 사람의 행복에 넘친 생기였으며 그 생활을 맘껏 향유하게 된 사람의 기쁨에 겨운 활력이였다.

숙소에 돌아오기 바쁘게 책상에 마주앉은 덕수는 일기장을 펼쳐놓긴 했으나 오늘 보고 느낀것들중에서 어느것부터 적었으면 좋겠는지 종잡을수가 없었다. 그만큼 모두가 신기하고 놀랍고 새로운것들뿐이였다.

문득 일본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래지던 파철관리공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 일본에서 오셨단 말이우? 그런데 용케도 팔다리가 성하구려!》

보매 그는 일본에 끌려간 사람이면 누구나 팔이 부러지든가 다리 병신이 되는줄 아는 모양이였다.

《우리 옆집에 있는 돌이 아버지도 징용에 끌려갔다가 반신불구가 돼왔어요. 글쎄 해방전엔 할수없이 끌려갔으니 그렇다치고 해방이 되구 나라가 섰는데야 무엇때문에 거기서 산단 말이우. 어서 와

요, 예?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요즘은 글쎄 맹물에 자갈을 끓여먹어도 그저 살이 폭폭 질것만 같아요. 호호!》

모두들 그의 말에 따라웃었지만 덕수는 웃을수가 없었다.

(그래!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텐가! 여태껏 꿈으로만 여기던 생활이 현실로 펼쳐진데 대한 희열, 또 그 희열이 영원히 자기의것으로 된데서 오는 열광!)

문득 일본에 있는 안해의 모습이 떠올랐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른새벽이면 어김없이 어린것을 둘쳐업고 직업소개소들을 전전하는 수임이, 그러다가도 자기의 아침때식이 늦을가봐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올 땐 온몸이 땀에 젖어있군 했다. 그런 모습이 안스러워 굶더라도 일판에는 나가지 말라고 하면 그는 도리여 밝게 웃으며 대꾸했다.

《걱정마세요. 그저 일이 아부지만 건강하믄 됩니더.》

사실 말로는 굶어도 일판에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품팔이라도 하지 않으면 끼니를 잇지 못하는것은 물론 방세, 물세, 전기세의 부담조차 이겨낼수가 없는 형편이였다.

그런 안해가 조국의 이런 생활을 본다면 얼마나 놀랍고 기뻐할것인가! 조국에 올 때조차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얼마동안 온천에 다녀오겠다고 할수밖에 없었던것이 지금에 와서는 더없이 마음에 걸렸다. 생각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안해와 아이들을 조국에 건너오게 한 다음 이 꿈같은 생활을 맘껏 누리고만싶었다.

참으로 일본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대조를 이루고있는 조국의 현실이였다.

역기다림칸이나 지하도의 어둑컴컴한 구석마다에서 누렇게 뜬 얼굴로 오가는 행인들에게 동냥을 바라는 거지만 해도 수십만을 헤아리는 일본, 매일같이 강도, 살인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가하면 도처에는 사창굴이 조수처럼 범람하는 세상, 법이며 질서가 혼란속에 파묻힌 그 무법천지를 해방군의 탈을 쓰고 일본을 점령한 40만이나 되는 미군들이 더욱 타락의 시궁창으로 변질케 하고 있었다.

제놈들이 지른 전쟁의 불길에 꺾이우고 찢기우고 뿌리채 드러나 이젠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창궐하여 썩을대로 썩어가는 고목이 일

본이라면 조국은 그와는 반대로 바야흐로 푸른 언덕에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푸르싱싱한 아지를 하늘높이 뻗치며 기운차게 자라나는 백양나무의 기상이였다.

조국의 현실에서 덕수가 무엇보다 감동된것은 인민들의 생활과 교육에 대한 공화국정부의 시책이였다.

《해방》담배 한곽에 20전, 쌀 한되에 7원 50전 하는데 로동자들의 한달로임은 평균 800원부터 1 200원이였다. 기술자들은 1 500원이나 된다고 했다.

배급량도 어른 한사람당 4홉 2석으로서 일본에서 주는 2홉 7석보다 훨씬 많은 량이였다.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는 래년부터 실시될 초등의무교육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있었는데 도시마다 중학교, 전문학교들이 한창 설립되는가 하면 농촌에서는 성인학교까지 설치되여 문맹퇴치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있었다.

우산장휴양소가까이에 있는 성인학교에 들려보았을 때였다. 갈노전을 깐 방바닥에 중년사나이들과 아낙네들은 물론 머리를 박박 깎은 로인들까지 오구구 모여앉아 스무살도 안된 쌍태머리처녀선생을 쳐다보고있었다. 그런 모습도 모습이였지만 더 우스운것은 수업하기에 앞서 함께 부르는 노래였다.

글장님된 애달픔을 한탄만 하지 말고
일하고난 틈을 타서 배우고 또 배우자
앞선이는 이끌어서 뒤선이는 따라서서
가갸거겨고교구규 우리 글 몰라서야 수치지
이것도 모두다 새 나라의 덕이라네
내 나라 글이니 배워야지 배워야지
아 — 암 배워야지

남정들의 굵은 목소리에 청높은 아낙네들 소리, 거기다가 구새먹은듯 한 로인들의 속궁근 소리까지 합쳐나오는 바람에 덕수는 웃음을 터뜨리고말았다. 은연중 자기도 그들속에 뛰여들어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싶었다. 꿈속에서나마 누려보고싶던 생활이 조국땅 가는

곳마다 눈앞에 현실로 펼쳐져있었다. 그 생활속에 풍덩 뛰여들어 뒤늦게나마 새 조국건설을 위해 한껏 일해보고싶은 충동을 누를수가 없었다.

그중에도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일하고있는 지영이의 모습이 제일 가슴을 달아오르게 했다. 그를 련석회의 조련대표로 파견할 때까지만 해도 일가친척 하나 없는 혈혈단신인데다가 아직 가정도 꾸리지 못한 총각이라는것으로 하여 은근한 걱정조차 없지 않았는데 웬걸, 조국에 와서는 영광의 절정우에 솟아있는것이 아닌가!

그런 지영이를 대할적마다 덕수는 저도 모르게 자기가 평생을 바쳐 이루어보려고 애쓰던것을 그는 한순간에 이룩한 무상의 행복자라는 부러움과 함께 마음 한구석으로는 저도 모르게 어떤 시샘 비슷한 감정이 솟구치기도 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사람의 운명이란 참…)

지영이를 생각하느라니 은연중 그와 처음 만나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덕수가 지영이를 만난것은 해방된 그해 겨울 조련이 결성된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였다.

자기는 스물네살난 와세다대학중퇴생이며 량부모는 관동대진재때 왜놈들에게 학살당했다는것 그리고 지금은 학동(재일조선학생동맹) 총무부장으로 일하고있다는것을 밝히고난 그는 한가지 제기할 문제가 있어서 왔다고 했다. 첫눈에도 몹시 얌전하고 순박해보이는 젊은이였으나 제기하는 문제는 의외에도 왕청같은것이였다.

《절 서울에 보내달라는겁니다.》

《서울에?》

서울에 다니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보고있던 덕수는 대뜸 맞갖잖은 눈길로 그를 마주보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 서울에 가야겠습니다.》

그의 태도는 마치 무슨 문제를 제기하러 온것이 아니라 자기의 결심을 알리기 위해 온 사람인듯 했다.

《그래 서울로 가자는 목적은 뭐요?》

《제가 서울로 가자는건 바로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나오신다기때문입니다. 여기서 평양을 가기는 어렵지만 서울이야 왜 못간단 말입니까?》

《?!》

덕수는 놀란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엇보다도 장군님께 나라를 찾아주시여 고맙다는 인사를 올려야지요. 그리고 연설도 하실텐데 그 내용들을 동포들에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상 덕수 역시 장군님께서 서울로 오신다는 련락을 들은 다음부터는 진정할수 없는 마음이였다. 많은 동포들이 그것이 사실인가고 또 그게 언제인가고 무시로 전화를 걸어오는가 하면 일본신문들까지 서울에 조직된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 활동정형을 수시로 보도하고있었다.

《전 의장동지가 일제때부터 장군님을 찾아뵙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가 하는걸 다 알고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해서라도 절 꼭 좀 서울로…》

단호했던 지영이의 표정은 어느새 어떤 친밀감－당신은 날 잘 모르지만 난 당신을 알아도 구체적으로 알고있다는, 때문에 그런 사정을 봐서라도 자기를 도와주리라는것을 믿어마지 않는다는듯 한 기대가 어려있었다. 얼핏 보기에는 얌전하고 온순해보이지만 속은 능청스러운데도 없지 않는 친구였다.

《그렇게만 해주면 전 그걸 저 혼자의 소원이 아니라 의장동지의 소원으로 함께 여기고 기어이 성사시키겠습니다.》

덕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어제날도 그랬지만 오늘에 와서는 더욱 간절해지는 소망, 자나깨나 가슴을 태우는 자기의 그 열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보려고 애쓰는 지영이를 만난것이 마치 막역지우를 찾은것처럼 기쁘고 반가왔다. 또 그런 지영이가 더없이 고맙고 대견하기 짝이 없었다.

《고맙네, 내 마음을 리해해주어서. 동무가 서울에 가도록 내 노력해보지. 그러나 알아야 할건 동무의 그 소원이 우리 둘만의 소원이 아니라 재일동포모두의 한결같은 소망이라는걸 명심하는거네.

알겠나?》

그리하여 덕수는 곧 지영이를 서울에 설치돼있는 조련서울위원회의 추가성원으로 망라시켰던것이다.

그렇게 떠난 지영이가 다시 자기앞에 나타난것은 그때로부터 반년이 지난 이듬해 여름이였다. 그때는 이미 서울에 둥지를 튼 미군정으로 하여 남조선정세는 날로 험악해지고있었고 그런 사정으로 해서 장군님께서 서울로 가시기가 어렵다는것이 불보듯 명백해진 때였다. 지영이가 왜 돌아왔는가 하는것이 리해되고도 남았으나 덕수는 제잡담 그에게 들이댔다.

《설사 사정이 달라졌다 해도 동문 자기 임무를 수행했어야지. 사정이 어려울수록 그 일에 더 달라붙어야 한단 말일세. 지금 동포들이 무얼 바라고있나? 장군님께서 북반부에 어떤 정책을 펴시면서 새조국건설을 이끌고계시는가, 또 날로 복잡해지는 남조선현실을 어떻게 보시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선 어떤 방침들을 제시하시는가 하는게 아닌가! 이 모든 사실을 여기서는 알기 어렵지만 서울에서는 노력하면 얼마든지 알수 있는게 아닌가! 그런데 그걸 알아볼 생각은 못하고 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시지 않는다고 그냥 돌아오다니?》

《…》

고개를 숙인채 아무 대답도 못하고있던 지영은 한참만에야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다시 서울에 가서는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 온건 한가지 사정이 있어섭니다.》

그의 눈빛이며 억양으로 보아 그 사정이라는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도 절박한 문제라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저 개인에 한한 일인데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매듭짓지 않으면 안될 문제지요. 서울에 가도 그 문제를 처리한 다음에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제야 덕수는 지영이한테도 그를 둘러싼 생활이 있다는것이, 더우기 한창 젊은 나이고보면 그것이 더없이 다양하고 복잡할수도 있다는것이 느껴지면서 일단 일을 맡기기만 하면 사업에 대해서만 따질뿐 그자신의 생활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군 하는 자신의 버릇이 뉘

우쳐졌다.

결국 그해 가을에야 다시 서울로 건너간 지영이였다.

그가 서울에 가서부터 그자신의 임무는 물론 조련서울위원회의 사업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김일성**동지께서 공장이나 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신 사실들과 회의에서 하신 연설들이 《해방신문》에 게재되는가 하면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가 실시되고있는 북반부의 소식이 그의 이름으로 자상히 소개되기도 했다.

비록 오랜 생활을 통해 아는 사이는 아니였지만 자기 일을 그처럼 책임적으로 또 착실하게 수행해나가는 지영이에 대한 호감을 새삼스레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한데 올해 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련석회의에 조련이 참가할 문제가 토론되면서 중총에서는 일본에서 대표들을 파견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조련서울위원회에 있는 일군들중에서 대표를 선발하기로 했다. 그때 덕수는 서슴없이 지영이를 대표명단에 찍어넣었던것이다.

그렇게 헤여진 지영이를 원산에서 다시 만난 순간 덕수는 이름할수 없는 반가움과 함께 외무성의 일군으로까지 성장한 그가 더없이 믿음직스러웠다. 그러나 그 미더움은 날이 갈수록 놀라움으로 변했고 그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오늘에 와서는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부러움으로까지 바뀌였던것이다.

첫날 남포유리공장을 돌아보고난 후 다음참관지가 어디냐고 묻자 여기에서 멀지 않은 우산장휴양소라는 지영이의 대꾸였다.

《아니, 휴양소라니? 우리가 뭐 조국에 휴양을 하러 온거야 아니지 않나. 그러지 말고 다른데로 가자구!》

《미안합니다만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지영이의 태도는 비록 옛날에는 자기가 지시를 받는 처지에 있었지만 조국에 와있는 이상은 응당 자기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겸손한 우월감이 어려있었다.

《못하다니? 자네 보아하니 그새 사람이 꽤 딱딱해졌네그려!》

《딱딱해졌다고 해도 비뚤어졌다고 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대표단의 참관대상이며 일정들을 일일이 짜주신 장군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적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신께 빠짐없이 전

화로 보고하라고 하시였으니까요.》

그 말에 덕수는 굳어지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들에 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관심에도 놀라왔지만 지영이가 아무때나 스스럼없이 장군님께 전화를 한다는 사실이 놀라왔던것이다. 그런데 더 아연해진것은 지영이의 다음말이였다.

《의장동지가 정 바란다면 장군님께 보고드리고 행선지를 바꾸어보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우산장에 들리지 말고 곧바로 황철로 가자는거지요?》

장군님께 보고올리고 허락받는것쯤은 자기한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뿐더러 자기의 요구라면 장군님께서도 기꺼이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에 넘쳐있는 지영이를 보며 덕수는 얼른 손을 내저었다.

《아니 됐네, 그만두게. 바쁘신 장군님께 괜히 하찮은 일로… 그냥 우산장으로 가세!》

우산장휴양소에 들려 아름다운 호수가에 자리잡은 정각들을 돌아볼 때였다. 문득 생각난듯이 한마디 하는 지영이의 말에 덕수는 또다시 기가 질리고말았다.

《장군님께서는 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서 온 김구, 김규식선생은 물론 저도 이 우산장에 불러주시였습니다. 바로 저 휴양각앞에 있는 풀밭에서 점심식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장군님 잔에 술을 부어드렸지요.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일본에서 왔다는걸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것이였습니다.

〈난 이 동무를 볼 때마다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도 난 앞으로 이 동무를 내 가까이에서 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때나 볼수 있고 만날수도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시고는 공화국이 창건되자 곧 저를 부르시여 외무성에서 아시아나라들과의 사업을 맡아보라고 하시면서 사업에서 제기되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사소한것이라 해도 서슴지 말고 자신을 찾아와야 한다고 하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야 덕수는 비로소 자기가 여태껏 지영이가 누리고있는 행

복의 겉만 보고 놀라와했다는것을, 실제에 있어서는 몇배 더한 행복의 알찬 속살이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확실히 지영이에게는 일반사람들한테서는 느낄수 없는 고유한 특징, 남다른 믿음과 사랑속에서 사는 사람에게만 특유한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더없이 소박하고 겸손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도 그것을 깨닫고있을뿐아니라 자기로서는 그것을 될수록 표현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어쩔수없이 뿜어져나오는듯 했다.

그때마다 덕수는 그가 부럽다못해 마치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그가 차지하고있는듯 한 느낌이 들면서 이제라도 이루지 못했던 소망, 이젠 눈앞에 펼쳐져있어 결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기의것으로 될수도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야 하리라는 충동에 사무치는것이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충동은 곧 거대한 담벽에 부딪치군 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는 무거운 임무와 사명감에 대한 자각이였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것이여서 이번에는 기어이 실현하리라는 불같은 욕망과 자기의 처지에서는 그래선 안된다는 랭철한 리성이 마주 부딪칠 때면 그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터뜨리군 했다.

지금도 그는 일기장을 펴놓고 책상에 마주앉아있기는 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수 없는 이런 번뇌로 하여 혼자 모대기고있었다.

그러나 옆방에서는 행복에 취한 젊은이들이 여전히 법석 고아대고있었다.

6

《그러니까 아직도 지영동진 그 처녀가 누군가 하는걸 대줄수 없다는겁니까? 좋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를 알아내지 못할것 같아서요? 천만에!》

옆방에서 들려오는 현우의 목소리에 덕수는 귀를 기울이였다.

제법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가며 으르기도 하고 아닌보살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듯이 코나발을 불어대기도 하는 품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영이의 과거사를 뿌리채 들추어내고야말 잡도리였다.

어제 저녁 마당에 나와 산보를 하던 지영이가 서민이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혹시 영신이라는 처녀를 모르는가고 물었었다. 서민이가 청년들과 사업하는 민청대표라는데로부터 물어본 말일테지만 이 한마디가 대표단일행에게 일으킨 파문은 대단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지났는데도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고있는 그를 못내 의아스레 여겼었고 그럴 때마다 혹시 일본에 있을 때 어떤 처녀와 약속이라도 있지 않았을가 하는 의혹을 품고있던차였다.

《틀림없네, 무슨 곡절이 있어! 이제부턴 동무가 그 영신이라는 처녀가 누구이며 옛날 서로 어떤 관계였는가 하는것까지 말짱 다 알아내라구. 알겠나? 그런데서야 동무가 선수가 아닌가!》

서민이가 현우에게 준 분공이였다. 서민이가 현우한테 그 분공을 준 리유는 그가 해방직후 친일파나 민족반역자들을 색출해내는데 적지 않은 공로를 세웠기때문이였다. 일제때 《협화회》나 《흥생회》, 《일심회》와 같은 반동단체에 망라되여 왜놈의 앞잡이노릇을 하던자들이 해방이 되자 교활하게도 이름과 경력을 바꾸고는 조련이나 그 산하단체에 기여들려고 했다. 그때 그는 제 표현대로 하면 《남다른 애국심과 결부된 뛰여난 탐정적기질》을 발휘하여 수많은 반동들을 찾아내여 폭로했고 어떤 놈들은 신문에다 사진까지 받쳐서 공개해치웠다. 그런 경력이 있는 현우에게 있어서 지영이의 과거사를 들추어내는것쯤은 실상 아무것도 아니였다.

그러나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닌것 같았다. 흔히 현우와 같이 지꿎은 사람은 상대가 난처해하거나 부끄러워할수록, 특히 피하려고하면 할수록 더 흥미를 가지고 지싯지싯 검질기게 달라붙는 법인데 지영이의 경우에는 그 말만 나오면 곧 표정이 굳어지면서 심각해지기때문이였다.

《말하기가 거북한 모양인데 그럼 내 말을 들어보고 맞으면 맞다고만 하십시오.》

현우는 자기한테는 아무리 심각한 기색을 지어야 소용이 없으며

성을 내도 헛수고라는듯 배포유한 어조로 말했다.
《일본에 있을 때 서로 가까이 지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날에 대한 약속까지 있었지요. 그러나 지영동지가 조국에 온 다음부터는 그만 서로 련계가 끊어졌지요. 맞습니까? 잊자니 약속을 저버리게 되고 약속을 지키자니 바다가 가로놓였고 그렇다고 그 처녀를 탓할수도 없고 자기 잘못도 아니고 뭐 이런게 아닙니까?》
처음에는 정면돌파를 시도했으나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것을 알았는지 이번에는 변죽을 울리며 포위전으로 넘어가는 현우였다.
(엉큼한 녀석같으니…)
현우에게 물리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으로는 괜히 그 말을 꺼냈다고 후회하고있을 고지식한 지영이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라 덕수는 저절로 웃음이 샜다.
《그럼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처녀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영신이라는 처녀는 몰라도 그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는걸 알면 쉽게 찾을수도 있지요.》
현우는 한걸음 포위진을 더 좁히였다.
《처녀의 아버지에 대해선 묻지도 말게. 말하기도 싫거니와 말할 필요도 없네!》
여태껏 침묵을 지키던 지영이의 퉁명스런 대꾸였다.
《왜요?》
《조련이라면 한사코 피를 물고 달려드는 반동의 두목을 말해선 뭘한단 말인가!》
《반동의 두목이라니요?》
그 말에는 덕수도 긴장되지 않을수 없었다.
《내 말하지. 그까짓걸 숨겨 무엇하겠나. 이제야 다 지나간 일인걸.》
이렇게 말하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현우의 단련에 견디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혼자 가슴속에 품고있던 어떤 상서롭지 못한 사연을 털어놓는다는 일종의 고뇌가 어려있었다.
《옳네! 동무가 말한것처럼 영신이는 내가 일본에 있을 때 가까이 지내던 처녀네. 서로 앞날에 대한 약속도 있었고. 그런데 그 처

녀가 누군가 하면 바로 〈민단〉 단장인 박룡이의 딸이라네!》
《예?》
질겁을 하는 현우였으나 더 놀란것은 덕수였다.
(박룡의 딸? 지영이가 그럼 그 반동의 딸과?)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 믿을수가 없었다.
지영이가 박룡의 딸과 사귀였다는것도 놀라왔으나 문득 떠오른 한가지 사실에 더 굳어지지 않을수 없는 덕수였다. 그것은 첫날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았을 때 장군님께서 박룡에 대해 물어보시던 일이 되살아났기때문이였다.
그때 덕수는 박룡이 그자가 얼마나 못되게 놀았으면 장군님께서 다 물어보시랴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말씀올렸다.
사실 박룡이라면 재일동포들은 물론 일본사람들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1921년 무정부주의단체인 《흑도회》와 《의혈단》, 《부령사》 등을 뭇고 김구와도 련계를 가지면서 일제와 친일파에 대한 테로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22년 가을 《황태자》의 성혼식을 계기로 《천황》을 암살할 거사를 꾸미던중 그만 경찰들에게 체포되여 해방이 될 때까지 23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던것이다.
조국이 해방된 후에도 그는 감옥에서 쉬이 풀려나지 못했다. 미군정은 그를 정치범일뿐아니라 살인미수범이라 하여 석방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미군정을 대상으로 매일같이 항의투쟁을 벌린것도 또 그 투쟁으로 하여 아끼다형무소에서 출옥하는 그를 성대한 환영연으로 맞은것도 다 조련동포들이였다.
석방되여 도꾜로 온 그와 만난 덕수는 앞으로 조련에서 같이 일하자고 권고했다. 그 역시 그때는 감격해마지 않으며 같이 일해보자고 했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무엇때문인지 갑자기 돌변하여 조련과 엇서기 시작했다. 조선사람의 기개를 떨치며 《천황》에게 폭탄을 던지려 했던 과거의 의사가 로골적인 반동의 길로 기울어졌던것이다.
민족반역자들을 규합하여 《건동》을 조직한 그는 그것을 모체로

하여 《민단》을 꾸리고는 남조선괴뢰《정권》의 《주일국무위원》이 되여 조련일에 대해서는 한사코 방해해나섰을뿐아니라 모임때나 행사때면 괴한들을 보내여 무장습격까지 감행하군 했다.

그날 덕수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장군님께서는 한때는 한다하던 민족주의자였던 그가 그처럼 돌변한 리유가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사실 덕수도 처음엔 그가 왜 그렇게까지 악착하게 나오는지 리해하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짐작이 가는것도 있었다. 박룡이한테는 뚜렷한 정치적신념이 없었다.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무정부주의자였던 그가 택한 길은 테로였다. 민족의 거창한 힘에 대해서는 인식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다. 때문에 그는 민중을 떠난 유아독존의 허상에 불과한 자기를 영웅으로 여기였고 동포들이 그렇게 떠받들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동포들은 그를 멀리했고 그가 조련을 반대해나서자 경멸하기 시작했다. 무정부주의자의 증오심은 곧 조련을 향해 폭발했다.

덕수는 장군님께 자기의 이런 판단을 그대로 말씀올렸다.

납득이 잘 가지 않는듯 고개를 기웃해보이시는 그이께 덕수는 최근 박룡이가 처해있는 처지에 대해서도 말씀올렸다.

날이 갈수록 조련이 동포들속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데 비해 《민단》은 점점 고립되는데다가 요즘은 내부까지 복잡해져서 매일처럼 싸움판이 벌어지고있었다. 《단독선거》로 괴뢰《정권》을 조작한 리승만은 곧 일본에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정한경을 주일대사로 파견하여 《민단》을 사주케 했는데 그때부터 《민단》내부는 박룡파와 정한경파의 파벌싸움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멀지 않아 박룡이가 밀려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나도는 판이였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던 그때까지만 해도 덕수는 장군님께서 일본에 있는 반동세력에 대해 알아보시기 위해 박룡에 대해서 물어보시겠거니 했었다. 그러나 지영이의 말을 듣고보니 그런것만 같지 않았다. 모르긴 해도 박룡에 대해 물어보시던 그이께서 저쪽식탁에 앉아있는 지영이를 건너다보시던 일이 상기되자 그것이 더욱 엄연한

사실로 여겨졌다.
자리에서 일어난 덕수는 곧 미닫이를 열고 옆방으로 들어섰다. 자기의 출현에 놀라면서 어색해하는 지영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는 일부러 큰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말한다고 누가 속을줄 아나? 총각때 체포되여 감옥살이한 박룡이한테 무슨 딸이 있단 말인가! 원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사실 누구든 그렇게만 알고있었다.
《정말!》
현우가 대뜸 무릎을 치며 응수했다.
《그러나 그에게 딸이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지영이의 표정은 이것이야말로 사실이며 또 그 사실은 자신밖에 모르는 일이라는듯 정색한 표정이였다.
《박룡이가 〈천황〉 암살을 준비할 때 옆에서 그를 도운 이또 후미꼬라는 일본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박룡이와 함께 체포되였다가 감옥안에서 자살한 녀자 말입니다. 바로 그 두사람사이에서 난 딸이 영신이였습니다.》
《?!》
생전 처음 듣는 소리에 덕수는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그들사이에 딸자식이 있었다니?)
그도 한때 일본신문들을 법석 끓게 만들었던 이또 후미꼬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신문팔이, 비누장사 등을 하면서 고생스레 자랐지만 타고난 미모로 하여 열여섯살에 벌써 유라꾸쬬에 있는 일류료정에 팔려가지 않으면 안되였던 후미꼬였다. 그때부터 박룡이와 알게 된 그는 처음에는 남달리 사내다운 박룡을 존경했으나 그 존경이 어느덧 사랑으로 변했다. 순진하고도 결곡한 성격을 지닌 후미꼬는 곧 진정으로 박룡을 믿고 따르게 되였으며 마침내는 그와 일심동체가 되여 《천황》암살을 위한 거사에까지 나서게 되였던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그만 수포로 돌아가고말았다. 두사람이 체포되자 교활한 일제는 이 사건을 곧 조선사람을 탄압하기 위한 좋

은 구실로 삼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수세에 몰린 저들의 난처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리용할 악랄한 흉계를 꾸미였다.

당시 일제는 간또대진재를 계기로 2만 3천여명에 달하는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학살한것으로 해서 일본국내에서는 말할것도 없고 국제적으로까지 비난을 면치 못하는 처지에 있었다. 이 비난과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 놈들은 박룡의 《반역죄》를 대폭 과장할 음모를 꾸미고는 그 도구로 바로 후미꼬를 리용했던것이다. 박룡에 대한 후미꼬의 열렬한 애정을 알고있던 놈들은 그에게 박룡이가 《천황》만 아니라 《황태자》까지도 암살할 계획이였다면서 그걸 사실대로 대라고 따지고들었다.

성미가 대바른 후미꼬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정하자 네가 그걸 직접 확인해보라면서 그를 박룡이가 있는 독감방에 밀어넣었다. 두사람의 대화가 자연 있지도 않은 《황태자》암살얘기로 번져지게 되자 악착한 놈들은 이것을 저들이 편리한대로 꾸며내여 세상에 공개했다.

그때에야 자기가 놈들에게 리용당했다는것을 안 후미꼬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로 재촉케 한 자신의 씻을길 없는 죄책과 교활한 특고들에 대한 사무친 원한을 서슴없이 자살이라는 항거로 표시했다.

《박룡이와 이또 후미꼬에 대해서는 세상이 다 알지만 그들사이에 딸이 있었다는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거사를 준비하면서부터는 갓난 딸을 숙부벌되는 집에 맡겨두었으니까요.》

지영이의 얼굴에는 흔히 자기 혼자만 알고있는 기막힌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이는 그런 서글픈 애소가 어리였다.

《그러다나니 영신이자신도 어릴 때 자기 부모가 누군가 하는걸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 집에서 하숙을 하던 저 역시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으니까요. 해방이 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그의 숙부가 일본을 떠나면서 비로소 그런 사연에 대해 말해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정으로 하여 지영이는 이번에도 그랬지만 해방후부터는 더욱 자기가 영신이를 돌보지 않으면 안될 보호자로 나서지 않을수 없

었다. 학동에서 일을 보게 된 그는 영신이를 자주 학생들의 모임에도 데리고 다니였고 조국의 정세며 앞날의 희망에 대해서도 말해주군 했다. 그때 지영이는 스물네살의 열혈청년이였고 균형이 잡힌 몸매며 조화롭게 다듬어진 용모까지도 어머니를 그대로 빼닮아 지나치는 사람마다 뒤돌아보지 않을수 없게 하는 영신이는 스물두살의 활짝 핀 처녀였다.

둘이 마음만 먹으면 숙부가 물려준 집에서 얼마든지 새생활을 시작할수도 있었으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일가친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기들의 결혼은 응당 아버지가 출옥한 후로 미루어야 한다는 립장이였다. 또 그것이 오랜 세월 감옥살이를 한 아버지에 대한 응당한 도리라고 여기였다.

바로 그때 지영이는 장군님께서 서울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덕수를 찾아가 자기의 희망을 실현시켰다.

출옥한 박룡이가 조련을 외면하고 《건동》을 조직했다는것을 서울에서 안 지영은 불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반동의 길로 내닫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안절부절하고있을 영신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는가 하면 어떤 때는 밤새껏 고민으로 모대길 영신이의 모습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서울로 보내온 영신의 편지를 보니 그 불안이 현실로 되였다. 아니, 상상하던것보다 몇배 더 가혹했다.

조련학교 교원으로 일하던 자기를 아버지가 새로 생긴 《민단》학교에 강제로 끌어넣었는가 하면 거기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아예 밖에도 나다니지 못하게 집에 가두어놓았다는것이였다.

이젠 무엇이 옳고그르며 어느 길로 가야 한다는것을 아는 자기로서는 아버지가 더없이 저주로울뿐아니라 더는 그런 아버지와 함께 있을수 없다는것, 때문에 어디론가 먼곳으로, 아버지가 찾을수 없는 그런 곳으로 떠날 결심이라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크면 클수록 이제 와선 어머니 생각이 나고 그때면 은연중 조선사람인 아버지와 일본사람인 어머니의 딸로 태여난 자기의 조국은 과연 어디일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허빈다는것이였다.

얼마후 도꾜에 돌아온 지영이가 덕수에게 개별적인 사정이 있다

고 한것은 바로 영신이를 만나보고 자기들 문제를 매듭지어야겠다고 결심했기때문이였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정반대되는 두가지 감정이 서로 다투고있었다. 하나는 박룡이가 자기들의 결합을 반대하는 경우(반대하리라는것은 명백했지만) 영신이가 바라는대로 그와 함께 어디론가 먼곳으로 가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는 달리 아무리 영신이가 귀엽고 사랑스럽다 해도 반동의 두목인 박룡의 딸인데야 어떻게 결합될수 있으랴 하는 계급적인 위구심이였다. 한마디로 말해 자기의 운명을 사랑의 감정에 맡기느냐 아니면 리성에 복종시키느냐 하는것인데 그는 서로 상반되는 이 두 감정중에서 어느쪽을 택하리라는 결심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박룡이를 만났던것이다.

아무말없이 지영이를 노려보던 박룡은 한마디한마디를 쪼아박듯이 말했다.

《자네가 왜 내 딸과 가까이 하려는지 모르지 않네. 자네들은 지금 딸애를 통해 나를 어째보자는건데… 말하자면 자기네쪽으로 끌어당기던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없애치우던가! 비렬하네, 어리석어! 그래 내가 그런것도 모르는 청맹과닌줄 아나? 천만에! 명심해두게만 이젠 조련이나 일공(일본공산당)이 나한테는 왜놈들보다 더 미운 원쑤로 됐단 말일세. 알겠나? 때문에 난 딸애조차 조련일을 하거나 조련사람인 자네와 가까이 한다면 원쑤로 여길수밖에 없네. 그러니 괜한 미련을 품지 말고 내앞에서 사라지는게 좋아! 어디 내가 자네들 손에 잘못되나 아니면 자네가 내 손에 먼저 잘못되나 하는건 두고보세!》

지영은 저절로 몸이 부르르 떨렸다. 박룡에 대한 증오도 증오였으나 보다는 영신이에 대한 자기의 진정을 그가 너무나도 가혹하게 유린하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였다. 여태까지 자기를 괴롭히던 두가지 감정으로 하여 어느쪽을 택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택할 길은 바로 이 길이다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뇌리를 쳤다. 말하자면 박룡이가 한 말이 감정에 포로되여 무디여진 자기의 리성을 깨우쳐주었다. 그것은 결코 일시적인 감정에

운명을 맡겨서는 안되며 또 맡길수도 없다는 랭철한 리성의 부르짖음이였다.
(아무리 영신이가 사랑스럽다 해도 이런 무지막지한 반동의 딸하고야 어떻게…)
그날 저녁 자기를 찾아온 영신이에게 자기들관계가 더는 지속될수도 없고 지속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선포한 지영은 다음날 분연히 서울로 건너가고말았다.
그러다가 올해 봄 그는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라는 덕수의 지시를 받았던것이다.
사실 그때의 그의 심정은 이젠 영신이를 영영 만나지 못한다는것으로 하여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로서도 헤여나기 힘든 운명의 갈림길에서 벗어나 새출발하게 된것이 다행스럽기도 했었다.
《그랬단 말이지…》
지영이의 말을 듣고나니 덕수는 어쩐지 한숨이 새나왔다. 지영이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탓으로 그에게는 물론 영신이 마음에도 상처를 입혔다는 자책감과 함께 본의는 아니라 해도 자기가 두사람의 결합을 방해했다는 일종의 자격지심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보다 더 가슴을 허비는것은 세상에 사랑이 빚어내는 비극이 많다고 하지만 과연 이처럼 기구한 사랑도 있을가싶은 통절함, 이것 역시 남북으로 갈라진 조국의 현실로 하여 일본에서도 조련과 《민단》으로 갈라져있는 가슴아픈 력사가 빚어낸 비극이 아닐수 없다는 비탄이였다.
《참!》
덕수는 얼른 지영이를 마주보며 다급한 어조로 물었다.
《동무의 그런 사정을 혹시 장군님께서 알고계시는게 아닌가?》
고개를 숙이는 지영이의 얼굴에는 못내 송구스러워하는 빛이 어리였다.
《알고계십니다. 나이가 있는데 왜 장가를 가지 않았느냐고 물으시기에 영신이와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심중한 안색을 지으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말씀드렸지요. 첨엔 보고싶기도 했고 생각나기도 했지만 이젠 괜찮다고 또 아무리 생각한대야 우리의 처지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사실 영신이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처라는건 첨엔 피가 나고 아프다가도 시간이 가면 아물기마련이 아닙니까. 이젠 저도…》
지영이는 이젠 아무렇지도 않다는듯이 태연한 표정을 지어보였으나 목소리에는 어딘가 한가닥의 구슬픈 애수가 깃들어있었다.
이때 마당에서 자동차소리가 나는가싶더니 이어 문이 벌컥 열리였다.
뜻밖에도 군복을 입은 최진이 방안에 들어서는 바람에 모두들 어리둥절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평양에서 오는 길인듯싶었으나 최진은 수인사 한마디 없이 곧바로 덕수앞으로 다가섰다.
《한덕수동지! 장군님께서 대표단일행과 함께 곧 평양으로 오시랍니다. 평북도일대를 현지지도하시던 장군님께서는 대표들이 려독을 충분히 풀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정세가 그럴 여유를 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해 토론해야겠다고 하시였습니다.》
《?!》
대표단성원들은 하나같이 굳어진채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7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달음에 평양으로 달려온 덕수네들을 정겹게 맞으시였다.
《사선을 넘어 조국에 온 동무들에게 휴식할 여유마저 넉넉히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집무실앞탁에 자리잡은 대표단성원들과 그 맞은편에 있는 박헌영과 홍명희를 차례로 바라보며 말씀하시였다.
《휴식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재일조선인운동이 나갈 길

에 대해 토론해야겠습니다.

동무들도 아다싶이 미제는 마침내 우리 나라를 분렬시키고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조선문제를 유엔에 비법적으로 끌고갔습니다. 미제가 모스크바 3상회의결정을 파탄시켰을 때부터 우리는 정세가 이렇게 되리라는것을 예견했습니다. 거기에 대처할 대책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방금 있은 당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토론되였습니다. 그러나 재일동포들문제는 론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미제의 비호밑에 재무장되고있는 일본땅에서 살고있고 앞으로는 더욱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책동할 미제와 일제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재일동포들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살아야 할 재일동포들이 앞으로 과연 어떤 기치를 들고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같이 토론해보자는것입니다.》

덕수는 새로 조성된 엄혹한 정세로 하여 현지지도의 피로도 푸실사이없이 장시간 회의를 지도하시고도 재일동포들이 걱정되시여 또다시 자기들을 마주하신 장군님을 뵙느라니 어쩐지 목이 메여올랐다. 그렇게 봐서 그런지 단 며칠사이에 장군님모색이 수척해진듯 느껴지기도 했다.

《오늘의 복잡한 정세는 북과 남에 있는 조선사람들은 물론 해외동포들, 특히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들에게 명백한 립장과 뚜렷한 목표를 가질것을 요구합니다. 덕수동무, 그렇지 않습니까?》

《…》

덕수는 은연중 긴장되였다. 바로 그 립장과 목표를 놓고 토론인들 얼마나 많이 벌렸으며 론쟁 또한 얼마나 많았던가.

장군님께서는 먼저 미제가 리승만《정권》을 유일한 정부로 인정하는 동시에 《유엔조선림시위원회》를 《유엔조선위원회》로 개편한데 대한 우리 당의 립장에 대해 다시금 언급하시였다.

그 강도적인 결정이 우리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용서하지 못할 파렴치한 행위이기때문에 조선문제에 대한 유엔의 결정이 어떤것이든 절대로 인정할수 없다는것, 따라서 우리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우리 나라에 통일된 민주주의독립국가를 건

설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민자체의 힘과 의지에 달려있다는것, 그러한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우리는 유엔총회 3차회의에서 채택되였다는 조선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이 비법이라는것과 그에 대한 우리의 립장을 국제여론에 광범히 호소하는 한편 유엔의 비법적인 결정을 반대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하지만 재일동포들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하나의 투쟁을 조직하고 하나의 과업을 수행하자고 해도 조국과는 달리 많은 애로가 제기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다른 나라 교포들처럼 거주국의 차별과 압력에 동화되거나 해소되는 일이 없이 모든 활동을 독자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해나갈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해 재일조선인운동의 총적인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모든 동포들이 공화국공민의 존엄을 지킬수 있고 자기의 권익을 옹호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해 론의할 때마다 언제나 먼저 제기되군 하던 한가지 문제가 떠올랐기 때문이였다.

《사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 자주 토론을 벌리군 합니다. 그런데 생활권을 쟁취하고 교육권을 옹호해야 한다는데는 누구나 립장이 명백한데 투쟁대상과 과업에 대한 리해에서는 서로 견해가 다른것으로 해서 복잡해집니다. 그것은 오늘의 일본현실에 대한 평가, 특히는 지금 일본을 점령하고있는 미군정에 대한 평가와 관련됩니다. 누구나 다 일제와 미제가 우리의 공동의 원쑤라고는 하면서도 미군정이 실시하고있는 일련의 시책으로 하여 뚜렷한 립장을 취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례를 들어 미군정이 일본의 민주화를 담보하면서 재벌을 해체하고 〈치안유지법〉을 페지한것이라든가 농지개혁, 로동3법 등을 공포함으로써 일본인민들에게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호감을 받고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모순된 견해로 하여 투쟁과업에 대해 토론할 때면 늘 론의가 분분해집니다. 저는 미국이 조선문제

를 유엔에 비법적으로 끌고갔기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를 더욱 명백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응당 있을수 있는 범상한 의문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만 느낄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에 대해 먼저 밝혀야 할 필요를 느끼시였다.

《옳습니다. 바로 그것부터 옳게 꿰뚫어보아야 재일동포들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였던 장군님께서는 확정적인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미군정은 지금 겉으로는 일본의 민주화를 위해 이러저러한 대책들을 취하고있는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일본에 대한 미제의 이중성과 교활성이 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세계지도가 걸려있는 맞은편 벽쪽으로 가시였다. 아무래도 태평양전쟁과정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야 미제의 대일정책의 본질을 정확히 까밝힐수 있을것 같았기때문이였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태평양전쟁과정을 보면 여실히 알수 있다. 그것은 미제가 전쟁의 기본목적을 투쟁대상인 군국주의일본을 격파하고 일본의 파시즘을 소멸하는데 두지 않았다는것이다.

미제는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한것이 아니라 음흉하게도 일본을 장차 대쏘전략에 리용하는 한편 그 기회에 아시아에 대한 저들의 지배권을 확장하려고 꾀했다.

실례로 1943년 11월 태평양중부에로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질베르트군도에 상륙한 미제는 다음해 한해동안에 미크로네시아의 일부까지 점령했다. 그 다음단계는 곧 필리핀군도로 군대를 이동시켰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를 중심으로 하여 1 500마일안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본토, 인디아, 먄마가 포괄되여있다. 결국 미제는 필리핀을 차지함으로써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지역적중심과 전략적중심을 차지하게 되였다. 이것은 미제가 일본본토를 치기 위

한 준비과정이기도 했지만 아시아를 저들의 세력하에 두려는 정치적목적에서였다.

이처럼 미제는 전쟁을 통해 아시아에서 저들의 위협한 적수일뿐아니라 경쟁자이기도 한 일본을 배제하는 한편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자기의 지배권으로 대치시킬것을 획책했다. 결과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점령지로부터 미제의 점령지로 바뀌였다.

마침내 일제가 패망하자 미제는 곧 수십만이나 되는 침략무력을 일본본토에 상륙시키였다. 일본을 점령한 미제는 서슴없이 일본을 발판으로 하여 아시아에 대한 저들의 지배권을 더욱 확장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처음에는 필리핀과 타이가 그랬던것처럼 오늘은 남조선이 그 실례로 되고있다.

아시아나라들을 하나하나 저들의 지배권에 종속시키려는 대아시아정책을 미제는 철저히 일본을 통해 실현하고있다. 때문에 미제에게 있어서 일본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저들의 침략의 전초선일뿐아니라 돌격대로까지 되여야 한다. 트루맨으로부터 일본의 항복을 접수하고 통치할 전권을 가진 동맹국의 사령관 맥아더야말로 일본을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침략기지로 전환시킬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정책의 가장 충실한 집행자이다.

이런 제반 사실들은 지금 일본을 가로타고 앉아있는 미군정당국이 일본을 결코 평화로운 민주주의국가로 만들지 않을것은 물론 그것을 허용하지도 않는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준다.

《그런데 왜 그자들이 일본의 민주화요 개혁이요 하고 떠드는가 하는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놈들의 교활한 속심이 있습니다.》

탁자앞으로 다가오신 장군님께서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덕수며 대표단성원들을 바라보시였다.

《그것은 결코 일본의 변화자체에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본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변형시키려는데 있습니다. 미제는 일본이 어디까지나 자기의 리익을 대변하는 종속적인 동맹국으로 될것을 바라지 리익을 다투는 경쟁자로 될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때문에 동맹국으로 되는데서는 유리한 조치들을 취하면서도 경쟁자로 되는데서는 이러저러한 제한조치들을 취하고있습니다. 방금 덕수동무

도 말했지만…》

장군님께서는 손끝으로 탁자를 두드리시며 힘을 주어 말씀하시였다.

《미제는 일본인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농지개혁이요, 로동3법이요 하면서 일련의 민주개혁들을 단행하는것처럼 행동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원흉이며 군국주의아성인 〈천황〉을 처단하지 않았을뿐아니라 도리여 그 통치체제를 보존하여 군국주의정치적지반을 확립해놓았습니다. 얼마전에도 기시노부스께를 비롯한 A급전범자 열아홉명을 무죄로 석방했습니다. 또 재벌을 해체한다고 하면서도 군국주의경제적지반들은 보호하면서 그것을 미독점자본의 지배밑에 둘 작정으로 재편성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다 일본자체의 변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리해관계, 저들의 대아시아정책에서 일본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관련돼있습니다. 우리는 미제와 일제와의 관계가 이렇다는것을 알아야 일본에서 사는 재일동포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

덕수는 저절로 탄성이 터졌다. 일본에서 살고있는 자기들도 미처 륜곽으로만 알고있을뿐 구체적으로 가려내지 못했던 사실을 장군님께서 얼마나 명철하게 또 정확하게 밝혀주시는지 대번에 눈앞이 확 밝아지는것 같았다. 놈들의 탄압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투쟁할것인가에 대해 밤을 새워가며 떠들어대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치면서 자기들한테는 그처럼 어렵고 복잡하게 여겨지던 사실이 어쩌면 장군님에게는 이렇듯 단순하고도 명백하게 느껴지실가 하는 의혹과 놀라움을 지울길이 없었다. 그럴수록 장군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감정이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8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책상에 펼쳐놓은 학습장을 내려다보던 박헌영이 머리를 들고 침착한 눈길로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의 여유있는 시선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부터 파악이 있을뿐더러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다는것을 은근히 암시해보이는것 같기도 했다.

《**김일성**동지께서 지적하시다싶이 앞으로는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재일동포들의 처지가 더 어려워지리라는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재일동포들이 자기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흘러내린 안경테를 손가락으로 밀어올린 그는 다시한번 주위를 돌아보았다.

《무엇보다도 재일동포들이 해외교포운동의 일반적인 원칙인 거주국전위당과의 관계, 다시말해 일본공산당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이라고 봅니다. 재일동포들이 일본공산당과의 련계밑에 자기 활동을 벌리는것이나 일본공산당이 재일동포들을 계급적으로 보호하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원칙에도 부합되는것입니다. 더우기 재일동포들경우에는 다른 나라 교포들보다 유리한 조건들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공산당이 조련의 도움으로 재건됐으며 그 요직에 김운해, 원철 등 우리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정 그리고 일본공산당자체가 이젠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대중적정당으로 됐다는데 대해 언급한 그는 확신성있게 덧붙이였다.

《이런 제반 사실들은 일본공산당과의 련계만 잘 가지면 재일동포들이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면서 처지를 개선할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류의해야 할 문제는 앞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지도핵심문제인데 저는 재일조선인운동이 일본공산당과의 밀접한 련계밑에 진행되여야 하는것만큼 일본공산당에서 활동하면서 동포들에게도 신망이 있는 사람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지도를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더우기 그래야 하는데는 조련이 일체 정치적성격을 띠는 투쟁이나 활동이 제한돼있기때문입니다.》

덕수는 은연중 이마살을 모았다. 일본공산당과의 관계나 조련의 활동원칙에 대한 박헌영의 견해가 재일조선인운동자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듯 해서였고 또 그의 말이 일본에 있는 원철의 주장과 신통히도 비슷했기때문이였다. 원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일조

선인운동이 결코 민족적틀에 매여서는 안된다면서 어디까지나 일본 공산당과의 련계를 중심에 놓고 전개되여야 한다고 했다. 그때마다 의견은 없지 않았지만 참을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조련내 당원활동가들의 책임자라는것으로 해서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재일동포들이 자기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공산당과의 련계를 강화해야 한다는것인데 그것이 국제공산주의운동원칙에도 부합된다 그 말이지요?》

김일성동지께서는 박헌영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고나서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가 알아야 할것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재일동포들자신이라는것입니다. 누가 운동을 책임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들자신이 결심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벌써 자체로 조직을 뭇고 많은 일을 해놓았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홍선생은 어떤 의견입니까?》

장군님께서는 박헌영옆에 앉아있는 홍명희에게로 시선을 옮기시였다.

《시국이 시국이니만치 저 역시 재일동포들문제에 대해서는 해당한 대책이 있어야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에 환갑을 쇤 그였지만 또랑또랑한 목소리는 홍안의 젊은이 못지 않게 맑고도 류창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세계적으로는 약 1억이 넘는 해외교포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개가 두차례의 세계대전, 특히 2차대전으로 하여 조국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지요.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세계 여러 지역에 널려있는 교포들이지만 처지와 대우의 차이로 해서 유럽이나 아메리카에 이주해 사는 교포들과 일본을 비롯한 동양에 이주해 사는 교포들 두 부류로 나누어보고있습니다. 유럽이나 아메리카주에서 사는 교포들인 경우에는 자기 나라 국적을 보존하면서도 거주국의 시민권을 받기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과 별차이 없이 생활하고있지만 일본과 같은 혈통주의나라들에서 사는 교포들의 경우에는 자기 나라 국적을 버려야 거주국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자기 나라 국적을 버리지 않는다면 부득불 차별을

받게 되며 귀화의 대상으로서 언제까지나 이러저러한 탄압과 박해를 면할수 없지요. 바로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 역시 재일동포들이 공화국공민의 존엄은 지키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이나 민주력량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그것이 미제와 일제의 탄압을 이겨내기 위한 의지점으로도 된다고 봅니다.》

덕수는 저도 모르게 장군님표정을 살피였다. 박헌영이가 정치적으로 표현했다면 홍명희는 생활적으로 표현한 바로 그 문제에 재일조선인운동의 본질이 내포되여있기도 했다. 과연 장군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실가?

사실 일본에서 사는 동포들자신도 자기들이 차별을 받을수밖에 없는 존재라는것을 알고있었다. 일본이라는 환경이 자기들에게 민족적차별이나 동화정책같은 사회적박해를 전제로 해놓았기때문이였다. 그런 사정으로 하여 일군들까지도 동포들이 자기의 권리와 리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자기들을 리해하고 도와줄수 있는 력량인 공산당이나 로조와 같은 민주진영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바로 그 주장에는 의견이 있던 덕수였다. 그것이 재일조선인운동의 독자성을 무시하기때문이라는 리유였으나 그렇다고 다른 명백한 주장이 있거나 대책이 있다는것은 아니였다. 그래서 그만치 더 괴롭고 안타까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두손을 한데 모두어쥐며 심중한 안색을 지으시였다.

《재일동포들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다른 나라의 해외교포들과는 철저히 다르다는것입니다. 홍선생도 말하다싶이 해외교포들은 대체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으로 하여 자기 조국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의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을 피해 스스로 살길을 찾아 해외로 갔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알제리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카나다에 있는 뽈스까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스스로가 갔다

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일동포들인 경우에는 스스로 간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제발로 간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끌려가지 않으면 안되였다는 바로 여기에 여느 나라 해외교포들과는 다른 재일동포들의 처지의 특수성이 있는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해방이 되여 조국으로 돌아오려는 재일동포들의 귀국의 길까지 음으로 양으로 방해해나섰습니다. 놈들에게 끌려갔다가 놈들에 의해 되돌아올수 없게 된 사람들, 바로 이들이 재일동포들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 해외교포들인 경우에는 몰라도 재일동포들은 마땅히 오늘에 와서 자기의 권리를 일본당국에 요구할수 있으며 요구해야 합니다. 또 일본정부로서는 응당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조련이나 재일동포들이 정치활동을 제한당하고있기때문에 투쟁을 하기 어렵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저들의 악독한 식민지정치의 결과로 하여 일본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고 그 후과로 하여 산생된 문제들인데 어째서 정치적으로 해결할수 없단 말입니까. 죄없는 사람들을 끌고가서 대포밥으로 마구 내몰 때는 언젠데 이제 와서는 모르는척 한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수 없습니다.》

한손을 저으신 장군님께서는 지금 재일동포들이 자기의 권리와 리익을 위해 실지로 그렇게 투쟁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 실례들을 언급하시였다.

민족교육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4.24교육투쟁도 그렇지만 미군정의 지시로 우리 나라 기발을 게양하지 못하게 했을 때도 재일동포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제일 높은 곳에 공화국기를 띄우고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공화국공민된 기개를 시위했다. 또 요즘은 생활권확보에 대한 구호를 내걸고 매일처럼 일본당국에 동포들의 생활을 안정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런 투쟁들은 다 자기 권리를 위한 정치투쟁이며 그런 투쟁을 통해 이룩한 승리이다. 미제와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싸운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공화국공민된 긍지를 가슴깊이 자각한 우리 재일동포들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쉽게 이룩할

수 없는 성과들이다.

덕수는 대뜸 가슴이 뭉클했다. 자기들이 한 일을 그처럼 높이 평가해주시는 장군님의 말씀도 말씀이였지만 재일동포들을 다른 나라 해외교포들과는 철저히 달리 여겨주시는 장군님의 그 믿음과 사랑에 저절로 코마루가 저려들었다.

대표단성원들도 같은 심정인듯 하나같이 감격에 넘친 눈길로 장군님을 우러러보고있었다.

《일본공산당이나 민주력량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이 있었는데》

언제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하실 때면 그런것처럼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한곳을 주시하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우리의 립장이 동무들이 말하는것처럼 되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선 재일동포들을 우리자신보다 다른 나라의 어떤 력량과 먼저 결부하여 생각하기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런 태도는 재일동포들을 우리자신이 책임진다는 립장이 아닙니다. 그래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또 조건이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제 자식을 남에게 맡길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무책임한 부모로는 될수 없으며 되여서도 안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창문쪽으로 다가서는 장군님을 바라보는 순간 덕수는 무어라고 형언할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후려쳤다.

(어떻게 제 자식을 남에게 맡길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무책임한 부모로는 될수 없으며 되여서도 안됩니다.)

장군님의 말씀을 되새기느라니 다시금 불뭉치같은것이 명치끝을 치받았다.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어쩔수 없는 숙명으로 여기고 살고있는 재일동포들, 갖은 수모를 다 받아도 어디에 가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할수 없던 재일동포들을 그처럼 소중히 여겨주시다니, 아— 우리 장군님은 바로 이런분이시구나! 정녕 장군님이시야말로 60만 재일동포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친어버이가 아니신가!)

어쩐지 눈앞에 뿌연 안개가 서리였다. 장군님말씀을 놓칠세라 온신경을 귀에 집중했으나 귀에는 오직 쿵쿵 하고 흉곽을 때리는 심장의 박동소리만 꽉 차있을뿐이였다.

《우리 나라의 해외공민이란…》

뒤로 돌아서신 장군님께서는 한결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그가 어디에서 살건 우리 민족의 한부분이고 그 구성원이라는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자 조국의 운명이고 조국의 운명이자 그들의 운명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결국 재일동포들의 운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 조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것입니다.》

장군님의 안광은 어느덧 여느때 볼수 없는 빛을 발산하고있었다.

덕수는 물론 대표단성원들은 하나같이 숨을 죽이고 장군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그럼 어떻게 책임지는가? 그것은 바로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진 일본땅에서 사는 재일동포들이지만 그들을 조국의 두리에 튼튼히 뭉쳐세우는것, 이것이 곧 우리가 그들을 책임지는것으로 되며 재일동포들 역시 자기의 운명을 조국과 함께 하는것으로 된다는것입니다.

〈조국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치자!〉, 이것이 바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총적방향이며 기본과업으로 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모든 재일동포들을 조련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해야 합니다. 조련은 어디까지나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입니다. 조련뒤에는 우리 공화국이 있습니다. 때문에 동포들을 조련에 묶어세워야 공화국두리에 뭉치는것으로 됩니다.

미제와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면 될수록 또 남조선괴뢰들의 책동이 우심해지면 질수록 재일동포들은 이 구호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놈들의 탄압을 이겨내면서 공화국공민으로서의 존엄을 빛내일수 있고 그래야 민족적인 권리와 리익도 옹호하고 실현할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그들이 조국인민들과 발을 맞추어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도 복무할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재일동포

들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라는것입니다. 문제는 그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잠시 덕수와 대표단성원들을 바라보시다가 힘있는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무엇보다도 모든 동포들이 공화국의 해외공민이라는 드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쳐 후대들을 선진과학과 기술로 준비된 훌륭한 민족간부로 키우는것과 함께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모든 재일동포들이 자기의 운명을 지키는것이며 조국의 두리에 튼튼히 뭉치는것으로 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동무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덕수를 바라보시였다.

덕수는 저도 모르게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무슨 의견을 말하자고 해서가 아니였다. 가슴속에서 끓어번지는 걷잡을수 없는 충동과 격정이 잠자코 한자리에 앉아있을수 없게 했다. 그는 그런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몰라 번뜩이는 눈길로 옆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당장 탄성이 터져나올것 같은가 하면 두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두드려대고싶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왜서인지 장군님앞에 엎드려 소리내 울고싶기도 했다.

《옳습니다, 장군님! 이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똑똑히 알겠습니다. 명백합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이렇게 웨치는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감격으로 하여 떨리고있었다.

9

설을 눈앞에 둔 날씨치고는 너무도 잠풍했다. 흔히 섣달그믐때에는 백설이 쏟아져내려 온 천지가 백색일경으로 단장되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칼날같은 바람이라도 불어 량볼을 싹싹 도려내든가 해야 설맛이 나겠는데 눈과 바람은커녕 하늘에서는 도리여 따뜻한 해빛

이 내리쪼이고있었다.

그 해빛으로 하여 소나무며 측백나무의 우듬지에 상투처럼 얹혀있던 눈은 물론 군데군데 음달진 곳에 남아있던 잔설들까지도 주룩주룩 소리를 내며 녹아내리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흥건히 젖어들고있는 을밀대로 향하는 밋밋한 둔덕길을 걷고계시였다. 그이의 량옆에는 덕수와 진규가 서고 뒤에는 현우와 서민이가 따르고있었다.

오전 내각청사의 집무실에서 대표단성원들과 재일조선인운동이 나갈 방향과 방도들에 대해 토론하신 그이께서는 오후 그들과 함께 모란봉을 찾으시였다.

적구나 다름없는 살벌한 땅에 돌아가 갖은 시련을 이겨내면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들을 위해 뭔가 각별히, 따뜻이 대해주고싶으시여 몸소 마련하신 산책이였다. 일본에 돌아가서도 그들이 조국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부족하나마 즐겁고도 인상깊은 추억으로 되새길수 있는 그런 하루로 되게 하고싶으시였다. 모란봉을 돌아본 다음에는 을밀대아래에 있는 을송정에 들려 이들을 위한 송별회를 가질 예정이였는데 그때에는 꽤 잘 부른다는 덕수의 노래도 한곡조 들어보실 작정이시였다. 송별회준비를 위해 지영이를 먼저 을송정으로 보내신 장군님께서는 다른 부수상들에게는 시간을 맞추어 그리로 오라고 일러두시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는 일제를 쳐부시는것이 우리의 과업이였고 나라가 해방된 직후에는 통일정부를 세우는것이 우리의 임무였다면 공화국이 창건된 오늘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화국두리에 묶어세워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서게 하는것이 기본임무로 됩니다. 조국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에서 사는 재일동포들경우에는 그것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섭니다.》

장군님께서는 발아래 펼쳐진 대동강일경을 바라보시다가 손을 들어 강쪽을 가리키시였다.

《저길 보십시오. 한 나라 혁명을 저 대동강에 비유한다면 조국에서 벌어지는 투쟁은 강의 본류가 되는셈이고 재일조선인운동은 저쪽에서 흘러드는 합장강처럼 지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언제나 지류

가 본류에 합류됨으로써 하나의 거류를 이루듯이 일본에서 벌어지는 재일조선인운동도 철저히 조국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되여야 합니다.》

(본류와 지류!)

덕수는 저도 모르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렇다. 지류가 본류에 합류됨으로써만 하나의 도도한 거류를 이루듯이 재일조선인운동도 어디까지나 조국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조국의 진군에 발맞출뿐아니라 그 진군을 더 힘있게 떠미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덕수는 마치 장군님께서 자기앞에 얼기설기 엉키여있는 해묵은 가시덤불들을 하나하나 치워주시면서 자기를 해빛이 비치는 밝은 곳으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상싶었다. 그러자 그것은 곧 하나의 진리, 그 어떤 사회적운동이나 투쟁도 그 방향과 목적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는 진리와 함께 그 방향과 목적은 바로 그것을 내놓은 사상의 높이에 의해 규정된다는 절대적인 진리가 새삼스레 가슴을 쳤다.

(과연 우리 장군님이 아니시고야 누가 재일동포들의 앞길을 이처럼 명철하게 밝혀주실수 있단 말인가!)

이런 긍지와 자랑이 북받쳐오른 덕수는 흔히 흥분할 때면 그런것처럼 더욱 걸음발을 다그쳤다.

《아니, 이쪽입니다. 그리로 가면 을밀대가 아니라 을송정으로 빠지게 됩니다.》

미소를 머금고 덕수를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그제야 량옆에 대표단성원들이 서있다는것을 깨달으시였다. 문득 한가지 생각이 떠올라 웃음을 지으시였다. 모란봉에 와서는 사업상얘기는 하지 않기로 한 결심을 자신께서 스스로 어기고있다는것을 느끼셨기 때문이였다.

화제를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그이께서는 곧 진규쪽으로 돌아서시여 그가 종합대학을 참관하다가 옛날 일본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는 그에 대해 물으시였다.

갑자기 얘기의 방향이 달라진데 어리둥절해진 진규였으나 눈가에

는 웃음이 어리였다.

《전 사실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징병을 피해다니느라고 갖은 고생을 다하던 그여서 틀림없이 놈들에게 붙들리여 잘못되였으리라고만 여겼었는데 종합대학 강좌장이 되였으리라고는…》

《그래 그가 진규동무에게 뭐라고 합디까?》

《그저 처음부터 하는 말은 왜 아직도 일본에 그냥 있는가고, 당장 조국으로 오라는것이였습니다. 아니, 이번 기회에 조국에 떨어져 대학에서 같이 일하자는것이였습니다. 흥부동에 있는 그의 집에도 가보았는데 얼마나 단란한 생활을 꾸리고있는지…》

《조국에서 같이 일하자…》

이렇게 되뇌이시던 장군님께서는 부지중 옆에 있는 덕수에게 시선이 가시였다. 덕수 역시 그 순간 머리를 번쩍 들고 장군님을 마주 바라보았다. 문득 어제 대표단의 조국방문과정에 대해 보고하던 지영이가 요즘 덕수가 무엇때문인지 몹시 우울하게 지낸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일이 상기되시였다.

《우울하게 지내다니? 혹시 어디 아픈게 아니요?》

《병원에 가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몸이 아파서 그런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때문이란 말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만.》

지영은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장군님, 덕수동지가 우울해진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와서 그런것 같습니다. 덕수동지야 누구보다도 조국의 품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까.》

《으－음－》

장군님께서는 생각이 깊어지시였다. 왜 안 그러랴!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살다가 막상 조국에 와보니 생각이 많아질수밖에, 더우기 그처럼 조국의 품에 안기고싶어하던 그인데야. 초기혁명활동시기 왕재산에 왔다가 다시 중국땅으로 갈 때 일이며 항일유격대원들과 함께 보천보전투를 치르고 압록강을 건널 때의 일이 떠오르시였다. 그때 자신께서도 차마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우시였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조용히 머리를 저으시였다.

조국에 떨어지고싶어하는 덕수의 심정이 리해되면 될수록 그만 못지 않는 또 하나의 감정, 그 소원이 아무리 간절하다 해도 그걸 들어줄수 없으며 들어주어서도 안된다는 정반대되는 감정으로 하여 못내 마음이 무거우시였다. 그것은 그의 사무친 소망을 풀어주고싶으신 간절한 마음과 그와는 달리 혁명의 요구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일본에 되돌려보내야 한다는 명백한 결론의 부딪침이였다.

혁명에 나서신 첫날부터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숱한 슬픔과 괴로움을 겪어오시였으나 제일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가 바로 이런 때였다. 혁명의 요구와 인간적인 감정, 혁명의 요구를 위해서는 인간적인 감정을 묵살해야 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면 반대로 혁명의 요구를 저버려야 했는데 고통스러운것은 이 상반되는 두가지 감정이 언제나 동시에 예리한 화살이 되여 가슴에 날아와 박히는것이였다. 그때마다 더없이 괴롭기는 하지만 부득불 인간적인 감정을 누르고 혁명이 바라는쪽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것이 또 무엇보다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다.

그럴 때면 믿음이 가는 사람일수록 혁명임무도 무겁기마련이고 혁명가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불가피한 일이 아닐수 없으니까 하는 혁명가들 일반의 생활공리를 속으로 외워보군 하시였으나 그런 말로는 아픈 마음을 달래일수가 없으시였다. 그런 말로 달래이기에는 가슴쓰린 사연들이 너무나도 많았던것이다.

그중에도 김혁이와 헤여지던 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리여 견딜수가 없으시였다.

오래동안 적구에서 갖은 신고를 다 겪으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돌아온 그였으나 급박한 정황은 그를 다시 보다 위험한 적구—할빈으로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했다.

《성주동무!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같이 있게 해주우. 내 일이 위험해서나 가기 싫어서가 아니요. 다문 하루밤만이라도 같이 지내면서 그동안 쌓인 회포도 나누고 한번 실컷 웃어보기라도 한 다음에 가게 해달라는거요. 부탁이요.》

생각같아서는 그를 그러안고 며칠이라도 같이 있고싶었지만 긴박한 사정은 그럴 여유를 주지 않았다.

《내가 왜 김혁동무의 마음을 모르겠소. 혁명을 하자니까 이런 일도 있는건데… 그리고 이거야 단지 우리가 잠시동안 헤여지는게 아니요. 그러나 할빈에서 돌아오면 그땐 우리 동만에 나가서 함께 있기요. 잠시도 헤여지지 말고말이요. 내 약속하겠소.》

그러나 그렇게 떠나간 김혁이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말았다. 결국 잠시라고 했던 그 리별이 영원한것으로 되고말았던것이다.

당장 떠나야 할 덕수를 생각할 때면 김혁이와 헤여지던 때의 일이 되살아나면서 가슴이 미여지시였다. 김혁이나 덕수가 다 일본에 있다가 같은 심정을 안고 찾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둘이 다 함께 있고싶어하지만 다시 어려운 임무를 지워 위험한 적구로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정이 두사람을 더욱 하나로 일치시키는것이였다. 시를 잘 짓던 김혁이라면 노래를 잘 부르는 덕수 역시 어딘가 일맥상통한데가 있었다. 이런 비슷한 점들이 어쩐지 지나간 애절한 추억들을 불러일으키면서 더욱 목을 메게 하였다.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를 찾기만 하면 다시는 그런 가슴아픈 리별은 없으리라 여기셨건만 새 조국이 창건된 오늘에 와서도 여전히 그런 뼈저린 체험을 하게 되실줄이야…

따져보면 어떤 측면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조건이기도 했다. 그래도 그때는 서로 떨어져있어도 수시로 련계를 맺을수도 있고 보고싶으면 달려가 만날수도 있었지만 덕수가 가는 곳은 보고싶어도 볼수 없고 가고싶어도 갈수 없는 만리창파를 사이에 둔 남의 나라 땅인것이다. 소식이나 련계는 물론 건강한 몸으로 있는지 하는 안부조차 알길이 없이 달을 넘기고 해를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였다. 과연 이제 헤여지면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아니, 다시 만날수 있기나 하겠는지…

다시금 이런 생각으로 하여 그이께서는 마음이 아프시였다. 덕수에게는 김혁이와 헤여질 때 한 《잠시》라는 말조차 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더 쓰리시였다. 다만 덕수가 제발 자기의 그 간

절한 소망, 일단 말을 꺼내기만 하면 자신으로서도 차마 물리치기 어려운 그 소청만은 입밖에 내지 말기를 바라실뿐이였다.

옆에서 묵묵히 따라걷는 덕수의 기색을 통해 그가 지금 모르긴 해도 분명 자신께서 우려하고있는 바로 그 생각에 옴해있다는것을 짐작하신 장군님께서는 태연한 기색을 지으며 물으시였다.

《그래 덕수동문 이번에 일본에서 같이 지내던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예?》

미처 생각을 가다듬지 못한 상태에서 덕수가 눈을 슴뻑이자 뒤에 있던 서민이가 나직한 소리로 귀띔했다.

《왜, 극장에 갔다가 최승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최승희라니? 그러니 그를 일본에서 만난적이 있단 말입니까?》

장군님께서는 의외의 사실에 놀라시였다. 덕수가 일본에서 최승희를 만난 일이 있다는 사실자체도 놀라왔으나 덕수에게 화제거리가 생긴것이 더 다행스러우시였다. 그제야 생각이 나는지 덕수의 얼굴에는 어설픈 미소가 스치였다.

《그가 일본에 와서 공연할 때 한번 만난적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여서 그를 찾아갔더랬는데…》

그와의 상봉이 뒤늦게 떠올랐기때문인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 아쉬워서인지 덕수는 침울한 목소리로 뜨직뜨직 말을 이었다.

…단나추도공사장에서 일할 때였다.

조선인로동자들로 야학을 조직해놓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교재를 마련해줄수가 없었다. 최소한 등사기와 원지 그리고 얼마간의 종이가 있어야 변변찮은 등사교재라도 만들수 있겠는데 그걸 구입할 몇푼 안되는 돈조차 없었던것이다.

그때 마침 일본에서 《조선의 무희》로 굉장한 소문을 내며 공연을 하던 최승희가 순회공연차로 요꼬하마에 왔다.

덕수는 그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 역시 조선사람으로서 이역땅에 끌려와 마소와 같이 고역을 당하고있는 불쌍한 동포들을 모른다지는 않을것이다. 아니, 더없이 반가와하며 얼싸안고 눈물을 흘

릴것이다.
  덕수는 로재호와 함께 그가 공연하는 요꼬하마극장으로 갔었다. 공연이 끝난 다음 최승희를 만나 자기들이 누구라는것을 밝히고나서 두가지 부탁을 했다. 하나는 동포로동자들이 제 나라 글을 공부하자니 돈이 드는데 그 돈을 좀 대달라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까지 왔던김에 멀지 않는 공사장에서 수천명이나 되는 동포로동자들을 위해 춤을 한번 춰달라는것이였다.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와 고생하는 동포들이 당신의 장고춤이나 부채춤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고향생각, 부모처자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것이다, 당신 역시 일본사람들앞에서 춤을 출 때보다 많은것을 느낄것이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최승희는 그러마고 했었다. 그러나 그는 약속한 날은 물론 그 다음날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신문을 보니 공사장에 오기로 한 날 그는 벌써 다른 곳으로 공연을 떠났던것이다. 그런데 후에 안 사실이지만 그가 공사장에 오지 못한것은 일본경찰이 공사장에서의 공연을 방해했기때문이였다. …
  장군님께서는 궁금하신 눈길로 덕수를 바라보시였다.
  《그래 그를 만났을 때 그때 얘기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우린 사실 그때 동무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것이 경찰들의 방해때문인줄은 모르고 속으로 얼마나 욕했는지 모른다, 밤을 패워가며 가설무대를 만들었고 없는 돈을 모아 꽃다발까지 사놓고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는걸 보니 분명 이 녀자가 조선사람들보다 왜놈들을 더 중하게 여기는게 틀림없다고까지 하면서 괘씸해했는데 이제라도 그때 일을 사과할테니 량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히려 제편에서 사정이야 어떻든 자긴 아직도 재일동포들에게 죄를 짓고있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나도 그가 일제때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하는걸 들은적이 있습니다. 일제시기에는 누구나 하고싶어도 하지 못하고 하기 싫어도 마지 못해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수재들일수록 더욱 그런 비운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직후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를 규정할 때 주동과 피동을 엄격히 갈라보았던것입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일본땅인 경우에도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일본이라는 환경의 복잡성으로 하여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문제라는데 대해 이미부터 생각해오시던 장군님이시였다.

《참! 생각이 난김에 한가지 말하는데 일본에 돌아가면 영신이라는 처녀를 찾아보십시오. 아버지가 우리와 다른 길을 걷는다고 해서 여태껏 우리를 따라오던 그를 내버려둘수야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그를 찾아내여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우기 일본녀자를 어머니로 둔데다가 늘 의지하던 지영동무까지 옆에 없으니 그가 지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처지에 있겠습니까. 지영동무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를 못내 잊지 못해하는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찾아보겠습니다.》

덕수는 힘을 주어 말씀올리였다.

《저도 이번에 조국에 와서야 지영동무의 애인이 박룡의 딸이라는걸 알았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동포들을 배신한 그런 역적의 딸을 지영동무가 사랑한다는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아버지는 아버지고 딸은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진 용서할수 없는 원쑤이지만 딸이야 사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옳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아버지때문에 죄없는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면 그건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야 인간의 운명을 밝은데로 이끄는 혁명가들이 아닙니까. 수난많은 력사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은 개인의 운명도 다난할수밖에 없습니다. 조국을 잃고 망국노의 신세가 되여 이국땅에 끌려간 재일동포들이 겪은 기막힌 사연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민족이 갈길을 잃으면 개인도 인생길을 잃고 방황하기마련입니다. 그렇다는걸 알고 동포들을 대하고 일군들을 대해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덕수의 표정을 지켜보시던 장군님께서는 그제야 다소 안심이 되시였다. 지금 하고있는 얘기로 하여 덕수가 이젠 본래의 자기 생각에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것을 느끼셨기때문이였다.

10

하지만 덕수는 여전히 마음을 사로잡고있는 하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주위에서 벌어지는 얘기에 잠시 정신이 팔렸다가도 그 얘기가 끝나면 어느새 생각은 다시 본래대로 되돌아가는것이였다. 마치 어떤 무게에 눌리워 일시 기울어졌던 저울눈금이 물체를 내려놓자 저절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것과 같다고 할가.

모두들 을밀대란간에 붙어서서 최승대쪽을 가리켜보이며 하시는 장군님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있었으나 그만은 그쪽을 보기는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생각에 잠겨있었다. 어떻게든 장군님곁에 남고싶은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라도 말씀드리고싶었고 그러면 혹시 장군님께서 자기의 소망을 들어주실지도 모른다는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저길 보십시오.》

덕수에게로 다가서신 장군님께서는 한곳을 가리켜보이며 말씀하시였다.

《지금은 겨울이니 그렇지 얼음이 풀리면 저 강동쪽에서 흘러내리는 대동강물이 이 아래쪽에 있는 청류벽이나 부벽루를 감돌아흐르는데 갖가지 꽃들이 만발한 봄철에는 참으로 장관입니다. 그래서 을밀상춘이 예로부터 평양팔경의 하나로 꼽히고있습니다.》

천천히 을밀대정각을 나서시여 구들장같은 천연바위를 밟으시던 장군님께서는 한가지 생각이 떠오른듯 걸음을 멈추시였다.

《덕수동무!》

장군님의 사색이 깃든 표정을 통해 그이께서 이미부터 생각해오

시던 어떤 문제에 대해 말씀하려 하신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난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들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 드는것을 어쩔수가 없습니다.》

덕수는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리둥절한 눈길로 장군님을 우러렀다.

《무엇이 미안하고 송구스러운가? 동무들도 알다싶이 나는 해방직후 재일동포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공화국이 창건되기만 하면 동포들은 모든 측면에서 조국의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공화국이 창건되였지만 우리가 동포들에게 해준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무엇 하나 이렇다하게 도와준것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마음에 걸리는데 더 송구한것은 그런 우리를, 아직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는 조국을 동포들은 어머니라 부르며 한결같이 따르고있다는것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고생하는 자식을 대할 때의 심정이라고 할가…》

《장군님! 그거야…》

옆에 있던 진규가 얼른 한걸음 나서며 진정어린 목소리로 말씀올렸다.

《공화국이 갓 창건된데다가 조국에서 함께 살지 못하니 그럴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이미부터 그런 말을 하리라는것을 짐작하고계셨다는듯, 그러나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듯 고개를 저으시였다.

《물론 제 나라에서 살지 못하기때문에 어려움이야 있겠지요. 그러나 해방이 되고 나라가 선 오늘까지도 동포들을 그런 상태에 있게 한다는데는 가슴이 아픕니다.

방금 덕수동무가 몇푼 안되는 돈을 위해 최승희를 만나러 갔던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일제때니까 그럴수도 있다, 그러나 이젠 재일동포들이 공화국의 해외공민이 되였고 일본 전국에 수백개의 우리 학교가 일떠서있다, 그 학교에서 6만명이나 되는 우리 아이들이 새 조국의 역군으로 자라

나고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애들을 위해 해준것이 무어냐? 책 한권 만들어 보내주지도 못했거니와 아이들 손에 연필 한자루 쥐여주지 못했다, 과연 이것이 자식에 대한, 그것도 남의 집에서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사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처사냐 하고 말입니다.》

지나친 말씀이라고, 지금 조국사정도 어려운데 그걸 바랄 동포들이 어데 있겠느냐고 말씀드리고싶었으나 덕수는 말이 나가지 않았다.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 열망때문이기도 했으나 보다는 재일동포들을 그토록 뜨거운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장군님의 은정에 목이 메여서였다.

하지만 아무래도 한마디 말씀드리지 않고는 견딜수 없어 그는 목청을 가다듬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군님! 재일동포들은 이젠 조국이 있는것만으로도, 장군님이 계신다는것만으로도 힘을 내고 용기를 냅니다. 정말입니다. 재일동포들에겐 더는 아무것도 부럽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 말만은 진정으로 믿어주시기 바라마지 않는다는듯 덕수는 절절한 어조로 말씀올렸다.

《결코 그렇게만 생각할것이 못됩니다. 재일동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계 여러 지역에 수많은 교포들이 있지만 우리 재일동포들처럼 멸시와 수모를 받으며 고생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때문에 나는 늘 어떻게 하면 이젠 그들을 일본사람들은 물론 온 세상이 다 쳐다보는 그런 존엄있고 긍지높은 해외공민으로 내세우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합니다.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로 아무것도 부럽지도 두렵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로 말입니다.》

덕수는 다시금 가슴이 뭉클했다. 새삼스레 장군님의 품에 안겨산다는 자랑과 행복감이 온몸에 전류처럼 퍼져나갔다.

《한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미끄럽지 않은데로 말입니다.》

좁은 오솔길이 나지자 그이께서는 덕수를 앞세우시였다.

《나는 재일동포들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면 그들이 조국을 마음

대로 오갈수 있고 조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될가 하는것을 따져봅니다. 죽을 쑤어 나누어먹더라도 동포들을 데려다 함께 살고싶습니다. 사실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조국의 품에 안기고싶어하겠습니까.》

《?!》

덕수는 저도 모르게 흠칫했다. 조국의 품에 안기고싶어하는 동포들의 심정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자기의 심정, 지금 자기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충동을 꿰뚫어보시고 하시는 말씀같았기때문이였다.

《지금은 놈들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동포들이 조국에 맘대로 오지 못합니다. 동포들은 고사하고 동무들 몇사람이 오는것도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수 없습니다. 누구나 응당 자유로이 조국으로 올수 있어야 하며 오는 경우에도 온 세상이 보라는듯이 당당히 와야 합니다. 난 언젠가는 그런 날이 꼭 오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장군님말씀은 한두사람이 조국으로 오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60만 동포전체가 조국의 품에 안겨야 한다는, 그렇기때문에 나에게는 자기 하나의 소원이 아니라 전체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날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아닐가? 다시말해 장군님께서는 나의 소망을 나 하나의 소망으로가 아니라 재일동포모두의 한결같은 소원으로 받아들이신다는 뜻이 아닐가?)

서서히 잠을 깬 리성의 목소리는 자기의 이 판단이 옳으며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속삭이였다.

《그런데 동포들을 존엄있는 해외공민으로 내세우는것이나 조국에 마음대로 올수 있게 하는 어려운 과업들을 누가 수행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동무들입니다. 바로 동무들의 어깨우에 이 무거운 과업이 지워져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수동무!》

덕수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는 장군님안광에서 펑끗하고 타오른 섬광과도 같은 불꽃이 번개불같은 속력으로 자기 눈안으로 아니, 심장으로 흘러드는것을 똑똑히 느끼였다.

사실 장군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덕수에게 털어보이고싶었고 리해를 받고싶으시였다. 덕수와 같이 진실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감정도, 그것이 설사 아무리 괴로운것이라 해도 어물쩍 넘기거나 피해서는 안된다고 여기시는 그이이시였다. 진심을 진정으로 리해하게 될 때 더욱 강해지고 억세여지며 지어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는것이 덕수처럼 고지식한 사람의 특징인것이다.

《동무들을 일본으로 떠나보낸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도 무겁습니다. 오매에도 그리던 조국을 찾아온 동무들인데 따뜻한 대접도 못한채 짐만 잔뜩 지워서 보내니 말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실이 더 있었으나 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였다. 차마 입밖에 낼수가 없으시였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헤여지면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기약할수 없는 작별에 대한 피할수도 숨길수도 없는 통절함이였다. 실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드는 일이 아닐수 없으시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짐짓 흔연한 표정을 지으신채 덕수를 바라보시였다.

《덕수동무! 나도 동무의 심정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덕수동무가 얼마나 조국에 있고싶어하는가 하는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나는 동무가 일본으로 되돌아가길 바랍니다. 아니,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도 그렇지만 덕수동무나 여기 있는 동무들 모두가 자신을 조국과 동포들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때문입니다. 조국을 위하고 동포들을 위한 투쟁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느끼는 조선의 혁명가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리유는…》

고개를 돌리신 장군님께서는 대표단성원들에게 말씀하시였다.

《바로 덕수동무와 같은 애국자가, 조국을 알뿐아니라 이미부터 동포들에게 신망이 있는 사람이 재일조선인운동을 이끌어야 하기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말이 리해됩니까?》

시선을 떨구는 덕수의 눈귀가 가늘게 떨리였다.

힘껏 다문 입술이 움씰하더니 한쪽으로 이그러지기 시작했다. 그

런 덕수의 모습이 눈부리를 아프게 찌르는것으로 하여 장군님께서는 마음이 쓰리시였다.

《동무들도 짐작하리라고 봅니다만…》

걸음을 멈춘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덕수며 대표단성원들을 유정한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기약도 없이 헤여지는것이 가슴아픈 일이고 또 그 말을 하면 덕수가 괴로와하리라 여겨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께서 더 괴로울것만 같으시였다.

《우린 이렇게 헤여지면 앞으로 언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과연 다시 만날수 있겠는지 하는 의문도 없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작별은 상봉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작별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목이 잠겨 말씀을 이을수가 없으시였다. 문득 김혁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시였다. 오리나무숲이 우거진 강가에 나가 바래워줄 때까지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던 그 마지막 모습이 생생히 기억되시였다. 그때도 바로 이런 겨울이였었다. 강가에는 허연 얼음장들이 어지러이 널려있었다. 어쩌면 그때와 같은 작별이 오늘에 와서까지 있을수 있단 말인가.

갑자기 가슴속에서 불뭉치같은것이 솟구쳐올라 호흡하기 어려우시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그렇지만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고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비록 몸은 천리에 떨어져있어도 조국을 위하는 한마음, 동포들을 위하는 한마음으로 억세게 살아갑시다. 나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제든 다시 꼭 만나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장군님께서는 걸음을 떼시였다. 대표단성원들의 시선을 피하려는듯 그들보다 앞서 걸으시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곧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같은것을 들으시고는 주춤하시였다. 그 소리가 바로 덕수가 터뜨린 흐느낌이라는것을 아시였으나 차마 되돌아설수가 없으시였다. 상혈되여 검붉어진 덕수의 얼굴과 한손으로 입을 틀어막고있을 그의 모습이 상기되자 일시에 눈앞이 흐려지시였다. 가슴이 미여지는것만 같으시였다.

《장군님 ─》

갑자기 터뜨리는 덕수의 오열에 장군님께서는 멈춰서지 않을수 없으시였다.

《제가 미처… 제 생각이…》

온몸을 와들와들 떨며 이렇게 마디마디를 토해내는 덕수는 당장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것만 같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용서를 비는 간절한 애원과 함께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고통이 어려있었다.

《장군님!》

두손을 뻗친 덕수는 어린애처럼 와락 장군님품에 안기였다. 그리고는 더욱 세차게 어깨를 들먹이였다.

사실 덕수는 자기 생각이 짧았다는 뉘우침때문만이 아니였다. 장군님과 헤여지게 되였다는 석별의 정이나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아니, 영영 다시 만나지 못할수도 있다는 비통한 심정때문만도 아니였다. 그것은 자기의 뉘우침이나 괴로움보다 장군님께서 느끼시는 고통과 비감이 몇십, 몇백배나 더 크다는것을 통감했기때문이였다. 바로 그 사실이 참을수도 견딜수도 없게 가슴을 허벼뜯는것이였다. 그런 장군님이시라는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제껏 자기 생각 하나만 앞세운것으로 하여 그이께 괴로움을 끼친 자신을 더없이 가혹하게 타매하고 매질하고싶어지는것이였다.

《알았습니다. 장군님! 장군님뜻을 잘 알겠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제 어떤 일이 있어도…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백번 쓰러지면 백번 일어나 동포들을 조국의 두리에, 장군님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겠습니다.》

《내 마음을 리해해주어 감사합니다.》

눈물이 번들거리는 얼굴을 꿋꿋이 들고 웨치듯 하는 덕수의 모습에서 그이께서는 그 어떤 시련에도 물러서지 않을뿐아니라 그 어떤 좌절에도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일떠설 강직한 전사의 불사신같은 기상을 절감하시였다. 그러자 그에 대한 다함없는 믿음이 새삼스레 세찬 파도가 되여 밀려와 무엇인가 더 큰 힘, 더 큰 사랑을 주고싶으신 충동이 가슴을 치는것이였다.

《덕수동무! 내 약속하겠습니다.》

덕수의 어깨를 잡으신 장군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마주보시면서 확

고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오늘은 비록 우리가 헤여지지만 후날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땐 꼭 조국에서 함께 일할것을 말입니다. 더는 헤여지지 않고 같이 일할것을 말입니다. 난 이 약속을 잊을수 없는 전우였던 김혁이의 유한을 걸고 덕수동무에게 담보합니다. 그 역시 함께 일하자고 약속했지만 새로운 임무로 적구로 가지 않을수 없었고 거기에서 그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다시 있을수 있겠습니까. 혁명이 간고한것이기는 하지만 결코 엄격한 요구와 무자비한 원칙만 있는 몰인정한 세계는 아닙니다. 그러니 나의 이런 심정을 알고 부디 건강해서…》

장군님께서는 말끝을 흐리시며 덕수의 어깨를 힘껏 그러안으시였다.

장군님주위를 에워싼 대표단성원들도 하나같이 어깨를 떨며 흐느끼였다.

그때 맞은켠 오솔길로 걸어오는 한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웠다. 그는 을송정에서 송별회준비를 끝내고 장군님을 마중하기 위해 나오는 지영이였다.

제 2 장

1

도꾜의 상공에는 한겨울의 차디찬 기운이 퍼렇게 엉켜있었다. 성에가 불린듯 허옇게 식은 해가 허공에 외로이 떠있었다. 그 싸늘한 하늘아래 펼쳐져있는 인간세상 역시 살얼음에 싸인듯 온통 랭기를 뿜었다.

그러나 덕수의 안해 수임은 추운줄도 힘든줄도 몰랐다. 도리여 요즘은 이래저래 기쁜일만 겹쳐져 정신이 다 얼떨떨할 지경이였다.

그중에서도 여태껏 품을 놓고 찾아다니며 애를 써도 구할수 없었던 일자리를 하나 얻은것이 무엇보다 기쁜 일이였다. 그 일이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다마가와강바닥에서 오물을 파내는 것인데 일은 다소 고되였지만 정한 시간이 없이 아무때나 일할수 있는데다가 파낸 오물량에 따라 일당으로 삯돈을 받게 돼있는것이였다.

허벅다리까지 오는 긴 장화를 신고 고무앞치마를 두른채 강바닥에 내려가 감탕이며 썩은 넝마쪼각들을 삽으로 퍼낼 때면 역한 악취로 하여 머리가 휘휘 내둘리고 눈알이 다 아렸으나 그런 오물일지라도 많기만 했으면싶었다. 그래서 오물이 많은 자리를 골라잡기 위해 언제나 날이 밝기만 하면 강으로 나가군 했다. 다만 걱정스러운건 유리나 사기쪼각을 밟아 장화가 꿰지지나 않을가 하는것과 남편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면 어쩔가 하는것이였다. 굶는 한이 있어도 일본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허리를 굽히지 말라는 남편이여서 이웃들도 눈치채지 못하게 시작한 일이였다.

그러나 그 직업이 생긴것으로 하여 늘 때식때면 상우에 노란 다꾸앙쪼각만 댕그라니 올려놓군 하던것이 가끔 생선토막이라도 곁들

일수 있게 된데다가 이따금 아들 호일이에게 솜사탕도 들려줄수 있게 된것 또한 이를데 없는 기쁨이였다. 아직 철도 없는 다섯살짜리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찾아나가보면 늘 윙윙 돌아가며 뭉실뭉실한 뭉치를 만들어내는 솜사탕기계옆에 붙어있군 했는데 그때면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그런 기쁨도 기쁨이였지만 요즘 그를 더 즐겁게 하는것은 얼마전부터 남편의 기분이 전에없이 좋아진것이였다. 어떤 경우에도 속생각을 내비치지 않을뿐더러 설사 기쁜 일이 있을 때조차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 남편이여서 늘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고 무슨 말을 물어볼 때도 눈치부터 살피군 해야 했으나 요즘에는 그런 눈치를 보기는커녕 도리여 남편의 흡족한 기분에 저절로 휘말려들게 되였다.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수 있으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야 비로소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것을 알게 되는것 같아 부지중 웃음이 새기도 했다.

(같이 살아봐야 알게 되는게 남편이라더니…)

사실 담도 크게 남편될 사람의 이름 석자와 사진 한장만 가지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까지 와 살림을 꾸린지 6년, 그새 아들딸 하나씩 낳아기르기는 하면서도 어느 하루 맘편히 지낸 날이 없었다. 한집에서 밤낮 코를 맞대고 사는 남편이 그렇게도 어렵고 두려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남들은 시집살이가 시부모들때문에 고되고 힘들다고 하지만 수임은 남편과 단둘이 살면서도 말 한마디조차 마음대로 할수 없었다.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가 시키는대로 이국땅에서 무슨 운동을 하다나니 장가철을 놓쳤는데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고정한 사람이니 그리 알고 마음놓고 심신을 의탁하라는 말만 믿고 덕수를 찾아왔는데 처음 그와 만나는 날 웃방에 있는 그를 몰래 문틈으로 훔쳐보고는 그만 가슴이 철렁했다. 아무리 장가철을 놓쳤다기로서니 저렇게도 나이든 사람일줄이야? 알아보니 자기 나이 두곱이나 된다지 않는가! 그런데다 생기기는 왜 그리도 무뚝뚝한지 눈앞이 캄캄해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아무리 상대가 두렵고 눈앞이 새까매도 이미 고향에서 부모들끼리 혼약을 맺은터여서 어

쩔수 없었다.

《나라가 해방되기 전에는 장갈 안 가려고 했소. 더우기 이 왜놈의 땅에서 가정을 꾸린대야 무슨 보람이 있겠소. 하지만 인연이니 할수 없지. 좋든 싫든 같이 살아봅시다. 그런데 한가지 알아야 할건 나하고 살자면 남달리 많은 고생을 겪어야 한다는거요.》

남편한테서 처음 들은 말이였다.

(가정을 꾸린대야 무슨 보람이 있다니? 인연이니 할수 없다는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러니 얼마간 살아보고 좋으면 살고 싫으면 헤여지자는건가? 아이구, 기막혀라. …)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수임은 웃음이 터지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천상 말이라고는 하지 않을 미륵같은 사람이 자기를 마주보지도 않고 비스듬히 돌아앉아있는 모습도 모습이였지만 놀랍게도 자기를 보고 예입을 쓰는것이였다. 그래도 남편은 자기를 안해로 여기는것 같았으나 저로서는 도저히 그가 남편처럼 느껴지질 않았다. 한데 이상한것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면서도 왜서인지 싫지는 않았다.

해방되는 해에 첫아들 호일이를 낳았다.

남들은 해방이 되였다고 서로마다 앞을 다투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남편만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이 오히려 해방전보다 더 바삐 지냈다. 늘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가 하면 어떤 땐 며칠씩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불쑥 집에 나타나 갑자기 도꾜로 이사를 가자고 했다. 다른 직무, 중총에서 더 무거운 직무를 맡게 되였다는것이다.

《우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껴?》

이사짐을 챙기며 수임은 조심스레 물었다. 언제부터 묻고싶던 말이였으나 남편의 기색을 살피느라고 줄곧 미루어오던 물음이였던것이다.

《고향에? 가야지! 그러나 이 일본땅에 우리 동포들이 있는 한 내가 먼저 가진 못하오. 왜냐하면 그건 얼마전 **김일성**장군님께서 재일동포들을 걱정하시여 편지를 보내주시였는데 그 가르치심대로 동포들을 보호하고 이끌기도 해야 하기때문이요.》

《그 일을 일이 아버지가 해얍니껴?》

남편의 기분이 누그러져있다는것을 안 수임은 버릇처럼 아들이름을 생략하여 부르며 용감성을 발휘하여 재차 물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그 일을 일이 아부지한테 맡기셨나 말입니더.》

《그렇소. 내한테 맡기신거나 다름없소! 그래서 도꾜로 이사를 가는거요.》

얼마나 자신있게 확정적으로 대답하는지 수임은 그 말을 진담으로 믿어야 할지 아니면 롱으로 치부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워낙 롱이라고는 하지 않는 남편이라는것을 알고있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그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아닐수 없었다.

그전까지는 나이차이와 함께 과묵한 성격으로 해서 대하기 어렵던 남편이였다면 이때부터는 그런데서 오는 어려움이라기보다 남편이 하고있는 일의 중요성과 바로 그런 일을 하는 남편이라는데서 오는 존경으로 하여 더 쉽사리 대할수가 없었다.

확실히 그때부터 수임은 남편이 여느 사람과 다르다는것을, 그것이 성격이나 취미때문이 아니라 가슴속에 품고있는 지향이 다르기때문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때에야 그는 어째서 밖에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설도 하고 강연도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는 한마디의 말도 없는지, 또 흔히 늦게 본 자식일수록 사랑이 간다고 하지만 마흔이 되여 본 호일이한테조차 왜 그다지 잔정을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어째서 끼니때마다 까만 보리밥에 무우짠지 하나밖에 없는 상을 차려놓지만 타내거나 군소리 한마디 없는지 리해할수가 있었다. 집에 돌아와 말이 없는것도, 아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지 않거나 음식을 탓하지 않는것도 다 그런데 신경을 쓰기보다 몇배 더 중요하고도 절박한 일, 자기로서는 미처 짐작할수 없는 일이지만 남편에게는 한시도 마음놓을수 없고 미뤄서는 안될 일로 하여 늘 비상한 정신적인 긴장속에 싸여있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였다.

남편이 하는 일을 돕지는 못할망정 리해라도 해야 하는것이 안해

의 도리라고 여긴 그는 부족하나마 있는 성의를 다하려고 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밤늦게까지 글을 쓸 때에는 방해가 되지 않게 아이를 업고 밖에 나가있는가 하면 끼니때에도 없는 살림살이긴 했지만 찬거리에 신경을 쓰군 했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리해되지 않는것이 있었다. 그것만은 아무리 따져봐도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 그것은 남편이 월급이라고는 단돈 한잎도 집에 들여놓지 않는것이였다. 다른 직책이라면 몰라도 이젠 조련사업을 주관하는 의장이 아닌가! 물론 책임자의 위치에서 돈 쓸 일이 남보다 많으리라는것은 짐작이 되지만 그래도 다문 얼마라도 주어야 먹을 쌀을 살수 있을게 아닌가! 중총에서 일하게 된 다음부터 속으로 품어온 의문이였으나 별찮은 말을 물어보자고 해도 며칠씩 별러야 하는 수임으로서는 도저히 돈에 대한 말은 입밖에 꺼낼 용기가 없었다. 그 소리를 하기 바쁘게 무슨 벼락같은 소리라도 지르지 않겠는지 무섭기도 했었다.

(참자! 바쁜데가 있어 썼을테지. 그래도 다음달은 다문 얼마라도 줄거야.)

하지만 다음달도 그 다음달도 종무소식이였다. 그는 얼굴이 달아오르는걸 참아가며 이웃에 사는 동포네 집에 돈을 꾸러 가군 했다. 가게방앞을 지나던 호일이가 사탕이나 라무네(음료의 일종)를 사내라고 조를 때면 저도 모르게 남편이 원망스러워지기도 했다. 집안사정이 어떻다는걸 모르지 않으면서 또 그런 집안을 부둥켜안고 자기 혼자서 얼마나 아득바득 애쓰는가 하는걸 모르지 않으면서 돈을 주기는커녕 수고한다는 말조차 한마디 없는 남편이 무정하다못해 어떤 땐 야속하게 여겨지기까지 했다. 처음 만났을 때 자기하고 살면 고생이 많다고 한 말이 바로 이때문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솟구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이다바시에 사는 경실이가 왔을 때 수임은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물었다. 경실은 중앙학부형회 회장을 하는 윤덕곤의 처로서 아련한 생김새와는 달리 성격이 무척 활달하고 우스개소리도 곧잘하는 녀자였다. 부부가 다 함경북도 성진에 고향을 두었기때문에 그런지 남달리 금슬이 좋았고 그래서인지 나이는

덕수와 같았으나 덕곤에게는 벌써 자식들이 자그만치 다섯이나 되였다.

《경실언니! 회장아주버님 전달월급을 얼마나 줍디까? 우린 아무리 쪼개쓰느라고 하는데도 글쎄…》

《무시기 월그비?》

눈이 동그래진 경실은 한동안 수임이를 빤히 쳐다보다가 정색을 하며 물었다.

《그래, 그 집 의장님은 월그비 아이줍데? 그러이께 그놈의 령감이 요끄나가시(딴데로 빼돌리는것.)하는고마. 이봅세 동생, 눈 단다이 밝히라이. 남자들 소가지는 구렝이 한가지라이.》

이렇게 엮어대던 경실은 갑자기 까르르하고 웃어댔다. 그리고는 수임의 손목을 붙잡고 차근차근 일러주는데 조련일군들인 경우에는 지부나 본부는 물론 중총 의장이라 해도 월급이 없다는것,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것이라는것, 돈을 받지 않고도 동포들과 조국을 위해 일하기때문에 그들이 바로 애국자들이라는것을 제법 류창하게 엮어댔다.

《지금 우리 일군들이 어렵게 살긴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얼매나 땅땅 큰소리를 치오. 왜놈들이 다 벌벌 떨지. 옛날 같으믄사 어림도 없는 일이지비. 이게 다 뉘덕이겠수? 장군님덕이구 공화국덕이지. 그리고 그런 남편을 멕여살리는 우리 녀편네들 덕도 쬐끔은 있는기 아이겠수. 난 그저 그 자랑 하나로 살아간다이. 그렇지만 한가지만은 주의합세. 그건 령감이 집에 들어와서까지 큰소리치게 해서는 아이된다는기지비, 알았지야?》

그날 저녁 수임은 여태껏 같이 살면서도 그런 남편이라는것을 리해하지 못하고 속으로 원망하기까지 했던 자신의 매련없는 행동이 죄스러워 견딜수가 없었다. 어떻게든 잘못을 빌리라 맘먹은 그는 우선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한토막을 구워 상우에 올려놓았다. 그렇게라도 해야 매듭진 마음이 다소나마 풀어질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자기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남편은 상에 마주앉기 바쁘게 숟갈로 밥을 퍼서 입에 넣는것이였다.

《일이 아부지요, 욕마이 하이소. 지가 잘못했십니더.》

저도 모르게 튀여나온 말이였으나 목소리는 떨리였다.

《무슨 소리요?》

입이 불룩하게 밥을 문채 의아스런 눈길로 이쪽을 돌아보는 남편, 그새 밤패워 일하느라고 두눈이 때꾼해진 남편을 보는 순간 수임은 눈굽이 저려들어 견딜수 없었다. 차마 그런 남편을 마주볼수가 없었던 수임은 얼른 부엌으로 내려서고말았다.

그때부터 수임은 또다시 새로운 눈으로 남편을 대하지 않을수 없었다. 다만 동포들을 위해 투신하고있는 남편을 리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도와야 한다는 안해로서의 의무감이 작용했던것이다. 자기로서는 별로 도울 일도 또 도울수도 없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잠자코 있을수만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미군정과 일본당국의 탄압책동을 반대하는 시위며 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투쟁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 그는 비로소 자기가 사는 일본이라는 사회에 대해, 거기서 사는 재일동포들이 어느 길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새삼스레 많은것을 깨달았던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불안도 체험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매일처럼 벌어지는 치렬한 투쟁끝에 수많은 일군들과 동포들이 검거투옥되는가 하면 지어는 남조선으로 추방되기까지 하는 살벌한 환경, 그 위험한 마당 한복판에 서있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기때문이였다. 숱한 항의투쟁과 시위집회를 조직할뿐아니라 매번 그 선두에서 동포들을 이끄는 남편을 볼 때면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킬수가 없었다. 해방전 일본에 건너와 갓 살림을 꾸렸을 때 남편의 뒤를 따르던 형사들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면서 오싹 소름이 끼치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는 호일이를 품에 꼭 껴안고는 남편이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빌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온밤을 뜬눈으로 밝힌적인들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데 작년말, 갑자기 온천에 간다면서 떠난 남편이 열흘이 되고 스무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을 땐 그만 가슴이 덜컹했다. 틀림

없이 무슨 변이 있지 않고야 이렇게까지 소식이 없을리 만무하다고 여겼던것이다. 맏딸 음전이를 낳은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여서 누구를 찾아가 물어볼수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하루, 경실이와 함께 찾아온 윤덕곤이 하는 말이 이제 며칠 있으면 설인데 그때까진 남편이 꼭 돌아올것이라고 하면서 남편이 보내서 가져왔다는 미역꾸레미를 내놓았다. 수임은 남편이 그런 부탁을 할리 없다는것을 잘 알았으나 다심한 덕곤이부부가 고마왔으며 무엇보다 남편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숨이 나갔다.

정말 남편은 정월초에 돌아왔다. 한데 그때부터는 사람이 전혀 딴사람으로 변한것 같았다. 중총일군들이 매일처럼 집으로까지 찾아오는가 하면 어떤 문제를 놓고 밤새껏 서로 열을 올려 떠들어대다가도 갑자기 집이 떠나가게 폭소를 터뜨리군 했다. 며칠동안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않는것 같았다. 분명 무슨 큰 회의를 준비하는게 틀림없었다. 어떤 땐 앉은뱅이책상에 마주앉아 글을 부지런히 쓰다가는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며 빙그레 웃는가 하면 호일이를 품에 안고 《장하고나 우리들은…》 하고 무릎을 들썩거리기도 했다.

《일이 아부지… 온천에 갔다오시더니 마이 달라졌습니더, 예?》

기쁜김에 한마디 했을 때였다.

《달라져? 하긴 그럴수도 있지.》

흔히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보이는 그런 친절하고도 다정한 어조로 남편은 대꾸했다.

《내가 간 온천은 여느 온천과는 다른데란 말이요. 어떤 온천인가? 사람의 심신을 다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그런 희한한 온천이지. 우리 앞으로 같이 가기요. 아이들이랑 다 데리고 말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임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솟구쳐올랐다. 같이 살면서 그렇게 다정하고 곰살궂게 대해주는 남편을 처음 보았던것이다. 이런걸 두고 사람들이 흔히 행복이라고 하는지… 수임은 자기나 아이들은 그만두고라도 그런 온천이라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 남편만은 한해에 한번씩 꼭 보내리라 결심했다.

그런 기분으로 하여 수임은 요즘 저도 모르게 자주 코노래가 흘

러나왔다. 지금도 그는 젖을 빨다가 잠든 음전이를 눕혀놓고 방걸레질차비를 하면서도 언제나 흥이 나면 부르는 노래 《백두산말－기에》를 입속으로 흥얼거리고있었다.

2

회의장은 파도처럼 끓어올랐다.

조련 제17차 중앙위원회에 참가하고있는 중앙위원들과 각 현 대표들 그리고 수많은 방청들은 덕수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한사람같이 자리를 차고일어나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내였다. 입나팔을 만들어 뭐라고 웨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손을 번쩍 쳐들어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너무나도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덕수는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이름할수 없는 충동과 격정으로 가슴이 터질듯 했다.

사실 오늘 회의를 위해 줄곧 밤을 밝히다싶이해온 덕수였다. 눈을 붙이는 경우에도 사무실책상에 코를 박고 잠간 쪽잠을 자는데 지나지 않았으나 지치거나 피곤하기는커녕 저로서도 이상하리만치 온몸에 왕성한 기운이 뻗치군 했다.

장군님사상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며 과업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부터 세워야 하는가를 일군들과 수십번도 더 토론했다. 보고뿐아니라 회의장이며 회의형식까지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하자는데 합의를 보았던것이다.

회의장정면에 세계혁명지도자들 초상화와 《전세계 무산자들은 단결하라!》는 구호를 붙이던 전례를 깨고 장군님초상화만 정중히 모시고는 그밑에다 《공화국에 직결하자!》는 새로운 구호를 내걸었다.

회의장이 달라진데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덕수는 확신에 넘쳐 말했다.

《이제부터는 모든 회의장을 다 이렇게 꾸립시다. 우리들이 언제나 **김일성**장군님만을 우러르며 따른다는 원칙에서도 그렇고 조

국의 두리에 뭉치는것이 우리의 생명선이라는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도 이 구호를 걸어야 하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의지란 말이요.》

모든 준비들이 그만하면 순조로왔으나 하나만은 잘 풀리지 않았다. 그것은 보고를 어떻게 서술해야 장군님말씀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런데 문제는 의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덕수네가 조국에 가서 직접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는걸 모르고있을뿐아니라 몰라야 한다는데 있었다. 덕수는 장군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그대로 전달하고싶었으나 그렇게 하면 조국에 갔다온 사실이 드러날수 있었다. 요즘 덕수에게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 일은 장군님을 직접 만나뵈온 그 꿈같은 사실에 대해 누구에게도 지어는 가족들한테조차 비칠수가 없는것이였다. 동포들이 자기가 조국에 가서 장군님으로부터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받았다는것과 그이께서 한시도 동포들을 잊지 못해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놀라고 기뻐하랴만 그것을 그대로 전할수 없는것이 여간만 속이 타지 않았다. 몸살이 날만치 고통스럽기도 했다. 마치 꿀먹은 벙어리가 아니면서도 벙어리시늉을 해야 한다는것이 무엇보다 괴로운노릇이였다.

《이렇게 합시다.》

나이는 있지만 묘한 궁리를 곧잘 해내군 하는 신의장이 두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어디까지나 보고에 장군님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여야 하는만큼 장군님께서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신것으로 하잔 말입니다.》

모두들 그게 비슷하다고 고개를 끄덕이였으나 덕수는 반대했다.

《그럼 모두들 당장 그 편지를 보자고 달라붙을판인데 그땐 어떻게 하오?》

《그거야 어려울게 뭐요? 장군님교시를 정중히 적어보여주면 될게 아니요.》

《그게 편지야 아니지 않소. 그리고 력사적인 사실이 외곡돼서도

안되는거고.》
《내 생각엔…》
턱을 슬슬 쓸어만지던 윤의장이 생각깊은 어조로 말했다.
《중요한건 보고에 장군님말씀이 정확히 전달되게 하면서도 그 말씀을 장군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감은 없어야 하는건데 그러자면 다른 방도는 없소! 그건 바로 한의장한테 달렸소. 보고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데 달려있단 말이요. 한의장이야 원래 글재주가 있지 않소. 그걸 이번 기회에 한번 시위해보구려. 말하자면 조국에 가진 않았지만 장군님을 만나뵈온것처럼 하면서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런 의혹도 품지 않게 말이요.》
《아니, 그거야 황소를 타고 바늘구멍을 빠지라는 소리가 아니요. …》
덕수의 대꾸에 의장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어쨌든 그때부터 덕수는 책상에 마주앉아 끙끙 갑자르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소를 타고 바늘구멍으로 빠지는것만치나 고된 신고였다. 썼다가는 지우고 다시 썼다가는 또 고치고…
보고는 앞으로의 재일조선인운동은 철저히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진행된다는 원칙, 다시말해 재일조선인운동과 재일동포들의 령도자는 오직 **김일성**장군님 한분이라는것을 밝힌 력사적인 선언이여야 하는 동시에 모든 동포들이 《공화국에 직결하자!》는 구호아래 조국의 두리에 튼튼히 뭉칠 때만이 자기 운명을 해결할수 있다는 새로운 리정표의 제시로 되여야 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조국에 복무하는 훌륭한 민족간부로 키워야 한다는 강령적인 지침이 힘있게 강조되여야만 했다.
보고초안을 읽어본 의장들은 하나같이 눈이 둥그래서 정말 글재주가 보통이 아니라며 감탄해마지않았다. 그러나 덕수는 불안했다.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심오한 사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것 같아서였고 지어는 도대체 이런 새로운 로선이 어떻게 불시에 마련되였는가 하는 의혹을 자아내지 않을가 하는 위구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공연한것이였다. 덕수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회관강당에 꽉 들어찬 사람들이 너도나도 흥분과 감격을 감추지 못했던것이다.

덕수는 회의참가자들모두가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방향에 완전히 감동되고 매혹되고말았다는것을 깨달을수 있었다. 그에게는 이들의 모습이 단순한 흥분이나 격동으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기쁨과 환희만도 아니였다. 그것은 바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하는 자기들을 따뜻이 한품에 안아주실뿐아니라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표시였으며 풍파사나운 이역땅에서도 그이를 영원히 받들어모시려는 불같은 마음과 마음들의 폭발이였다.

갑자기 회의장 맨 앞줄에 앉아있던 거대한 체구의 사나이가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중총조직국장 김훈이였다. 워낙 어떤 감정도 숨길줄 모를뿐더러 숨기기 싫어하는 사람이였으나 지금은 언권을 청하지 않은채 일어섰다는것쯤은 안중에도 없는것 같았다.

《이젠 힘이 생깁니다. 눈앞이 환히 트인단 말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며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리해할수 없는건 말입니다.》

청중들쪽을 돌아본 그는 장내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어째서 여태껏 그렇게도 명백한 우리자신의 앞길을 몰라 좌왕우왕했는가 하는겁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건 일본에 와보신적도 없는 장군님께서 어쩌면 그리도 우리의 실정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이렇게도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는가 하는겁니다. 혹시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싸우실 때처럼 지금도 축지법을 쓰시는게 아닌지요?》

여기저기서 웃음이 일었다. 박수로 호응하는 사람도 있었다.

《글쎄요.》

덕수도 웃음이 어린 어조로 대꾸했다.

《장군님께서 축지법을 쓰시는지는 몰라도 일본에 있는 우리들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고계시는것만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이젠 우리

의 〈해방신문〉이나 〈건설통신〉이 조국에도 가니까요. 그러나 내 생각엔 그보다 중요한건 마음때문이라고 봅니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고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라는 말처럼 비록 몸은 천리밖에 계시지만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가까이에 있는 조국인민들보다 더한 심정으로 우리들을 보살피고계신다는것입니다.》

덕수가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자 만장에는 다시금 우렁찬 박수가 터져올랐다.

회의진행을 맡은 신의장이 다음회순으로 넘어갈 차비를 하는데 회의장 중간쯤에서 한 젊은이가 손을 번쩍 쳐들며 소리쳤다.

《한가지 제기해도 되겠습니까?》

(제기?)

덕수는 은연중 옆에 있는 의장들을 돌아보았다. 그들 역시 긴장한 눈길로 덕수를 마주보았다.

넙적한 이마와 삽날처럼 뾰족한 턱으로 하여 얼굴전체가 세모꼴로 보이는 퍼그나 날파람있게 생긴 청년이였다. 어딘가 낯익은 모습이여서 덕수는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세모진 얼굴 한복판에 류달리 우뚝 솟은 매부리코를 보는 순간 덕수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저게 태길이가 아닌가! 최태길!)

한가지 추억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다.

해방된 그해 겨울, 어느날 덕수는 본부관하 동포청년들이 파출소를 습격했다는 련락을 받고 부랴부랴 현지로 달려갔었다.

일제의 야만적인 폭압에 너무나도 짓밟히고 억눌리던 동포들이여서 해방이 되자마자 곳곳에서 종종 그런 소동들이 일어나긴 했으나 파출소를 습격했다는것은 듣느니 처음이였다.

현지의 파출소에 이른 덕수는 그만 어안이 벙벙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습격을 받았다는 파출소가 유리 한장 깨지기는커녕 제복을 입은 경관들까지 다 제자리에 있었기때문이였다. 무슨 착각이 생긴게 아닌가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단단한 몸집에 얼굴이 세모지게 생긴 청년이 제꺽 앞으로 나서며 괴상한 경례, 주먹을 들어 자기의

커다란 코옆에다 갖다붙이는것이였다. 그의 행동은 마치 자기 주먹과 코가 어느쪽이 큰가를 맞혀보라는듯 했다. 처음 보는 경례도 경례였지만 그의 입에서 튀여나온 말은 더욱 해괴했다.

《로트 프론트!》

(이건 또 뭐야?)

어리둥절해있는데 한걸음 다가선 그가 씩 웃어보이고는 무슨 비밀이라도 털어놓듯이 속삭였다.

《의장동지, 알아두십시오. 〈로트 프론트〉라는건 국제공산주의자들의 인사말입니다.》

그러면서 한걸음 뒤로 물러선 그는 이번에는 아주 정식으로 보고하는것이였다.

《의장동지! 저희들은 오늘에야 일제때부터 우리 동포들을 특별히 못살게 굴던 이놈의 시모가와파출소를 점거했습니다.》

그러자 여태껏 무슨 일인가 해서 엉거주춤해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발을 모두며 차렷자세를 취하는것이였다. 그제야 덕수는 모든 사정을 짐작할수 있었다. 습격이 아니라 말그대로 벌써 파출소를 점거했을뿐아니라 경찰들로부터 제복까지 뺏아입고있었던것이다.

《누가 파출소를 점거하랬나? 누가?!》

덕수는 대뜸 《서장》을 쏘아보며 따지고들었다.

《누가 지시한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의장동지! 이걸 보십시오.》

그의 태도에서 한번 해볼만 한 일을 한 자기들에게 칭찬은 아니라 해도 어째서 성을 내느냐 하는 의혹과 함께 립장이 난처하게 된 저들의 처지를 어물쩍 굼때보려 한다는것을 눈치챈 덕수는 다짜고짜 구석에 세워놓은 격검채를 들고나섰다. 그러자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일시에 와― 하고 빽소니를 쳤다. 후에 알고보니 그때의 《서장》이 바로 그곳 민청지부위원장이던 최태길이였다.

《그래, 제기할 문제라는게 뭐요?》

덕수는 그가 혹시 또 어떤 엉뚱한짓을 하면 어쩌나 하는 위구를 품은채 물었다.

《이건 저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여기 온 민청대표들의 한결같은

요구라는것을 알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덕수는 더욱 불안해졌다.
《다름이 아니라 이젠 중총뿐아니라 우리 민청본부나 지부들에도 장군님초상화를 모시게 해달라는것입니다. 본부나 지부는 물론이고 학교의 매 교실마다에도 초상화를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소-》
《왜 학교나 기관들뿐입니까. 매 가정들에도 초상화를 모셔야지요!》
여기저기에서 너도나도 호응해나섰다.
《좋습니다.》
덕수는 자신있게 소리쳤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동포들이 이제부턴 장군님을 우러러 모시고 조국을 위해 싸워나갈 하나의 결심인데 초상화를 왜 해결해드리지 못하겠습니까. 방금 최태길대표의 제기를 긴급제의로 받아들이고 전체 대표들이 돌아갈 때 기관들은 물론 매 집들에도 초상화를 모실수 있게 조직사업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회의장은 또다시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로 진감했다. 회의는 이제부터였으나 벌써 성과적으로 끝난것을 축하하는듯 한 우렁찬 박수소리가 만장에 파도쳐갔다.

3

중간파나 미조직동포들을 조직에 인입하기 위한 대책들을 토론한 덕수는 모임을 끝내자 곧 외투를 걸치고는 아래층으로 내려섰다.
요즘은 그저 매일 아니, 매 시각처럼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군 했다. 17차 중앙위원회가 있은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동포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했다. 전에는 미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각양각색의 형태로 끊임없이 벌어지고있었다.

조련의 각급 조직들인 현본부와 지부들은 물론 민청, 녀맹, 교동 등 산하단체들에서는 일군들자신부터 회의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들을 벌리였고 모든 기관들과 학교의 교실마다에도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는 그밑에다 《장군님을 받들어 조국에 직결하자》는 구호를 써붙이였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는것이 조국에 직결하는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토론들이 조직들과 단체들 지어는 동포부락에 설립되여있는 성인학교들에서까지 활발하게 벌어지고있었다.

동포들의 이런 비상한 열의를 앙양시키기 위해 중총에서는 수시로 일군들을 각 현들과 지부들에 파견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거나 바로잡아나가군 했는데 이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로 하여 동포들이 조직의 주위에 더욱 뭉쳐지고있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중간파인 건청이나 지어는 《민단》산하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조련에 인입되기 시작했다.

방금 있은 모임도 동포들의 열의를 한층 고조시키는 동시에 중간파나 《민단》산하동포들을 대렬에 받아들이기 위한 대책들을 일군들과 토론했던것이다.

중총청사의 두툼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던 그는 저도 모르게 한자리에 굳어진채 빵빵거리며 분주히 오가는 자동차들과 쉽없이 이어지는 행인들의 물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원래 있던 쯔기시마의 낡은 목조건물로부터 도꾜역 야에스구찌의 으리으리한 철근 5층건물로 중총청사를 옮겨온지 얼마 되지 않은터여서 거리에 나설 때면 은연중 번잡한 소요에 어리둥절해지군 했다. 바로 여기서부터 도꾜에서도 첫째가는 번화가들인 간다, 아기하바라, 오까찌마찌, 우에노가 차례로 련결되고 그 반대쪽으로는 밤이면 푸른 등, 빨간 등들이 아롱다롱 물결치는 긴자, 유라꾸쬬의 환락가가 펼쳐지는것이였다. 이처럼 중총청사는 일본의 수도 도꾜, 도꾜에서도 제일 번화하고 화려한 거리 한복판에 여봐라 하듯이 떡 뻗치고 들어앉아있다.

2월치고는 례년에 없이 쌀쌀한 날씨였지만 덕수는 별로 추운것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금방 목욕을 하고난 사람처럼 온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면서 거뜬하고도 상쾌한 기분이기만 했다.
(모든 동포들을 조국의 두리에 뭉쳐세우는것, 바로 여기에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이 있고 동포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런 생각에 젖어 걸음발을 다그치던 그는 사람들이 붐비는 네거리교차점에 이르자 잠시 머뭇거렸다. 어느쪽으로 가야 할지 망설여졌던것이다. 한쪽으로 가면 마루노우찌빌딩과 세무청이 있는 히비야공원쪽이고 그 맞은켠 길은 갖가지 상점들과 음식점, 유흥장들이 주련이 자리잡은 골목길이였다. 골목길쪽으로 접어든 그는 얼른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어느새 약속한 6시가 다돼오고있었다.
그는 지금 박룡이를 만나기 위해 그가 기다리고있을 료정 백합을 찾아가는 길이였다.
사실 일본에 돌아오자부터 박룡이를 만나려고 했던 덕수였다. 영신이에 대해 하시던 장군님말씀을 상기할 때면 아무리 마주하고싶지 않은 박룡이라 해도 마주앉지 않을수가 없었다. 영신이를 찾기 위해 그는 벌써 각 현본부들에 지시를 주었을뿐아니라 현우와 서민이에게도 따로 과업을 주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아침 놀랍게도 박룡으로부터 먼저 조용히 만났으면 한다는 련락이 왔던것이다.
(그자가 어째서?)
처음엔 이런 의혹이 들면서 영신이가 다시 나타난게 아닐가 하고 생각해보았으나 아버지를 원망해서 집을 뛰쳐나간 그가 쉽사리 돌아올리도 만무하거니와 박룡이자신이 딸문제때문에 자기를 만나잘 위인도 아니라는 짐작이 들어 고개를 저었다.
(영신이 문제가 아니라면, 그럼…)
불현듯 한가지 사실이 떠올랐다. 최근 박룡이가 자기자신이 처한 진퇴량난의 처지로 하여 부득불 《민단》단장직을 사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본주재 남조선《대사》 정한경이 재일군정청공관장 리능섭을 비롯한 젊은 무정부주의자들을 내세워 박룡이를 몰아내기 위한 암약을 벌리던 끝에 끝내 주도권을 틀어쥐였다고 한다. 능구렝이같은 리승만이 일본에 주구를 파견하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조치겠으나 그 바람에 굴러온 돌에 밀려난 격이 된 박룡이는 이를 부득부득 갈며

앙앙불락한다는것이였다. 론쟁을 하던 끝에 의자를 집어든 그가 상대방들을 짓뭉겨댄통에 갈비대가 부러지고 이마가 터진 사람도 있다고 했다.

틀림없이 자기가 처해있는 막다른 처지로부터 만나자는 련락을 보냈으리라는 확신이 들자 덕수는 어쩐지 이미부터 그에 대해 품고있던 반감과 함께 일종의 허구픈 생각이 갈마들었다. 그 허구픈 생각은 감옥문을 나서던 그가 눈물이 그렁한 눈길로 하늘을 쳐다보며 《23년만에 보는 해빛일세.》 하고 울먹거리던 모습을 상기시키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제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몰골을 보고싶기도 했다. 같이 일하자고 손을 내민 자기며 한결같이 애국의 길로 나서길 바랐던 동포들의 기대를 배신한 그가 그 오욕의 구렁텅이에서 어떤 눈길로 자기를 쳐다보겠는지 바로 그걸 보고싶었다.

흔히 사람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서뿔리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오래도록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하는것을 원칙으로 삼는 덕수였으나 대신 일단 자기가 나쁜 놈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만 하면 그에 대해서는 좀처럼 견해를 달리하지 못했다. 누구나 쉽사리 좋게 보기도 힘들어했지만 한번 나쁘게 본 사람을 다시 좋게 보기는 더 힘들어하는 그였다. 설사 그 당자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 해도 그는 그것을 그냥 묵과하거나 덮어두려 하지 않고 끝까지 따지고들어 그스스로가 만사람앞에서 《자, 난 바로 이렇게도 비렬한 놈이요.》 하고 실토케 하고야말았다. 말하자면 승부끝에 심판이 손을 들어주는데 만족을 느끼는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직접 제 입으로 《항복》하는 말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앞에 엎드릴 때에야 비로소 승리를 확인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이라고 할가, 박룡이를 만나러 가는 지금도 그는 그런 기분상태에 있었다.

물론 박룡이가 무엇때문에 만나자는지 알수 없었지만 오늘 만나는 기회에 다시는 조련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지 않겠다는 다짐만은 받아낼 잡도리였다. 더우기 조련 17차 중앙위원회를 계기로 《민단》산하 동포들까지 조련에 인입되는 조건에서 오금을 박아놓

는것이 필요했다. 많은 일군들이 그와 만날 필요가 없으며 위험한 일이라고 만류했으나 덕수는 도리여 이런 때일수록 주동적으로 반동들을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것이다.

다방이며 음식점이며 점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리였지만 《백합》이라는 료정은 좀처럼 눈에 뜨이지 않았다. 백합이 박룡의 애인이였던 이또 후미꼬가 일하던 곳이며 그가 누구를 만날 때면 어김없이 이 료정을 택하군 한다는것을 덕수도 모르지 않았다. 이미 작년에 교포녀성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보았으나 아직도 후미꼬에 대한 미련이 어쩔수없이 그의 발길을 자주 백합에 닿게 하는것 같았다.

간판을 찾아보자니 할수없이 고개를 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지 않을수 없었는데 그는 그런 자기의 행동이 못마땅해서 킁 하고 코나발을 불었다. 식당은 물론이고 상점조차 제발로 찾아가본적이 없을뿐더러 그런것을 점잖지 못한 소행으로 치부하는 그여서 이런 거리에 들어서기만 해도 공연히 몸가짐이 부자연스러워지는것이였다.

《오네가이시마스, 좃도 욧데구다사이.》(부탁합니다, 잠간 들렸다 가세요.)

어떤 녀자의 목소리에 그쪽으로 돌아보니 몬뻬(일본민족옷)를 입은 한 중년녀인이 다방에 들어서는 키가 껑두룩한 미군병사의 팔을 붙잡고있었다. 자기한테 들리라는 부탁이라면 응당 어느 정도 애교가 섞여야겠으나 그의 어조와 표정에는 애교라기보다 간절한 애원이 어려있을뿐이였다.

모가지가 성큼한데다 깨자루에 코를 들이박았다 꺼낸 놈처럼 유독 코잔등에만 주근깨가 다닥다닥한 미군병사는 녀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다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스페샤르데 모떼나시마스, 스페샤르데…》(고급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고급으로…)

다시금 병사의 팔에 매달려 최대의 봉사를 다하겠다고 하는 녀인의 얼굴에는 비록 나이는 들고 행색은 초라해도 아무렴 남자를 대하는데서야 날 당할 사람이 있을가보냐는듯 한 어줍은 미소가 비끼

였다. 그러나 그 미소는 곧 습관되지 않은 일을 하는데 대한 어색한 실소, 보다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원망하는 서글픈 애소로 변했다.

한사코 사달라고 조르는 녀인과 맞갖잖아하는 미군병사사이에 흥정되고있는 상품은 바로 그 녀자자신이였다. 도저히 저로선 구미가 동하지 않는다는듯이 기다란 두팔을 쩍 벌려보인 병사는 그런 행동만으로는 상대가 리해하지 못하리라 여겼는지 곧 시큼털털한 개살구를 씹기라도 한 놈처럼 오만상을 찌프려보였다. 로골적인 랭소였다.

아무래도 자기라는 변변찮은 체화상품으로는 고객을 붙들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녀인은 곧 손을 들어 한곳을 가리켰다.

《쟈 아노 무스메닷다라 도?》(그럼 저 처녀라면 어때요?)

녀인이 가리키는 그곳에는 고구마며 대나무순이 가득 담긴 리야까(손달구지)를 지키고있는 한 처녀가 서있었다. 아직 열예닐곱살밖에 되여보이지 않는 애티나는 처녀였으나 자기가 흥정의 대상이 되였다는것을 눈치챘는지 공포가 어린 눈길로 할끔 이쪽을 바라보고는 얼른 고개를 숙이였다. 분명 녀인의 딸이리라. 모녀가 리야까행상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이을수가 없어 몸까지 팔고있는것이 틀림없었다.

처녀를 바라보던 병사는 대뜸 주둥이를 오무라붙이고 긴 휘파람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주먹안에서 딱 하는 소리를 내는 동시에 그 주근깨가 다닥다닥한 코를 당장 얼굴에서 떼내기라도 할것처럼 마구 쥐여뜯기 시작했다. 이제야말로 개살구가 아니라 달콤한 앵두를 입에 넣게 되였다는 식이였다.

덕수는 절로 한숨이 터졌다. 점점 한심한 꼴로 변해가는 일본이였다. 한때 《아시아의 맹주》라고 호통을 치던 일본이 지금은 해방군의 탈을 쓰고 상륙한 미군에 의해 만신창이 되고있었다. 그중에도 일본녀성을 상대로 하는 미군의 륜락행위는 짐승도 낯을 붉힐 지경이였다. 놈들은 몇푼 안되는 동전이나 휴대용야전음식들을 미끼로 기혼녀건 미혼녀건 닥치는대로 겁탈했고 그것을 마치 저들의 응당한 권리나 특전으로 여기였다.

사실 요즘은 누구나 하루 세끼는커녕 한끼도 제대로 에우지 못하

는 형편이기는 했다. 오죽하면 굶어죽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나오겠는가. 풀뿌리로 연명해가던 일가족이 독초인줄 모르고 먹었다가 몰살되였다는 소식이 매일처럼 신문에 보도되는가 하면 며칠전에는 쌀을 탈 목적으로 산아, 육아들을 양육한다는 광고를 낸 한 부부가 아이들을 맡아가지고는 쌀만 타가지고 달아나는통에 수십명의 아이들이 자물쇠가 걸린 방안에서 굶어죽은 실례도 있었다.

이런 환경속에서 사는 동포들이여서 할수없이 넝마나 고철을 줏거나 세대주가 없는 집에서는 부득불 술이라도 고아 팔지 않을수 없었는데 놈들은 이렇게 겨우 호구지책하는 동포들을 야미장사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했다. 《조선사람이 야미장사해서 새 화폐를 몽땅 끌어들인다.》는 악선전까지 해댔다. 놈들의 악선전은 바로 저들이 새로 내놓은 《외국인재산취득에 관한 정령》에 동포들을 얽어매여 사소한 기업활동도 못하게 하자는 음흉한 목적외에 아무것도 아니였다.

(안된다! 네놈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그 법에 얽매일 우리가 아니다. 이젠 너희들도 우리들이 장군님품에 안긴 존엄있는 해외공민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게 될게다!)

마침내 《백합》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웠다. 얼핏 보기에도 제법 화려한 료정이였다. 커다란 판유리로 된 현관이며 문앞에 서서 들어서는 손님들에게 깍듯이 허리를 굽히는 멋지게 차려입은 문지기부터가 벌써 다른 료정과는 달랐다. 열려진 문사이로 들여다보이는 아담한 내정이며 그 내정우로 얼기설기 걸어놓은 빨갛고 파랗게 반짝이는 축등들까지도 꽤 요란한 인상을 자아냈다.

그러나 정작 안으로 들어서니 그렇지 못했다. 요즘 어느 식당이나 그런것처럼 백합 역시 속보다는 겉치장에 더 품을 들였다는게 헨둥했다. 금붕어나 잉어들이 헤염치고있을줄 알았던 내정의 련못에는 물고기대신 빈 담배곽과 꽁초들이 둥둥 떠있고 칸칸이 따로 들게 되여있는 별실들의 미닫이와 문발들도 각양각색의 허름한것이였다. 그래도 드나드는 손님들을 보면 남자들은 대개가 요새 류행되기 시작한 리젠트머리였고 녀자들 역시 잘룩한 상의에 발목까지 내리덮여 걸음을 옮길적마다 구두코가 쓸리군 하는 긴치마들이였다.

들려오는 축음기의 노래소리도 어딜 가나 듣게 되는 《이－즈노 야마－야마》(이즈의 산과 산)하는 《유노마찌에레지》였다.

《어디로 안내해드릴가요? 혼자 오셨는지 아니면 동행한분이 계시는지요?》

마치 설비는 다소 부족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족을 친절한 봉사로 보충하려는듯이 또 얼마든지 보충하여 누구에게나 만족을 주고있다는듯이 기모노를 입은 마담이 함뿍 미소를 지어보이며 다가섰다. 그러나 덕수는 대답대신 신발 하나가 놓여있는 방문을 가리켜보이고는 그리로 향했다.

그는 일본사람 특히 녀성들을 마주할 때면 대체로 말을 하지 않고 행동만 하군 했는데 그것은 대답을 하자면 부득불 하기 싫은 일본말을 해야 한다는데도 있었으나 그들의 지나친 친절이 비위에 맞지 않았기때문이였다. 별치 않은 일에도 공연히 몇번이고 갑삭갑삭 허리를 굽히는 일본녀인들을 마주할 때면 어색해지다못해 어떤 땐 화가 치밀어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덕수의 취미와 기호가 어떻든 자기는 자신의 본분을 잘 알고있으며 또 그 본분을 성실히 리행하는 거기에서 남다른 보람을 느끼고있는듯 마담은 여전히 미소가 남실거리는 표정을 지은채 아기작아기작 앞질러 걸어갔다. 그리고는 방금 덕수가 가리킨 방문앞 마루우에 올라가 정히 무릎을 꿇고는 《손님 오셨습니다.》하고 방안에 알리면서 조용히 미닫이문을 열었다.

열려진 문사이로는 곧 한사람의 모습, 두손에 차잔을 움켜쥐고 식탁앞에 부처처럼 앉아있는 박룡의 모습이 보였다.

4

《그건 그렇고…》

김이 몰몰 피여오르는 정종독구리와 생선회가 담긴 접시들을 식탁우에 조심스레 차려놓은 녀급이 두손을 모아쥐고 나부죽이 절을 하고 나가자 박룡은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눈길로 덕수를 마주보

았다. 그 눈길은 마치 이때까지 한 《민단》의 내부사정에 대한 얘기는 껍질에 지나지 않고 이제부터야말로 속살이라는듯 했다.

《이런 나를 두고 자네가 비웃을줄 아네. 자네만 아니라 재일동포들모두가 비웃을테지. 일은 바로되기마련이구 죄는 지은대로 가게마련이라구 난 변명하지 않네. 모든것이 사실이니까.》

덕수는 내심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쩌면 그렇게도 오만하고 도고하던 박룡이가 이토록 쉽사리 자기의 처지에 대해, 죄악에 찬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는것일가 하는 의혹때문이였다. 그런 의혹은 그의 말을 과연 어느 정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게 했다. 그러나 박룡의 눈빛, 안정을 잃고 번뜩이는 눈빛만은 여느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였다.

《모든게 사실이네. 난 자네가 같이 일하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돌아선 사람이요. 돌아서서는 자네와는 반대의 길을 걸은 사람이네. 그러다가 오늘은 그 길에서마저 배척을 당한 사람일세. 결국 두 화살에 맞았다는게 바로 나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 왜놈들한테 붙잡혀 옥살이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조선사람들한테서까지 배척을 당했으니, 허－》

말끝마다 《허－》하고 웃음도 아니고 탄식도 아니게 내뱉는 소리는 전에 없던 그의 버릇이였다. 무표정하고 침울하기는 하나 애써 태연하려고 하는 그의 태도로 보아 덕수는 그가 지금 자기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어떤 고뇌와 울분을 터뜨리고싶어한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뭐 신세한탄하려는건 아닐세, 내 처지를 리해해달라는건 더욱 아니구. 내가 이 말을 하는건 단지 이제 와서야 내가 뭔가 깨달았기때문이네. 이제야 겨우 인생이 어떻다는걸 알았다고 할가…》

오래동안의 감옥살이로 인한 발음장애로 하여 떠듬떠듬하는 그의 말은 마치 미리 준비해두었던 대사를 외우는듯 했다.

《인생이란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늘로부터 받은 광명의 편조라는 공자의 말도 있고 끊임없이 더 큰 행복에로 도달하려는 령혼의 순례라는 파라문교도의 말도 있지. 또 인생이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한 그리스도교의 말도 있네. 그러나 내가 지금 더 절실히 느끼는건 바로 인생이 뭔가 하는걸 알때쯤엔 인생이 거의다 지나간 때라는 그 말일세.》

박룡이가 이런 말까지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덕수는 얼떠름해지고말았다. 언제나 놀라울 때일수록 그런것처럼 그는 더욱 마음을 다잡으며 무뚝뚝한 표정으로 박룡이를 지켜보았다.

《특히 난 자네들이 얼마전에 있은 회의에서 내놓은 구호와 그에 호응하는 동포들을 보면서 많은걸 느꼈네. 아니, 놀랐어. 여태껏 일본땅에서 사는 재일동포들이 언제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합쳐보았나. 실로 경이할 일이 아닐수 없지. 마음을 합쳤으니 이젠 힘을 써도 한결같을게 아닌가. 오죽하면 〈민단〉동포들까지 자네들을 따라나설 기미를 보이겠나 말일세. 물론 이 바람사나운 일본땅에서 언제까지 그런 신심과 의지를 가지고 나갈수 있겠는지 그건 아직 의문이네만… 자—》

앞에 놓인 술잔을 들어보인 박룡은 덕수가 잔을 들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제먼저 입에 갖다대고는 쪼—옥 소리가 나게 들이켰다.

처음엔 박룡이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진정일가 하는 의심이 없지 않던 덕수였으나 이제 와서는 그가 진정으로 자기를 뉘우치고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자 그에 대해 품고있던 반감과 불만대신 어쩐지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련민의 정을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확실히 박룡의 태도는 자기의 과거를 자책하면서 《자— 난 이렇게도 죄많은 놈이요. 그러니 맘대로 하구려.》하고 모든걸 포기한 사람같았다.

박룡의 그런 모습이 덕수에게는 상대방한테서 항복했다는 말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강타에 쓰러져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대방을 내려다보는 심정이기도 했다. 그러자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와는 상반되는 어떤 새로운 감정, 이를테면 박룡에 대한 련민은 금할수 없으면서도 그가 자기의 권고를 뿌리친탓으로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오욕에 찬 과거에 비하면 자기가 걸어온 길은 얼마나 영광과 보람에 넘쳐있는가 하는 긍지와 자랑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런 기분으로 하여 그는 여느때는 입에 대지도 않던 술이였으나

한모금 꿀꺽 베여 마시였다.

《내가 오늘 자네한테 말하자는건 이것과 함께 다른 한가지가 더 있네.》

생선회를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박룡이가 한손가락을 세워보이면서 말을 이었다.

《그건 내가 왜 그때 자네의 권고를 뿌리치고 달아났는가 하는걸세. 하긴 이제 와서 그런 얘길 해야 소용이 없다는건 나도 아네만 그래도 인생의 갈림길에 서있는 나로선 터놓고싶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한테만은 털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단 말일세.》

문득 장군님께서 박룡이가 왜 그처럼 돌변했는가고 물어보시던 일이 되살아나면서 박룡이가 오늘 자기를 만나자고 한것이 바로 이 말을 하자는데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건 내 피가 자네들처럼 붉지 않고 검은데 있었지. 바탕은 민족주의자라 해도 자네들은 공산주의자라면 난 무정부주의자니까. 그러나 보다 내가 자네의 권고를 뿌리치고 돌아선데는…》

이번에는 술잔을 입안에 훌 통채로 털어넣다싶이한 박룡이 다시금 《허!》하고 허구픈 탄식을 터뜨렸다.

《그건 바로 원철이 그 작자때문일세!》

(원철이?)

원철이라는 말에 덕수는 흠칫했다. 박룡이자신이 그런 길을 걷게 된것이 원철이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자네와 같은 길을 걷는 동지에 대해 욕한다고 탓할지 모르겠지만 난 이 말은 하지 않을수 없네. 아니, 꼭 해야겠단 말일세.

자네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자가 나를 두고 뭐랬는지 아나? 그자야 기회만 있으면 동포들이나 일본사람들앞에서 연설하길 좋아하지. 연설할 때마다 그는 나에 대해 언급하면서 박룡이의 사꾸라다〈천황〉암살기도라는것도 왜놈들이 꾸며낸 모략이다, 조선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 꾸며낸 그 음모에 박룡이가 야합했다, 지어는 감옥에 갇혀있었다 해도 별채에서 불고기만 구워먹으며 지냈다고 했단 말일세. 난 아직까지도 그자가 어째서 그런 터무니없는 악담을 퍼부었는지 리해되지 않네. 억하심정이란 말일세.

단지 제가 재일조선인운동을 한번 맘대로 주물러볼가 했는데 내가 방해되는 존재였다고 리해할따름이네. 그야 공산주의자니까 나같은 놈이 거치장스러울수밖에.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까지 모해할수 있단 말인가! 한데 더 참을수 없는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나를 경원하고 질시하다못해 증오까지 했다는데 있지.》

덕수도 원철이가 박룡에 대해 하던 말을 기억하고있었다. 그는 조련조직내 공산당원들의 모임때마다 나타나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알게 된 사실이라면서 박룡이가 처음엔 일제의 음모에 리용당했지만 후에는 가담했다는것, 때문에 그런 박룡이를 애국자라도 되는듯이 여기는 바로 거기에 엄중성이 있다는것을 루루이 강조했던것이다. 그러면서 박룡이야말로 재일조선인운동에서는 암과 같은 존재라는것을 명심하고 그를 철저히 동포들로부터 고립시켜야 한다고 력설했다. 그러나 덕수는 물론 일부 사람들은 박룡이에 대한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것은 박룡이가 모략에 가담했다면 필경 그 어떤 부귀나 영화를 바라서일텐데 사형까지 선고받은, 설사 사형당하지 않는다 해도 종신형이 분명하다는걸 알고있는 그가 어떻게 음모에 가담했다고 볼수 있을것인가! 그러나 원철은 《건동》을 꾸민 박룡이가 다시 《민단》단장이 되여 조련을 정면에서 반대해나서자 대뜸 《봐라! 내 이미부터 그자가 어떤 놈이라는것을 말하지 않았느냐.》하고 더욱 기세등등했던것이다.

《사람이 제일 괴로운게 뭔가? 그건 바로 자기의 진심을 의심받고 유린당할 때지. 난 〈아마데라스 오오미까미〉라는 귀신딱지에다 고추장과 새우젓을 발라놓군 했네. 그렇게 하면 〈천황〉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 말일세. 난 사실 어리석게도 〈천황〉만 죽이면 조선이 독립되리라고 믿었지. 그래 그런 내가, 더우기 나를 도우려다가 놈들에게 기만당한것이 분해서 감옥에서 목매죽은 후미꼬의 원한까지 가슴에 품고사는 내가 원철이 그자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왜놈의 개로 몰리우다니, 허—》

여느 사람 같으면 흥분에 못이겨 목청을 돋구며 주먹을 휘둘러댈것이였으나 그는 까딱 움직이지 않는 자세뿐더러 억양도 감정에 따

르는 고저장단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오랜 감옥생활이 그에게 일체 감정에 따르는 행동의 균형을 파괴해버렸던것이다. 단지 번뜩이는 두눈만이 밤하늘에 충천하는 불길처럼 이글거릴뿐이였다.

《난 그때 결심했네. 이제부터 내가 싸울 대상은 바로 원철이 저놈이다 하고 말일세. 난 사실 나를 옥에 가둔 왜놈들보다 그놈이 더 가증스러웠네. 한데 원철이 그놈인즉 일본공산당에 적을 두고있기는 하지만 자네들과 한패가 아닌가! 자네들이 그의 뒤를 봐주는가하면 그자 역시 자네들을 믿고 일하거던. 그러니 나로서는 결국 조련을 반대하는수밖에!》

사람의 운명이 이렇듯 한순간에 그것도 모해를 당한 울분으로 하여 본의아닌 방향, 정반대방향으로 역전되였다는 사실이 덕수에게는 놀랍고도 불가사의하기만 했다. 그제야 장군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새삼스런 의미로 되새겨지면서 확실히 여기에는 박룡이 한사람만이 아닌 보다 심각한 문제, 인간의 운명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룡에 대한 원철의 터무니없는 중상도 중상이려니와 그런 원철에 대한 증오로부터 곧은목으로 행동한 박룡이는 결국 자기 한생은 물론 력사에까지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만것이다! 그렇게 무분별하게까지 나간 박룡의 성격이 리해되기도 했으나 그런 우직한 성격으로 하여 자기 운명을 망친 그를 보느라니 은연중 그 사람의 성격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런 박룡에 대한 동정이 크면 클수록 원래부터 좋지 않게 보아오던 원철에 대한 불만은 더 가중되였다.

《이제 와서 돌이켜볼 때 난 결국 모든것을 잃어버린 사람일세. 왜놈들한테 청춘을 빼앗긴데다 동포들한테서는 버림을 받았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밖에 없던 딸까지…》

딸에 대한 말이 나오자 덕수는 다그쳐물었다.

《그래! 영신이한테서는 아직 소식이 없나?》

《소식?》

술잔을 내려다보는 박룡의 입귀가 한쪽으로 이그러졌다.

《이 애비를 저주해서 집을 뛰쳐나간 앤데 무슨 소식이 있겠나. 아마 어데선가 나를 원망하면서 눈물로 살아가겠지. 살아있기나 하

겠는지… 혹시 독한 마음을 먹고 벌써 제 에미뒤를 따라갔는지도 모를 일이지.》
《무슨 소릴!》
덕수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걔가 자네 딸이긴 하지만 키우긴 우리가 키웠다는걸 알아두게. 결코 그럴 애가 아니야! 또 그렇게 되여서도 안되는거고.》
덕수는 영신이에 대해 장군님께서 걱정하시던 일이며 지영이에 대한 소식을 박룡이에게 털어놓지 못하는것이 여간만 안타깝지 않았다.
《딸애를 각별히 위해주던 지영이라는 사람이 평양으로 갔다는 말은 나도 들었네. 난 그 사람 가슴에도 아물길 없는 상처를 남겨놓았지. 딸을 통해 날 자기네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조련의 밀사로 여기고 죽이려고까지 했댔으니까, 허－
여보게, 난 이렇게 모든걸 다 잃어버렸네. 동포들도 혈육도… 그렇지만 하나만은 잃지 않았어. 그게 뭔지 아나?》
담배대에 불을 붙인 박룡은 다소 활기띤 동작으로 말을 이었다.
《난 사실 이 말을 하자고 오늘 자네를 만나자고 했네. 그건 바로 앞으로의 희망일세. 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언도받았을 때에도 희망만은 버리지 않았지. 무슨 희망? 왜놈들이 망할 날이 온다는 희망, 그러면 내가 살아난다는 희망이였지. 그런데 그 희망이 실현됐네. 그런것처럼 난 지금도…》
이때 미닫이문이 소리없이 열리면서 기모노를 입은 녀인이 샤미센(일본의 민족악기)을 안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무릎을 꿇고앉은 그는 두사람을 향해 방그레 눈으로만 웃는 애교에 넘친 미소를 쏟아부었다.
《오－ 노래를 들려주겠다는거냐?》
박룡의 서툴기 짝이 없는 일본말발음에 약간 놀란듯 한 녀인은 다시금 방그레 하고 웃어보였다. 인사는 물론 일체의 언어가 자기에게는 오로지 미소라는듯 했고 또 그것 하나면 만사능통이라는 식이였다.
《그럼 어디 〈아리랑〉을 불러라.》
《아－리－란?》

동그랗게 뜬 녀인의 두눈이 대뜸 천정으로 향해졌다.
《어느 지방 노랜지요?》
《내 고향 노래다.》
《고향이 어디신지요?》
《문경이지.》
《무느견?》
그 동그란 눈이 이번엔 창문쪽으로 쏠리였다. 녀인의 그런 태도는 노래라면 어느 지방 노래나 다 자신이 있어 늘 손님들에게 환대를 받군 했는데 이런 일이 어디 있나 하고 면구스러워하는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의 난처한 처지를 재치있는 롱말로 살짝 넘겨보려는 창기다운 속심이 깔려있는것 같기도 했다.
《됐다! 가보아라. 노래는 들은것으로 치지.》
《안됩니다.》
녀인은 아양이 어린 어조로 말하며 제법 어깨까지 살레살레 저었다.
《노래를 부르자고 온 소인이 노래를 못 불렀으니 어떤 벌도 마다 못할 죄를 지은것입니다. 그 죄 어떻게 벌하시겠는지 소인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그래? 그럼 술이라도 한잔 치지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눈물대신 노래, 노래대신 술이라는 류행가대로…》
쪼르르 상앞으로 다가앉아 한손으로 늘어진 기모노의 소매를 잡고 익숙한 동작으로 술을 따르던 녀인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다시 정색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만 소인 술을 치는것으로는 벌로 여기지 않겠나이다. 개의치 마시고 더 엄한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벌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 말인가?》
《그렇소이다. 가혹한 벌일수록 행복으로 여기겠나이다.》
녀인의 두눈에는 어디까지가 진정이고 롱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미소가 피여있었다.
《허, 이 사람 보게! 그럼 그건 어디 후에 보기로 할가?》

《그럼 소인 물러가 분부가 있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방에 들어올 때와 똑같은 웃음을 두사람에게 던진 녀인은 역시 들어올 때와 똑같이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그래 그 희망이라는게 뭔데?》
녀인이 방에서 나가기 바쁘게 덕수는 불깃하게 달아오른 박룡의 얼굴을 마주보며 물었다.
《희망 말인가?》
저가락을 손에 든 박룡은 안주를 집으려다 말고 굳어진 자세로 말했다.
《서울로 가려는거네!》
《서울에?》
서울이라는 말에 덕수의 눈길은 금시 꼿꼿해졌다.
《왜 그러나? 서울에 가서 백범과 함께 일해볼 생각일세. 그에게 여기 소식을 알리면서 서울에 갈 결심이라고 하니 당장 건너오라는게 아닌가!》
덕수도 해방전부터 박룡이가 김구와 련계가 있었으며 특히 그가 해방직후 《천황》과 군국주의거두들을 암살하려다가 일본에서 사형당한 윤봉길, 리봉창, 백정기렬사들의 유해를 김구의 요구대로 서울로 이관해준데 대해서도 알고있었다.
《실은 그 백범이 나한테 희망을 품게 해준결세. 지난해 봄 평양에 갔다와서부터 인생전환을 한 백범이 아닌가! 나도 이제부턴 여생이나마 그와 함께 보내려는거네. 어떤가?》
좀전까지만 해도 생명의 불꽃이 꺼진듯이 보이던 그의 눈이 지금은 어딘가 미타해하는 기색이 없진 않았으나 한껏 밝게 타오르고있었다.
《그러니까 이젠 자네가…》
덕수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이제 와서야 그는 박룡이가 자기의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고있을뿐아니라 새로운 결심으로 인생을 출발하려는 결심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었다. 그러자 그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고무해주고싶은 충동이 맹렬하게 솟구치였다.

《좋은 일일세. 훌륭한 결심이라구 보네. 난 그 길에서는 자네가 꼭 보람을 찾게 되리라구 믿네.》

덕수는 저도 모르게 앞에 놓인 잔을 들어보였다. 그가 먼저 잔을 들고 상대방에게 술을 권해본적이라고는 드문 일이였다.

《백범을 찾아간다… 좋네! 그런데 그가 평양에 가서 어떻게 인생전환하게 됐는지 아나?》

박룡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내 그걸 얘기해주지!》

이제부터는 자기 차례라는듯 식탁앞으로 다가앉은 덕수는 비로소 흐뭇한 미소를 머금었다.

5

《형수님 계시우?》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와 함께 부엌문이 드르륵 열리는 순간 수임의 두눈은 대번에 기쁨으로 빛났다.

《아니, 이게 누굽니껴?》

오래간만에 나타난 로재호였다. 일제때부터 남편과 형제처럼 지내면서 일도 같이하고 운동도 같이한데다가 감옥살이까지 함께 한 그를 수임은 남달리 여기는터였다. 더우기 늘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구속스레 지내는 수임으로서는 성격이 시원시원한데다가 푸접이 좋아 아무때나 허물없이 대할수 있는 그가 마치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시원한 샘물을 마주한듯 한 기분에 잠기게 했던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그새 좀 바빴지요. 중총에 볼일이 있어 왔댔는데 형수님 보지 않고야 어디 발길이 떨어져야지요.》

조련 가나가와현본부위원장으로 일하는 재호는 무슨 일이 제기되기만 하면 곧잘 덕수를 찾아 도꾜에 올라오군 했는데 그때마다 수임이한테도 꼭꼭 들려 정말 형수 대하듯 그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해주기도 하고 우스개소리도 한마디씩 하는걸 잊지 않았다.

《그럼 아직 일이 아부질 만나지 못했나요?》
《왜요, 만났지요. 그렇지만 거기서야 어디 말할 재미 있습니꺼. 그래 집에서 기다리겠다케 왔심더.》
방에 들어와 벽에 기대앉은 재호는 여느때의 버릇대로 모두어세운 무릎을 슬슬 쓸어만지면서 방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벽 절반을 차지하고있는 책들이며 앉은뱅이책상 그리고 사과궤짝으로 만든 뒤주우에 댕그러니 얹혀있는 이불을 일별하고나서 그는 쩝 하고 입맛부터 다시였다. 언제 봐야 그저 그 꼴이라는것이였다.
《커피나 오차를 내라케야 이 집에 그런건 없을끼고 대신 따신물이나 있으면 한그릇 주소.》
대장이 좋지 않아 오뉴월에도 찬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였다. 대신 음식들은 아무것이나 가리지 않았지만 유독 멸치만은 입에 대지도 않았다. 언젠가 왜 멸치를 들지 않느냐고 수임이가 묻자 그는 대뜸 눈알을 부라리며 말했다.
《왜놈들이 좋아하라고 그걸 먹는단 말입니꺼?》
《멸치가 왜놈들하고 무슨 상관이게요?》
《〈멸치도 물고기냐, 조선사람도 사람이냐.〉하고 떠드는 왜놈들인데 그걸 먹는다면 우리가 멸치처럼 축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걸 인정하는기 아입니꺼. 내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물론 본부관하 동포들한테도 멸치만은 입에 대지 말라카지요.》
그는 마치 멸치를 먹지 않는것이 왜놈들에 대한 앙갚음으로 되기라도 하는듯이 말했다.
《호일이는 왜 보이지 않습니꺼?》
《일이요? 무슨 애가 글쎄 요즘은 매일처럼 새로 짓는 우리 학교 공사장에 나가 살지 않나요. 지가 언제 학생이 된다고…》
《학교라…》
수임이가 내미는 물사발을 받아들고 후후 입김을 불어대던 재호는 갑자기 이마살을 찌프렸다.
《나도 요새 그 학교때문에 골이 터질 지경입니다. 학생은 자꾸 늘어나는데 어디 교실이 있어야지요. 그래 첨엔 학교안에 있는 교원들사택을 교실로 쓰게 했는데 그래놓으니 이번엔 또 교원들이 문

제란 말입니다. 매일처럼 나한테 밀려와 집을 내라는데 내라고 무슨 재주가 있습니껴. 할수없이 교원들을 본부일군들집에 동거시키는수밖에요. 그래 우리 집에도 지금 두 가족의 열한식구가 백포를 방가운데 쳐놓고 사는데 새벽에 보면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깁니다그려, 흐흐!》

웃을 때면 늘 입을 한껏 벌리면서 소리는 내지 않는, 그러면서도 두눈을 꾹 감군 하는 그의 버릇에 수임은 소리내여 웃었다. 재호에게는 이렇게 웃는것과 함께 다른 하나의 버릇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리에 앉기만 하면 무릎을 세워가지고는 량손으로 바지가랭이를 말아올리는것이였다. 처음엔 손바닥으로 바지끝을 슬슬 반죽밀듯 하다가 기분이 내킬 때면 바지가랭이를 무릎은 물론 신다리까지 마구 말아올리는것이였다. 그러나 오늘은 어째선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잠간만 기다려요, 내 얼른 나갔다올테니.》

수임은 오래간만에 온 재호를 위해 막걸리라도 한되 받아올 심산으로 부엌으로 내려섰으나 벌써 그 눈치를 알아차린 재호는 손을 홰홰 내저었다.

《아니, 관두슈. 형수님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매번…》

언제나 겉으로는 사양하는체 하지만 정작 술을 받아오기만 하면 내 언제 그랬더냐싶게 사발들이를 하는 재호라는것을 모르지 않는 수임은 곧 되병을 찾아들고 밖으로 나섰다.

(그럼 차라리 한잔 걸치고 얼근한김에 들이대봐?)

방안에 혼자 남은 재호는 벽에 기대앉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오늘도 수임이한테는 배심좋은 말들을 했지만 속은 실상 그다지 개여있지 못한 그였다. 저로서는 이미 몇차례나 따져보고 내린 결심이였으나 이제 막상 덕수를 만나 해야 할 말들을 따져보느라니 어쩐지 은근히 긴장되면서 처음 느끼던 그런 자신을 가질수가 없었다. 사실 그는 아직까지 오늘과 같은 용무로 덕수를 찾은적은 없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제기되여 방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면 당장 해결해야 할 급한 문제가 있어 덕수를 찾군 했는데 오늘은 그와는 반대로 자기가 덕수에게 조언을 주자고 찾아온것이였다.

며칠전에 있은 당원활동가들의 모임때였다.

그날 모임의 취지는 4.24교육투쟁 한돐을 맞이하면서 1년동안에 확대된 민족교육의 성과를 총화하고 앞으로의 과업에 대해 토론하는것이였는데 그 마당에서 덕수와 원철이가 의견상차이로 하여 충돌을 일으켰다.

늘 모임을 주관하던 김운해가 당정치국회의로 하여 빠지고 대신 당의 취지를 대변하여 발언한 원철이가 앞으로 조련이 민족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민족적편향을 범해서는 안된다는것을 강조하자 대뜸 덕수가 그에 반박해나섰다.

《도대체 어떤것이 민족적편향이라는거요?》

《그거야 명백하지 않소.》

거대한 체구에 다혈질의 불깃한 얼굴이여서 얼핏 보면 과격한 성격처럼 느껴지지만 도리여 상대가 누구든 지어는 아래사람들에게까지도 례절있게 대하는 원철이였다. 그의 이런 여유작작한 태도는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의 주장이나 신념에는 사소한 변함이 없으며 또 있을래야 있을수도 없다는것을 보여주는것 같았다.

《좁은 민족리익의 견지에만 포로되여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을 외면하는것이 바로 민족적편향이 아니겠소.》

《그럼 하나 물어보겠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교육을 하는것이 민족적편향이라면 일본아이들이 일본교육을 받는건 어떻게 봐야하오?》

덕수가 지릅뜬 눈으로 마주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 문제와 민족문제는 별개의 문제요. 재일동포들은 어디까지나 일본이라는 환경속에서 살기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특수하게 제기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하오. 어떻게 제기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일본혁명수행여부와는 정비례관계에 있는 반면에 반동들의 억압정책과는 반비례한다는거요. 말하자면 일본혁명의 수행여부에 따라 재일조선인들문제도 해결되기때문에 재일조선인운동자체가 일본혁명을 추진시키는것으로 되여야지 오히려 적들의 탄압을 가증시키는것으로 되여서는 안된다는거요. 그런 의미에서 불

때 민족교육의 장려가 어떤 후과를 초래하겠소? 우리는 지난 4.24때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본부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했던거요.》

그가 말하는 당본부의 조치란 4.24투쟁직후 도꾸다서기장이 이 투쟁이 우선 당과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벌어졌다는것으로 하여 또 한창 혁명력량이 강화되는 때에 미군정으로 하여금 비상계엄령까지 내리게 함으로써 력량장성에 저해를 주었다는것으로 하여 추궁한 사실이였다.

《때문에 지금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것은 무엇보다도 세상을 보다 넓은 안목으로 보고 보다 큰 리익을 위해 투쟁해야 할 때라는 그것이요.》

(보다 넓은 안목과 큰 리익이라…)

원철의 말을 되새기느라니 재호도 뭔가 느껴지는바가 없지 않았다. 자기만 아니라 모임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눈치였다.

재호의 견해에 의하면 원철은 다소 도고한데가 있기는 하지만 지식이 풍부하고 엄격한 원칙을 지닌 일군으로서 필요할 땐 정력을 무섭게 발휘하는 사람이였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속에서 상반되는 두가지 평가를 받고있다는것도 모르지 않았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를 자기처럼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는 존재로 여기고 그의 앞날에 대한 성공을 내다보면서 그를 찬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였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그를 싫어했는데 그 리유가 그가 겉으로는 점잖은체 하지만 실지로는 아주 거만하며 중요하게는 모든 문제를 조선사람의 립장, 재일동포들의 립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데 있었다.

그중에도 누구보다 그를 싫어하는것은 덕수였다.

그때마다 재호는 여간만 안타깝지 않았다. 조련의장일뿐더러 조련내 당원활동가들의 책임자이기도 한 덕수와 당에서 김운해와 함께 민족문제전반을 맡아보는 원철이와는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내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보아야겠으나 매번 서로 엇서기만 하니…

재호도 덕수와 함께 생활해오는 과정에 그에게 다른 사람한테서는 도저히 찾아볼수 없는 의지의 힘이라고 하는것이 최고도로 구비돼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덕수는 자기의 주장이나 결심을 굽히지 않았고 그 결심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야마는 무서운 투지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흔히 그런것처럼 일단 결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든 누가 뭐라든 좀처럼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았고 어떤 땐 벌컥 성을 내기까지 했다. 그런 점이 재호에게는 제일 속상했다.

그날도 그는 그런 복잡하고도 불편한 심정으로 덕수와 원철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생각했다.

(두사람사이의 감정이 어떻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소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칙적인 문제, 혁명의 요구앞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해서도 안되거니와 작용할수도 없다. 더우기 지금 정세는 해방직후와도 다르지 않는가! 일본공산당과 민주력량이 날을 따라 승승장구하고있다. 이럴 때야말로 원철이 말대로 모든것을 혁명의 요구에 복종시켜야 하지 않는가! 그러자면 우선 우리의 활동이 민족적인 테두리안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일본혁명, 세계혁명의 폭풍속에 뛰여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두사람의 충돌은 원철이가 앞으로는 학교를 더 늘이지 말고 교육내용도 민족적인 색채가 짙지 않는 방향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더 격렬해졌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덕수는 마치 선언이라도 하듯이 한마디한마디를 힘을 주어 쪼아박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육을 시키는 원칙은 절대로 허물수도, 약화시킬수도 없소. 그리고 앞으로 학교를 더 늘이는것은 물론 교육내용도 조국과 민족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충되여야 하오.》

《?…》

삽시에 분위기가 긴장해졌다. 그러나 원철이만은 시무룩이 미소를 머금었는데 그의 태도는 대꾸할 말은 가득하나 그것을 표현한댔

자 덕수가 리해하지 못하리라 여겨 단념해버리는것 같았다. 다만 모임이 끝났을 때 방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을 따름이였다.

《원래 주관이란 함정과 같아서 거기에 빠지면 헤여나기 어려운 법인데 걱정스러운건 덕수동무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있다면 투쟁을 옳게 지도하지 못하게 된다는거요. 그리고 대중들로부터 고립될수도 있소. 더우기 문제는 그가 아직도 해방직후 조련이 공산당을 뒤받침해주던 때의 관점에 젖어 조련을 당우에 올려놓는가 하면 조련과 당을 따로 생각하군 하는 옳지 않은 관점이요. 조련내 당원활동가들의 책임자인 그가 계속 그런 견해를 고집한다는건…》

그 말은 재호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사업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아 누구보다도 가까운 처지에 있는 자기가 덕수의 그런 점을 깨우쳐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하여 마음이 조급해났다.

그러나 덕수가 과연 자기 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것이였다. 무슨 벼락같은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나 하는 위구도 없지 않았다.

(그래도 오늘은 고집을 세워야지. 그렇게 하는게 그자신을 위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위한 일인데야…)

어느새 다시 돌아온 수임은 방안에 들어서기 바쁘게 구럭에 든 술병을 꺼내놓았다.

《막걸리는 받아왔지만 안주가 없어 어쩝니꺼?》

《안주는 무슨 안주요, 다꾸앙 한쪽이면 되겠는걸.》

술 안 먹겠다고 손을 내저은게 언제냐싶게 재호는 엉치밑이로 방복판에 나앉았다. 여느때같으면 싱글벙글 입가에 웃음까지 피여났을테지만 오늘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마음에 가득찬 이러저러한 걱정들이 머리속에서 맴돌이쳤던것이다. 그러나 되병에 꼴깍 차있는 막걸리를 보느라니 저절로 손이 병모가지를 향해 뻗쳐졌다.

(우선 한잔 하고부터 볼판이지.)

그는 사발에 막걸리를 부은 다음 입에 가져다대고 마시기 시작했다. 꿀꺽꿀꺽하는 소리가 날 때마다 쑥 빠진 목에서 복숭아씨만 한

울대뼈가 덜컥덜컥하고 방아를 찧었다.

그때 문밖에서 발자욱소리가 났다. 귀에 익은 덕수의 기척이였다. 반갑기는 하면서도 어쩐지 전에없이 불안하기도 했다.

6

방안에 들어선 덕수는 엉거주춤 일어서는 재호를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거 안주가 변변치 못하군그래.》

막걸리사발이 놓인 밥상을 내려다본 그는 재호의 어깨를 눌러 자리에 앉혔다.

《안 먹겠다는데 형수님이 자꾸 권하지 않습니껴.》

재호는 부엌에 있는 수임에게 한쪽눈을 찡긋해보였다. 그리고는 제잡담 큰소리로 말을 이었다.

《넨장! 요즘처럼 바빠서야 어디 일해먹겠십니껴. 제대로 잠을 자나, 먹길 하나. 이건 하루종일 학교요, 지부요, 분회요 하고 오금에 자개바람이 일도록 뛰여다녀야 하니…》

덕수의 기분이 흡족하다는것을 느낀 재호는 이마살을 잔뜩 찌프린채 볼부은 소리부터 했다.

어느때나 덕수의 기분상태를 정확히 알아맞추고는 그때마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있는 그였다. 그의 판단에 의하면 덕수가 흐뭇해할 땐 덩달아 기뻐하기보다 도리여 불만, 그것도 일에 다몰리여 눈코뜰새없다고 투정이 섞인 불만을 털어놓아야 더 좋아한다는것이였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어느 정도는 상대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고 또 맞출줄 알아야 한다는것이 재호의 생활신조였다. 특히 덕수와 같이 남달리 기질이 드센 사람일수록 그것이 억센 치차에 치는 기름처럼 항시적으로 필요할뿐더러 그래야 자기의 의도도 실현할수 있다는것이였다.

《그게 바로 보람이라는거지!》

아니나다를가 덕수의 한쪽입귀가 실룩했다.
《그러나 오금에 자개바람이 뭔가, 불이 일어야지. 그러자면 일에 쫓겨다니지 말고 일을 쫓아다녀야 해. 안 그런가?》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기는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자기의 생각을 털어버리고 덕수를 납득시키겠는가를 따져보았다. 사실 덕수에게 무턱대고 자기의 주장을 고집한다는것은 알몸으로 호랑이굴에 기여들어가는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더우기 그냥이라면 몰라라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해 들어왔다는것을 알면 상대가 누구든 사소한 주저도 없이 물어메칠것은 뻔한 일이였다. 그런만큼 절대로 정면으로가 아니라 측면으로, 그것도 최대의 조심성을 기울여야 하는것이였다. 그런 긴장으로 해서인지 막걸리를 몇잔 들이켰는데도 정신은 말똥말똥하기만 했다.
《형님도 한잔 하시구려!》
상우에 있는 빈사발에 막걸리를 기울인 재호는 다꾸앙쪼각이 담긴 접시까지 앞으로 밀었다. 혼자 홀짝홀짝 들이키기가 거북하기도 했거니와 덕수의 기분을 눅쳐보려는 속심에서였다.
부엌에서 동자질을 하던 수임은 벌써 아이들을 데리고 이웃집으로 간 모양이였다. 그는 언제나 남편을 찾아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면 그가 누구든 자리를 피해주군 했다.
《그래 가나가와에선 신입생들을 얼마나 받았나?》
《말도 마시우. 내 두손 바짝 들었수다.》
정말 두손을 버쩍 들어보인 재호는 고개까지 설레설레 저었다.
《150명을 예견했는데 270명이 뭡니껴. 선생이 있습니껴, 교실이 있습니껴. 그래 운동장에 천막들을 치고 공부를 하는데 하루 3부제, 4부제지요. 선생들은 눈에 피발들이 서고 다리는 다 이렇게 부어올랐지요.》
바지가랭이를 걷어붙인 그는 자기의 가느다란 종아리를 들어올리고는 퉁퉁 부어오른 시늉을 해보였다. 그 모습에 덕수는 몸을 뒤로 제치며 큰소리로 웃어댔다.
《그러니 우리가 내놓은 구호가 얼마나 옳았나. 다른 현들에서도 하나같이 학생수가 늘어나고 조직에 인입된 사람들도 불었어. 암,

자랑찬 일이지! 이젠 동포기업가들도 떨쳐나섰네. 많은 기업가들이 글쎄 자기가 번 돈을 학교건설에 써달라고 바치고있단 말이네!》

흡족해하는 덕수를 보며 그만하면 분위기가 괜찮아진다고 여겼으나 재호는 왜서인지 선뜻 속심을 비칠수가 없었다.

《하긴 이젠 〈재산취득령〉에서 제외되기까지 했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번에 조국의 두리에 뭉치자는 구호를 들고 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재산취득령〉에서 제외될수 있었겠나?》

(《재산취득령?》)

막걸리사발을 손에 쥐려던 재호는 저도 모르게 주춤했다. 학생수나 조직성원들이 늘어난것은 그렇다 해도 《재산취득령》에서 제외된것을 동포들이 투쟁한 결과 이룩된 성과로 보는데는 뜻밖이였다.

재호의 견해에 의하면 《재산취득령》은 일본정부가 일본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들이 기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내놓은 악법으로서 이미부터 사회적물의를 일으켜오던 문제였다. 특히 그 법이 제정되자 일본공산당은 일본에 강제로 끌려온 재일조선인이나 재일중국인에게는 그 법을 적용시킬수 없다는것을 내외에 호소하는 한편 여러차례의 대중항의투쟁까지 조직했었다. 결과 내외여론과 인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친 일본당국은 부득불 재일조선인과 재일중국인들은 그 법에서 제외한다는것을 선포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그것을 동포들의 투쟁결과로 보다니?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에 언제나 객관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 식으로만 해석하는 덕수의 습벽이 있다는것을 통감한 재호는 더는 비위를 맞출수 없다고 결심했다. 용기를 내여 상앞에 다가앉은 그는 곧 진지한 표정으로 덕수를 마주보았다.

《실은 내 오늘 형님한테 할말이 있어 왔습니더.》

《할말?》

덕수는 의문이 실린 눈으로 재호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 난 요즘 형님이 지내 외곬으로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더.》

《외곬이라니?》

덕수의 미간에는 대뜸 주름이 잡히였으나 재호는 말을 이었다.

《전번 17차 중앙위원회에서 내놓은 보고도 좋고 구호도 좋아요. 그러나 내 생각엔 형님이 지나치게 한쪽방향으로 치우친단 말입니더. 조국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조국의 립장에서만 결론을 내리는데 재일동포들이야 까놓고 말해서 일본이라는 환경을 무시할수 없지 않습니껴. 학교문제도 그렇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육을 시켜야 하지만 일본이라는 립지조건을 무시할수야 없지 않나 말입니더. 아무래도 난 형님이 너무한것 같습니더.》

《…》

재호를 바라보는 덕수의 눈길은 새삼스러웠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리해하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면 마치 생전 처음보는 사람을 대하는 그런 눈길로 바라보군 했다.

《나라는 해방됐다 해도 일본에서 사는 재일동포들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껴. 여전히 일본당국의 탄압속에서 살아야 하니 말입니더. 그런 동포들이 자기의 처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째얍니껴? 반동들과 싸우는기지요. 그 길밖에 없단 말입니더. 그건 결국 일본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일본공산당의 목적과 같은기지요. 때문에 동포들의 리해관계는 일본로동계급과 그 전위부대인 공산당의 투쟁목표와 같단 말입니더. 지금 일본공산당이 얼마나 승승장구하고있습니껴? 두석밖에 없던 국회의석을 서른다섯석으로 늘였습니더. 이것만 봐도 일본공산당이 얼매나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는가 하는걸 알수 있고 또 바로 그런 힘이 있어 동포들의 처지도 달라지는게 아입니껴. 형님은 이번 〈재산취득령〉에서 우리가 제외된기 동포들이 투쟁한 결과라고 하지만 난 그렇게 보는기 아입니더.》

《그럼 우리가 그 법에서 제외된게 일본공산당때문이라는건가?》

덕수의 어조는 물음이라기보다 노기가 어려있었다.

《그렇지 않구요!》

어찌나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지 덕수는 재호의 말이 대단히 대담한것인지 아니면 대단히 우둔한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천천히 창문쪽으로 시선을 돌린 덕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였다.

어째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재호가 아직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을가 하는 괴로움으로 하여 속이 답답했다. 해방직후 조련을 조직할 때나 정치로선을 놓고 반동들과 치렬한 투쟁을 벌릴 때 얼마나 용감하게 싸운 재호였던가! 열정도 있고 투지도 있고 눈물 또한 많은 인정깊은 친구였다.

덕수도 재호가 왜 이렇게 되였는가 하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흔히 짓밟히고 억눌려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재호도 해방직후부터 활활 타번지기 시작한 혁명의 불길속에 휘말려들었다. 혁명을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다 바칠 각오에 충만돼있는 그로서는 무언가 더 큰일, 열광적인 일에 자신을 내맡기고싶어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용금이라고 할가? 아니, 팽팽하니 켕기운 활시위에 잠긴 화살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런 그의 열정이 더욱 무섭게 타오른것은 3.1정치학원을 다니는 과정에서였다. 조련에서 자체의 간부양성기관으로 설립한 조련중앙학원이 있었지만 거기가 협소하고 답답하게 여겨진 그는 원철이가 세운 3.1정치학원에 들어갔다. 일본공산당이 주관하는 그 학원은 당간부들이 직접 강의를 했고 주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에 대해 학습했다. 당장 조련중앙학원으로 넘어오라고 하면 그는 이렇게 대꾸했다.

《아따, 중앙학원이면 어떻고 3.1학원이면 어떻습니꺼. 혁명을 잘하자고 배우기야 마찬가진데… 형님! 이제야 나도 눈이 좀 트이는것 같습니더.》

결국 눈을 떴다는게 한쪽눈으로 세상을 내다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재호 하나만이 아니라는데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조련 17차 중앙위원회를 계기로 자기의 갈길이 어디며 어떻게 가야 한다는것을 알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세계혁명》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있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오늘 보니 재호야말로 확실히 한쪽으로 기울어지고있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위험한 지경에 이를수도 있다는 위구까지 들었다.

불현듯 장군님을 뵈올 때 재호에 대해 말씀드리던 일이 생각났다.

사실 일본에 돌아오자마자 그 사연을 그대로 전달해주려고 했으나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달아오르기 잘하는 그

가 그 벅찬 흥분을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리라는 걱정과 함께 그가 가까이 하고있는 원철이나 3.1정치학원출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때문이였다. 덕수는 그것으로 해서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댔지만 오늘은 말하지 않은것이 다행스럽게 여겨지기도 했다. 인간적으로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재호와 이젠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간격이 생기는것 같아 은근히 불안스럽기도 했다.

《이것 보라구, 재호!》

덕수는 그 간격이 더는 넓어지지 않게 해야겠다고 결심하며 그에게로 돌아앉았다.

《말해두지만 이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해. 이전과는 다르다는걸 알아야 한단 말이네. 전에는 자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 그러나 이젠 달라졌어. 무엇이 달라졌나? 우리의 지향과 목표가 달라졌고 그에 따르는 투쟁방도가 달라졌지. 그전에는 일본에서 살기때문에 일본이라는 환경을 중시했지만 이젠 바로 그렇기때문에 더 조국의 두리에 뭉쳐야 한다는거야. 그리고 그전에는 동포들이 해방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젠 해방된 민족,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거야, 알겠나? 그래서 중총에서는 오늘…》

문득 오늘 의장단모임에서 결정한 문제가 떠올랐다. 그것은 멀지 않아 학교들에서 벌어지게 될 운동회를 그냥 운동회가 아니라 학생, 학부형, 일군들까지 합심해서 하는 대운동회로 하자는것이였다. 이제까지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아직도 재호처럼 기성관념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똑바로 인식시키기 위해서였다. 다른 의장들은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서 일제히 그런 운동회를 조직할수 있겠는지 하는 우려를 표시했으나 덕수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내밀었다. 재호의 말을 듣느라니 그 결정이 옳았다는것을 새삼스레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운동회요?》

잠자코 있던 재호가 의아한 눈길로 덕수를 쳐다보았다.

《물론 운동회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난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 하는 그런기 바로 적들한테 탄압의 구실을 주게 되고 또 바로 그

런기 민족적인 틀이라고 봅니더.》
재호의 표정도 어느새 단호한 빛이 어려있었다.
《이젠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하고 하나의 투쟁을 해도 일본공산당과 발을 맞추는기 중요하단 말입니더. 그런데 형님은 한사코 동포들을 딴데루 데리구 가자고만 하니…》
《뭐라구?》
재호를 마주보는 덕수의 눈에서 불꽃이 번쩍했다.
《자네 혹시 여기 오기 전에 누굴 만난건 아닌가?》
재호의 말이 원철이가 하던 말과 같아 따져물었으나 재호는 펄쩍 뛰였다.
《만나긴 누굴 만난단 말입니껴. 난 그저 형님이 걱정돼서 그러는겁니더. 이제 내 말이 맞지 않나 두고보시우. 형님도 내 말이 옳았다는걸 느낄 날이 있을겁니더.》
《…》
덕수는 안타까운 눈길로 재호를 바라보았다.
《재호! 자넨 내가 외곬으로 나간다지만 그건 내가 외곬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바로 자네가 잘못된 눈으로 세상을 보기때문이야. 운동회만 놓고보아도 그렇지. 이제 우리가 하려는 운동회는 공화국두리에 뭉친 우리 동포들의 기상이 어떤가를 한번 마음껏 떨쳐보자는 거네. 우리에게도 조국이 있다는걸 또 조국의 두리에 뭉친 우리의 힘이 어떻다는걸 보여주자는거란 말이네.》
《…》
재호는 잠자코 듣기만 했다. 이제 무슨 말을 더 한대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것을 안 사람의 락심한 표정이였다.

7

운동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 열기를 띠였다.
도꾜 가미쥬죠에 있는 도꾜조선중고급학교운동장은 도내에서 모인 수천명의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벌리는 각가지 경기들로 하여 죽

가마처럼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었다.

운동장에서는 숱한 사람들의 응원속에서 학생팀과 학부형팀간의 축구시합이 한창이고 새로 지은 가교사옆에 꾸려놓은 씨름판에서는 개인비교씨름이 성황을 이루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운동장 한쪽구석에 서있는 해묵은 방울나무에 매달아놓은 그네주위에는 처녀들과 아낙네들이 오구구 모여있는데 어째선지 그네를 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매번 바스러지는듯 한 웃음소리만 터져오르군 했다.

경기도 경기지만 운동장주변으로 빙 돌아가며 차일을 치고 벌려놓은 과일이며 지짐이며 빙수매대들이 또한 각별한 이채를 띠고있었다. 탁주동이를 몇개씩 내다놓고 오늘같은 날 인심쓰지 않으면 언제 쓰느냐는듯이 오가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아낙네도 보였다. 기업권을 얻은 동포기업가들이 운동회를 위해 용약 무료봉사에 떨쳐나선것이다.

미리부터 짜고들어 준비해온 운동회라는데도 있었으나 명칭자체가 여느때와는 달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을 지지하는 도꾜대운동회》라는것으로 하여 더 왕성한 활기에 넘쳐있었다.

얼마전 조국에서는 새로 결성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조련을 정식단체로 가입시키였다. 그 력사적인 결성모임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덕수를 직접 중앙위원으로 임명하시고는 이 사실을 일본에 알리도록 지시하시였다.

그 소식을 전달받은 중총에서는 곧 본래 예견했던 운동회보다 더 성대한 운동회와 행사들을 도꾜뿐아니라 각 현들과 지방마다에서 조직하고 중총일군들을 파견했다. 그러고보면 오늘의 운동회가 장군님은정으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정식단체로 된 조련의 영광을 시위하는 축전이기도 했다.

온 운동장이 어디라없이 다 떠나갈듯 했지만 그중에도 제일 떠들썩한 곳은 역시 씨름판이였다. 승부가 날 때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귀청을 찢는듯 한 북소리, 꽹과리소리가 운동장을 들었다놓군 했다.

소년급부터 시작한 씨름이 숱한 사람들을 웃기는 웃음판으로 화

해있었다. 조선씨름이라고는 아직 한번도 해보지 못한 조무래기들이여서 심판이 어쩔 사이도 없이 와락 맞붙어서는 서로 상대방과 밀어낼내기를 했다.

《이놈들아, 우리 조선씨름은 일본씨름처럼 그렇게 닭싸움하듯하는게 아니야. 이렇게 척 살바를 쥐고… 꺼럼!》

심판은 매번 조선씨름법도를 가르칠래기 땀을 빼군 했다.

《아무리 일본의 요꼬즈나(일본씨름을 제일 잘하는 선수들의 칭호)라 해도 우리 나라 예천박장사한테 갖다대면 어림도 없지, 암—예천박장사의 특기는 배지긴데 그 배지기로 황소를 일곱짝이나 탔으니까!》

《배지기가 뭐나요?》

《배지기? 일본씨름으로 치면 쯔리다시? 아니, 우와떼나게 비슷하다고 할가. 아니, 그것도 아니야. 일본씨름에는 그런 희한한 수가 없지, 없구말구. 꺼럼! 허— 이거 아이들한테 씨름을 가르치기위해서도 학교부터 빨리 지어야겠수다. 모두들 봤지요? 우리 아이들이 조선씨름도 모르는걸. 그러니 다들 오물쪼물하지 말고 빨랑빨랑 학교건설희사금부터 내소, 예?》

그는 어느새 심판으로부터 학교건설기금을 모금하는 사람이 되기라도 한것처럼 빼곡이 둘러서있는 사람들을 보며 소리쳤다.

《아따! 심판이나 설끼지 돈내라는 소리는 왜 한다? 누가 안 낼가봐?》

누군가 이렇게 대꾸하자 그는 얼른 그쪽으로 돌아섰다.

《뉘시우? 어디 자신이 있으면 앞으로 나서보우. 기부금 얼마나 낸 사람인지 얼굴 한번 봅시다.》

《애개개.》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보아 아직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이 분명했다.

《이 사람이 누구인고 허면…》

그뒤에 있던 사람이 방금 자라목이 된 사람의 잔등을 밀쳐대며 소리쳤다.

《바로 아까바네에서 고리가시(고리대)하는 다까야마상이외다.》

《고리가시? 아이고, 그러믄사 벌써 돈 천원은 잘 냈겠고마.》

누군가 이렇게 훈수하자 방금 잔등을 밀치던 사람이 말도 말라는 듯 대뜸 손을 내저었다.

《돈을 내요? 생긴걸 보소, 얼마나 게찌(깍쟁이)겠나. 돈내라고 찾아가면 내가 왜 벌써 내? 내 아들 학교갈 때 낸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웃음이 일었다.

《아니, 무엇때문에 일본사람이 우리 학교 건설기부금을 낸단 말이요?》

저쪽에서 누군가 엉뚱한 소리를 했다.

《난 우리 학교 운동횐줄 알았더니 일본사람도 섞여있었구려. 어디 그 다까야마상 어떻게 생겼는지 관상 좀 봅시다.》

아직도 일제때 강요당한 이름을 그대로 쓰고있다는 핀잔에 또다시 왁자그르했다.

그네터도 자못 활기에 넘쳐있었다.

그러나 매번 승부를 다투는 씨름판과는 달리 여기서는 치마허리를 수건으로 질끈 동인데다가 팔소매까지 걷어붙인 한 아낙네가 그네우에 올라있는 처녀에게 그네타는 법을 가르치고있었다. 그는 오늘 손수 시범동작까지 해보이려고 마음먹었는지 복장도 아예 선녀같은 치마저고리차림이였다.

《아이고, 답답해라. 그렇게도 힘을 쓰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네가 올라? 배힘으로 오르고 팔힘으로 뜨는게 그네란디.》

《암만 힘을 써도 안되는걸 어떻게 해요?》

분명 그네라고는 처음 타보는 처녀는 안타까운듯이 발을 동동 굴렀다.

《우선 팔부터 크게 벌려봐, 이렇게!》

《이렇게?》

《아니, 더 크게! 동시에 배는 힘껏 내밀구.》

《이렇게.》

《아니, 더!》

《이렇게?》

주위에서 그 모양을 지켜보고있는 녀자들은 입을 싸쥐기도 하고

옆사람과 귀속말로 뭐라고 수군거리기도 하는데 보매 이제 무슨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나 하고 기대하며 웃음을 참고있는 꼴이였다.

《배를 더 내밀어야 한다는디!》

녀인이 시키는대로 아래배를 한껏 내밀던 처녀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갑자기 한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깔깔 웃어댔다.

《그런데 동작이 좀 밋도모나이(창피)합니다네!》

그 말에 여태껏 웃음을 잔뜩 물고있던 녀자들이 일시에 폭소를 쏟아놓았다.

서로 한곳에 모이니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는 사람도 많은것 같았다. 어디서나 마주붙들고 반갑다는 인사들이였다.

《족은아방, 족은어망, 안녕하셨수꽝.》

《원, 이기 누구디아? 잘 땐 자리에 오줌누군 하던 벵식일주? 이전 한몫 장수가 되였는디? 무싱거 먹언디?》

《무사 그럼수꽈.》

《이전 족은아방, 족은어망하믄 안된디야. 내가 바로 제주부씨의 14대종손이라 그 말이다.》

《그럼 뭐라 불러얍니까, 아잽니꺄?》

《아재가 뭐꼬? 할배다, 할배라 혀!》

《그럼 할배요, 절 받으소.》

그런가하면 다짜고짜 손목을 마주잡고 차일안으로 들어가 대포잔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돈을 안 내고 공짜로 먹는 술이여서 그런지 한잔이상은 더 청하지 못했다. 그런 눈치를 알아차린 주인은 오히려 제편에서 섭섭해하며 볼부은 소리를 했다.

《아따, 오늘같이 기쁜날 엔료(사양)는 무슨 엔룝니껴. 어서 드이소, 자—》

《그러다 형씨 밑천 쫄딱 녹일가봐 그럽니다.》

《홀깍대기장사에 밑천은 무슨 밑천이겠수. 그러나 그런들 걱정이 또 뭐유? 이젠 기업권도 가졌겠다 돈까지 대주는 상공련합도 있는데…》

《기업권도 가졌고 상공련합도 있지만 그뒤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공화국이 있지요. 바로 그래서 오늘같이 기쁜날도 있는게 아니겠수.》
《암, 그렇다마다요. 거 형씨! 그 말 한마디 내 맘에 쏙 들게 했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잔 합시다. 자, 간빠이!》
운동장가운데 특별히 커다란 차일을 쳐서 꾸려놓은 래빈석에 앉아 동포들의 이런 활기에 넘친 모습을 바라보는 덕수의 마음은 무어라고 형언할수 없으리만큼 흐뭇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또 누구를 지켜보아도 기쁨과 자랑과 긍지에 넘친 모습들이였다. 언제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힘차게 뛰여보았고 또 언제 저처럼 밝게 웃어보았던가!
그런 모습을 보면 볼수록 이제까지 해온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겠다는 결의와 또 할수 있다는 신심이 가슴가득히 용솟음치는것이였다. 특히 자기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으로까지 내세워주신 장군님의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배가의 노력을 하리라는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는것이였다.
《야단났습니다, 의장님!》
갑자기 가슴에 《학부형》명판을 단 축구선수 하나가 땀방울을 뚝뚝 떨구며 초대석앞으로 들이닥쳤다. 태길이였다. 땀범벅이 된 얼굴 한복판에 솟아있는 커다란 매부리코가 쉴새없이 벌름거렸다.
《왜?》
《우리 선수 하나가 발목을 다쳐 뛰질 못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좀 대신해달라는겁니다. 옛날에 축구선수였다기에…》
《그－래?》
손에 쥐고있던 부채를 탕 하고 책상우에 놓은 덕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절로 아래입술이 비죽하니 밀려나왔다.
《그럼 진작 그렇다고 할노릇이지!》
그렇지 않아도 아까부터 다리가 근질거리는걸 참아오는터였는데 마침이다싶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윤덕곤이 따라일어서며 소리쳤다.

《아, 의장은 안돼! 학부형팀인데 학부형도 아닌 의장이 어떻게 나가! 안 그렇소, 교장?》
옆에 앉아있는 교장 림광철을 바라보던 그는 다시 한마디 덧붙였다.
《이런 때야 응당 학부형회 회장인 내가 나가야지. 내가 뭐 괜히 학부형회 회장을 하는줄 아는게지!》
아무 일에서나 직선적이고 행동적인 덕곤은 어느새 와이샤쯔깃을 훌훌 풀어헤치고있었다. 불룩한 배가 벌써 숨가쁘게 오르내리였다.
잘못하다간 그에게 자리를 빼기울 위험을 느낀 덕수는 얼른 앞책상을 들어옮기고는 운동장으로 나섰다. 나서고보니 뽈을 차러 나왔다는게 옷은 물론 신발도 구두를 신은채였다. 제꺽 웃동을 벗으면서 뒤꿈치로 구두를 털어벗은 그는 바지가랭이까지 둥둥 걷어올렸다.
그의 출현에 놀라기도 하고 웃기도 하던 사람들이였으나 누군가가 곧 운동화짝을 가져다주었다.
(아무렴 옛날같기야 하랴만 그래도 한번 본때를 보여주어야지!)
교남학교시절 경기때마다 골받이로 학생들을 놀래우던 일을 상기하면서 그는 그때 자기의 위력한 무기였던 번듯한 이마를 한번 쓱 쓸어보았다.
학부형팀선수들은 대체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였으나 어떻게 된 판인지 젊은 학생팀을 2 대 1로 누르고있었다. 그러나 역시 나이는 나이여서 경기마감시간이 가까와질수록 힘이 딸린 학부형팀문전에서는 자주 혼전이 벌어지군 했다.
어느새 학생팀공격수 하나가 방어수를 뚫고 꼴문을 향해 육박해들어왔다. 어찌도 다리를 재게 놀리는지 두발이 바람개비같았다. 잔뜩 허리를 꼬부리고 기회를 노리던 덕수는 그가 약간 공을 길게 몰았다싶을 때 제꺽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공을 낚아챘다. 그바람에 육중한 덕수와 정면으로 부딪친 상대방은 몸의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종내 뒤로 벌렁 넘어지고말았다.
《허ㅡ 대단한데.》
《의장 잘한다!》

《의장이 뭐요? 중앙위원이지!》
《그렇지! 중앙위원 잘한다—》
관중들의 찬사에 화답하듯 공을 중간으로 힘껏 내찬 덕수는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세워주는 아량까지 보였다.
(어디라구 감히… 이래뵈두 한땐…)
그런 생각에 젖어있을새가 없었다. 어느새 또 공격이 가해졌다. 학생팀은 시간이 촉박해지자 연방 문대우에 공을 띄우고는 떨어지는 이삭뽈을 꼴문에 차넣으려고 시도했다. 그런 때는 자기 위치가 바로 제2문지기라는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있는 덕수는 꼴문대에 붙어서서 분주히 오가는 공을 주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때였다. 문앞으로 떠오는 공을 문지기가 나가면서 쳐낸것까지는 좋았으나 그게 상대방선수의 발에 걸려 다시 문대를 향해 날아들었다. 문지기도 없는 빈 꼴문이였다. 당장 공이 그물에 철석 하고 걸릴판인데 이때다 하고 속으로 웨친 덕수는 기다렸다는듯이 머리를 들이대고 지끈 받아치웠다. 결정적인 위기를 모면한것이였다.
《저런!》
《의장솜씨가 정말 보통 아닌걸?!》
《완전히 프로급일세!》
《글쎄 저 정도니까 자신있게 나선거지.》
이런 탄성이 미처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공이 공중으로 날아들었다. 이번에는 자기뒤에 문지기가 있다는것을 알았지만 자기의 골받이위력을 다시한번 보여줄 심산으로 그는 재차 공중으로 솟구치며 머리를 휘둘렀다. 한데 빠른 속도로 날아온 공인데다가 그 공이 이마에 제대로 맞지 않는 바람에 한쪽귀바퀴가 얼얼해났다.
《아—니?!》
《와—아!》
갑자기 터져오른 함성에 덕수는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무엇때문인지 관중들이 일시에 자리를 차고일어나기까지 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뒤돌아본 순간 그는 그만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입을 멍하니 벌린채 굳어져있는 문지기와 함께 그뒤 그물 한쪽귀때기에 걸려있는 공이 보였기때문이였다. 자기가 골받이한 공이 자기 문으로

날아들어갈줄이야!

《아이쿠!》

덕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태길이가 땅을 치며 분해했다. 사람들은 성을 내는가 하면 배를 그러쥐고 웃어대기도 했는데 어느새 윤덕곤이 대머리를 번쩍이며 달려들었다.

《학부형도 못되는 주제에 괜히 나서더니. 그러단 또 한꼴 먹겠네. 들어가라구.》

그리고는 누가 어쩔 사이도 없이 그 짧은 다리를 놀리며 공을 쫓아가는데 그 동작이 가관이였다. 자기 위치도 없이 공이 가는데마다 따라가는것도 우스웠지만 누구의 발에 공이 맞기만 하면 괜히 저도 덩달아서 한쪽다리를 널름하는것이였다. 제발에는 공이 한번도 맞지 않았으나 쉴새없이 다리를 들썩들썩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요절을 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사람들이 배를 그러쥐게 만든것은 해빛에 번들거리는 덕곤의 대머리가 공같아서 마치 두개의 공을 놓고 경기를 하는것 같았기때문이였다.

결국 경기는 2 대 2의 무승부로 끝났으나 두 팀이 다 이긴것으로 선포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운동장에서 춤판이 벌어졌다.

경상도 밀양타령에 맞추어 추는 곱새춤이 나오는가 하면 충청도 사물놀이에 황해도 봉산탈춤까지 차례로 선을 보이였다. 춤도 아니고 체조라기도 어려운 발을 동동 구르면서 팔을 꾸불덕거리는 해괴한 동작도 있어 저게 뭐냐고 묻자 제주도 《해녀춤》이라는것이였다.

어쨌든 자기 고향 춤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나왔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즉석에서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8

온 운동장이 비좁도록 빼곡하게 들어앉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서로마다 자기네 지부나 분회의 자랑을 터놓기 시작했다. 여러군데 설치해놓은 마이크앞에는 벌써 숱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룩한 성과들을 말하기 위해 꼬리잡이를 하고있었다.

운동회를 끝내기에 앞서 덕수가 이미 계획했던대로 오래간만에 많은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 기회에 그동안 자기들이 이룩한 사업성과에 대해 한마디씩 하는것이 어떠냐고 하자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했던것처럼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나섰던것이다. 처음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마이크앞에 나서서 말하는 바람에 무슨 소린지 가려들을수 없을 정도였다.

어떤 지부에서는 아이들의 교육비를 거주단위의 구역소에서 받아낼데 대한 중총의 지시에 따라 이미 구역소와 여러차례 담판한 결과 적지 않은 돈을 받기로 했다고 하는가 하면 다른데서는 근 스무명의 동포들이 뜨내기생활을 청산하고 직장을 구했다는것이였다.

그중에는 이런것도 성과로 될수 있느냐며 《민단》동포 10여세대가 자기네 지부에 가입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스스로가 자진해온것이라는데 대해 어줍은 기색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왜 그게 지부의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지부관하 동포들이 단합해서 애국과업들을 보란듯이 잘 수행했기때문에 그들도 감동이 돼서 우리한테로 넘어온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랑중에서도 아주 큰 자랑이지요.》

덕수의 말에 모두들 박수를 치며 그들의 성과를 축하했다.

자랑은 끝이 없었다. 밀주단속이라는 구실밑에 부락에 달려든 경찰들을 단합된 힘으로 막아낸 사실이며 공안조례반대투쟁에 참가하여 용감하게 싸운 일 그리고 학교건설기부금을 벌써 얼마나 장만했다는 등…

이어 40대쯤 돼보이는 반바지차림의 중년사나이가 마이크앞으로 나섰다. 바투 깎은 머리에 해빛에 타서 번들거리는 목덜미로 보아 분명 토목일을 하거나 막로동청부업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았다. 그런데 그는 왜서인지 말은 하지 않고 밤송이같은 머리칼을 슬슬 쓸어대기만 했다.

《무슨 자랑인지 들어봅시다.》

덕수옆에 앉아있던 덕곤이가 재촉해서야 그는 입을 열었다.

《까놓고 말해서 난 뭘 자랑하자는게 아니예유. 자랑은 고사하고

되레 한가지 골치거리가 있는거라유. 그걸 말하자고 나왔는데 그래도 괜찮겠어유?》

《골치거리?》

이쪽마이크앞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있던 한 아낙네가 야무진 소리로 되받았다.

《골치거리라면 빚을 걸머졌다는 소리가 아니믄 부부싸움이라는건데 그걸 여기서 말하자는긴가? 아이고, 남살스러버라!》

와— 하고 웃음이 터졌다.

《그런기 아니라유. 내 아무리 일자무식에 무일푼신세라 해도 이런데서 그런 말 하겠어유? 그쯤한건 나도 알지유. 하긴 빚도 걸머지고 녀편네가 바가지를 긁을 땐 한대 주어박을 때가 있긴 하지만서두, 히—》

그는 갑자기 황소처럼 소리없이 히죽 웃어보였다.

《그런데 무슨 놈의 녀편네가 한대 맞기만 하믄 온 동네가 떠나가게 소리치는가 말이예유. 생지랄이지유. 그게 괘씸해서 또 한대 멕이는데 녀편네들이란 그저 봄꿩이 제 울음에 죽는것처럼 괜히 소갈머리없이 지가 화를 만들어내지유. 그렇지만 저녁땐 풀어주어유. 그게 남자 아니겠어유. 그때에야 콜짝거리면서 제 잘못을 뉘우치는데…》

《됐습니다, 그 얘긴 그쯤하고 이쪽얘기나 하십시오.》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가 무슨 소리까지 하겠는지 걱정이 된 덕곤이가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일단 말을 시작하면 그게 어떤 말이든 장소나 분위기에 상관없이 말짱 털어놓아야 시원해하는 사람 같았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목을 뽑아들고 호기심이 어린 눈길로 그를 지켜보았다.

한동안 주밋거리던 그는 이제껏 슬슬 쓸어만지던 머리를 갑자기 빨리, 그것도 비누칠한 머리를 감을 때처럼 맹렬한 동작으로 긁어댔다. 보매 그런 동작은 면구스러운 사실을 털어놓을 때마다 취하군 하는 버릇같았다. 아니나다를가 그는 드디여 그 골치거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집에 중학교에 댕기는 아들눔이 하나 있지유. 어느 학교

나 다 비슷하지만 다찌가와에 있는 우리 학교랑기 아직은 일본학교와 같이 있으믄서 교실 몇칸을 빌려쓰지유. 아— 그란데 이 자슥이 학교에 갔다오기만 하믄 신소를 달고오는거라유.》

《신소라니요?》

《일본아들 자꾸 때린다는거지유. 어디 때리기만 합니까? 공책을 뺏들지 않나 벤또를 뺏아묵지 않나. 하긴 집에서 공책도 몬 사주고 벤또도 몬 싸주는건 사실이지만… 글씨 이걸 우야모 좋아유?》

《아따!》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의 종아리를 철썩 때리면서 볼부은 소리를 했다.

《왜정때 밤낮 매맞든거 잊어뿌렀나? 그때 감독이나 십장한테 맞은것에 비하믄사 그기 무엇이여? 그까짓 벤또나 뺏아묵는기 뭣이락꼬!》

또다시 폭소가 일었다.

《우리 아이도 쌈할 때가 있는디…》

이번에는 저쪽마이크앞에 서있던 몸집이 우람한 장년이 억양이 센 전라도말씨로 받았다.

《그때마다 내 아이한테 뭐라는지 아슈? 이기라칸당께. 너 애비, 에미 수모받던걸 생각해서라도 기어이 이겨야 한다칸당께로.》

한수 더 뜨는 그의 말에 덕곤은 물론 덕수까지도 웃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이걸 보슈.》

처음 말한 숫밤송이머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은채 말을 이었다.

《매일처럼 매맞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와 이 꼴을 보라고 들이대는 사람은 다 코를 맞대고 사는 이웃들이란 말이예유. 어디 그냥 코를 맞대고 살기만 합니까? 돈이 없으면 돈을 꿔주고 쌀이 없으면 쌀도 퍼주는 인정많은 사람들이지유. 애비는 늘 그 집 신세를 지고사는데 아들눔은 그 집 아들 때리기만 하니. 내 오죽 그들보기가 딱했으믄 다른데로 이사갈 생각까지 했겠나유.

그래 녀편네보고 이살 가자고 했더니 아— 이놈의 녀편네 한다는

소리가 여태까지 이웃들에 진 빚은 어떻게 하고 이사를 가느냐며 마치 날 돈떼먹고 달아나는 사기군이나 구이니게(공짜로 먹고 도망치는것)하는 협잡군처럼 여긴단 말이예유. 세상에 지 남편 협잡군으로 몰아대는 녀편네가 어딨어유? 그게 괘씸해서 그 나불나불하는 주둥아리를 한대 탁 멕였더니 아, 또 동네가 떠나가게 소리치는데…》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또 다른데로 뻗으려 하자 덕수는 곧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으며 덕곤을 바라보았다. 그가 덕곤을 바라본것은 학부형협회 회장으로서 응당 이런 문제를 맡아나서야 한다는데도 있었으나 그 역시 한때 아들문제로 하여 골머리를 앓은적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삼형제가 매일처럼 일본아이들을 두들겨패군 해서 하루도 마음놓고 지낸 날이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그들이 얼마나 착실해졌는지 동포들은 물론 일본사람들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것이였다.

덕수의 시선을 통해 그가 무엇을 바란다는것을 알아차린 덕곤은 탁우에 있는 마이크를 당겨놓으며 빙그레 웃었다.

《그럼 내 한마디 하지요. PTA(학부형회)를 책임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학부형의 립장에서 말하니 그리 알고 들어주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자식들때문에 어지간히 골머리를 앓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이렇게까지 벗어졌단 말입니다. 보시구려, 100와트는 못돼도 80와트는 잘되지요. 하하!》

덕곤은 그 80와트짜리의 대머리를 쓸어보이면서 제먼저 큰소리로 웃어제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아이들이 싸움을 하지 않게 하는데 있습니다. 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쌈을 해서도 안되고 남을 때려서는 더욱 안된다고 말입니다. 그럼 아들녀석이 묻지요. 상대방이 때리자고 달려드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나 하고 말입니다. 맞아도 안된다고 하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가고 다시 묻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손자병법〉을 대줍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였다.

《〈손자병법〉 6계는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는 〈동성서격〉이요, 23계는 길목을 닫아매고 우리안에 가두어넣는 〈폐문촉전〉전술이다. 그리고 싸움에 걸려들어도 상대를 때리지 않을뿐아니라 자기가 맞지도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병법의 마지막수를 쓰면 된다는것을 말해주지요. 그 수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도 꼭 알고계십시오. 〈주도상〉이라는 전법인데 제36계로서 줄행랑입니다.》

《하하!》

《허허!》

《호호!》

사람들은 땅을 치며 웃어댔다. 그러나 덕곤은 얼른 손을 저어보이며 심각한 기색으로 말을 이었다.

《절대로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비겁하거나 지는것이 아닙니다. 더우기 이것이 아이들싸움에만 적용되는게 아니라는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시다싶이 지금 미일반동들이 날을 따라 승승장구하는 우리 조련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탄압의 구실을 찾기 위해 얼마나 피눈이 돼있습니까. 지난 4월에 있은 니이가다의 다까다사건이나 얼마전 도찌기동포들에 대한 습격사건이 그를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놈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한테서 자그마한 트집이라도 잡아 불집을 일으키려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놈들의 이런 도발에 걸려들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수 없으며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린 놈들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완강하게 투쟁하면서도 무모한 도발에는 절대로 걸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놈들이 제일 두려워하는것은 바로 우리가 조국의 두리에 하나같이 뭉치는것이고 그다음은 우리와 일본인민들사이의 친선입니다. 때문에 일본아이들과 쌈을 하는것은 조일친선을 파괴하는 행동일뿐아니라 우리를 탄압하려는 적들을 도와주는것으로 됩니다. 이것을 아이들한테 말하십시오. 그럼 아이들도 꼭 리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옳은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과시 학부형회장이 다르긴 다르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덕수는 분위기를 통해 최근의 급변하는 정세, 미군정과 일본정부가 여느때없이 악착한 책동을 감행하고있는것과 놈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까밝힐 필요를 느끼였다.

최근 미군정의 사촉을 받은 일본반동당국은 국철총재 시모야마를 레루우에서 자살한것처럼 만들어 여론을 오도시키고 무인전차를 고속으로 내몰아 수많은 사상자를 낳게 한 미다까사건을 조작함으로써 수천명의 철도로동자들을 행정정리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해고한데 이어 로동조합과 민주정당을 본격적으로 탄압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와 함께 경찰들을 재무장시키면서 군대화하는 길로 나가고있다. 또한 놈들은 남조선괴뢰와 체결한 통상협정을 계기로 이제부터는 동포들에게 일본국적을 강제로 강요할수 있는 법적제도까지 마련해놓았다.

이런 일본정세부터 언급한 덕수는 살벌해진 남조선정세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요즘 남조선정세도 심상치 않게 번져지고있습니다. 38도선에서는 미제의 부추김을 받은 남조선괴뢰군이 수시로 공화국령토를 침범하는가 하면 리승만역도는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체포투옥하고있습니다. 바로 며칠전에는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여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 앞으로는 반공이 아니라 련공을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몸바치겠다고 한 백범 김구를 백주에 살해했습니다.》

덕수의 눈앞에는 은연중 김구를 찾아간 박룡의 모습이 떠올랐다. 뒤늦게나마 그와 함께 나라의 통일성업에 나서겠노라고, 그것만이 여생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던 그가 김구가 살해된것으로 하여 얼마나 타격이 클것인가! 정말 그의 운명은 그자신이 말한것처럼 절망과 좌절로만 엮어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와 일본반동당국이 우리 공화국을 더욱 적대시하면서 그 해외공민들인 재일동포들을 로골적으로 탄압하려고 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며 투쟁해나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것입니다. 정세가 어려

우면 어려울수록 또 놈들의 탄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오직 장군님을 받들어 조국의 두리에 더 굳게 뭉쳐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살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불길이 뜨거우면 생나무도 태웁니다. 불길이 뜨거우면 무쇠도 녹일수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말한 모든 성과들이 그런것처럼 래일의 빛나는 승리도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것을 우리 언제나 명심합시다.》

덕수는 운동장에 꽉 차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여러분! 얼마전 조국에서는 북남로동당이 합당하여 조선로동당이 되였고 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새로 결성되였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김일성**장군님의 신임에 의해 조국전선중앙위원으로 임명되였습니다.

저는 이 중임을 언제나 동포들속에 들어가 동포여러분들과 함께 고락을 하며 동포여러분들과 함께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는 장군님의 분부로 받아들이고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모두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조국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쳐 더욱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나갑시다.》

《옳―소!》

앉은자리에서 손나팔을 만들어 소리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리를 차고일어나며 힘차게 주먹을 휘둘러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김일성**장군님 만세!―》

윤덕곤이 먼저 선창을 하자 온 운동장이 떠나갈듯 환호했다.

《**김일성**장군님 만세!》

《조국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뭉치자!》

연방 구호가 터져오르는가 하면 그때마다 북소리, 꽹과리소리가 천지를 진감했다. 운동회가 어느덧 해산을 모르는 군중대회로 변한듯싶었다.

이날 저녁 오래간만에 집으로 돌아온 덕수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에 접했는데 그것은 출장차로 센다이에 가있는 현우로부터 보내온 전보였다. 전보문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센다이수도원에서 영신이를 찾았습니다. 래일 그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9

단 며칠사이에 자기 신상에 들이닥친 뜻밖의 일들로 하여 영신은 미처 정신을 가다듬을수 없었다. 그 엄청난 사실들을 일일이 되새겨보기는 고사하고 하나로 련결시키거나 집중시켜 생각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자기가 지금 마주하고있는 사람이 중총의장이라는것이 믿어지지도 않았거니와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조차 리해되지 않았다. 마치 사나운 바람에 휘말린 가랑잎처럼 수도원이 있던 센다이교외의 산골짜기에서부터 도꾜 한복판으로 훌 날아온것 같이만 여겨지는것이였다.

《글쎄 수도원에 가있을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수도원에는 대체로 신앙심때문에 있는 녀자들이지만 곡절이 있는 녀자들도 간혹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보자고 맘먹었지요.》

현우로부터 수도원에 있던 자기를 찾아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의장의 얼굴에는 심중한 빛이 어려있었다.

사실 생면부지의 청년이 수도원에 불쑥 나타나 《영신씨지요?》하고 물을 때까지만 해도, 당장 도꾜로 가야 한다면서 짐을 싸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영신은 가슴이 섬찍했다.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 틀림없다는 짐작이 들었기때문이였다. 서울에 있는 아버지가 《민단》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자기를 강제로 그리로 끌고가려는거라고, 그렇지 않고야 도꾜에서 수백리나 떨어진 이 수도원에 숨어있는 자기를 어떻게 찾아내랴 하는 생각이 든 그는 처음부터 사소한 융통도 보이지 않을 잡도리로 야무지게 쏘아붙였다.

《누구지요, 당신은?》

그러자 상대방은 반죽좋게 씨물씨물 웃기만 하면서 《해방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잔데 나쁜 사람은 아니니 마음을 놓으라는것이

였다.
(《해방신문》? 그러니 조련사람으로 가장시킨 모양이지? 조련이라면 내가 말을 들을것 같으니까. 천만에! 그렇다고 내가 속을줄 알구?)
영신은 절대로 끌려가서는 안되며 이 사람 손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것, 그러자면 처음부터 뻗댈것이 아니라 따라가는척 하면서 기회를 보다가 도중역에서 내리든가 몰래 다른 기차를 타야겠다고 결심했다.
단단히 마음을 도사려먹고 기차에 오른 영신이였으나 자리를 잡자마자 대뜸 사진기와 취재수첩이 들어있는 가방을 자기한테 맡기고는 드렁드렁 코를 골기 시작하는 현우를 보고는 아연해지고말았다. 고개를 잔뜩 비틀고 입을 하 벌린채 누가 살점을 뜯어가도 모르게 곯아떨어진 모습을 보느라니 생각은 복잡해졌다. 도끼로 대충 다듬어놓은듯한 큼직큼직한 생김새며 가식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소탈한 행동이 어느모로 보아도 자기를 유괴해가는 사람같지는 않았다.
《여보세요.》
얼마든지 도망칠수 있었지만 영신이는 도리여 현우를 흔들어깨웠다. 속이 한줌만 해서 앉아있는 자기와는 달리 셈평좋게 드러누워 쿨쿨 잠만 자는 그가 괘씸했던것이다.
《그렇게 정신없이 자다가 내가 도망을 치면 어쩌지요?》
《도망을 치다니요?》
무슨 소리냐는듯이 현우는 두눈을 슴뻑거렸다.
《글쎄 철없는 아이가 아니라면 누가 자기가 유괴된다는걸 알면서도 그냥 따라가겠나 말이예요.》
《유괴라는건 또 뭐요? 아하! 그러니 이젠 어디로 가며 무엇때문에 가느냐 하는걸 대라는겁니까?》
고개를 기웃해보인 현우는 자리를 고쳐앉으며 빙그레 웃었다.
《말하지요, 사실 이건 비밀에 속하지만 특별봉사하는셈치고 말하겠습니다. 흔히 남자들이란 미모의 녀성에게는 정도이상의 친절을 베풀고싶어지는 법이니까요. 에— 우리가 가는데가 어딘가 하면…》
현우는 자기 말 한마디한마디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려고 애쓰

며 말했다.

《바로 조련중앙총본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총의장동지한테 가지요.》

(중총의장?)

영신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조련의장이 무엇때문에 자기를 찾는단 말인가! 지영이와 헤여진 이후부터는 자연히 련계가 끊어졌고 아버지가 《민단》단장을 하면서부터는 건느지 못할 아득한 심연너머로 멀어진 조련이였다. 그래서 세상밖으로 던져진 자기를 조련의장이 찾다니?

《어째서 그 의장님이 절 찾는거예요?》

《글쎄요.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온 일본땅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영신씨를 찾아내라고 한걸 보면 보통일이 아닌것만은 사실이지요. 혹시 알겠습니까. 귀가 번쩍 트일 소식을 듣게 될는지 말입니다. 아, 됐습니다. 이젠 그쯤 알고 더는 묻지 마십시오. 묻는다 해도 그 이상 대답할수 없으니까요.》

다시 등받이에 기대앉은 현우는 그 이상의 친절은 베풀수 없다는듯이 두눈을 꾹 감았다. …

영신은 정체모를 사나이한테 끌려온 이 미지의 길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 겁에 질린 눈길로 자기앞에 앉아있는 의장을 쳐다보았다.

《그렇소. 내가 동물 찾았소.》

《?!》

영신은 온몸이 굳어졌다. 어쩐지 무뚝뚝하게 생긴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 자기 운명이 결정될것만 같은 불안이 심장을 옥죄였다.

《동무를 왜 찾았는가? 그건 우선 동무에게 지영동무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동무와 2년전에 헤여진 지영동무가 지금 조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오? 외무성에서 간부로 사업하고있소. 몸 건강히 말이요. 게다가 일을 잘해서 사람들속에서 평판이 좋다는거요. 그리고 더 중요한건 그가 아직 총각으로 있으며 지금도 동무를 잊지 못해한다는거요.》

《?!》

영신이는 소스라쳤다.
(그가 외무성 간부로? 아직도 나를?)
온몸의 피가 일시에 얼어붙는것 같았다. 혹시 자기가 의장의 말을 잘못 듣지 않았나싶기만 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고 믿을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다시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믿어야 할지 어쩔지 분별할새도 없이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왈칵 치밀어 올랐다. 대뜸 눈앞이 흐려지면서 지영이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군하는 괴로운 추억이 가슴을 허비였다.
서울에 있는 지영이가 자기의 편지를 받고 일본에 돌아왔을 때였다. 기쁘고 반가왔다. 가슴속 구석에 그늘은 있어도 서로의 사랑은 식을수가 없었다. 하지만 다시 만난 기쁨은 순간에 깨지고말았다. 자기들앞에 성이 독같이 난 아버지가 나타난것이였다. 아버지는 지영이에게 자기를 모욕했고 자기의 과거까지 부정한 빨갱이들이 이젠 왜놈들보다 더 미운 원쑤가 됐다면서 다시 내 딸과 상종했다간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고 을러멨다.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어기는자는 죽기마련이라고 무시무시한 소리까지 했다. 그 말이 위협이 아니라 확고한 결심이라는것을 알자 영신이는 불안에 휩싸였다. 그날 밤 그는 지영이가 거처하는 숙소로 달려갔다. 아버지한테 진정을 유린당한 지영이를 위로해주고싶었다. 아니, 그에게 자기의 진정을 털어놓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었다.
자정이 가까운 깊은 밤이였지만 지영이는 두팔을 깍지낀채 멍하니 천정만 쳐다보고있었다. 영신이는 지영이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지영씨! 무슨 고민이예요. 아버지가 우리 일에 무슨 상관이예요. 제가 있으면 되지 않아요. 제가 변함없이 지영씨를 사랑하면 되지 않나 말이예요.》
영신이의 결심은 확고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또 남들이 어떻게 보든 자기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자기를 믿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이번 기회에 될수록이면 지영이가 자기를 책임져주는 결심을 내리기만 바랐다.
이제 와서 돌이켜볼 때 어쩌면 자기가 그런 생각까지 했는지 놀랍

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는 자기의 감정이 결코 청춘의 초기에 체험하는 들뜬 련정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자기는 지영이의 안해가 되지 않고는 도저히 마음의 안정을 얻을수 없다는것 그리고 자기의 이런 결심은 남들에게 핀잔을 받거나 시비거리로 될 아무런 근거가 없을뿐더러 지극히 순결한 감정의 결과라고 굳게 믿었다.

《전… 결심했어요. 모든걸 결심하고 이렇게 지영씰 찾아왔어요. 그러니 절 더는 가만놔두지 마세요. 전 이제부터, 오늘부터… 네? 아시겠어요?》

그리고는 와락 지영이의 품에 뛰여들어 목놓아울었다. 못내 두렵긴 하면서도 바라던 소원이 이룩되리라는 행복감으로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켜온 순정이기는 하지만 이젠 그것을 바쳐야 한다는 당혹감에서 그리고 그런 말까지 한것이 처녀로서의 자존심을 허물어버린것 같은 수치스러움으로 하여 그의 량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였다.

자기를 바라보는 지영이의 두눈에는 모진 진통을 참는 사람의 번민이 력연했다.

《영신이!》

한참만에야 자기의 어깨를 잡은 그는 평소의 목소리답지 않는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자기의 운명을 그렇게 쉽사리 결정지어야 할가? 만약 영신이나 내가 이 순간의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수 있겠어. 그리고 중요한건 우리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스스로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거야. 난 오늘 영신의 아버지를 만나고나서야 나자신을 더 잘 알게 됐어. 특히 우리의 관계가 더는 지속될수도 없고 지속되여서도 안된다는걸 말이야. 때문에 우린…》

《아니! 아니예요. 그럴수 없어요. 우린 절대로…》

지영이의 목을 더욱 힘주어 그러안은 영신이는 세차게 머리를 저었다. 그러나 어떤 유혹에서 벗어나려는듯 자기의 팔을 내리우며 자리에서 일어난 지영이는 창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습기를 머금은 축축한 바람이 방안으로 불어들어왔다.

결국 지영이는 다음날 다시 서울로 떠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전과는 달리 간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않았었다.
이때부터 영신이는 모든것을 포기했다. 자기의 이루어질수 없는 꿈이나 희망에 대해 다시는 상기하지 않으려 했고 될수 있으면 자기라는 존재조차 잊으려고 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수도원이였던것이다.
끝없는 절망과 고통이 마음을 휩쓸 때마다 그는 그 고통속에 영원히 잠겨있고싶은 욕망을 억누를수가 없었다. 사제가 가르치는대로 가장 열광적인 신도가 되여 자기에게 더 큰 고통이 오기를 바랐다. 어떤 때는 눈처럼 흰 단장으로 지상의것이 아닌 아름다움을 지니고 역시 눈처럼 흰 천사들에게 떠받들려 어디론가 창공높이 훨훨 날아가는 순교자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했다.
(아— 하느님이시여!)
그는 아침기도시간이나 참회시간 지어는 일요미사가 끝난 밤늦게까지도 휑뎅그렁한 교회당에 홀로 앉아 어슴푸레한 초불에 비쳐지는 성상을 바라보며 마음속 고뇌를 털어놓았다. 그때마다 동포들을 배반하고 반역의 길을 걷는 아버지를 저주했고 그런 아버지를 사랑한탓으로 하여 자기같은 불쌍한 씨앗을 세상에 남겨놓은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다. 어떤 때는 조선사람인지 일본사람인지 국적조차 분명치 않은 자신의 기막힌 처지를 비관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조선사람, 어머니는 일본사람,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서울로 건너갔고 그토록 사랑해마지않던 사람은 또 평양에 가있는것이였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있는 복잡한 갈래판에서 과연 자기가 서야 할 위치는 어디며 가야 할 길은 어디란 말인가!
숙명으로 받아들일수밖에 없는 그 가혹한 고통도 날이 감에 따라 차츰 덜어지는듯싶었다. 하지만 심장에 찍힌 상처만은 더더욱 깊어지기만 했다. 그것은 바로 지영이에 대한 잊을수도 버릴수도 없는 사랑의 감정이였다. 이젠 그 어떤 기대도 희망도 가질수 없게 된 자기의 사랑이라는걸 모르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영영 사라진것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 애써 맘속에서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운 정은 점점 더 강하게 살아나 온몸을 활활 태우는것이였다. 확실히 사랑이 주는 감정은 운명이 주는 고통보다 더 크고

강한듯싶다.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하느님!》
그는 괴로울 때마다 성상을 쳐다보며 안타까이 속삭이였다.
《저의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습니까? 이룰래야 이룰수 없고 바란다고 해서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냥 가실길 없는 이 괴로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모든것을 잊고 조용히 당신의 뜻만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하느님, 가르쳐주십시오!》
그러면 자비하신 하느님의 거룩한 목소리가 교회당의 높은 천정에서 장중하게 울려퍼지는것이였다.
《…주의 구원을 묵묵히 기다리는것이 좋느니라. 사람은 젊었을 때 고역을 치르는것이 좋느니라. 엎드려 땅을 포옹하여라. 그러면 다시 희망이 솟아나리니…》
《에레미야》 향가의 한 대목이였다.
그는 자기의 고통을 하느님께서 주신것으로 여기고 그보다 몇배 더한 고통이라도 받을 각오가 돼있다고 맙다지며 그 어떤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기를 그야말로 땅을 포옹한채 간절히 바라마지않았다. 한달, 두달… 그러나 아무리 빌어도 그 어떤 희망도 솟아나지 않았다. 그는 주의 구원이 있기를 묵묵히 기다려낼수가 없었다. 그러기에는 그의 심장이 너무도 뜨겁게 달아있었던것이다.
그렇게 온몸이 불탈 때면 그는 《에레미야》향가대신 루가복음 11장을 다시 외웠다.
《…바라거라, 그러면 하느님이 주시느니라. 찾거라, 그러면 어느땐가는 나타나느니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느님이 열어주시느니라. 누구든 바라는 사람은 구하게 되고 찾는 사람은 얻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기어이 문을 열게 되리니…》
이 대목을 외울 때면 그는 정말 자기의 심령을 다 바쳐 애타게 찾고 간절히 바라는 동시에 굳게 닫긴 운명의 문을 힘껏 두드리면서 부디 한줄기의 빛이라도 깃들기를 바라마지않았다.
사실 그는 지영이의 소식을 제일 고대하고있었지만 설사 그의 소식이 없을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정직한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케 하

고 순결한 사람들 이를테면 자기의 모든 생활, 모든 행동, 모든 사고, 모든 희망을 언제나 청렴하고 정당한 사람들과 나누고싶은 욕구에 시달리고있었다.

그런데 문득 현우가 나타나 도꾜로, 중총의장한테로 가자고 자기를 이끌었던것이다.

영신이는 자기의 이런 사연들을 비교적 상세히 말했다. 처음으로 대상하는 의장이였지만 그처럼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그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보이고싶었다. 그러지 않으면 어쩐지 죄를 짓는것으로 될것만 같았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의장은 그제야 짐작이 된다는듯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따져보면 결국 동무와 지영동무를 갈라놓는데는 나도 한몫 낀셈이구만. 지영동무한테 새 임무를 주어 서울로 보낸것도 그렇지만 그를 거기서 다시 평양으로 보냈으니 말이요. 참! 아버지소식은 들었소?》

아버지소식이라는 말에 영신은 얼른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도 이젠 많이 달라진것 같소. 김구의 장례식날 경교장에 모인 조객들앞에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백범의 뒤를 잇겠다고 가슴을 치며 열변을 토했다는거요. 리승만이가 권고한 그 무슨 고문자리도 뿌리치고 말이요.》

지영이 소식에 이은 아버지에 대한 소식, 너무나도 놀랍고 희한한 일이여서 실감으로 느껴지기는커녕 망연자실해있기만 했다. 자기가 혹시 꿈을 꾸고있지 않나 하는 착각이 들기도 했다.

《영신동무!》

갑자기 심중한 낯빛이 된 의장이 준절한 어조로 말했다.

《내 말을 듣소. 이제부터 영신인 자기가 지난날의 불행한 처녀가 아니라 세상에 새로 태여난 사람이라는걸 명심해야 하오. 알겠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며 우리가 왜 영신이를 애써 찾았는가 하는건 세월이 흐르면 차차 알게 될거요. 다만 여태까지 있은 괴로운 일, 슬픈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해야 한다는거요. 이제부터는 오직 조국을 위해 살며 동포들을 위해 일한다, 이것이 바로 영신이의 인

생관이 되여야 한단 말이요. 이건 내가 바라는것일뿐아니라 지영동무가 바라는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조국이 바라는것이요.》

(조국?)

영신이는 흠칫했다.

(조국이라니? 나에게도 조국이 있단 말인가?)

영신이는 의혹이 실린 눈길로 의장을 쳐다보았다. 따뜻한 정이 어린 눈길이 마주 비쳐왔다. 그 눈빛을 통해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후더운 인정이 가슴속에 흘러들었다. 난생처음으로 자기의 운명을 두고 마음쓰는 혈육의 정을 맛보는듯싶었다. 세상밖으로 비참하게 던져진 자기를 애써 찾은 사람들, 머나먼 산중에 숨어버린 자기를 다시금 세상에 데려내온 사람들,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조선사람들이다. 아— 조선사람! 정녕 내가 조선사람이 될 자격이 있을가?

영신은 저절로 가슴이 떨리였다. 대번에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이제부터 영신이는 아라까와에 있는 우리 초급학교에서 일하시오. 이미 교장한테는 말해놓았으니 그리 알고 무슨 일이 제기되면 현우동무와 련계를 맺든가 나를 직접 찾아오든가 하시오. 음? 그렇게 할수 있겠지?》

어딘가 엄엄하게 느껴지던 의장이였으나 이제 와서는 푸수한 인정과 함께 애초에 받은 호감이상의 감정을 품지 않을수 없었다. 어렵게 여겨지던만큼 더 친밀하고 다정하게 느껴지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것은 이 의장이 자기의 마음속에 잠자고있는것을 깨워 눈을 뜨게 해주고 소중히 가꾸어주고있다는 그것이였다.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은연중 이제껏 버림받아 시달리던 자기에게도 그 어떤 힘이, 한줄기의 광망이 비치기 시작했다는것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순간 그는 자기가 그처럼 애타게 찾고 바라던것이 정말 문을 열고 서서히 다가오고있는듯 한 황홀감에 휩싸이는것이였다.

(아— 이것이 과연 신의 도움이란 말인가! 나에게 안겨지는 이런 희망과 힘이 정녕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이란 말인가!)

영신이는 자기에게 미치는 이 은정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것인지 아직은 분명히 알수 없었지만 그 고마움과 따사로움에는 그저 깊이 깊이 머리숙여 감사드리고싶을뿐이였다.

10

온 일본땅이 벌컥 뒤집혔다.

《키찌》라는 괴상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무시무시한 태풍에 휘말린 일본렬도는 말그대로 일대 수라장으로 변하고말았다. 100년래의 태풍이라고 했다.

단 며칠사이에 수백명의 사상자가 났는가 하면 수천명이 생사여부조차 알길없는 행방불명이 되였고 무려 10여만가옥이 침수되거나 홍수에 흔적도 없이 밀려나버렸다. 이와떼, 미야기현들을 비롯한 벽지의 산간지방은 산사태로 하여 마을이 통채로 매몰되기도 했는데 여태껏 그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추산도 못하는 형편이였다. 말그대로 세기 최대의 살인태풍이였다.

어느 지방, 어느 도시 할것없이 다 피해를 받았지만 태풍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휩쓸려든 도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페허처럼 되고말았다. 범람하는 강물우에 나무로 지은 집들이 둥둥 떠다니는가 하면 뿌리채 뽑힌 가로수들이 도로우에 어지러이 나딩굴고있었다. 어떤 지역은 전기의 합선으로 하여 온통 불바다가 되기도 했다.

어느 못된 계집의 이름을 달아 《키찌》라고 한다는 이 태풍을 일본사람들은 한결같이 《기찌가이》(미치광이)라고 불렀다. 보통 녀자도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린다는데 이런 살인적인 태풍을 몰아온것을 보면 그 《키찌》라는 계집이 필경 악녀라도 보통 악녀가 아니라 입에 칼을 물고 발광하는 미친년이 틀림없다는 뜻이였다.

그러나 태풍계는 자연계만 휩쓴것이 아니였다. 키찌 못지 않는 태풍 아니, 그보다 몇배 더 악착하고 폭압적인 탄압의 선풍이 사회계에도 들이닥친것이다. 그것은 바로 일본반동당국이 아무런 사전통

고도 없이 불시에 내린 조련과 민청에 대한 강제해산령과 핵심일군들에 대한 공직추방령이였다.

공화국창건 1돐기념일을 하루 앞둔 바로 오늘 9월 8일 아침 일본당국은 돌연히 법무총재 우에다를 통해 《단체등규정령》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조련과 산하단체인 민청을 강제로 해산한다는것과 그 단체의 재산까지 몰수한다는것을 공식발표했다. 동시에 조련 및 민청간부 28명을 공직에서 추방한다는것을 밝혔는데 거기에는 한덕수를 비롯한 핵심일군들과 조련고문으로 있는 김운해도 포함되여있었다.

놈들이 이렇게까지 불시에 강도적으로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여서 처음엔 모두 우두망찰 굳어져있기만 했다. 아무리 막돼먹은 세상이기로서니 이런 변이 어디 있단 말인가! 지난 4월 일본당국이 《단체등규정령》이라는 악법을 만들 때부터 심상찮은 기미를 느끼고 경각성을 높이기는 했으나 이처럼 제1탄을 자기네 단체도 아닌 해외공민단체인 조련을 향해 터뜨릴줄이야! 그러고보면 당초부터 그 법을 만든것이 조련을 해산하기 위한것이 틀림없었다. 《키찌》라는 미친년이 태풍을 몰아왔다면 강제해산령과 공직추방령은 흉악한 미제와 교활한 일제가 암암리에 준비했다가 일시에 휘몰아온것이였다.

일본신문이라는 신문은 하나같이 자연계의 태풍으로부터 사회계의 돌풍, 조련해산령에 대한 기사로 바뀌여졌다.

《극좌익에 대한 첫 포성!— 법무부특별조사국발표》

《조련, 민청에 대한 해산명령— 점령군에 대한 반항에 기인!》

《반민주폭력단체의 해체는 일본평화의 담보!》

이런 특호활자의 제목과 함께 법무부총재의 담화를 그대로 전재한 어용신문들은 1면들에 조련이 《위험》한 단체이며 《폭력》단체라는 내용의 특별기사를 게재하면서 중총청사와 조련조직기구도를 싣는가 하면 덕수를 비롯한 추방령을 내린 사람들의 사진을 받치기도 했다.

놈들이 들고나온 해산리유란것은 작년 4월에 있은 4.24교육투쟁이 점령군정책을 반대한 《폭력사건》이라는데 있었고 작년

12월에 있은 《민단》일군에 대한 사살사건을 억지로 조련과 결부시킨것이였다. 사살사건으로 말하면 그것은 조련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순전히 《민단》내부의 알륵으로 빚어진것이였고 4.24교육투쟁 역시 저들조차 그때 조련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족교육의 자주성을 인정하는 대신 일본법도 존중한다는 각서를 채택함으로써 쌍방이 합의까지 본것이였다. 더우기 두 사건 다 《단체등규정령》법안이 나오기 훨씬 전에 있은 일이였다.

어느모로 보아도 놈들의 폭거는 조련과 민청을 강제로 해산함으로써 나날이 확대강화되여가는 재일조선인운동을 일거에 압살해치우자는 목적에서 감행된것이였다.

해산통고를 받은 즉시 덕수는 비상회의를 열고 이런 때일수록 당황하거나 용기를 잃어서는 안된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일군들에게 당장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주었다.

윤덕곤과 림광철에게는 전국에 있는 우리 학교들에서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항의집회를 조직하도록 하는 한편 선전국장 윤봉구와 리진규에게는 《해방신문》을 비롯한 일체 출판물들에 놈들의 만행을 단죄하는 기사를 쓰도록 했다. 조련해산을 반대하는 련대운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의장들을 일본의 여러 민주단체들에 파견했고 조직국장 김훈과 서민에게는 국제민청을 비롯한 대외기관들의 항의와 여론을 불러일으킬데 대한 임무를 주었다. 그리고 자기는 그길로 김운해와 함께 히비야에 있는 법무성으로 가기 위해 중총청사를 나섰다.

정문을 나서기 바쁘게 그들은 접수구앞에 운집해있는 사람들에게 에워싸이고말았다. 해산령에 대한 통고를 듣고 그길로 중총으로 달려온 동포들이였다.

《의장! 이기 무슨 변인기요? 예?》

한 할머니가 우들우들 떠는 손으로 덕수의 팔을 붙잡았다. 태길이 어머니인 박할머니였다. 관동대진재때 남편을 잃고 태길이 하나를 믿고 살아오면서도 조직의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군 했다. 특히 덕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간혹 색다른 음식이 생기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그것을 들고 수임이한테까지 찾아오군 했다.

《해산이라는기 무슨기요? 우릴 다시 일제때처럼 부려먹자는기요, 아이모 그저 입다물고 가마이 살라는기요. 그래 우린 이제부턴 우뚜키 살아야 하는기요, 예? 말 좀 하이소.》

할머니의 주름많은 눈귀에 맺힌 눈물을 보느라니 덕수는 숨이 막혔다.

《개놈의 새끼들!》

뒤에 있던 청년이 주먹을 흔들며 웨쳤다.

《뭐 〈폭력단체〉? 〈위험한 단체〉? 우리가 어째서 그따위 리유로 해산당해야 합니까? 안됩니다. 절대로 그럴수 없습니다. 당장 국회로 가든가 법무성으로 쳐들어갑시다. 아니, 지시만 주십시오. 이제라도 그놈의 법무성을 콱 폭파해치울테니…》

《당장 전국적인 항의투쟁을 벌립시다. 벌려야 합니다!》

웅웅 별러대는 동포들의 기세는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칠것만 같았다.

《동무들!》

덕수는 될수록 침착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놈들이 내린 해산령을 우린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받아들일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내세운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놈들을 이기는것으로 됩니다. 알겠습니까? 할머니, 우리도 지금 그때문에 법무성으로 가는 길이니 동포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절대로 동요하거나 락심해서는 안된다고 말입니다. 더우기 무모한 행동을 해서 놈들에게 유리한 구실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입니다.》

덕수는 같이 가겠다는 그들을 겨우 설복하여 떼놓고 법무성으로 향했다.

거리는 태풍의 잔해로 하여 한산하기 그지없었다. 전차마저 다니지 않았지만 그들은 법무성이 자리잡은 마루노우찌빌딩까지 단숨에 들이닿았다.

두툼한 창가림으로 하여 대낮인데도 어둑시그레한 2층 총재비서실에 들어서기 바쁘게 덕수는 해산령을 직접 통고한 법무총재 우에다를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사람은 작달막한 키에 이마가

반질반질한데다가 눈동자가 쉼없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해말쑥한 부총재였다. 얼마나 머리를 정성들여 손질했는지 단 한오리도 흩어진것이 없이 옆으로 착 달라붙어있는 꼴이 보기만 해도 얄밉기 짝이 없는 상통이였다.

《우린 총재를 찾아왔소.》

《미안하지만 총재님은 부재중입니다.》

《그럼 당신이 책임적인 답변을 할수 있소?》

《직권이 허용하는 한계내의 대답은 드릴수 있겠지요.》

벌써 조련대표들이 들이닥치리라는것을 예견하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있는듯 한 태도였다.

《좋소! 그럼 우선 우리의 립장을 밝히겠소. 난 조련의장으로서 당신들이 아니, 당신네 총재가 내린 해산령과 추방령을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것을 알리는바요.》

어떤 경우에도 침착할뿐더러 격분할 때일수록 더 랭정해지는 덕수였으나 분노가 너무나도 지나친 나머지 제대로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왜 받아들일수 없는가? 그것은 첫째로 당신들이 적용한 그 법에 우리 조련이 조금도 저촉되지 않기때문이요. 내가 알건대 당신네가 내놓은 〈단체등규정령〉이라는 법은 철저히 군국주의추방과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원칙에 따라 제정된것이요. 그렇소, 그렇지 않소?》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얼씬거리기만 하면 활 태워버리기라도 할것 같은 덕수의 눈길에 기가 질린 부총재는 엉겁결에 허리를 굽석했다.

《그런데 어째서 그 법을 민주주의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단체인 우리 조련에 적용시키는거요? 당신네들이 들고나온 해산리유라는것은 어느것 하나도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며 이미 당신네와 합의까지 본것이요. 이것이 해산령을 접수할수 없는 첫째 근거요. 둘째로는…》

부총재는 손에 쥔 수첩에 덕수가 하는 말을 받아쓰면서도 촉기빠른 눈동자로 덕수의 표정이며 옆에 있는 김운해의 기색을 놓치지 않

고 살피였다.

《당신들은 우리 일군들에게 공직추방령까지 내렸는데 우리가 도대체 언제 당신네 공직에 있었기에 그런 령을 내리는거요. 우린 자체로 조직을 무었고 자체로 분담을 맡아 일하고있소. 당신네들이 준 공직에서 일해본적도 없거니와 일하지도 않았단 말이요! 그런데도 공직추방을 해? 어불성설도 유만부동이지. 그래, 이게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하는짓이고 법을 안다는 총재가 하는짓이요?》

정통을 찌르고드는 덕수의 말에 아니, 그보다 더 예리하게 파고드는 덕수의 시선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있던 부총재는 마주서있기가 어려웠던지 창문쪽으로 돌아서서 창가림을 여는척 했다. 그 어떤 복잡한 정황도 제때에 판단하고 역바르게 처신할 위인같았으나 너무나도 급소를 찔리운 바람에 미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는듯싶었다.

이번에는 김운해가 나섰다.

그가 먼저 자기 이름을 일본말로 소개하자 대뜸 눈이 둥그래진 부총재는 깍듯이 고개부터 숙이였다.

《아, 소오데스까? 나마에와 마에까라 죤지아게데…》(아－그렇습니까? 이름은 이미전부터 들었습니다만…)

그의 태도는 자기가 법을 쥐고흔드는 법무부의 부총재이기는 하지만 온 일본이 다 아는 유명한 공산주의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존경을 표시할줄도 아는 신사라는것을 보여주려는것 같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로 하여 다소나마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된것을 다행스러워하는듯 했다.

김운해는 먼저 법무부가 아무런 통고도 없이 불시에 해산령을 내린것은 이미부터 조련을 탄압하려고 계획하고있었다는것을 실증하는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을 실례를 들어가며 까밝혔다.

덕수에 비해 키가 한뽐이나 큰데다가 몸집이 호리호리한 김운해는 선비같은 준수한 생김새처럼 목소리도 가늘었다. 감옥살이를 오래 한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그 역시 말이 류창하지 못했을뿐아니라 표정도 다양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몹시 흥분해있었다. 그것은 추방령을 받은 다

른 사람들은 다 조련일군들이였으나 자기만은 일본공산당에 적을 두고있었기때문이였다. 해산령을 받은 조련과는 달리 일본공산당의 간부인 그에게 있어서 공직추방령은 곧 당직에서 물러나야 할뿐아니라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그래서 더 필사적이 아닐수 없었다.

《알아두오만 나에 대한 추방령은 곧 우리 당에 대한 압력이고 도전이 아닐수 없소. 때문에 우리는 해산명령을 내린 법무총재를 상대로 일본자유법조단 변호사 10명을 소송대리인으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있소.》

부총재는 잠시 눈살을 쪼프리고있다가 고개를 기우뚱하고나서 입술을 뾰족하게 모아붙였다. 그 모습은 마치 당신들이 아무리 항의를 하고 행정소송을 한대야 이젠 승산이 없다는걸 자기는 알지만 그것을 그대로 내색하면 당신들의 위협에 넘어가지 않는다는것을 눈치채고 더 완력적으로 나올가보아 부러 과장된 기색을 지어보이는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조련측의 청원내용을 총재님께 그대로 전달하지요, 네.》

처음엔 그래도 부총재의 위치에서 체면을 세우고 상대방을 납득시켜보려고 하였으나 케를 보니 그럴 계제가 못되거니와 그럴수도 없다는것을 깨달았는지 그는 이젠 모든것을 총재한테 밀어붙이였다.

《청원? 여보시오! 우린 청원을 하러 온게 아니라 항의를 하고 우리의 립장을 밝히러 왔소!》

덕수의 말에 김운해가 덧붙였다.

《그렇소! 우린 자기의 정당한 립장을 밝히려고 왔소. 우리는 해산령이 취소될 때까지 당신네 부당성을 세계여론에 호소하는 한편 공산당을 비롯한 민주세력과 련합하여 법무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항의운동을 벌릴 결심이요!》

《취지는 리해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법무성자체의 결심만 아니라는것을 아셔야… 네, 그래서 총재님도 지금 미군정청에 가계시는데 어떻게 할가요? 미군정이나 총재님께 련락해드릴가요? 그

렇지만 그게 당신들한테 어떨는지…》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어조에는 이번 해산조치가 법무부의 주관이 아니라 미군정청의 조치라는것을 암시하면서 총재를 부른다 어쩐다 하고 소란을 피우면 추방령을 받은 당신들에게는 결코 리로울게 없다는 일종의 위협이 깔려있었다.
《련락을 해라! 당장!》
그의 야살궂은 태도에 화가 치밀어오른 덕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꽝― 하고 내리쳤다. 그 바람에 책상우에 놓여있던 양철재털이가 펄쩍 뛰여오르면서 빙글빙글 돌아갔다.
《얼마나 교활한 놈들인가 보우!》
덕수는 부총재를 쏘아보며 말했다.
《워낙 왜놈들이란 앞에서는 헤헤거리며 갑삭거리지만 뒤에서는 여우처럼 앙큼한짓만 꾸미거던.》
덕수가 하는 말이 자기에 대한 욕설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으나 부총재는 그런것은 내가 알바 아니라는듯이 흔연한 표정 아니, 어떤 조소를 머금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할끔하고 덕수를 훔쳐보는 품이 신통히도 겁에 질려 꼬리는 살에 끼고있으면서도 틈만 생기면 상대의 멱을 물어제낄 기회를 노리는 구미여우같았다.
그길로 두사람은 다시 미군정청이 자리잡고있는 다이이찌빌딩으로 갔다.
참모부차장 보크켈바크라고 자기를 소개한 키다리대좌는 긴팔을 쩍 벌려보이며 참말로 유감천만이라는듯이, 그런 자기의 심정을 진정으로 믿어주기 바라마지않는다는듯이 자못 애석한 표정까지 지었다. 간교한 일본법무부 부총재와는 달리 얼마나 음흉하고 내숭스런 놈인지 시종 상대방을 위로하고 보호하는듯 한 태도에 어안이 벙벙해질 지경이였다. 흡사 상주를 대하는 조객의 태도였다.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그 문제때문에 우에다총재와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단계에서는 일단 발포된 정령인것만큼…》
통역이 말을 끝내기 바쁘게 그자는 배속에서 우러나오는듯 한 웅근 소리로 다시 떠벌이였다.

《법을 법으로 다스리는것이 바로 민주주의원칙이고 또 일본평화를 위한 우리 미군정의 기본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법이라는것도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뜻이니만큼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두손을 합장한채 주겠다는 소린지 달라는 소린지 알수 없는 아리숭한 말만 주어섬기는 그의 입가에는 노상 엷은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것은 부총재가 조심스레 비쳐보이던 그런것이 아니라 로골적인 비양이 섞여있는 조소였다. 그는 자기 얼굴에 떠있는 웃음이 조소라는것을 알지만 숨기고싶지 않으며 또 숨길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는 속내를 흔연스레 내비쳤다.

(흉물스럽기란! 왜놈이 여우라면 양놈은 구렝이가 틀림없지!)

향수내가 풍기는 그놈의 번들거리는 이마를 쏘아보면서 덕수는 왜놈이나 양놈이나 다 촌보도 타협할수 없는 철천지원쑤라는것을 새삼스레 통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도 서로 시치미를 떼는 놈들의 파렴치하고도 간특한 처사에 저절로 부드득 이가 갈리였다.

왜놈과 미제놈, 두놈이 량쪽에서 서로 밀고 당기며 톱질을 하고 있는데 그가운데 서있는 나무는 바야흐로 새싹을 움틔우며 무럭무럭 자라는 조련이였다. 악착한 놈들은 한창 기운차게 뻗친 가지들에 알찬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하는 때에 그 나무의 밑둥을 뭉청 자르려는것이였다. 아니, 뿌리채 들어내려는것이였다.

(안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져서는 안된다. 설사 놈들이 조직을 해산하고 우리를 공직에서 추방한다 해도 동포들만은 기어이 조국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한다.)

순간 덕수는 이 기막힌 사실을 장군님께서 아신다면 얼마나 절통해하시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여지는듯 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이젠 동무들과 같은 믿음직한 일군들이 일본에 있기에 마음을 놓겠다고 하시던 그 자애로운 모습이 떠오르자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여올랐다. 그런 크낙한 믿음을 받아안은 자기가 이젠 더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된것은 물론 조직까지 해산당한 이 시련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갈피조차 못 잡고있는것이 아

닌가!

덕수는 온몸을 휩쓰는 전률이 심장을 비틀어대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잡았다.

김운해와 함께 중총으로 돌아온 덕수는 그새 벌어진 새로운 사태에 또다시 아연해졌다.

떠날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경찰들 수백명이 완전무장을 갖추고 두겹세겹 청사정문을 지키고있었다. 뒤늦게 달려온 몸집이 우람찬 김훈이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글쎄 저놈들이 이젠 재산몰수라는 명목으로 책상 하나, 문건 하나 다치지 못하게 하면서 청사에 들어가지조차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빌어먹을! 그래서 모두들 교동사무실에 가있지요.》

덕수는 완전무장한 경찰들의 포위속에 있는 중총청사를 바라보느라니 저절로 숨이 막히였다. 그처럼 자랑과 기쁨과 신심에 넘쳐 드나들던 저 청사가 놈들에게 점거당하다니…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발길을 돌린 그는 교동이 있는 산별회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조련산하단체로서 교동과 녀동은 다행히도 아직 해산령을 받지 않았던것이다.

11

키찌태풍이 파헤친 상처가 미처 가셔지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리히터척도로는 가늠할수 없는 드세찬 지진이 또다시 온 일본땅을 뒤흔들었다. 하늘에 이어 땅이 토하는 잔혹한 세례였다. 그러나 이 지진은 땅속이 아니라 땅우, 다시말해 일본전국에 널려있는 조선인학교가 자리잡은 곳만 골라가며 터진 무자비한 폭진이였다.

조련과 민청을 강제로 해산한 일본반동당국이 이번에는 조선학교들에 대한 강제페쇄령을 내린것이다. 조련해산으로부터 한달만에 취해진 또 하나의 강도적인 만행이였다.

조직을 잃은 동포들한테서 학교까지 빼앗는다면 더는 발붙일 곳

이 없을뿐더러 다시는 추서지 못하리라는 타산밑에 감행한 횡포무도한 탄압이였다. 그야말로 목을 누른 다음에는 칼을 박기까지 해야 자기 목적을 실현할수 있다는 살인마의 본성그대로였다.

조선인학교들이 《일본법을 무시하고 민족적이며 공산주의적인 내용의 교육을 하기때문》에 페쇄한다는 문무성과 법무성의 련명으로 된 통고에 의하면 조련이 자체로 경영하는 92개의 학교에 대해서는 강제페쇄, 재산몰수를 하고 나머지 245개의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육내용과 시설들을 당장 자기들의 요구대로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였다.

이런 저들의 조치가 조련해산 당시 학교는 조련의 재산이라 해도 몰수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과 배치되며 4.24교육투쟁때 서로 나눈 각서와도 완전히 어긋나는것이였으나 폭압에 혈안이 된 놈들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다.

무지막지한 놈들의 만행에 격분한 동포들은 즉시 학교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그러지 않아도 조련의 강제해산으로 해서 터져오르는 분노를 참을길 없었던 동포들은 아예 결사의 각오로 학교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이제 학교마저 빼앗기면 우리한테 남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목숨을 걸고라도 학교만은 지켜내야 한다!》

《우리들이자 우리 학교고 우리 학교자 곧 우리 조국이다. 놈들이 학교를 페쇄하려는 목적은 우리와 조국을 떼놓자는데 있다. 조국을 지키는 한마음으로 기어이 우리 학교를 지켜내자!》

학교주변에서 사는 동포들은 말할것도 없고 멀리에 있는 동포들까지 너도나도 쌀과 가마를 지고 학교로 달려왔다. 곧 학교방위위원회를 구성하고 까마귀떼처럼 달려드는 경찰들과 하루에도 몇차례씩 치렬한 육박전을 벌리였다. 싸우는 부모들을 위해 중학생들은 물론 어린 초급학교 학생들까지도 주먹밥을 만드는가 하면 이웃학교들과의 련락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경찰들과 접전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동포들이 련행되군 했는데 그 수가 한 학교에서만도 수십명에 달하였다.

학교가 경찰에게 점거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처럼 교문을 지키면

서 완강한 방어전을 벌리고있었지만 벌써 경찰들에게 점령당해버린 학교들에서는 반대로 교문을 지키고있는 경찰들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필사의 공격전을 들이대고있었다. 이런데서는 경찰들에게 련행되여가는 사람보다 놈들의 곤봉에 맞거나 구두발에 채워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전국적으로 볼 때 놈들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단행한 오사까, 교또, 야마구찌, 규슈지방의 학교들은 폐쇄되였으나 동포들과 학생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필사적으로 싸운 아이찌, 히로시마, 효고, 미에 등지의 학교들은 여전히 굳건히 우리 교육을 실시하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도꾜, 가나가와지역처럼 일본지방자치제가 우리 학교를 강제로 접수한데서는 제멋대로 도립이니 공립분교니 하는 간판을 붙여 민족격리정책에 의한 동화교육을 실시하고있었고 시가, 기후, 이바라기, 사이다마 등 동포들이 분산거주하는 지역들에서는 일본학교에 민족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학급을 자체로 설치, 운영하고있었다.

영신이가 일하는 아라가와초급학교도 하루아침에 일본공립소학교로 강제이관되여버렸다. 마쯔오까라는 교장과 함께 일본인교원들이 임명돼왔는가 하면 교과서도 일본교과서로 바뀌여졌던것이다. 그 바람에 영신이는 물론 조선인교원들은 거의다 해임되였다.

첫날 일본인직원들과 경찰들이 학교를 접수하기 위해 달려들었을 때였다. 놈들의 폭행에 아이들이 다칠가봐 교실로 달려간 영신이는 그만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자기 학급의 어린 학생들이 교실을 접수하러 온 일본인직원들앞에서 항변을 들이대고있었기때문이였다.

《왜 우리 학교를 빼앗나요? 이 학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땀흘려 지어준 학교입니다.》

《우린 절대로 학교를 내놓을수 없습니다.》

그래도 일본인직원들이 경찰들의 힘을 빌어 학생들을 교실밖으로 내몰려고 하자 학생들은 하나같이 자기 책상을 부둥켜안았다.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책상을 안고 몸부림쳤으나 종내 하나하나 교실밖으로 들리워나가

고말았다. 발을 동동 구르며 교실로 들어가려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한 처녀애는 고사리같은 손을 뻗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타게 부르짖었다.

《돌려주십시오.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우리 교과서를 돌려주십시오.》

절절히 호소하는 그 절규에 영신이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솟구쳐올랐다. 철도 없는 어린것이라고 여겨온 학생들의 가슴속에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고여있는가! 무엇인가 세차게 심장을 때리면서 여태껏 알지 못하던 힘이 용솟음치는것이였다.

결국 교실은 빼앗겼으나 영신이는 다음날부터 학생들을 데리고 운동장에서 야외수업을 했다. 그러자 교무주임이라는자가 황황히 달려왔다.

《이런데서 노래를 부르고 수업을 하면 안됩니다. … 이러면 교무를 책임진 내 립장이 딱해진다는것쯤이야 알텐데…》

《무엇이 딱하다는거예요?》

영신이는 그를 쏘아보며 야무진 소리로 말했다.

《아무리 립장이 딱해도 학교를 빼앗긴 우리보다 더 딱하겠어요? 우린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교실에서 공부할수 있을 때까지 여기서라도 수업을 해야겠어요.》

그러자 교무주임도 가만있지 않았다.

《학생들이 스크람을 짜고 혁명가요를 부른다는것자체가 일본 교육법에 어긋난단 말이요!》

《우린 우리 교육법이 따로 있어요.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혁명가요 부르는걸 막지 말고 일본학생들이 〈캉캉무스메〉(창녀들에 대한 류행가)나 부르지 못하게 하세요.》

영신이는 학교가 어떤 형태로 변하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그 하나의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며 교무주임을 마주 쏘아보았다.

(잘은 놀고있군! 뭐, 우리 교육법?)

학교페쇄가 어떻게 단행되는가를 직접 제 눈으로 보기 위해 아라가와초급학교에 나온 원철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

졌다.

(그런다고 학교를 지켜낼것 같아서?)

이미부터 일본에서 사는 재일동포들이 운동은 물론 교육도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는것을 주장해온 그는 조련, 민청의 해산령에 이은 학교폐쇄령은 부득불 당하지 않을수 없는 피해라고 여기고있었다. 번개가 일고 우뢰가 터진 다음에는 어김없이 소나기가 쏟아지는것과 같은 불가피한 현상이 아닐수 없다는것이였다. 그중에도 민족교육의 강화가 적들의 탄압을 가중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을 거듭 주장해온 그로서는 지금 위기에 직면해있는 재일조선인운동이나 교육문제에 대한 걱정보다도 이미부터 그처럼 우려하던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자기의 견해가 얼마나 정당했는가 하는 일종의 자부심까지 느끼고있었다.

언제나 주위사람들로부터 능력이며 열정을 평가받는데 습관된 나머지 이제는 어느새 자기가 과연 비상하고도 비범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마지 않았고 그로 하여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렵고 복잡한 일은 의례히 자기가 나서야 한다고 확신하는 원칠이였다. 그런데로부터 그는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재일조선인운동을 바로잡는것이 바로 자기에게 부과된 력사적인 사명이라는것, 따라서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재일조선인운동을 이번 기회에 제 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투신해야 하리라는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는것이였다.

사실 그는 요즘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일, 그중에서도 이미부터 애타게 바랐지만 성사되지 않던 일들이 너무나도 쉽사리 또 일시에 이루어지는통에 정신이 다 얼떨떨할 지경이였다. 이즈막 차례진 행운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것은 우선 여태껏 일본공산당의 웃자리에 앉아 중압적인 무게로 내리누르던 김운해가 추방령을 받고 당직에서 제외된것으로 하여 자기가 저절로 당내에서 민족문제를 주관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된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그에게는 더 큰 행운이였다.) 이때까지 재일조선인운동을 그 억센 손아귀에 틀어쥐고나가던 한덕수가 조련조직과 함께 운동권에서 물러나게 된것이였다. 조련이 해산되고 한덕수가 추방된것, 이것이야말로 걸

으로는 내색할수도 없고 내색해서도 안될 일이여서 참고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은연중 미소가 피여오르는 사실이 아닐수 없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덕수만은 마주앉아 무슨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기는 고사하고 대상하기조차 어려웠다. 늘 아래입술을 비죽하니 내민 그가 맞갖잖은 눈길로 치떠볼 때면 꼭 당장 들이받으려고 씩씩거리는 황소를 마주한 기분이였다. 그런데 그 한덕수가 운동권에서 물러났을뿐아니라 그가 애써 키워온 조직마저 흔적도 없이 깨져버렸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모든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다.

이런 사실들은 그에게 제딴에는 조련을 그 어떤 산악도 단숨에 뛰여넘을 준마로 길들여간다고 자부하던 한덕수가 그만 길을 잘못든 탓에 부득불 말에서 내리지 않을수 없게 된 대신 자기가 그의 모든 과실을 책임지고 새롭게 말에 오르게 되였다고 믿게 하였다. 새로운 시대가 바로 자기라는 새로운 인물을 력사의 말우에 앉히였다. 이제부터는 모든 동포들을 조국이라는 범속한 세계에서 끌어내여 혁명의 기치따라 묶어세워야 한다는 각오로 굳어졌다. 그는 벌써 자기를 선두로 한 재일동포들의 억센 대오가 협애한 민족적울타리를 벗어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큰길을 따라 질풍같이 내달리는 모습을 환희에 넘쳐 바라보고있었다. 하지만 늘 인간생활이란 음영이 동반되기마련이라고 여기고있는 그는 자기에게 기쁜 일이 차례지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탕개를 바싹 다잡는것이였다.

요요기에 있는 당본부청사에 이른 그는 자기 방에 들어서기 바쁘게 며칠동안 품을 들여 쓴 원고를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당최고지도기관인 정치국에 제출할 건의서였다. 그는 그 건의서에 오늘의 정세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민족문제 특히 재일조선인운동의 앞으로의 전망과 활동방향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피력했다.

새 과업을 맡은 자기의 혁명적열정과 정치능력에 대해 정치국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것으로 하여 그는 정세분석은 물론 그에 따르는 견해들에 각별한 심혈을 기울였다. 모든 점이 만족스러웠지만 그중에도 자기가 새로운 각도에서 오늘의 정세를 분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활동방향을 제시한 대목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

현시기 혁명력량에 대한 규정을 그는 이전처럼 일본로동계급과 농민, 민주세력에만 국한시킨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무시할수 없는 강력한 력량으로 등장한 재일동포들의 정치적력량에 대해 력점을 찍어 강조했다. 특히 조련, 민청의 해산과 학교폐쇄령을 계기로 일본반동당국뿐아니라 미군정에 대해서까지도 극도의 증오와 반감에 사무쳐있는 재일동포들은 지금 마치 분출구를 찾는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는데 대해 피력하고나서 지금이야말로 당은 이 력량을 일본혁명의 중요한 일익으로 간주해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론증했다. 그리고 조직을 잃은 재일동포자신들도 이젠 당의 직접적인 지도를 목마르게 기다리고있다고 하면서 해방후 대대적으로 입당한 동포당원들의 수를 밝혔다. 혁명의 일선에 당당히 설수 있는 조선인청년당원들의 앙양된 기세에 대해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한 다음 그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위해 당안에 새로운 부서 《민족대책부》를 내와야 한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래 이쯤하면 내가 민족문제를 어떻게 설계하고있는가를 리해하겠지.)

누가 읽어봐도 긍정할뿐아니라 감탄하리라는것을 믿어마지 않는 그는 튼튼한 두팔을 쳐들며 한껏 기지개를 켰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공을 향해 연거퍼 주먹을 날리였다. 그의 이런 행동은 권투선수가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을 하는것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투지와 용기를 가다듬기 위해 하는버릇이였다.

어제 밤늦게까지 정치국위원 아끼야마와 바둑을 둔것으로 해서 어지간히 피곤했지만 그는 문앞에 세워놓은 지우산을 들고 다시 삐걱거리는 마루계단으로 나섰다. 앞으로 조직될 민대부(민족대책부)의 핵심들, 자기의 지시를 재일조선인운동에 구현할 일군들이 기다리고있는 신바시의 산별회관으로 가는 길이였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재일조선인운동이 이제부터는 새로운 궤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앞으로의 재일조선인운동을 철저히 당, 민대부가 직접 장악하고 지도하게 된다는것을 인식시켜야 했다.

그의 머리속에는 벌써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함께 그 활

동을 담당수행할 핵심성원들까지 명백히 찍혀있었다. 도꾜에서는 김충구, 안흥기, 오사까에서는 정동은, 최승국, 청년활동책임자로는 로재호… 모두 해방직후 자기가 운영해오던 3.1정치학원출신들로서 리론적으로 준비돼있을뿐아니라 하나같이 열정과 투지에 충만돼있는 열혈투사들이였다.

겨우 도로가 정비되여 전차와 자동차들이 다니기는 했으나 길가에는 아직도 천막을 치고 사는 수재민들로 붐비고있었다. 거리의 여기저기에는 갖가지 오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가 하면 어떤 집들은 여전히 삐뚜름히 자빠져있거나 허리를 꺾이운채 누워있기도 했다.

(키찌태풍이 도시를 휩쓸었지만 앞으로는 키찌보다 몇배 더한 혁명의 폭풍이 온 일본땅을 휩쓸것이다. 그땐 그야말로 이 땅에서 온갖 낡고 부패한 반동의 오물들을 말끔히 쓸어버릴것이다!)

이런 벅찬 충동으로 하여 그는 걸음발을 힘차게 내디디였다.

12

《이제부터는 놈들이 우리 뒤를 꼭꼭 따라다니며 감시하다가 조금만 비위에 거슬려도 가차없이 련행할겁니다.》

윤의장이 의미심장한 눈길로 방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추방령을 받은 일군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를 토론하기 위해 교동사무실에 모인것이였다.

《오죽하면 내 놈들의 법전까지 뒤적여봤겠소. 추방령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거나 활동을 하면 아무때나 령장도 없이 체포하게 돼있고 공개재판없이도 처형할수 있다는거요. 말하자면 한발은 감옥에 들여놓은 상태라는거지.

내가 이 말을 하는건 그까짓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로서 이젠 각자가 결심을 가져야겠기때문이요. 앞으로의 거취문제라 할가…》

《…》

좁은 사무실에 빼곡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선뜻 대꾸하

지 못했다. 앞으로의 직업문제, 그것은 곧 매 사람의 운명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그 한마디의 말속에 얼마나 심각한 의미가 내포돼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이들이여서 더욱 입을 열지 못하는것이였다. 다만 이따금씩 창문을 흔드는 바람소리와 그때마다 창유리에 휘뿌려지는 비방울소리만이 방안의 정적을 깨뜨릴뿐이였다.

《놈들이 바라는대로 한다면 우린 산속에 들어가 중이 되든가 아니면 호구지책을 위해 장사라도 해야 한다는건데 여기있는 사람치고 누가 그따위짓을 하겠소. 굶어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나는…》

윤의장이 다음말을 이으려는데 옆에 있던 신의장이 갑자기 책상을 치며 울분에 찬 소리로 말했다.

《아, 글쎄 세상에 이렇게도 악독한 놈들이 어디 있소? 관동대진재때에는 조선사람이 방화를 했다는 요설을 퍼뜨려 숱한 동포들을 죽이더니 이번에는 〈폭력단체〉라는 딱지를 붙여 탄압하고 학교까지 페쇄해? 이거야 어디 분통이 터져서…》

그는 터져나오는 기침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고질적인 천식증의 발작이였다. 그에게는 앞으로의 취직문제는커녕 아직은 왜놈들에 대한 저주로 해서 솟구치는 분노를 걷잡을수가 없는상싶었다.

숨을 헐떡이며 겨우 기침을 멈춘 그였으나 하는 말은 여전히 왜놈들에 대한 욕사발이였다. 기침은 가라앉았지만 왜놈들에 대한 분노는 도저히 가라앉힐수가 없는 모양이였다.

《하는 짓거리들을 보오, 얼마나 교활무쌍한가! 이런 모략은 왜놈들이 아니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못할 일이요. 몰래 준비를 해오다가 하루아침에 해산령을 내리고 재차 학교페쇄령까지 내린건 바로 도죠가 진주만을 불의에 기습한 그 식이란 말이요. 앙큼한 놈들!》

그는 또다시 목을 뽑아들고 기침을 토하기 시작했다.

어지간히 뒤가 질긴 그여서 일단 말을 꺼내기만 하면 좀처럼 그칠줄 모른다는것을 잘 아는 윤의장은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솔직히 말해서 난 우리가 추방령을 받기는 했지만 누구보다도 한의장과 김고문 일이 걱정이요. 그래 무슨 궁냥들이라도 있소?》

그가 이렇게 말하는데는 의장들중에서 자기와 신의장은 벌써 환갑이 넘은 나이이고 강의장은 신병으로 하여 이미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념두에 두었기때문이며 반대로 덕수는 여태껏 사업을 주관해온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 할 처지에 있다는것을 전제로 한데 있었다. 특히 그는 덕수에게는 장군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중요한 과업이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김운해의 경우 역시 일본공산당 정치국위원으로서 재일조선인운동을 적극 뒤받침해줄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추방당하게 됨에 따라 당직에서까지 제외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였다.

윤의장뿐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조련을 이끌어나갈 사람은 바로 한덕수와 김운해였다. 한데 그 두사람이 동시에 추방되게 된것은 사실상 재일조선인운동을 떠받드는 두 기둥이 일시에 허물어진 격이 아닐수 없었다.

《왜 나나 한의장뿐이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있던 김운해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처지야 여기 있는 우리들모두가 다 같지요. 손발을 묶이우고 입까지 틀어막히웠는데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처지에 있다고 할수 있지요. 가족이 있길 하나 자식이 있길 하나 그저 제몸 하나 건사하면 되니까요.》

쉰이 다 돼오는 오늘까지 가정도 꾸리지 못한채 독신으로 있는 자기의 처지에 대한 역설이기도 했다.

《그리고 당본부에서도 당분간 피신처를 마련해보겠다니 믿어봐야지요. 도꾸다서기장이 얼마동안 피신해있으면서 귀추가 어떻게 되는가 본 다음에 결심하는게 어떤가고 하기에 그러마고 했습니다.》

추방령을 받은 직후에는 행정소송을 걸어서라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김운해였으나 그것이 어렵게 되자 모든것을 단념해버린것 같았다. 어떤 문제건 집요하게 파고들기도 하지만 일단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리라는것을 알면 쉽사리 단념하고마는 그였다.

《윤의장자신은 어쩔 생각입니까?》

김운해의 물음에 윤의장이 번쩍 머리를 들었다.

《나요? 난 이미 결심을 내렸지요. 조국으로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너무도 확정적인 그의 대꾸에 김운해는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놀라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사실 나같은게 이제 조국에 간대야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조국에 가서 새 조국건설을 위해 흙 한삽이라도 떠보고싶은 것이 생전의 소망이였지요. 아니,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저 묻히려 가는거지요. 한생을 뜨내기처럼 이국땅에서 시달리다보니 죽을 때라도 조국땅에 묻히고싶은것이… 여기 있는 강의장이랑 신의장, 박의장 등 몇사람은 벌써 그렇게 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국으로?)

조국으로 가겠다는 윤의장의 말에 덕수는 피뜩 정신이 들었다. 해산당한 조직을 어떻게 수습해야 최대한 피해를 적게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할것인가를 따져보던 그였으나 조국으로 간다는 말을 듣자 삽시에 그런 생각들은 머리에서 말끔히 사라져버렸다. 저로선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여서 놀랍기도 한 한편 몹시 신기한감조차 들었다.

(조국으로 간다?)

따져보면 어쩔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아니, 그 길이 유일한 출로가 아닐수 없었다.

(그러니 모두들 조국으로 간단 말이지. 내가 그토록 있고싶어하던 그 조국에…)

문득 조국에서 지내던 잊지 못할 나날들이 눈앞에 새겨지면서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애틋한 그리움이 가슴속에 꽉 차오르는것이였다. 단 스무날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였으나 그 기간이 꿈보다 몇배 더 황홀한 현실로 눈앞에 펼쳐지는것이였다.

(나는 갔다가도 다시 오지 않을수 없어 왔지만 이들은 이 땅을 떠나지 않을수 없게 되여 간단 말이지. 나는 그토록 간절한 미련을 품은채 이 원한의 땅에 돌아왔지만 이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조국으로 간단 말이지!)

어쩐지 숨이 가빠오르면서 심장의 박동이 점점 빨라졌다. 놈들의 탄압으로 하여 부득불 조국으로 가지 않을수 없게 된 이들이였으나 덕수에게는 마치 선택된 행복자들처럼 부럽게 여겨지기도 했다.

(만약!)

덕수는 불현듯 가슴을 치는 한가지 충동에 사로잡혔다.

(만약 내가 조국으로 간다면? 그러면 장군님께서 무어라고 하실가? 불시에 나타난 나를 보고 놀라실가? 아니면 먼저번처럼 잘 왔다고 반겨주실가?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불가피한 사정을 리해하시고 너그러이 대해주실가?)

온몸의 피가 점점 세차게 소용돌이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곧 소스라쳤다.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몸서리쳐졌다.

(조직이 해산되고 동포들의 운명이 경각에 달해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어금이를 힘껏 깨문 그는 고개를 번쩍 들고 사람들을 주시했다. 그리고는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놈들이 왜 이렇게 강도적으로 나오는가 하는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사람들을 훑어본 그는 마디마디에 힘을 주며 말을 이었다.

《그것은 바로 미제가 추구하고있는 전쟁정책때문입니다. 미제는 요즘 우리 나라 38도선 일대에서 매일처럼 군사적도발을 일으키고 있을뿐아니라 이달초에는 일본의 비밀군사단체인 력사반과 카트에 소속된 이전 황군장성 수십명을 서울에 끌어들였습니다. 북조선의 도로, 하천 및 지리에 밝은 이전 황군참모들과 전쟁모의를 하기 위해서지요.

점령군고문 이르즈의 반공선전, 덧지의 재산정리와 행정정리의 강요, 여기에 발맞추어 일본당국이 조작한 시모야마, 미따까사건 그리고 마침내 우리 조련에 대한 강압적인 해산과 학교폐쇄령, 이 모든것은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 병참기지, 보급기지로 되여야 할 일본에 전쟁방해세력을 없게 하자는데 있습니다.》

《옳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김운해가 고개를 끄덕이였다.

《놈들은 앞으로 공산당에 대해서도 탄압을 가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전쟁의 가장 큰 방해세력이니까요. 놈들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공산당을 비법화할것까지 획책하고있습니다. 이런 험악한 판에 그것도 피신해야 하는 몸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나 역시 어느땐가는 어차피 조국으로 가는 길밖에 도리가 없다고 여기고있습니다.》

《?!》

덕수는 저도 모르게 흠칫했다. 뜻밖이였다. 김운해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있으리라고는 짐작 못한 덕수였다.

사실 김운해에 대해서는 남달리 여겨오는 덕수였다. 일본공산당에서 일하기는 하지만 원철이처럼 민족을 초월한 립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는 조선사람이라는 립장을 지키였고 그래서 동포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언제나 덕수와 마주앉군 했다. 물론 일본공산당에서 활동하는것으로 하여 철저히 동포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기는 어려웠으나 그래도 그가 있음으로 하여 덕수는 의지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마저 피신해있다가 전망이 트이지 않으면 조국으로 가겠다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이 조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부터 부득이한 일로 여겼으나 김운해가 귀국하겠다는 말을 듣자 어째선지 그것이 불가피한 일로 느껴지는것이 아니라 어떤 배반당한듯 한 불만과 반감이 솟구치는것이였다.

《그래 다들 조국으로 간다면 여기선 누가 일을 하오? 해산된 조직은 어떻게 되고 동포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가 말이요. 사정이야 어떻든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관철해야 할게 아니요!》

당장 이렇게 소리치고싶었지만 그럴수가 없었다. 일을 한다면 무슨 일을 하며 동포들의 앞날은 어떻게 책임진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였다. 그러자 그는 새삼스레 자신의 고립무원한 처지가 되새겨지면서 저절로 한숨이 터져나왔다.

남들은 조국으로 간다 해도 자기는 그럴수 없으며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귀국하는 사람들의 앞날에 비한 자신의 비참한 앞날을 대조시키면서 은연중 그 어떤 울분에 사로잡히게 했다.
《그래 한의장은 어쩔 결심이요?》
김운해의 물음에 모두의 시선이 덕수에게로 쏠렸다.
《나 말이요? 나야 뻔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목소리에 앞날에 대한 결심이라기보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울화가 섞여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우리가 왜 한의장의 심정을 리해하지 못하겠소!》
신의장이 조심스런 눈길로 덕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러나 이놈의 땅에 남아 일을 하자면 부득불 지하에 들어갈수밖에 없는데 정작 지하에 들어간다고 해도 무슨 일을 할수 있겠소. 항시 놈들의 감시가 따를건 뻔한 일이고 자칫하다간 구속되겠는데 그냥 구속이라면 몰라도 이번엔 틀림없이 중형이 선고될것이고 여차직하면 남조선으로 강제추방당할수도 있단 말이요. 그래서 내 생각은 한의장도 우리와 함께 조국으로 가자는거요. 조국에선들 우리의 이런 사정을 왜 리해하지 못하겠소.》
조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하로 들어가느냐 하는 이 두갈래의 길이 덕수에게는 마치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사생결단의 갈림길이기도 했다. 한쪽은 평생을 두고 바라던 길인 동시에 어서 오라고 반기는 길이라면 다른 한쪽은 죽어도 벗어나고싶은 길인 동시에 시련과 난관이 도사리고있는 위험한 길이였다. 한쪽은 그 누구도 탓할수 없는 응당한 길이라면 다른 한쪽은 모두가 우려하고 만류하는 길이였다. 그러나 한쪽은 자기자신을 위한 길이라면 다른 한쪽은 조국이 바라는 길이였다.
덕수의 눈앞에 은연중 장군님모습이 떠올랐다. 을송정에서 송별회를 할 때 잔을 들고 환히 웃으시던 모습과 함께 그때 하시던 말씀이 생생히 되살아나는것이였다.
《난 동무들과 같은 혁명동지들이 일본에 있다는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제부터는 동무들을 생각하면서 일본에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겠습니다. 덕수동무! 우리 60만재일동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잘해나갑시다. 동무들은 일본

에서, 우리는 조국에서!》
덕수는 저절로 코마루가 저려들면서 눈시울이 달아올랐다. 동시에 심장이 예리한 쇠붙이에 긁히우는것 같은 아픔을 느끼였다.
장군님으로부터 그런 믿음을 받아안은 자기가 잠시나마 그 기대를 저버렸다는 자책감으로 하여 가슴이 쓰렸다.
《나 역시 동무들과 함께 조국으로 가고싶습니다.》
덕수의 목소리는 떨리고있었다.
《실상 누구보다도 더 가고싶은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갈수 없습니다. 아니, 가서는 안됩니다.》
아까 한 말은 자기의 괴로운 처지에서 솟구쳐오른 울분이였다면 이번에는 가슴속 깊은 곳에 고여있는 진정의 분출이였다.
《나는 아직도 내가 여기에 남아 무슨 일을 어느 정도 할수 있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조국으로 간다면 아무리 부득이한 사정이여서 간다고 해도 여기 일을 맡겨주시면서 이젠 동무들이 일본에 있어 마음놓겠다고 하신 장군님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습니까. 몸은 비록 서로 천리밖에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조국을 위하고 동포들을 위하는 한마음으로 살아가자고 하신 장군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겠나 말입니다. 장군님께 그런 괴로움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누구든 조국에 가면…》
떨리던 덕수의 목소리는 어느새 갈려있었다.
《조국에 가서 장군님을 뵙게 되면 꼭 말씀드려주시오. 지금은 비록 시련을 겪지만 앞으로는 기어이 장군님 가르치심대로 조직을 다시 일떠세우고 동포들을 조국의 두리에 묶어세울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보고를…》
덕수는 더 말을 이을수 없었다.
방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모임을 끝내고 밖으로 나온 덕수는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다. 벌써 네온등도 꺼지고 오가는 행인들도 없는 깊은 밤이였다. 어디로 간다는 목적도 없이 큰길쪽으로 나서는데 누군가가 옆으로 다가서는것이였다. 고개를 드니 뜻밖에도 현우가 빙그레 웃으며 마주보고

있었다.

《의장동지!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가슴이 아프지만 어찌겠습니까. 이런 시련이 있다는걸 장군님께서 벌써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럴수록 용기를 잃지 말아야지요. 자, 힘을 내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의장동지의 눈이 되고 발이 되겠습니다.》

《…》

고민하고있을 자기를 위로해주기 위해 아까부터 기다리고있었을 현우라는 생각이 들자 덕수는 목이 메여올라 고맙다는 말조차 할수가 없었다.

다만 현우의 어깨를 힘을 주어 껴안았을뿐이였다.

제 3 장

1

가렬한 전쟁의 불길은 의연히 조국강토를 태우고있었다. 옹근 한해동안이나 가렬처절한 포화의 불바다속에 잠겨있는 조선을 세계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있었다.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옮겨지고 또 옮겨지던 전선이 저들이 침략의 불을 질렀던 바로 그 자리에 고착되게 되자 미제는 그사이 세계면전에서 당한 군사정치적패배와 수치를 만회해볼 야심으로 더욱 발악적인 공세를 들이댔다. 저들 무력 대부분과 태평양함대의 전력량, 거기다가 15개 추종국가 군대들까지 동원시켰으나 단숨에 집어삼키기는커녕 도리여 호되게 얻어맞기만 하다나니 미칠듯한 광증에 사로잡히고말았다.

급해맞은 트루맨은 조선전쟁에서의 승리를 담보하지 못한 책임을 맥아더에게 뒤집어씌우고 그대신 릿지웨이를 련합군사령관으로 내세웠지만 목을 잘리운 맥아더는 불만스러워하거나 슬퍼할 대신 도리여 《로병은 죽는것이 아니라 사라질뿐》이라고 했다. 목은 비록 잘리웠으나 자긴 죽지 않을뿐더러 패전을 모르는 《필승장군》이던 나를 이런 비참한 운명에로 몰아넣은 조선전쟁을 도대체 너희들, 릿지웨이나 트루맨이 어떻게 치르나 지켜보겠다는 뜻이였다.

로회하기는 하지만 무관의 기질 그대로 투박하면서도 단도직입적인 맥아더와는 달리 음흉하고도 교활한 릿지웨이는 공개석상에서는 당장 정전으로 전쟁을 끝낼것처럼 떠들어대면서도 뒤에서는 트루맨의 새 전략로선을 실현해보려는 야심을 품고 대규모의 무력을 동원하여 《하기공세》를 들이댔다. 그러나 그것이 여지없이 파탄되자 이번에는 극히 모험적인 《추기공세》를 감행하려고 했다. 놈들의

이 무분별한 《추기공세》로 하여 전선은 바야흐로 또 한차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작전탁우에 펼쳐져있는 커다란 지도를 보고계시였다. 적아의 대치상태가 톱날처럼 예리하게 표시되여있는 군사지도였다. 《하기공세》에서 된맛을 본 놈들이 이번에는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쳐들어올것인가? 전선중부일것인가? 서부일것인가? 아니면 혹시 동부일것인가? 만약 바다로 기여드는 경우에는 어디를 목표로 할것인가?

전례없이 무모하게 나오는 놈들의 《추기공세》를 철저히 짓부셔버림으로써 전쟁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놓을것을 구상하시는 장군님이시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 섬멸적인 타격을 안기여 놈들이 다시는 추서지 못하게 할뿐아니라 세계만방에 싸우는 조선의 영웅적기개를 다시한번 시위할 확고한 결심이시였다. 한해동안의 경험으로 하여 인민군장병들은 물론 전체 인민들까지도 승리에 대한 드높은 신심에 넘쳐있었다.

《장군님!》

어느새 들어왔는지 최진이 문앞에 차렷자세를 취한채 서있었다. 언제보나 엄숙한 표정과 절도있는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다.

《김운해선생이 도착했습니다.》

《김운해?!》

은연중 그 이름을 되뇌이신 장군님께서는 지도우에서 허리를 펴시였다. 문득 얼마전까지 일본에 있다가 조국으로 돌아온 남달리 키가 큰데다가 준수하게 생긴 김운해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조국에 돌아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그를 만나보시려고 오늘 일부러 시간을 내신 장군님이시였던것이다.

장군님의 머리속에는 금시 준엄한 전쟁상황대신 가슴아프게 읽으신 한덕수의 편지내용과 재일조선인운동의 복잡한 실태들이 상기되시였다.

사실 재일동포들도 지금 전쟁을 겪고있는 조국인민들 못지 않게 시련을 겪고있었다. 일본반동당국은 조선전쟁을 준비하면서부터 재

일동포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감행해나섰다. 조직을 해산하고 학교들을 폐쇄한 놈들은 동포들을 일본사람으로 귀화시키기 위한 악랄한 흉계를 꾸미였다. 전쟁이 일자마자 조련기관지인 《해방신문》을 강제정간시키고 《건설통신》을 강제폐쇄하여 동포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은 놈들은 《출입국관리령》과 《외국인등록법》을 제정시행하여 동포들을 각종 악법에 얽어매놓고 일본사람으로 귀화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남조선으로 강제추방하려고까지 했다.

놈들의 이런 탄압에 맞서싸우면서도 동포들과 애국적인 활동가들은 새로운 통일적인 조직을 내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였다. 해산당하지 않은 조직인 녀동과 교동 등의 단체들로 재일본조선인중앙단체협의회를 무어 그 준비사업을 다그치던 활동가들은 전쟁이 일자 곧 싸우는 조국의 실정에 맞게 먼저 재일조선조국방위위원회를 결성하고 모든 애국력량을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결속했다. 일본각지에 조직된 조국방위위원회와 조방대(조국방위대)는 결성된 첫날부터 미제와 싸우는 조국인민들의 불굴의 기개에 호응하여 결사적인 각오로 떨쳐나섰다. 미제살륙무기의 남조선수송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 미군무기수리공장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투쟁 그리고 국제평화서명운동과 구국기금모집운동…

이 치렬한 투쟁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검거되고 추방되고 희생까지 당했지만 덕수를 비롯한 애국적인 활동가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싸우다가 마침내 금년초 조련해산후부터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오던 재일조선인운동전반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합법적조직인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을 결성했다.

그런데 문제는 덕수를 비롯한 일부 활동가들이 추방령을 받고 공식적인 활동에 나서지 못하는것을 좋은 기화로 여긴 사대주의자, 민족허무주의자들이 민전을 가로타고앉으려고 획책하는것이였다. 조련이 해산당한것을 다행한 일처럼 떠들어댔고 새로운 조직을 내오는것도 미제와 일제의 탄압만 격화시키게 된다면서 한사코 반대하던자들이 민전이 결성되자 저네들이 장악하고있는 사람들로 조직의 주도권을 틀어쥐려고 하는 한편 활동원칙까지 규제하려 들었다. 특히 그자들은 덕수가 민전강령에 제시한 민족적이며 애국적인 과

업들은 무시하고 범일반적인 과업들만 내세우고 내리먹이려 했다.
덕수는 편지에 썼다.
《장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놈들의 탄압이 심하고 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이 악랄하다 해도 우리가 물러서겠습니까?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한덕수가 주저앉겠습니까? 주저앉지 않습니다. 놈들의 책동과 발악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용기백배하여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동포들을 조국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겠습니다.》
편지구절을 되새겨보신 장군님께서는 지금 덕수가 얼마나 괴로우랴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시였다. 일제와 미제의 탄압으로 추방령을 받은데다가 이젠 내부에 있는자들까지 책동한다니 얼마나 일하기 힘들겠는가! 그가 과연 이 안팎의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조국이 준 과업을 끝까지 관철해낼것인가! 만약 그마저 주저앉는다면 재일조선인운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추방령때문에 귀국한 김운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픈 마음과 함께 살벌한 땅에 혼자 남아있는 덕수에 대한 걱정으로 하여 못내 가슴이 저리시였다.
곧 면담실로 쓰는 옆방으로 들어서신 장군님께서는 김운해와 마주앉으시였다. 목이 성큼한데다가 머리칼까지 높이 쳐올린 김운해의 모습은 어딘가 앓고난 사람처럼 꺼칠해보였다.
《합숙에 있자니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닐것입니다. 전쟁을 겪다나니 미처…》
《괜찮습니다, 장군님!》
무릎우에 올려놓은 두손을 모두어쥔 김운해는 정중히 말씀올렸다.
《아무렴 일본에서 경찰의 눈을 피해가며 일하기보다야 더하겠습니까? 고생을 해도 제 나라에 오니 그게 고생으로 여겨지질 않습니다. 참말입니다.》
실상 남다른 고생을 한 김운해였다. 오랜 감옥생활과 그후에 이어진 피신생활, 추방령을 받고도 한동안은 도꾸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조선전쟁을 계기로 일본공산당마저 비법화되여 도꾸다자신이 핵심들과 함께 추방되여 중국으로 망명해가자

더는 발붙일 곳이 없어 조국으로 돌아온 그였다.

그런 김운해를 장군님께서는 따뜻이 맞아주시고 일본공산당에서의 활동과 재일조선인운동에서의 경력을 중시하여 당중앙위원회 부장의 중책을 맡기면서 해외교포운동도 함께 보도록 하시였다.

김운해는 장군님의 대해같은 은정에 어떻게든 보답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장군님앞에 나설 때면 은연중 어떤 자책감에 휩싸이군 했는데 그것은 재일조선인운동이 위험에 처한 시각에 동포들의 곁을 떠난것때문이였다. 일본땅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했던 사실이 조국에 와서부터는 특히 재일동포들에 대해 한시도 마음놓지 못하시는 장군님을 대하면서부터는 저절로 괴롭고 송구해지는 심정이였다.

《운해동무가 가지고 온 한덕수동무의 편지를 보니 일본사정도 매우 간고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덕수동무는 자신의 일신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추방령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내고있는지, 늘 감시를 받을텐데 일은 어떻게 하며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살리는지… 궁금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군복깃단추를 터놓으신 장군님께서는 탁자우에 놓인 담배갑을 김운해앞으로 내미시였다.

언제나 덕수에 대해 회상하실 때면 비죽이 내밀린 아래입술과 함께 커다란 목소리, 그러다가도 시선이 마주치기만 하면 얼른 고개를 숙이군 하던 순박한 모습이였으나 요즘에 와서는 그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였다. 모진 비바람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꿋꿋이 머리를 들고 나가는 완강하고도 강의한 모습이였다. 덕수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진것이 전쟁전 추방령을 받은 윤의장이며 강의장 등 여러 사람들이 조국에 왔을 때부터라는것을 모르지 않는 장군님이시였다. 추방령을 받고 조국에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자긴 아무리 조국에 가고싶어도 갈수 없노라고, 가선 안된다고 했다는 덕수의 말을 들었을 때부터 그 모습은 활촉마냥 가슴에 배겨 지울래야 지울수가 없으시였다.

윤의장을 신의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다른 사람들 역시 희망에 따라 대학교단이나 인민군대지휘관으로 보낼 때도 그랬지만 김

운해를 마주한 지금도 그처럼 조국에 있고싶어하던 그를 등을 떠밀어 일본에 보낸 일이 모진 아픔이 되여 가슴을 헤집는것이였다.
《덕수동무가 지금도 도꾜에 있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아픈 심정을 누르며 나직이 물으시였다.
《아닙니다. 덕수동무는 지금 가와사끼에서 삽니다. 추방령을 받자 곧 그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긴장해있던 김운해의 표정이 다소 활기를 띠였다.
《가와사끼는 덕수동무가 해방전에 살던 곳인데 거기에는 그때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집단부락이라고도 할수 있지요. 아무래도 놈들의 눈을 피해 지하활동을 하자니 외따로 떨어져있기보다 오래동안 함께 지내던 사람들속에 있는것이 유리하다고 타산했던것입니다. 사실 거기 동포들이 덕수동무의 집도 마련해주었고 쌀도 가져다주며 그가 집에 와있을 때는 망을 봐주기도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한결 마음이 놓이시였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고 의지할것은 역시 인민들이였다.
《편지를 보니 덕수동무가 모임에는 물론 회의에도 빠짐없이 참가하는 모양인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민전일군들의 모임과 당원활동가들의 회의에 꼭꼭 참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모임장소를 옮기군 하는데 모임이 끝나면 다시 다른 장소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러다나니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정된 곳에서 회의를 할 때는 부득이 안내원과 호위성원들이 앞뒤를 따르고 그자신은 중절모를 쓰든가 안경을 껴서 변장을 하기도 합니다.》
매일 장소를 옮겨야 하고 변장까지 하고 다니자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덕수의 일체 생활, 그가 요즘 무엇을 먹고 건강은 어떠하며 집에 있는 처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구체적인 사연까지 다 들려주었으면싶었으나 김운해는 오직 묻는 말에만 대답할뿐 다시 침묵을 지키였다.
《호일이라고 했던가? 덕수동무의 아들 말입니다. 그 애도 이젠 학교에 갈 나이겠는데…》

《…》
집안일에 대해서는 아는것이 없는지 김운해는 면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곧 머리를 쓸어올리고나서 입을 열었다.
《다른 고생도 고생이지만 지금 덕수동무가 애를 먹는것은 민대파들때문입니다. 일본공산당 민족대책부에서 일하거나 그들의 지시를 받아무는 사람들을 민대파라고 합니다. 제가 추방되자 원철동무가 곧 당 민족대책부를 맡게 되였는데 그때부터 그는 재일조선인운동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이젠 당이 직접 민전을 지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일동포들의 당면과업〉이라는것을 작성하여 내리먹이였습니다.》
《나도 그걸 본적이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언젠가 지영이가 가지고온 자료들에서 민족대책부가 발표한 당면과업이라는것을 본 기억이 나시였다. 각 부문별 과업들이 제시되여있었으나 어느것 하나도 긍정할수가 없으시였다.
《교육부문에 준 과업을 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서 공부시키지 말고 일본학교에 분산입학시키라는것인데 도대체 그 리유가 무엇입니까?》
《그 리유는 우리 학생들을 일본학교에 보내야 일본학생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킬수 있고 앞으로 함께 투쟁하여 일본교육의 민주화를 이룩할수 있다는겁니다.》
장군님께서는 어처구니가 없으시였다. 그것이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꺼꾸로 된 론리일뿐더러 우리 학교를 강제로 페쇄하고 우리 학생들을 일본사람으로 동화시키려는 일본반동들의 목적과 무엇이 다른가? 오히려 반동들의 민족동화책동을 두둔하고 키질하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상공인들의 경우에도 우리 동포상공인들로 하여금 일본의 민주상공회에 가입하여 직안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하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직안투쟁이란 자기 거주지역의 직업안정소에 들어가 생활보조금을 받아내는것입니다. 그래야 일본의 재군비예산을 그만치 축낼수 있다는것입니다.》

《그것 참! 황당하구만. 일본정부가 재군비예산을 떼서 우리 상공인들한테 준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장군님께서는 천천히 창문쪽으로 돌아서시였다. 다시금 덕수의 모습이 눈앞에 어리였다. 민대파들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조소를 퍼붓는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절대로 우리 아이들과 상공인들에게 그따위 얼빠진 요구는 할수 없다고 무섭게 다그어대는 분노에 찬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시였다. 그러나 민대파들의 책동이 벌써 이런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덕수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바로잡을것인가!

덕수에 대한 걱정이 들 때마다 장군님께서 제일 안타까우신 점은 안팎의 원쑤들의 탄압과 책동속에서 시달리는 그에게 안부는커녕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할수 없는것이였다. 그쪽 소식은 조국으로 오는 인편이 있어 드문히 듣게 되지만 이쪽 소식은 도무지 알릴길이 없었다. 방송이 있기는 했지만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신중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사정은 어떻든 적구의 엄혹한 환경속에서 혼자 갖은 시련을 겪고있을 그에게 너무나도 무심한것 같으시였다.

출입문이 열리면서 장령복을 입은 남일이 방안으로 들어섰다. 강건이 희생된 다음부터 총참모장의 임무를 수행하고있는 그였다.

《무슨 일이요?》

《적후에 파견했던 최사정찰조가 돌아왔습니다. 놈들의 〈추기공세〉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급히 토론해야 할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장군님께 보고드리고 결론을 받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전선동부에 대한 시찰준비도 끝냈습니다.》

남일의 근엄한 표정에는 조금도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

《할수 없구만.》

장군님께서는 김운해를 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아무래도 우리 이야기는 뒤로 미루어야 할것 같습니다. 일본반동들이 못되게 군다 했더니 이번에는 미국놈들이 또 시끄럽게 보챕니다. 내 전선에 갔다와서 다시 련락할테니 그때 만나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장군님께서는 남일과 함께 면담실을 나서시였다.

마당에는 벌써 장군님께서 전선으로 타고가실 야전용승용차가 고르로운 발동소리를 내며 대기하고있었다.

2

김일성동지께서는 야전용승용차 뒤좌석에 기대앉으신채 차창밖에 펼쳐지는 농촌풍경을 바라보고계시였다.

풍요한 가을날이였다.

불비 쏟아지는 전화의 나날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만큼 평화로운 날이였다. 선들선들 불어오는 바람결에 가로수의 잎새들은 무슨 노래라도 부르는듯 마냥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설렁거렸다. 언제 씨를 뿌리고 김을 맸는지 들판의 곡식들은 온통 누렇게 익어가고있었다. 강냉이는 바싹 마른 대들에 팔뚝같이 실한 이삭들을 업고있었다. 멀리 비탈진 과수원의 사과나무가지들에도 사과알들이 홍보석처럼 다닥다닥 여물어있었다. 모든 정경은 방금 다녀온 전선과는 너무나도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있는것으로 하여 어쩐지 신기한감조차 드시였다.

(그래, 벌써 가을이지! 고지에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그이께서는 지금 전선동부 최연선인 직동령 서쪽에 있는 무명고지를 거쳐 1211고지와 한줄기로 련결된 1237.3고지에까지 나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이였다.

적비행기들의 폭격을 무릅쓰고 큰물에 길이 잠겼을 때에는 에돌아가기도 하고 다리가 물에 떠내려가버린데서는 떼배로 강을 건느기도 하면서 험한 령을 넘고 사나운 길을 걸으시였다.

놈들이 《추기공세》를 준비하면서 《하기공세》때와는 달리 전선서부에 대대적인 병력과 군사장비들을 들이밀 때까지도 그리고 첫 공격을 가할 때까지도 줄곧 전선동부의 정황들을 예리하게 주시하고계시던 그이께서는 놈들의 주공방향이 이번에도 역시 전선서부가 아니라 동부라고 판단하시였다. 서부에서 시작된 놈들의 공격이 바

로 아군의 주목을 그리로 끌어 저들의 전선동부에 대한 결정적인 《공세》를 은폐하기 위한 가소로운 기만술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간파하시였다.

그이께서 적들의 주공방향이 동부라고 규정하신데는 명확한 근거가 있었다. 우선 전선동부가 차지하고있는 군사전략적인 중요성이였다. 다른 하나는 최근 놈들이 일본해상자위대소속 소해정들을 은밀히 원산앞바다에 내몰아 소해작업을 하고있다는 최사정찰조의 정보였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근거들을 쥐시였다. 그중에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은 노르망디상륙작전 당시 련합군항공륙전대사령관으로서 떨친 명성을 《추기공세》로 다시한번 시위함으로써 조선전쟁을 결속짓지 못한 맥아더의 뺨을 후려치는 동시에 트루맨의 기대에 보답해보자는 릿지웨이의 야심만만한 심보였다.

직접 고지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고지를 지키고있는 인민군장병들에게 놈들의 《추기공세》의 음흉한 기도에 대해 까밝히시면서 전선동부에서 주봉을 이루는 1211고지를 철벽으로 지킬데 대한 강령적인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사들에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1211고지는 전략상 더없이 중요한 고지요. 적들에게 1211고지를 내주면 그뒤에는 방어거점이 될만 한 고지가 없기때문에 금강산은 물론 원산까지 내놓지 않으면 안되오. 놈들도 바로 이 점을 타산하기때문에 전선동부에 더욱 필사적으로 달라붙을것이요. 그러므로 1211고지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야 하오.》

모든 포들을 고지우에 끌어올려 포화력밀도를 강화하며 방어진지를 갱도화하고 적들의 공격을 강력한 반타격으로 좌절시켜야 한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적들의 폭격속에서도 군수물자를 제때에 수송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도로와 다리가까이에 비행기사냥군조를 배치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일깨워주시였다.

아침저녁으로 벌써 선기가 도는 날씨였지만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아직도 해진 여름군복을 그대로 입고있었다. 그러나 포연탄우에 그슬린 얼굴들에는 하나같이 원쑤를 때려부실 멸적의 기세가 충천했다.

《장군님! 조금도 걱정마십시오. 놈들이 아무리 비행기로 폭

탄을 떨구고 대포로 포격을 가한다 해도 이 1211고지에는 단 한놈의 적도 기여오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최현이가 살아있는 한 말입니다.》

술진 눈섭을 곤두세우고 이것만은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는듯이 주먹을 흔들어보이던 군단장 최현이였다.

《최현이가 살아있는 한》하는 말을 듣는 순간 장군님께서는 문득 가슴아픈 추억, 잊을수 없는 상실의 비통함이 가슴을 훑어내리는것을 어쩔수 없으시였다.

(사실 전쟁이 일어 1년남짓한 사이에 벌써 얼마나 많은 전우들이 우리곁을 떠나갔는가. 김책, 강건, 최춘국…)

혁명의 첫시기부터 20여년세월을 온갖 시련을 다 헤치며 함께 싸워온 열혈투사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그처럼 철석같이 맹세하고 조국해방을 이룩한 혁명동지들이였으나 그만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것이였다. 남진의 길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 최춘국이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재진격이 시작될 때 희생된 김책이도 그랬지만 진격하는 부대의 지휘를 보장하기 위해 바로 옆에 있는 고향마을에도 들리지 못했다는 강건이를 상기할 때면 가슴이 미여지는듯 하시였다.

그가 희생된 곳이 바로 그의 고향마을 가까이라는 소식을 들은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기가 막혀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시였다.

유격대시절은 물론 해방후 건국사업을 거쳐 총참모장이 되여서까지도 그처럼 자기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강직하던 그였지만 고향에 있는 부모들얘기가 나올 때면 대뜸 두눈에 그렁하니 눈물을 담군 하였다. 그런 그가 부모형제들이 있는 고향마을옆에서 희생됐지만 그의 부모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있으니…

(안된다! 이젠 그 누구도 더는 희생되여서는 안된다! 김책이, 강건이, 최춘국이가 희생된것만 해도 가슴이 터질것 같은데 이제 또 희생된다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미제를 때려부신단 말인가! 옳소! 최현이! 끝까지 살아서 기어이 조국의 고지를 지켜내야 하오.)

조금도 걱정말라고 하던 최현의 말을 곱씹어보시던 장군님께서는 불현듯 머리를 스치는 생각에 몸을 일으키시였다. 한덕수가 써보낸

편지구절이 상기되시여서였다.

《장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놈들의 탄압이 심하고 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이 악랄하다 해도 우리가 물러서겠습니까?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한덕수가 주저앉겠습니까? 주저앉지 않습니다.》

《최현이가 살아있는 한》이라는 말과 《한덕수가 주저앉지 않는다》는 말은 듣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의미는 같은것이였다. 조국이 가장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을 때 가장 어려운 임무를 맡고있는 전사가 가장 명백하게 자기의 심정을 드러낸 말이였다. 그들이 한 그 한마디 말에는 위기에 처한 조국의 운명을 서슴없이 자기 한몸으로 막아나서려는 충신만이 지닐수 있는 불같은 신념의 맹세가 어려있었다.

문득 그이께서는 덕수와 최현, 두사람이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어려운 임무를 맡고있을뿐아니라 똑같은 각오를 가슴에 품고있으며 지어는 외모까지도 비슷하다는 생각에 이르시였다. 둘이 다 크지 않은 다부진 몸매에 숱진 눈섭, 아래로 처져내린 고집스런 두볼… 마치 친형제같은 두사람의 용모에 저절로 웃음이 새시였다.

(한사람은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는 1211고지에 있고 또 한사람은 반동들이 살판치는 일본에 있지만 심장은 꼭같이 조국을 위해 불타고있다. 그래서 심중에서 솟구치는 맹세도 같은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참된 혁명전사의 심장은 그 어떤 시련이 앞을 막아나서도 또 그 어떤 절해고도에 있다 해도 언제나 조국의 뜻, 인민들의 지향을 체감하는 법이다. 아니, 체감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하는 법이다. 바로 그래서 진정한 혁명동지란 서로의 결심이 같고 행동이 같을뿐아니라 장래를 내다보는 눈 또한 같은 사람을 두고 말한다지 않는가! 혁명의 새벽길을 나서던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런 혁명동지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김혁, 차광수, 김책, 강건 그리고 최현, 한덕수…)

장군님께서는 그런 동지들이 옆에 있었고 또 있다는것이 더없이 긍지로우시였다. 그 긍지와 미더움으로 하여 새로운 용기가 가슴속에 솟구쳐오르시였다.

하지만 한덕수의 사정은 마음을 놓을수 없으시였다. 조국과 아무

련 련계도 지을수 없는 이국땅에서 혼자 고생하는 그라는데도 있었지만 지금 벌어지고있는 사태를 그대로 방임한다면 앞으로는 더 엄중한 후과가 미치리라는것을 예감하지 않을수 없으시여서였다.

민대파들은 확실히 이젠 민족의 넋을 버리고 일본공산당의 맹목적인 하수인으로 전락된자들이였다. 한덕수나 김운해가 추방된 기회를 리용하여 운동권을 쥐려고 획책하는 그자들이 민전을 가로타고 앉는다면 과연 재일조선인운동은 어떻게 되고 동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것인가! 물론 덕수를 비롯한 애국적인 활동가들이 그자들의 책동을 허용하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나 그자들의 책동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후과가 어떤것이라는것을 동포들이 알게 해야 한다. 시급히 김운해를 만나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대책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김운해의 얼굴이 떠오르자 불현듯 그의 수척한 모습과 함께 지금도 합숙생활을 하고있는 외로운 처지가 되새겨지시였다.

(아무리 전쟁이라 해도 이역땅에서 고생스레 살아온 그에게 계속 합숙생활을 시킬수야 없지 않는가! 보금자리가 있어야 짝도 생기는 법이니까…)

우선 집이라도 한채 배정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이런 생각에 젖어계시느라고 장군님께서는 자동차가 멎는것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시였다.

《길이 끊어졌습니다, 장군님!》

앞자리에 앉아있던 최진이 뒤돌아보며 말했을 때에야 그이께서는 시창앞쪽을 내다보시였다. 올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도로가 폭격에 뭉청 허리가 끊어지면서 그 자리에 집터만 한 웅뎅이가 생겨났다. 키높이 자란 뽀뿌라나무가 그옆으로 비스듬히 자빠져있었다.

은연중 그이의 생각은 전쟁이라는 엄혹한 현실로 다시 되돌아왔다.

길복판에 내리신 장군님께서는 차가 웅뎅이를 에도는 사이 최진과 함께 개울가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고요한 들판이였다. 서늘하게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가로수들의 잎사귀들이 마치 하얀 양철쪼각처럼 눈부시게 반짝거리였다.

길옆으로 흐르는 개울주위로는 넓다란 들판이 펼쳐져있는데 거기에서는 한마리의 어미소가 한가로이 새김질을 하고있었다. 어미소의 사타구니에서는 난지 한두달이 되나마나한 애송아지가 젖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지 아니면 재롱섞인 장난에서인지 콕콕 대가리질을 해가면서 젖을 빨아대고있었다. 그러다가 무엇이 좋은지 이번에는 깡충깡충 모둠발질을 하며 까불어대기 시작했다.

정녕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만치 평화롭고도 목가적인 풍경이였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한덕수 생각으로 여전히 마음이 밝아지지 않으시였다.

3

평양으로 돌아오신 장군님께서는 곧추 가루개에 있는 내각사무실부터 찾으시였다. 최고사령부에서도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있었으나 급한 문제들은 전선을 시찰하면서 처리하시였던것이다.

전쟁은 순간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을 그이앞에 쌓아놓았다. 그리하여 일주일을 최고사령부에서 나흘, 사흘은 당중앙위원회와 내각사무실로 나누어 사업하시는 장군님이시였다. 그렇게 나눈 날들마저 많은 시간을 전선의 병사들이나 논밭에서 일하는 농민들, 공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속에서 보내는 그이이시였다.

내각사무실에는 김운해와 외무성 부상이 장군님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눈 장군님께서는 먼저 그사이의 국제정세부터 들어보자고 하시였다.

외무성 부상이 최근 국제정세에 대해 보고드리였다.

…9월초, 이미부터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와 추진시켜오던 태평양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한 미국이 며칠전에는 쌘프랜씨스코에서 일본과의 강화회의를 개최하고 일미안전보장조약을 체결했다는것, 이에 대해 세계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중국의 주은래총리가 중국이 참가하지 않은 대일강화조약은 비합법적이며 따라서 무효라

는 성명을 발표했다는것이 중요소식이였다.

《결국 미국은 일본에 대한 점령을 폐지하는 대신 안보조약이라는 새로운 사슬로 다시 일본을 얽어매놓았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책상우에 있는 신문들과 통신들을 일별하시면서 부상에게 물으시였다.

《일본의 내부정세는 어떻습니까?》

《점령이 페지된것과 관련하여 일본인민들은 물론 민주계에서도 대단히 끓고있습니다. 특히 공산당 국내지도부에서는 중국에 망명한 당수뇌부가 제시한 무장투쟁방침을 당강령으로 채택하고 그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무장투쟁로선?》

장군님께서는 저으기 놀라시였다. 최근까지만 해도 내부가 복잡하던 일본공산당이라는데 대해서는 알고계시였다. 노사까가 발표한 《평화혁명》에 대한 론문을 계기로 시작된 지지파와 반대파의 론난이 다른 나라 당에까지 파급되는가싶더니 결국 무장투쟁이라는 새로운 구호가 터져나왔다. 그런데 어느새 그것이 정식 당강령으로 채택되고 실천단계에 들어섰다지 않는가!

《그들이 들고나온 무장투쟁로선에 대해 일본사람들은 말할것도 없고 쏘련공산당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 당들에서도 적극 환영하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알만 하다는듯 외무성 부상에게 손을 들어보이고는 옆에 있는 김운해에게로 시선을 옮기시였다.

《김운해동무, 그 로선에 민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있습니까. 교육부문이나 기업활동에서처럼 이번에도 민대부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물고있습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김운해는 자료들을 뒤적여 해당한 부분이 있는 곳을 펼치고나서 말을 이었다.

《민대부에서는 그 무장투쟁로선을 민전의 총적인 당면과업으로 내세우면서 이미 조직된 조방대를 강력한 군사조직으로 개편할데 대한 지시를 떨구었습니다.》

《군사조직이라니?》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주춤하시였다. 일본공산당 민대부가 이젠 무장투쟁로선까지 공공연하게 재일조선인조직인 민전에 내리먹이고있다는 사실이 못내 놀라우시였다. 아니, 리해하기 어려우시였다. 그러니 이젠 민대부가 민전을 완전히 장악했다는것이 아닌가!
《그 조방대책임자로는 로재호를 임명했습니다. 덕수동무와 각별한 사이였는데 조련이 해산된 후부터 민대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로재호라.)
장군님께서는 그 이름을 되뇌이시였다. 덕수가 그에 대해 각별한 정을 가지고 말했었다. 일도 같이하고 고향도 한고향이라면서 감옥살이까지 함께 했다고 하던 말이 기억나시였다.
그러니 몇달사이에 얼마나 놀랍게 변한 일본현실인가! 권력타도를 위한 무장투쟁로선을 정식 당강령으로 채택한것이며 그 로선을 재일조선인들의 당면과업으로까지 내세운 민대부…
이런 일본정세의 변화에 장군님께서는 자못 긴장되시였다. 그 로선자체가 일본혁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는데도 있었으나 그것이 재일조선인운동과 결부되여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재일동포들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때문이였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장군님께서는 출입문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방공호를 사무실로 꾸린 출입문에는 두툼한 방음장치가 되여있고 둥글게 휘여든 천정에는 여러개의 전등이 환한 백광을 뿌리고있어 지하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래 일본의 이런 정세에 대해 외무성동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자기가 놓여있는 책상앞에 이르신 장군님께서는 외무성 부상을 바라보시였다.
《저희들은…》
외무성 부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일본자체의 정세발전의 요구로 보나 세계혁명의 요구로 보아 일본공산당이 무장투쟁로선을 들고나온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라는 견

해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미국놈들과 전쟁을 하고있는 때에 그들이 무장투쟁의 기치를 들고나온것은 어느모로 보나 우리 혁명에도 유리하고 긍정적인 작용을 하리라는것입니다.》

《일본공산당이 그런 로선을 들고나온것이 옳은가 어떤가는 둘째치고 민대부가 그 로선을 민전에 내려먹이고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무성 부상은 대답을 못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토론을 못해본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개인의 생각이라도 말해야겠다는듯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도 민대부에서 지시한 교육과 기업활동에 대한 과업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과업이 일본반동당국과의 투쟁을 포기한 나약하고도 우유부단한 우경적인 립장이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장투쟁로선을 받아들이고 조방대를 군사조직으로 개편한것은 아주 적극적이고도 정당한것으로 리해합니다.》

《그럼 어째서 민대부가 그렇게 서로 성격이 상반되는 좌우경적과업들을 민전에 제시하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따져보았습니까?》

《…》

외무성 부상은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잠시 방안을 거니시다가 이번에는 김운해의 견해를 물으시였다.

《저는 이미부터 일본공산당이 어느땐가는 무장투쟁로선을 들고나오리라는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빨리 강령으로 채택하고 실천에 옮기리라고는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것은 일본국내정세의 변화에도 기인되겠지만 보다는 외부의 영향 즉 중국에 망명하고있는 당수뇌부에 무장투쟁을 벌릴데 대한 다른 나라 당들의 적극적인 호소가 작용했기때문이라고 봅니다.》

《일본공산당이 어떤 로선을 제시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장군님께서는 김운해의 말을 중단시키시였다. 사색의 방향이 본질로 육박하지 못하는것이 불만스러우시였다. 외무성 부상의 견해도 그렇지만 김운해 역시 재일동포들문제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주변정세를 중시하면서 거기에 더 신경을 쓰고있었다.

일본혁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일본공산당과 일본인민들이기때문에 그들이 어떤 로선과 방침을 내놓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해서도 안되고 상관할바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그럴수는 없겠지만 자기들이 내놓는 로선에 재일동포들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재일동포들이 어떤 투쟁에 나서는가에 따라 동포들의 처지와 지위가 달라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기때문이다. 만약 재일동포들이 그들의 호소에 따라나선다고 하면 그것은 벌써 재일조선인운동이 자기 궤도를 리탈하는것으로 된다. 그것도 보통리탈이 아니라 부득불 일본내정에 간섭하게 되며 앞으로는 일본혁명수행을 자기의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게 되는 그런 리탈이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의 처지가 어렵다 해도 또 일본의 정세가 당장 혁명을 요구한다 해도 재일조선인운동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동무들은 우리가 전쟁을 하고있는 때에 일본공산당이 무장투쟁로선을 들고나온것을 긍정적으로 보는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리유는…》

장군님께서는 김운해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

《그것이 재일동포들과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옳은 리해로부터 출발하는 관점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이미부터 말해오지만 재일동포들은 일본땅에서 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자기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가지고 살며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느 나라 해외교포들과 다른 재일동포들의 특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재일조선인운동의 총적인 과업을 조국의 두리에 뭉쳐 조국에 이바지하는 애국적이며 민족적인 운동을 벌리는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재일동포들이 오직 조국을 위해 일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지 결코 일본의 어떤 사회적운동의 주인이 아니며 주인으로 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이 원칙을 망각하고 재일동포들이 일본의 어떤 사회적임무를 수행하는 운동을 벌린다면 그것은 벌써 본래의 의미에서의 해외교포운동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런데 민대부에서는 여느 운동도 아닌 일본의 권력타도를 위한 무장투쟁을 동포들에게 내려먹이려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해외교포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것일뿐아니라 일본내정에 간섭하는것이며 더우기는 재일조선인운동이 일본혁명의 한부분인것처럼 보이게 하는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주장이고 위험한 일입니까. 난 결코 일본공산당이 우리 동포들에게 일본정부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에 앞장서라고 강요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일본공산당이 그럴수는 없습니다. 그건 민대부에 틀고앉은 종파분자들의 책동일것입니다.》

의자를 당겨놓고 자리에 앉으신 장군님께서는 두손을 마주쥐며 심중한 안색을 지으시였다.

《그럼 어째서 민대부가 그런 지시를 내려먹이는가 하는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동포들에게 이러저러한 부당한 과업을 내리먹이다못해 무장투쟁과업까지 내세우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재일동포들을 자기 조국의 존엄있는 해외공민으로 보지 않는데 있습니다. 그들은 재일동포들을 다른 나라에 이주해 사는 교포들처럼 여기는가 하면 일본의 소수민족이나 민족의 파편으로 모독하고있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일본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바라는 처지개선에 대한 과업을 내세우는가 하면 일본의 피착취계급의 요구인 무장투쟁과업을 내리먹이는것입니다. 그래 우리 재일동포들이 어떻게 일본의 소수민족으로 되며 민족의 버림을 받은 불우한 파편이란 말입니까?》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였다.

《결국 그들의 책동의 본질은 재일동포들을 조국도 모르고 민족의 넋도 없는 일본사람으로 동화시키자는것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종파들이란 바로 그런 초계급적인 구호를 들고 자기들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법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얼마전 당 4차전원회의에서 폭로비판된 허가이를 비롯한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의 정체가 상기되시였다.

그자들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들이 끼쳐놓은 후과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당대렬에서 내쫓고 처벌함으로써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일본에서 무장투쟁에 나서라고 호소하여 동포들을 탄압의 대상이 되게 하며 조국에 대해 불신하게 만드는 민대파들이 과연 이자들의 책동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장군님께서는 민대파들의 책동이 아무리 집요하다 해도 한덕수를 비롯한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결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드시였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일본이라는 환경, 반동의 소굴이며 엄혹한 적후라는것을 고려할 때 심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였다.

《김운해동무!》

장군님께서는 김운해에게 말씀하시였다.

《내 생각에는 우리의 립장을 동포들에게 빨리 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는 물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서 별도로 재일동포들에게 호소문을 보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 호소문에는 조국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는 오늘같은 때일수록 모든 동포들이 더욱 조국의 두리에 뭉쳐야 한다는것, 한덩어리로 뭉쳐 오직 조국통일성업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는 사상이 명백히 강조되여야 합니다. 일제가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에 직접 개입하고있고 동포들을 강제추방하려고 책동하는만큼 그 어느때보다도 재일동포들에게는 공화국을 사수하는 투쟁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섭니다. 동포들에게 이런 투쟁과업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본반동들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저지파탄시킬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운해는 사업수첩을 펼쳐놓고 장군님의 말씀을 적어넣었다. 그런 김운해의 모습을 보느라니 장군님께서는 문득 그에게 집을 배정해주라고 지시했던 일이 떠오르시였다.

《참! 부장동무! 그새 집들이는 했습니까?》
고개를 숙이고있던 김운해는 얼른 머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목덜미를 쓸어만지며 어줍은 미소를 지었다.
《장군님 배려로… 얼마전에 대성산기슭에 아담한 집 한채를 배정받았습니다. 저때문에… 참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김운해는 못내 난감한 표정을 지은채 장군님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 집에 저말고도 한사람이 더 들어와있습니다.》
《한사람이 더 들어와있다니?》
장군님께서는 새삼스런 눈길로 김운해를 마주보시였다.
《그러니 벌써 살림을 꾸렸단 말입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라…》
김운해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는듯 당황해하며 손을 저었다.
《실은 일시적후퇴때 서울에서 들어온… 장군님께서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인민군대를 따라들어온 남조선정객들중에 박룡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 일본에서 〈민단〉단장을 하던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글쎄 저와 함께 있겠다고…》
(박룡이?)
장군님께서는 언젠가 서울에서 들어온 남조선정객들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박룡이도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일이 기억나시였다. 그가 어떻게 평양에까지 오게 되였을가 하고 속으로 가늠해보기도 하시였다. 그에 대해 이를 갈던 덕수며 그의 딸을 사랑하고있는 지영이의 모습이 상기되기도 하시였다.
《저는 그가 어떻게 되여 입북까지 하게 되였는가 하는걸 들었습니다. 물론 리해되는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느 남조선정객들과는 달리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저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부서동무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어쨌든 박룡이라면 재일동포들은 하나같이 치를 떱니다. 용서

받을수 없는 죄를 너무도 많이 저지른 사람이니까요. 일본에서의 죄행도 죄행이지만 괴뢰 〈국무위원〉까지 한 사람으로서 반공일선에 서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때문에 그에 대해서만은 장군님의 해당한 결론이…》

장군님께서는 잠자코 책상우에 무져놓은 자료들을 바라보시였다.

《그자신도 자기 처지가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산이 따르리라는데 대한 각오도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

장군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4

박룡의 입북동기는 함께 북으로 들어온 여러 남조선정객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수 있었다.

김규식, 조소앙, 엄항섭, 안재홍 등 수십여명의 남조선인사들은 4월남북련석회의를 계기로 남북협상파로부터 련공애국세력, 나아가서는 평화통일세력으로서의 일관한 정치적지조로 하여 북으로 가는 길을 단행했지만 박룡의 경우에는 그래서라기보다 남조선현실에 대한 울분과 함께 일신상에 들이닥친 자가당착의 혼란이 어마지두 북으로 가도록 결심케 했던것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자기의 과거지사로 하여 북에 가면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가 하는 우려가 없은것은 아니였다. 하지만 치떨리게 가증스러운 남조선현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분노는 그 우려를 압도해버렸다. 오죽하면 발목을 잡고 매달리는 처와 네살난 아들까지 뿌리치고 미아리고개를 넘었겠는가!

그는 안해에게 말했다.

《당신이 정 못 가겠다면 할수 없지. 그래도 난 가야겠소. 당신이 말하는것처럼 내 북에 가서 효수를 당한다 해도 이 더러운 시궁창에 더는 배겨있을수 없단 말이요. 여기서 코를 박고 사느니 차라

리 단두대에 매달리는편이 낫지!》

그가 이렇게까지 남조선현실에 환멸을 느끼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기둥으로 의지하여 살자고 했던 김구에 대한 리승만역도의 비렬한 암살행위였다.

사실 김구의 존재는 그에게 있어서 온갖 불안과 동요의 바다우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의지의 섬이였고 믿음의 보금자리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보금자리에 깃을 펴고 뒤늦게나마 갱생해보려던 자기의 간절한 꿈을 놈들은 산산이 짓이겨버렸던것이다.

김구가 리승만이 파견한 자객의 총탄에 맞아 절명하는 날 박룡이도 바로 그 경교장에 있었다.

아래층에서 구비서와 함께 북에서 결성되고있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있는데 군복을 입은 한 소위가 백범을 만나러 왔다고 했다. 작달막한 키에 몸은 체소했으나 얼핏 보기에도 몹시 표표하게 생긴 젊은이였다.

《무엇때문에 선생을 만나자는거요?》

《군대내에 있는 한독당원들의 동향에 대해 보고드리자고 합니다.》

그의 당원증을 가지고 백범에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구비서가 면회가 수락되였다는것을 알리자 그는 자기의 군모를 맡기면서 한가지 청이 있다고 했다.

《이 꽃을 백범선생께 선물로 드리고싶은데요.》

자기가 가지고온 다리아꽃묶음을 내미는 그의 얼굴에는 긴장한 표정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줍은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건 안되오.》

구비서는 단마디로 잘라맸다.

《선생은 꽃을 좋아하지 않을뿐더러 더 좋아하지 않는건 선물을 들고다니는 사람자체요. 그러니 이건 여기에 보관해두었다가 갈 때 가지고가시오.》

《그래도 이건 좀 다른겁니다. 이 꽃병을 보십시오.》

꽃병에 눈길이 간 박룡은 어리둥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흔히 있는 유리나 사기로 된것이 아니라 누런 황동색포탄깍지를 품

들여 가공한것이였다.
《일선당원장병들이 올리는 충정으로 여기고 받아주셨으면 해서 그럽니다.》
《안된다지 않소!》
원래 장교출신인데다 유도교관의 경력까지 있는 구자풍은 한번 한 말은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이였다.
할수없이 꽃병을 비서실에 맡겨놓은 안두회가 3층으로 올라간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였다. 갑자기 웃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뒤이어 육중한 물체가 부딪치는 둔중한 소리도 들려왔다.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구비서와 함께 3층으로 올라간 박룡은 그만 소스라치고말았다. 누비돗자리방바닥에 한팔을 짚은 백범이 비스듬히 벽에 기대여있었다. 두눈을 감고 입은 꾹 다문채였다.
《백범!》
와락 그에게로 달려들어 어깨를 흔든 순간 백범의 입이 흠칫하는가싶더니 그안에서 검붉은 피가 왈칵 쏟아져나왔다. 가슴을 만져보니 벌써 심장은 고동을 멈추었고 체온도 식어가고있었다. 입과 가슴과 복부 세곳에 치명상을 입고있었다.
《개-놈의 새끼!》
벼락같은 소리를 지른 박룡이 눈에 불을 달고 포병소위를 찾았으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땐 벌써 구비서가 계단뒤에 숨어있던 놈을 찾아내여 도리깨 휘두르듯 땅바닥에 태질하고있었다.
결국 그놈이 가지고온 포탄깍지꽃병은 자기가 백범에게 쏘아댈 총탄세례의 전주곡이였던것이다.
(흉악한 놈!)
분노의 화살은 대번에 리승만에게로 겨누어졌다. 4월남북련석회의이후 백범이 남조선인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그가 주도하는 남북협상파세력들이 점점 련공으로 기울어지게 되자 백범을 살해할 흉계를 꾸민것이 그 늙다리악마라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였다.
(어디 보자! 내 결코 네놈을 가만두지 않을테다!)
그러지 않아도 해방직후 자기를 《국무위원》으로 슬쩍 끄여놓고 뒤에서는 정한경을 일본에 파견하여 《민단》을 가로타고앉게 했을

때부터 리승만에 대해서는 이를 갈던 박룡이였다. 그런 자기가 서울에 와 김구를 따라나서자 이번에는 거기에서 떼내기 위해 《보건사회부》의 고문자리로 회유하려들더니 이젠 백범까지 무참히 살해한것이였다.

(명심해라! 《천황》대신 이번엔 네놈이다! 일생을 테로로 살아왔지만 아직 원흉을 처단하지 못한 원한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있는 이 박룡이 이제부터는 그 필생의 유한을 네놈한테 쏟을테다!)

그날 저녁 효창공원을 찾아간 그는 공원중턱에 나란히 솟아있는 세개의 봉분앞으로 다가갔다. 먼저 간 동료들의 무덤이였다. 상해림정시기 김구의 지시를 받고 《천황》과 군국주의거두들을 처단하려다가 체포되여 일본에 끌려와 사형당한 순국렬사 윤봉길, 리봉창, 백정기의 묘였다. 바로 이들의 묘지 웃자리에 백범의 유해를 안치하려는것이였다.

해방직후 김구의 부탁을 받고 일본 각지에 널려있는 이들의 묘를 찾아 서울로 이관하던 일이 어제같은데 오늘은 그들옆에 백범을 또다시 묻게 될줄이야! 박룡은 가슴이 터지는것 같았다.

《백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너무나도 허무하지 않소. 민족의 독립을 바란 윤봉길, 리봉창, 백정기렬사들이 왜놈에게 희생되고 나라의 통일을 념원한 백범이 리승만한테 잘못되였으니 과연 우리가 갈길은 어디란 말이요. 도대체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이요. 말해주오, 백범!》

박룡은 가슴을 치며 오열을 터뜨렸다. 그러나 울음을 씹어삼킨 그는 곧 이발을 사려물었다.

《하지만 믿어주오. 백범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이 박룡이 백범의 원쑤를 갚아 국민의 원한을 씻는것으로써 의리를 지키겠다는걸 믿어주오. 참에 살고 의에 죽으라는것이 진생의사의 철리이지만 비록 참에는 살지 못했다 해도 의에는 죽을 결심이라는걸 부디 믿어주오. 그리하여 어제는 렬사들이 갔고 오늘은 백범이 간 길을 래일은 나도 따르겠으니 우리 그때 서로 만나 생시의 상혼을 씻어보잔 말이요.》

장례때였다.

장례를 《국장》으로 할데 대한 《정부》의 제의를 단호히 뿌리

치고 직접 김구의 국민장위원장이 된 남북협상파세력의 거두인 사회당 당수 조소앙이 두루마기자락을 여미며 장의위원들앞에 나섰다.

《내 여러분들께 한가지 소식을 알릴가 하오. 방금 평양에서 들어온 소식이요.》

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있었다.

《여러분들도 아다싶이 지금 평양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있소. 그런데 회의를 지도하시던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김구선생에 대한 비보를 받으시자 더없이 가슴아파하시면서 백범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남북협상정신을 귀감으로 삼아 온 겨레가 조국통일을 위해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자고, 그게 바로 백범선생의 생전의 뜻이 아니겠느냐고 호소하시였다오. 그러시고는 회의일정을 뒤로 미루더라도 김구선생에 대한 조의부터 표시하자고 하시였소.》

《…》

모두들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건 지난해 남북련석회의때 **김일성**장군님을 직접 만나뵈온 사람이래서가 아니요. 또 백범의 국민장을 주관하는 사람이래서도 아니요. 다만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우리모두가 심심히 새겨보고 어느쪽이 진정한 애국이고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가를 스스로 다시한번 확증해주기 바라서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것은 **김일성**장군님의 말씀대로 생전에 백범이 보여준 련공의 뜻을 귀감으로 삼아 우리모두 통일성업에 더욱 매진하자는것이요.》

《옳소!》

《통일은 련공에 있소!》

《백범의 원한을 통일로 갚읍시다!》

미제와 리승만역도에 대한 증오는 련공과 통일의 의지로 타번졌다.

박룡의 머리속에는 불현듯 련공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한 자기에게 하던 백범의 말이 되새겨졌다.

《자넨 공산주의라면 한사코 고개를 젓네만 이북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산주의와는 다르네. 이북의 정치가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공산주의에 대한 견해차이때문인지 그건 아직 나도 모르겠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나도 그걸 북에 가 직접 보고야 깨달았지. 암— 공산주의가 이북에서 실시되는 그런 정치라는걸 알았다면 내가 왜 반공을 했겠나. 이제부터 우린 반공이 아니라 련공의 길로 나가야 하네. 바로 그 길이 우리 조선이 통일되는 길이고 겨레가 복되는 길이란 말일세!》

그러나 그는 그 말을 새겨볼 여유가 없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리승만에 대한 복수의 일념이 무엇을 따져볼 겨를을 주지 않았던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오로지 자기가 바라는 하나의 열망, 이때까지 그처럼 애타게 바랐으나 실현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더더욱 유일무이한 숙망으로 된 그 복수를 위해 심신을 불태웠다.

하지만 그는 그 결심을 단행할수가 없었다. 준비가 부족해서나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였다. 조소앙이 극구 만류해나섰기때문이다.

《내가 왜 자네의 마음을 모르겠나. 그렇지만 지금은 제발 마음을 달래여주게. 아니, 참아야 할 때란 말이네. 백범의 피살과 북에서 발표한 평화통일호소문을 계기로 지금 온 이남땅이 얼마나 끓어번지고있나. 이 놀라운 현실을 자네도 보고있겠지? 사실 이런 통일기운은 일찌기 한번도 있어본적이 없었네. 우리는 이 상승기류를 타고 이제 있게 될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단연 우세를 차지할 결심이네. 자신이 있단 말일세! 그래 이런 때 그 늙다리에 대한 복수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렇게 된다면 놈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화로 그렇지 않아도 렬세에 몰린 저들의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선거〉고 뭐고 온 나라를 비상사태로 몰아갈거네. 결국 그자들을 도와주는것으로 된단 말일세. 그러니 〈선거〉가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참아야 하네.》

부득불 박룡은 자기의 결심을 뒤로 미루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다고 조소앙의 말대로 통일파들이 《선거》에서 우세를 차지하리라는 믿음이 있은것은 아니였다. 여당이 쉽사리 눌리우지도 않겠거니

와 통일파들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가 어느 정도겠는지 하는것도 미타했다.

한데 웬걸, 《선거》에서는 정말 통일세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승리를 거두었다. 《국회의원》 210석중 과반수가 훨씬 넘는 126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것이였다. 근 3분의 2에 해당되는 의석이였다. 통일세력립후보자들은 거의다가 당선되는 반면에 리승만의 《대한국민당》이나 김성수의 《민주국민당》은 겨우 스무석도 되나마나했다. 당장 무슨 변화가 일어날것만 같았다. 아니, 일어나지 않을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그 변화는 《국회》의 주도권을 장악한 통일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제와 리승만이가 먼저 일으켰다. 《선거》가 있은지 한달도 되지 않아 놈들은 《선거》에서의 참패와 앞으로의 암담한 출로를 바로 이미부터 준비해오던 전쟁을 도발하는것으로써 대답해 나섰던것이다. 악착한 리승만이와 흉물스런 미제가 아니고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천인공노할 평화에 대한 도전이였다.

전쟁! 사나운 전쟁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든 박룡은 처음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안해의 요구대로 당장 보따리를 싸들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할지 아니면 통일파들처럼 떳떳이 인민군대를 맞이해야 할지.

오만가지 생각이 밀물과 같이 밀려드는가 하면 썰물처럼 삽시에 사라지기도 했다. 어떤 때는 전에 없던 악몽에 시달릴 때도 있었다. 가슴을 지지누르는 큰 돌이 시시각각으로 무게를 더하는가 하면 캄캄한 굴속에 있는 자기가 출구의 빛이 환히 보이는데도 좀처럼 그리로 갈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꿈이였다.

남진했던 인민군대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하게 되면서부터 그의 생각은 더욱 번거로와졌다. 많은 통일파세력들은 스스럼없이 북으로 들어갈 결심을 내리고 차비를 하는데 그런 모습이 그에게는 더없이 놀라운 한편 부럽게 여겨지기도 했다.

《뭘 우물쭈물한단 말인가? 우리가 이 이남땅에서 살지 못한다는 거야 자명한 일이 아닌가!》

조소앙의 권고였으나 박룡은 도리를 저었다.

(당신들은 북에 가면 살지 모르지만 난 북에 가서도 살지 못할 몸이 아니요? 반공일선에서 포악무도하게 날뛴게 언젠데 이제 와서…)

자기 역시 미제와 리승만이 둥지를 틀고있는 남조선에서는 순간도 살고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북으로 발을 들여놓는다는것도 주저되였다. 남에서는 죽어도 살기 싫은가 하면 북에 가서도 제대로 살기 어려운 자기의 처지, 조선사람이긴 하지만 남과 북 그 어디에도 발을 붙일수 없는 자신의 기막힌 처지가 그지없이 서글프고 원망스럽기만 했다. 그러나 어쨌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운명의 시각이 닥쳐왔음을 그는 통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바로 그때 그의 가슴을 세차게 후려치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김구가 평생 자기 삶의 좌우명으로 삼던 《득수반지 무족기 현애철수 장부아》라는 시구절이였다.

나무가지를 붙잡고도 발붙일데가 없을 땐 절벽에서 손을 놓는것이 대장부라는 의미가 새롭게 안겨오면서 그런 백범이 평양을 다녀와서부터는 인생전환을 했던 사실이 상기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불현듯 자기가 김구를 찾아갈 결심을 했을 때 백범의 인생전환에 대해 알려주면서 웨치던 한덕수의 절규가 뇌리를 쳤다.

《자, 보게! 백범의 인생전환이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주나. 그것은 바로 백범은 물론 나나 자네 아니, 우리 모든 조선사람들의 희망이나 보람은 오로지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그 길에 있다는것이 아니겠나.》

(가자!)

박룡은 강잉히 부르짖었다.

(희망이나 보람을 위해서라기보다 이 오욕된 땅을 벗어나기 위해 가자! 백범처럼 인생전환은 못한다 해도 죄많은 한생을 종화짓기 위해서라도 북으로 가야 한다! 참에도 살지 못하고 의에도 죽지 못한 나의 비루한 한생을 거기서는 공정하게 심판할것이다. 그 심판이 아무리 준엄하고 가혹하다 해도 머리를 숙이고 공손히 받아들이자!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니까. …)

이렇게 되여 그는 여러 통일파인사들과 함께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인민군대를 따라 북으로 들어온것이였다.

5

눅눅한 부엌바닥에 쭈그리고앉아 아궁이에 대고 푸푸 입바람을 불어넣던 김운해는 불이 일기는 고사하고 되려 연기만 꾸역꾸역 밀려나오는통에 할수없이 무릎을 털고 일어나고말았다. 그새 한번도 불기운을 보지 못해 누기가 찰대로 찬 아궁이여서 아무리 마른 삭정이를 갖다넣어도 효과가 없었다.

누기가 찬데도 있었지만 자기로서는 도저히 불을 살굴것 같지 못했던것이다. 아무래도 석유를 얻으러 간 박룡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여긴 그는 마당으로 나와 포도넝쿨아래에 있는 나무의자에 걸터앉았다.

그동안 합숙에서 침식을 하다가 며칠만에 집에 왔으나 집끄락서니를 보니 그새 박룡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게 헨둥했다. 워낙 일이라는건 전혀 할줄 모르는 사람인데다가 말할수 없는 게으름뱅인줄은 모르는바 아니였지만 그래도 집을 이 모양으로 해놓은데는 불만스러웠다. 보매 자기가 없는 동안 내내 옆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하루 세끼 밥까지 얻어먹은게 분명했다.

방안 옷걸이에는 한여름의 남방샤쯔가 그대로 걸려있는가 하면 농짝우에 있는 이불은 습기가 차서 쥐여짜면 물이 뚝뚝 떨어질것 같았다.

사실 오늘은 박룡이에 대한 그런 불만을 손수 그앞에서 시범을 보이는것으로써 자극도 받게 하고 감화도 되게 해보려고 했으나 당초에 그 결심을 집어던지고말았다. 자기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부엌이며 방안청소를 한 다음 이불까지 내다 너는데도 같이 일을 할 생각은 않고 옆에서 멍하니 지켜보기만 하는 박룡의 태도에 부아가 났던것이다.

《아니, 그렇게 우두커니 서있기만 하면 어떻게 하우? 답답하기

란 과연…》
참다못해 한마디 했다.
《그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시키구려. 내가 하자는건 제가 앞질러 다 해치우구선…》
웃을수밖에 없었다. 하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인것만은 사실이였다.
《불쏘시개감이라도 좀 구해오구려, 석유나 휘발유 같은게 있으면 더 좋고.》
그때에야 그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린듯 부엌으로 들어가 바께쯔를 들고나섰다. 그런데 그 바께쯔는 먹는 물을 담아두는 그릇이였다.
《아니, 거기다 휘발유를 담을 작정이요? 내 원참!》
할수없이 헛간으로 들어가 찌그러진 양철통을 그의 손에 직접 들려주었다. 양철통을 손에 들고 문밖을 나서던 박룡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되돌아서며 묻는것이였다.
《한데 이걸 들고 어딜 가야 휘발유를 준다는거요?》
《어이구, 하느님맙시사!》
이거야말로 눈뜬 장님하고 산다고 하는수밖에.
김운해가 장군님의 배려로 대성산기슭에 있는 이 아담한 사택을 배정받은것은 보름전이였다. 전쟁의 중하를 지니시고도 자기 생활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는 장군님의 은정에 그는 목이 메였다. 그러나 쉰이 다된 나이에 그것도 전쟁이 한창인 때에 가정을 꾸린다는것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될것 같았고 그렇다고 텅 빈 집을 혼자 쓰고 살자니 청승맞은 수절과부처럼 여겨지기도 해서 집을 꾸려주러 나온 후방부장에게 말했었다.
《나도 장군님께 말씀올리겠소만 부장동무도 좀 말씀드려주구려. 내한테 무슨 집이 필요하다고 그러오.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텐데 그들한테 돌리도록 말이요.》
하지만 사람좋은 후방부장은 수염이 시꺼먼 턱을 쳐들고 껄껄 웃으며 대꾸했다.
《그래도 보금자리가 있어야 짝이 날아듭머니. 바로 장군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요. 글쎄 두고보라니. 이제 봉황이 날아들지 않나!》

《봉황?》

김운해는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웬걸, 정말 짝이 날아들었다. 하지만 이건 봉황이 아니라 봉황과는 너무나도 판다른 룡이 뛰여든것이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때 입북한 박룡이가 같이 살자고 온데는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닌 박룡이가 올건 뭐람! 더우기 그가 같이 입북한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고 자기한테 온것은 리해할수가 없었다.

《자네도 아다싶이 그들이야 나와 처지가 다르지 않나. 그들은 그래도 과거는 어떻든 련석회의이후부터 련공, 통일을 위해 애써온 사람들이지만 나야 어디… 백조의 무리속에 있는 까마귀랄수밖에… 그런데 어디 갈데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체면불구하고 자네를 찾아왔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 역시 자네가 나를 몹시 질시하리라는건 모르지 않네. 그런걸 아는 나로서 이 집에 뭐 오래 있자는건 아닐세. 오래 있을수도 없구. 다만 내 운명이 결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있게 해달라는걸세.》

김운해는 박룡이와의 이런 기이한 상봉이 놀랍기도 하고 어처구니없기도 했으며 또 우습기도 했다.

따져보면 자기와 박룡이는 서로의 처지는 물론 경력까지도 비슷한데가 없지 않았다. 둘이 다 일본에서 20년가까이 감옥생활을 한것이나 둘 다 일본에 있지 못하고 거기서 뛰쳐나오지 않으면 안되였다는 사정 그리고 둘이 다 처자는 물론 가까운 친척 하나 없는 혈혈단신이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쌍둥이같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비슷한 점보다 몇배 뚜렷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두사람이 여태껏 상반된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이였다. 이 차이점은 륙척장신인데다가 뾰족한 얼굴을 한 자기와 자그마한 키에 둥그런 얼굴인 박룡이와의 외형적차이보다 몇곱절이나 더 두드러지는것이였다.

한사람은 해방전부터 오직 혁명을 위해 살아온 공산주의자라면 다

른 한사람은 그 혁명을 원쑤처럼 치부하던 무정부주의자였다. 한사람은 일본공산당요직을 거쳐 오늘은 조국에 와서 당중앙위원회 부장일을 하고있지만 다른 한사람은 《민단》단장에 괴뢰《국무위원》까지 겸했던 반동이였다. 말하자면 살아온 환경은 비슷했으나 목적했던 지향과 걸어온 길은 전혀 딴판이였다. 그런데 운명은 자기들 두사람을 하나로 련결시켜놓은것이였다.

김운해는 박룡이가 어떻게 평양에까지 오게 되였는가 하는것이 처음 못내 불가사의하게 여겨졌지만 그가 겪은 그동안의 경난들을 듣게 되자 곧 자기가 알던 그전날의 박룡이가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자네처럼 한길을 곧바로 걸어오지 못하고 비탈길, 진창길에서 허우적거리다나니 이렇게 됐네. 일본에 있는 덕수 그 사람한테는 말했네만 사필귀정이구 인과응보랄수밖에! 그러나 난 용서를 바라는건 아닐세. 물론 바랄 처지도 못되구. 내 죄야 자네도 잘 알지 않나. 민족을 배반한 대역부도죄에다가 동포들을 배신한 반역죄, 거기다가 제 살붙이한테까지 씻을수 없는 원한을 남기였으니… 감옥에서 죽은 후미꼬의 몸에서 난 딸애는 일본에 버리고 그후에 얻은 처자식은 또 서울에 버리고 …자, 이런 안팎의 죄인인 내가 무엇을 바라겠나. 단지 총화라도 깨끗이 지어야겠다는 그 한가지 생각뿐일세.》

확실히 박룡은 자기자신을 이젠 세상에 다시 없는 죄많은 악한으로, 그것으로 하여 그 어떤 멸시와 굴욕을 받는다 해도 피할수 없는 인간으로, 나아가서는 이제 와선 그 굴욕을 씻을 가능성마저 잃어버린 인간으로 치부하는듯 했다.

그날부터 결국 두사람은 한집에서 같이 살게 되였다. 그런데 두사람이 다 여태까지 생활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똑같은 홀아비들이여서 꾸린다는 살림은 영 말이 아니였다. 별 해괴한 일이 다 벌어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군 했는데 둘이 동거한지 며칠 안되여 벌써 이웃들한테서는 《부처》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그 별명이 붙게 된 날이였다. 그동안 계속 이웃들 신세만 져온 이들은 오늘은 집들이겸 자기들 손으로 음식을 한번 만들어 사람들을

청하자고 약속하고 일에 달라붙었다.

박룡이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김운해는 마당가에 있는 뽐프장에서 부식물로 공급받은 닭을 손질했다. 부산스런 신고끝에 마침내 음식을 상우에 차려놓고는 옆집에 사는 교육상 백남운이와 무임소상 리극로를 청해들였다. 지금껏 두사람은 그들 집에 자주 가 식객노릇을 하군 했다.

《그동안 폐를 많이 끼쳤는데 오늘은 우리 량주가 성의라도 보이자고 했으니 그리 알고 변변찮지만 달게 들어주기 바랍니다.》

김운해의 그럴듯한 초대사에 이어 박룡이가 술병을 들고 매 잔들에 술을 따르었다.

먼저 술을 한모금 들이킨 리극로가 앞에 놓인 닭고기 한점을 집어 입에 넣고 우물거리다가 갑자기 오만상을 찌프렸다. 두개의 박사학위가 있는 학식의 대가일뿐아니라 무전세계일주려행가로서 온갖 체험을 다해본 그였지만 세상 그 어디에서도 아직 이런 음식은 먹어보지 못했다는 표정이였다.

《아니, 도대체 무슨 닭고기가 이런 소태란 말인가! 아무리 달게 먹으라고 해도 이거야 어디…》

그의 말에 모두들 닭고기를 입에 넣어보고는 질겁을 했다. 정말 혀를 놀릴수 없으리만치 쓰거웠던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거요?》

박룡이의 물음에 방금 입에 넣은 고기점이 초약처럼 쓰거웠으나 그것이 자기가 직접 한 료리라는것으로 하여 김운해는 미간을 찌프리지도 못했다. 다만 긴 목을 빼들고 황새처럼 사람들을 두릿두릿 살피기만 했다.

《모를 일인걸! 고기는 물론 내장까지도 말끔하니 씻어서 삶았는데…》

《내장까지? 그러니 내장을 통채로 다 삶았단 말이요?》

백남운의 물음에 김운해는 더욱 어리둥절해하며 대꾸했다.

《그럼 내장은 버린다는거요?》

《아하! 이런 변이라구야. 그러니까 그놈의 똥집이며 열까지 몽땅 삶아치웠구만. 별나게 고기가 쓴데다가 새까맣다 했더니…》

내장에서 열주머니는 떼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을 때까지도 김운해는 두눈을 슴벅거리기만 했다. 여태까지 술한 닭고기를 먹으며 살아왔지만 그래야 한다는건 듣느니 처음이였다. 아니, 우선 닭한테도 열이 있다는게 놀라왔던것이다.

《하긴 김부장이 한 음식을 먹겠다는 우리가 잘못이지.》

할수없이 백남운이 자기 집에 가 들고온 북어며 멸치로 안주를 대신했다.

식사를 하려고 했을 때였다. 먼저 밥사발뚜껑을 연 리극로가 이번에도 아연한 기색을 지었다. 흰쌀로 한 밥이 분명한데도 사발에 담겨있는 밥은 보리밥보다도 더 까맸던것이다.

《아니, 밥은 또 왜 이 모양이요? 쌀에야 열주머니도 없을텐데…》

모두의 눈길이 밥을 한 박룡이한테로 쏠렸으나 그는 그 말뜻이 무엇인지조차 가늠하지 못했다. 단지 밥그릇을 손에 들고 해빛이 비치는쪽으로 기웃해보이는 품이 저로서도 리해할수 없다는 기색이였다.

백남운은 다시금 탄성을 터뜨렸다.

《이 량반은 보아하니 쌀을 씻지도 않은채 밥을 했구려. 가유명사에 30년부지라더니 쌀을 씻지도 않고 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닭을 통채로 삶는 사람이 있을줄이야! 하긴 반생을 가막소에서 해주는 옥밥만 자시며 살아온 부처들이니 그럴수밖에!》

모두들 웃지조차 못했다. 그런데 잠자코 앉아있던 김운해가 박룡이를 건너다보며 한다는 말이 걸작이였다.

《그래도 나야 씻기라도 했지만 이 사람은 씻지조차 않았으니! 아무렴 씻지도 않은 쌀로 밥을 하다니, 원!》

그래도 자기가 조금은 낫다는 식이였다.

《허! 무엇 묻은 개가 겨묻은 개보고 흉질한다더니 참 가관이요.》

리극로의 말에 그제야 웃음이 터졌다.

결국 신세를 갚겠다고 한노릇이 도리여 또다시 폐를 끼치고말았다. 이때부터 이들에게는 얼핏 듣기에는 점잖아보이지만 따져보면 우습고도 창피스러운 《부처》라는 별명이 붙고말았던것이다. …

박룡이가 오지 않나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큰길쪽을 내다보던 김운해는 그만 우뚝 굳어지고말았다.

큰길가에 서있는 승용차가 낯익다 했더니 량켠에 피마주가 주런이 서있는 길로 박룡이와 함께 걸어오시는분이 분명 **김일성**동지이시기때문이였다.

(어떻게 갑자기 여기까지?…)

사전에 아무런 련락이 없었던것으로 보아 혹시 급한 일이 제기된것이 아닐가 하고 짐작해보았으나 그런것 같지는 않았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군복상의에 목이 긴 장화를 신고계시였지만 장군님의 표정에는 시종 여유가 느껴졌다.

그러나 장군님곁에서 걸음을 옮기는 박룡의 얼굴은 백지장같이 창백하기만 했다.

6

박룡은 차마 자기가 장군님을 만나뵙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못했었다. 엉겁결에 인사를 올리기는 했으나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할수 없었다. 다만 너무나도 불시에 또 뜻밖에 들이닥친 놀라운 사실앞에 가슴이 떨리면서 귀가 멍멍할뿐이였다. 그는 자기 귀에서 울리는 그 소리가 자기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피의 박동소리라는것을 똑똑히 느끼였다.

그러나 그런 창황중에도 하나의 감정, 언제나 심층밑바닥에 앙금처럼 고여있던 무거운 감정이 서서히 머리를 추켜드는것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하많은 죄로 얼룩진 자기의 지나온 과거에 대한 숨길수 없는 자책감과 피할길 없는 위구심이였다.

(나의 죄많은 과거, 오욕으로 얼룩진 행적을 두고 장군님께서는 무어라고 하실가? 워낙 공산주의자들이란 자기의 계급적의무앞에서는 인간의 정은 물론 혈육의 관계까지도 무시하는 무자비한 사람들이 아닌가!)

저도 모르게 등골로 얼음같은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그는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더없이 비겁하고 용렬하게 느껴져 얼른 고개를 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진 죄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우기 그 벌이 아무리 무겁고 가혹하다 해도 피하거나 감소되길 바라서는 안된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살기도 어렵지만 바로 죽기는 더 어렵다지 않는가!)

박룡은 다른것은 몰라도 자기가 북으로 들어올 때 다진 결심, 그때 다진 맹세만은 장군님께 솔직하게 말씀올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굳어졌다.

이런 생각에 젖어 마당으로 들어서던 그는 마중나온 김운해에게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에 고개를 들었다.

《두분이 한집에서 산다기에 어떻게 사는지 보고싶어서 들렸습니다.》

김운해를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 자기에게로 시선을 옮기시는 순간 박룡은 저도 모르게 어리둥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장군님의 눈가에 미소가 어려있기때문이였고 그 미소가 마치 봄별같이 따사로우면서도 다정한 지기를 대하듯 그렇듯 유정했기때문이였다.

(나라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라있고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고 계시지 않는가! 더우기 나처럼 죄많은 인간을 앞에 두고 저처럼 밝게 웃으시다니?)

박룡은 어쩐지 가슴이 떨리였다. 장군님께서 그토록 밝은 기색으로 자기를 맞아주실줄은 미처 몰랐었다. 죄많은 인생을 구원해보려고 서울장안에 들어섰을 때 자기를 맞이한 눈길들엔 서슬이 어려있었다. 반갑다고 하는 친구들의 눈에도 어딘가 경원의 빛이 스며있었다. 그런데 지금 장군님의 눈빛은 그 어떤 증오도 의심도 경원도 아닌 순수 자애에 넘치는 미소, 마치 가을날의 맑은 호수처럼 티 한점 없이 맑고도 다정한 빛이 어려있는것이 아닌가!

첫 순간에 벌써 장군님의 인품에 감동된 그는 어쩐지 그런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었지만 이런 장군님께 무엇 하나 숨겨서는 안되며 자기의 죄많은 과거사를 속속들이 헤쳐보여드리지 못한다 해도 죄

가 되리라는 느낌이 드는것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군님의 그 미소가 마치 커다란 확대경이 되여 자기의 속마음까지 환히 비치는것 같았고 자기는 그앞에 알몸으로 서있는것 같은 면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마당 한복판에 이르신 장군님께서는 부엌에서 새여나오는 연기를 보시며 혼자소리처럼 말씀하시였다.

《불이 잘 들지 않는 모양이구만.》

그동안 집을 비워두어서 그렇다는 김운해의 대답에 그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러나 부엌옆에 있는 장작낟가리우에 널어놓은 이불이며 여름옷가지들을 보시고는 두사람의 궁상스런 살림살이가 가늠이 되시는듯 한동안 침묵을 지키시였다.

《아무래도 이 집에는 집일을 돌보는 식모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곁에서들 미처 그 생각을 못한것 같은데… 김운해동무도 그렇지만 박룡선생 역시 숱한 고생을 하다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대접이 이처럼 소홀해서 안됐습니다.》

《?…》

박룡은 은연중 흠칫했다. 장군님께서 자기를 선생이라고 부르시는것도 과분했거니와 보다는 대접이 소홀해서 안됐다는 말씀이 그 어떤 색다른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느껴졌기때문이였다.

의심은 흔히 의지가 약한 사람의 필수적산물이라고 하지만 의지가 강하다 해도 믿음이라는것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어쩔수없이 습관된 하나의 타성이기도 한것이다. 언제나 남한테 피해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언제나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그래서 또 언제나 불신과 불안속에서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의심은 더 강한 법이다.

때문에 이미 김운해로부터 장군님께서 영신이에 대해 하시였다는 말씀을 전해들었을 때에도 그는 도리를 저었었다.

《괜한 말로 날 안심시킬 필요는 없네. 도대체 무엇때문에 장군님께서 나같은 역적의 딸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돌리신단 말인가? 전에도 말했지만 난 이미 모든걸 각오한 사람이니 더는 위로하려들지 말아주게.》

그는 자기가 그처럼 혹독한 편견과 무분별한 흥분으로 하여 이젠 내 딸이 아니라고 집에서 내쫓았을뿐아니라 그후에도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지조차 않았던 영신이를 장군님께서 꼭 찾아서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다는 말은 아무리해도 그대로 믿을수가 없었다.

포도넝쿨아래에 있는 꺼칠꺼칠한 널판자걸상에 걸터앉으신 장군님께서는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일본에서 서울로 건너간 박룡선생이 어떻게 다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건 김운해동물 통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얘길 들으면서 박룡선생의 기구한 인생이 바로 복잡한 우리 나라 력사의 반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북과 남으로 갈라진 조국으로 하여 일본에서조차 조련과 〈민단〉으로 갈라져있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글쎄 얼마나 곡절이 많았으면 〈민단〉단장이였던 박룡선생자신이 일본과 서울을 거쳐 평양에 와있고 혈육들은 여전히 세곳에 갈라져있겠습니까, 참! 일본에 있는 영신이 소식은 들었습니까?》

장군님의 눈가에는 밝은 빛이 어리였다.

《한덕수동무의 편지를 보니 영신이가 이젠 어엿한 교원이 되였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평양에 와있다는것을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

박룡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의 기구한 운명과 영신이에 대해 하시는 그이의 말씀에 분명 자기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이 굽이치고있기때문이였다.

(그러니 모든것이 사실이였단 말인가? 정말로 영신이에게 그토록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고 나에 대해서도…)

리성의 목소리는 장군님께서 자기는 물론 영신이한테 돌려주신 사랑이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라는것을 증명하고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있는 완고하리만치 검질긴 편견은 《아니! 아직은 모른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수 있단 말인가. 이제 필경 그 어떤 다른 결론이…》하고 속삭이는것이였다.

숨을 죽인 그는 당장 머리우에 떨어질 장검의 일격을 기다리는 사

람처럼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장군님말씀에 귀를 기울이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김운해쪽으로 돌아앉아 재일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초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였다. 호소문이 아직도 조국의 두리에 뭉쳐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일관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와 바로 그 사상을 명백하게 강조해야 동포들이 민대파들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을것이라고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호소문을 잘 만들어 신문과 방송으로뿐아니라 외무성통로로도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참!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댔구만.》
무슨 생각이 드시였는지 장군님께서는 다시 박룡이에게로 돌아앉으시였다.
《박룡선생!》
우렁우렁한 그이의 음성에 박룡은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는 자기 머리우에 있는 서슬푸른 장검이 마침내 번쩍하고 빛을 뿌리는것을 느끼며 마음을 바싹 다잡았다.
《지영동무를 만나보았습니까? 이젠 외무성도 소개지에서 돌아왔으니까 그도 평양에 있을텐데.》
《?!》
박룡은 불시에 전기에 감전되기라도 한것처럼 와뜰했다.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것인가 하고 가슴을 조이고있던 그에게 있어서 지영이에 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뜻밖이였던것이다.
(지영이라니? 지영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러나 박룡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었다. 실상 지영이에 대한 말씀은 박룡이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찌르는것이 아닐수 없었다. 영신이에 대한 자기의 처사가 혈육은 고사하고 인간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하는것이라면 지영이에 대한 처사는 자기가 짐승중에서도 가장 포악한 야수라는것을 증명하는것이 아닐수 없었다. 때문에 그는 지영이만은 될수록 상기하지 않으려고 했고 흐르는 세월이 체념과 망각의 너울에 씌워 그것을 영영 묻어주었으면 했다. 그만큼 되새기기조차 고통스러웠던것이다.

《그러니 아직도 만나지 못한 모양이구만. …》
장군님의 물으심에 박룡은 황황히 말씀올렸다.
《아닙니다. 만났습니다. 작년 가을 후창에서 있은 환영회때 얼핏…》
《얼핏이라니?》
장군님께서는 리해할수 없다는듯 김운해를 돌아보시였다. 그이의 표정은 어떤 의혹과 함께 두사람사이에 무슨 심상찮은 일이라도 있지 않나 하는 기색이시였다.
사실 후창에서 있은 의거자환영연에서 지영이를 마주한 순간 박룡은 굳어지고말았다. 자기가 북으로 올 결심을 할 때까지도 북에 있는 지영이의 존재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것이 더없이 후회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천황》이나 리승만이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던 자기가 어째서 이 온순한 청년앞에서는 고개조차 들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의 마음이란 확실히 상대에 따라서가 아니라 량심에 따라 모질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는것을 통감했었다.
《장군님!》
박룡은 저도 모르게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비탄이 저절로 그이앞에 나서게 했던것이다.
《저는 나라와 민족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큰 사람입니다. 장군님앞에 이렇게 서있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것처럼 지영이 그 사람한테도 저는 용서를 바랄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길 죽이려고 했던 원쑤를 용납하겠습니까.》
자기 학대의 감정이 북받쳐오른 박룡은 자신을 더 모질게 타매하고싶었으나 목이 잠겨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를 만났을 때 전 겨우… 이렇게 한마디 했을뿐입니다. 이제와서 아무리 잘못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 말이 그에 대한 저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지만 보다는… 잘못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총화이기도 합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

라는 말이 바로 저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산 지난날을 이제 와서 후회해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까?》
《…》
박룡은 입을 열수가 없었다. 아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대답을 찾을수가 없었다. 다만 씻을길 없이 더럽혀진 몸으로 장군님앞에 서있는 자신이 그지없이 죄스럽고 고통스러울뿐이였다. 동포들의 기대를 뿌리치고 《민단》을 조직했던 일이며 외세를 등에 업은 리승만괴뢰도당과도 일시 휩쓸렸던 생각을 하니 새삼스레 오금이 저려들었다. 김구가 리승만이한테 살해되고 미국놈들의 비행기가 하늘을 덮으며 북으로 날아갈 때에야 더우기는 오만한 미제와 추종국가무력들에 무참하게 유린당하는 조국강토를 볼 때에야 비로소 가슴속에 꿈틀거리는 민족의 얼을 느끼며 자신의 반생을 돌이켜보았었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때늦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물론 우리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과거도 중시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마당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러시다가 곧 뒤로 돌아서시며 심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시하는것은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오늘을 통해 자기의 존재가치를 나타내지만 그 오늘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나서야 비로소 생겨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비록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에 와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없이 반갑게 여깁니다.
박룡선생도 말했지만 흔히 사람들은 후회는 때늦은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자기 운명에 순종하는 숙명론자의 비관에 지나지 않기때문입니다. 만약 후회가 늦은것이라면 잘못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진리를 찾게 되고 그 진리에 따라 갱생할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난 후회가 늦은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은 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난 그것을 바로 우리를 찾아온 박룡선생을 통해 더 똑똑히 느끼게 됩니다.》
장군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어떤 사람들은 박룡선생의 과거에 대한 계산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박룡선생자신이 스스로 평양에 온 이 하나의 사실로 다 계산이 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룡선생자신은 어떤 벌이라도 받을 각오를 하고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결코 지난날 잘못에 대한 재판이나 하고 벌이나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잘못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또 그 잘못이 크건 적건 그것을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면 다 소중히 대합니다.

옛말에도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고 했듯이 아무리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 해도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고 뭉쳐지는것보다 더 귀중한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난 박룡선생을 이렇게 만나고보니 남조선정객들이나 일본에 있는 〈민단〉 동포들을 다 만난것처럼 반갑고 민족을 위한 길에서는 누구나 하나의 마음으로 뭉칠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집니다.》

다시 박룡이앞으로 다가서신 장군님께서는 나직하나 힘있는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박룡선생! 선생은 아직 인생총화할 때가 아닙니다. 남들은 쉽게 온 길을 그처럼 힘들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총화를 한단 말입니까. 이제부텁니다. 귀중한 반생을 〈천황〉 한사람을 없애려는데 써버렸다면 이제 남은 여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쳐야 합니다. 민족의 숙원을 이룩하자면 할일이 많습니다. 난 박룡선생의 여생이 조국의 통일과 해외교포운동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믿습니다.

자, 박룡선생! 고개를 들고 힘을 내시오. 인생은 결코 체육경기처럼 단회승부가 아닙니다. 옛날 왜놈들을 전률케 한 조선사람의 기개를 다시한번 보여달란 말입니다.》

《?!》

박룡은 저도 모르게 우두망찰 굳어져버렸다. 온몸의 피가 일시에 멎는것 같은가 하면 한데 뭉쳤던 피가 한곬으로 무섭게 뿜어져나오려는것 같았다. 흉곽을 때리는 드세찬 충격에 그는 저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였다. 입에서는 저절로 신음이 터져나왔다.

《아－》

그 신음은 한생을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진정한 믿음에 대한 감탄이였고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는 꿈만 같은 사실에 대한 경악이였다. 그런가 하면 지나온 자기 과거에 대한 새삼스러운 오열이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더 그의 심장을 강하게 사로잡은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장군님에 대한 새로운 느낌 즉 진정한 위인에 대한 경탄이였다. 그는 전에도 장군님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지만 직접 장군님을 대하고보니 진정한 위인은 말이나 책으로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다는 진리, 오직 서로 마주하여 감정으로 아니, 심장으로 깨달을 때라야 그 참다운 면모를 다소나마 리해하게 된다는 진리를 비로소 체득한듯싶었다.

(아— **김일성**장군님!)

박룡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치며 옆에 있는 포도나무줄기를 두손으로 꽉 부둥켜쥐였다.

7

장군님께서는 지영이를 불러 그가 박룡이를 만났을 때의 일을 확인해보시였다. 아무리해도 그가 박룡이를 그처럼 매정하게 대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으시였다. 그러나 지영의 립장은 사소한 아량도 없었다. 오히려 박룡이와의 관계에서 자긴 아무 잘못이 없을뿐더러 있을수도 없다는 태도였다.

《지영동무! 난 그래도 동무가 그렇게까지 생각할줄은 몰랐소!》

《?!》

지영은 갑자기 어리둥절한 눈길로 장군님을 우러렀다. 장군님께서 무엇때문에 자기를 섭섭하게 여기시는지 알수가 없어서였다.

방금 그동안의 사업정형이며 박룡이에 대해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오늘은 장군님께 다소나마 기쁨을 드릴수 있게 되였다는것으로 하여 저으기 흐뭇한 기분이였다. 재일동포들이 중국홍십자를 통해 조국에 보내온 지성어린 구호금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미처 그 소식을 보고드리기도 전인데 장군님께서는 안타까운 눈길로 마

주보며 질책부터 하시는것이 아닌가!

아직 한번도 장군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어본적이 없는터여서 더 가슴이 활랑거렸다.

《그래,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자기앞으로 가까이 다가서시는 장군님을 육감으로 느끼자 지영은 한결 더 속이 가드라들었다.

《그럼 말해주지. 난 사실 동무가 지난날의 일들쯤은 대범하게 일소에 붙일줄 아는 사람이라고 믿었소. 그것이 비록 가슴아픈 일이라 해도 오늘의 요구에 순응시킬줄 아는 아량쯤은 있는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요. 그런데 뭐요? 뒤늦게나마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고 우리를 찾아온 박룡선생을 그렇게 대하다니? 작년에 후창에서 잠간 만나본 후로는 한번도 찾아가지 않았다며?》

(박룡이?)

그제야 장군님께서 무엇때문에 자기를 책하시는가를 알게 된 지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자기가 해야 할 말들을 고르어보았다.

《왜? 그와의 관계에선 잘못이 없다는거요? 오히려 지난날에 대해 말한다면 가슴치며 후회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라는거요?》

장군님의 어조는 준절했다.

이때 문을 열고 집무실에 들어서려던 서기가 군복의 량허리에 두 손을 얹으시고 엄한 눈길로 지영이를 지켜보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일별하고는 자기가 들어설 계제가 아니라고 여겨졌는지 조용히 문을 닫고 물러섰다.

《어서 말해보오!》

실상 박룡이에 대해서라면 할말이 많은 지영이였다. 터무니없는 편견으로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결국 그 조폭한 성미로 하여 일점혈육인 영신이마저 쫓아냈던 그가 아닌가! 그러나 그건 자기들에 한한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자, 같이 일하자고 손을 내민 사람들을 배반하고 동포들을 반대하여 갖은 책동을 다 감행한 그 죄행이야 어딜 간단 말인가! 그 숱한 악행들은 력사가 또 조국이 용서치 않을것이다, 저지른 죄행이 그렇게도 엄청난데 뒤늦게 잘못을

뉘우쳤다 해서 그것이 해소된다면 인간에게 있어 량심은 무엇때문에 필요하며 사람이 조국과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데 따라 평가된다는 기준은 어디에 소용된단 말인가!

박룡이에 대한 이런 견해에는 드팀이 없었으나 영신이를 생각할 때면 사태가 다른 양상으로 번져지면서 머리속이 복잡해지군 했다.

민족을 배반한탓으로 동포들로부터 배척을 받지 않을수 없는 처지에 있는 박룡은 자기에게도 역시 이를 갈지 않을수 없는 원쑤라면 그 원쑤로 치부하는 사람의 딸은 바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처녀였다. 원쑤인 아버지에 대한 저주와 그 원쑤의 딸에 대한 사랑, 이 량자사이에 있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할 때면 그는 저도 모르게 눈앞이 빙빙 돌면서 현기증이 일었다. 그때마다 그는 두 사람이 부녀지간이라는 혈연관계를 애써 무시하려고 했다.

(아버지라고는 하지만 키우지도 돌보지도 않았을뿐더러 도리여 박해까지 한 딸을 어떻게 자식이라고 하랴! 나서부터 영신이는 조련사람들이 키웠고 조국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살아온 환경으로 보나, 정으로 보나 또 서로가 택한 길로 보아 이들은 결코 부녀지간이 아니다. 도리여 원쑤지간이나 같은것이다!)

그는 자기의 이런 주장이 얼마나 일면적인가 하는것을 따져보지도 않았거니와 따져볼수도 없었다.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영신이와 나누었던 가지가지의 추억들을 어느 정도 편안한 마음으로 더듬을수 있었다.

사실 영신이와 있었던 일들을 되새길 때면 지영은 더없이 애절한 그리움에 사무치군 했다. 그러나 이젠 아무리 그립고 보고싶어도 아득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만나기는 고사하고 소식조차 한마디 전할수 없었다.

그때마다 그는 자기가 서울로 떠나기 전날 그처럼 함께 가자고, 함께 가지 못한다면 자기의 운명을 맡아달라고 간절히 또 열렬히 속삭이던 영신이의 애틋한 모습이 떠오르면서 한숨이 터져나오군 했다. 그때 영신이의 청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행동했던 자기가 아주 의젓하고 고상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어떤 때는 바로 그것으로 하여 서로가 오늘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였다는 후회에 잠기게 되면서 그렇게 행동한 자신이 더없이 나약하고 우유부단하게 여겨지기도 했

다. 그럴 때면 그는 이렇게 속삭이며 자신을 위로하군 했다.

(할수 없지! 그게 우리의 운명이니까. 아무리 그리워도 찾지도 못할 영신이가 아닌가! 이제 와서 그를 생각한다는것은 우둔한 노릇이다. 잊자! 잊을수밖에!)

하지만 작년 10월, 박룡이가 인민군대를 따라 북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지영은 그쪽으로 일을 보러 가면서 그가 있는 후창에도 갔었다. 그런 행동이 박룡이와 영신이는 부녀지간이 아니라 남남이라고 치부했던 자기의 생각과 얼마나 모순되는가 하는것을 미처 가리지 못했다. 단지 그를 만나면 영신이 소식을 알수 있으리라는 그 한가지 충동뿐이였다. 특히 그때는 김운해가 가지고온 한덕수의 편지를 통해 영신의 소식을 알게 된 직후여서 더욱 궁금했던 것이다.

그날 자기를 마주한 박룡이가 줄곧 어색한 표정을 지을뿐 영신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치지 않을 때 지영은 그가 딸에 대한 말을 입밖에 내지 않은것이 말하기 거북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영신의 소식을 모르기때문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모르긴 해도 영신이자신이 수도원에서 나와 학교교원으로 일할 때는 물론 학교가 폐쇄된 다음에도 서울에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 한통 띄우지 않은것이 분명했다.

(하긴 그럴수밖에! 이젠 영신이도 자기한테 아버지가 없다고 여길테니까!)

그제야 지영은 두사람이 부녀지간이 아니라 원한을 품은 원쑤지간이라는 자기의 평소의 관념으로 돌아서서 랭담한 눈길로 박룡을 바라보았다.

《면목이 없네!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자네 가슴에 새긴 상처를 씻는단 말인가! 일언이폐지하고 난 내스스로가 대역부도의 사약을 받아야 할 몸이라는걸 알고있네.》

이 한마디만 한 박룡이였다.

지영은 영신이에 대한 소식을 듣자는 하나의 목적으로 그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도 자기는 그런 의도에서 온것이 아니라는듯이 아주 태연한 어조로 말했다.

《뭐 그런 말을 듣자고 찾아온건 아닙니다. 또 그건 제가 아니라도 후에 다 계산될테니까요. 전 다만 우리들사이에 전에 있었던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없었던것으로 치자는겁니다.》

자기로서는 그만하면 관대하게 외교일군으로서의 아량을 가지고 박룡이를 대했다고 여겼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그런 자기를 나무라시는것이 아닌가! 그것도 옹졸하고 편협하다고까지 책하시는것이 아닌가!

《동문 그를 만나 그와 있었던 일들이 없었던것으로 하자고 한 모양인데 어떻소? 그게 정말로 그를 리해한거요? 아니, 내가 보건대 그건 리해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요. 도리여 동문 그를 우롱했고 자신을 기만하고있을따름이요!》

《?!》

지영은 얼른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자기를 마주보시는 장군님의 엄한 눈길을 대하자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졌다.

《이것 보오. 그는 새롭게 살 결심을 품고 우리를 찾아온 사람이요. 자기의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괴로워하고있단 말이요.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칠 때에야 진정으로 대하는게 도리가 아니겠소. 그런데 동문 그토록 괴로워하는 그에게 더우기 자신의 잘못으로 하여 상처를 입은 동무앞에서 더없이 고통스러워하는 그에게 마음의 문을 꼭 닫아매고 랭정하게 대했단 말이요. 진정한 리해란 뭐겠소? 외면하는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주고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는게 아니겠소.》

지영은 어쩐지 가슴을 찌르고드는 그 무엇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왜서인지 점점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다.

《생각해보오. 쉰나이가 다된 사람이 가족들을 뒤두고 단신으로 우리한테 왔소. 지난날의 죄과를 용서받기 어렵다는것을 알고 왔단 말이요. 난 그자체로써 벌써 그가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오. 그런데도 우리가 그의 과거를 들추면서 랭대해야 옳소? 동무처럼 지난날 그에게 진정을 유린당했다 해서 오늘 다시 그의 진정을 묵살해야겠는가 말이요. 만약 그런다면 우린 혁명가이기전에 우선 피가 있고 열이 있는 인간이라고 할수 없지. 박룡선생은

자기가 지영이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했지만 난 도리여 동무가 그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오.》

천천히 창문가로 다가서시여 누렇게 황이 든 느티나무잎사귀를 바라보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대하느라니 지영은 저도 모르게 가슴이 후두두 뛰면서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격정이 솟구쳐오르는것이였다.

《영신이 문제도 그렇지!》

다시금 되돌아서시는 장군님의 표정에는 방금전의 노여움대신 안타까움이 어려있었다.

《내가 보건대 동문 지금도 영신이를 마음속으로는 잊지 못해하면서도 앞으로 언제 만날지 모른다는데서 잊으려고 하지. 거기다가 과거 흠이 많은 사람의 딸이라는것도 작용하고있단 말이요. 그런 리유로 해서 이젠 억지로라도 자기는 영신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려 한단 말이요. 그래, 결국 이게 자기 량심을 속이는게 아니고 뭐요.》

지영은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장군님께서 어쩌면 자기의 심중을, 아직 그 누구에게도 나타내보인적이 없는 마음속의 비밀을 그리도 적라라하게 투시해보실가 하는 놀라움과 함께 애써 감추려고 하던것이 드러났을 때와 같은 수치감이 온몸을 휩싸는것이였다. 그러면서도 어째선지 한편으로는 마음이 후련하기도 했다.

《언제 만날지 모른다고 해서 잊게 되거나 부모들때문에 좌우되는 사랑이라면 그게 무슨 사랑이요?》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지영이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난 동무와 영신이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조국에 있는 우리와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들을 대비해보군 하오. 조국과 일본, 재일동포들과 우리 그래, 조국에 있는 우리가 재일동포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산다고 해서 또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잊을수가 있소? 잠시나마 내버려둘수가 있는가 말이요. 우리의 손길이 가닿지 못하는 이역땅에서 사는 그들이기에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거고

끝까지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거요. 나는 그래서 언제나 재일동포들을 잊을수가 없고 또 그래서 동무한테도 장가가라는 말을 안하는거요. 생각해보오. 동무가 그를 버리면 일본에서 동무를 바라보고 사는 영신이는 어떻게 되오? 고스란히 동무를 위해 바쳐오는 그의 일생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요.》

《?!》

갑자기 커다란 충격이 가슴을 치는 바람에 지영은 망연자실해지고말았다. 조국과 재일동포들의 운명, 자기와 영신이의 앞날…

저로서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어 막연하기만 하던것이, 그것을 생각할 때면 저절로 그 어떤 절망과 우울한 심정에 사로잡히군 하던것이 대번에 명백하고도 뚜렷한 륜곽으로 눈앞에 나타나면서 벅찬 격정을 용솟음치게 하는것이였다.

(그래! 난 확실히 이때까지 영신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주견이 없었다. 그저 생활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해답 즉 그시그시의 일에만 쫓겨다녔을뿐 어떻게 해야 한다는 판단도, 어떻게 하리라는 결심도 없었다. 더우기 영신이의 운명을 재일동포들의 운명과 결부시켜 생각하기는 고사하고 그런 각도에서 그의 앞날을 따져보지도 못했었다. 사실 영신이야말로 나 하나를 믿고 살아왔으며 지금도 나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것이 아닌가!)

《물론 아직은 우리가 일본땅에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동포들이 조국땅에 자유로이 오지도 못하오. 그러나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것은 아니요. 이제 멀지 않아 서로 오가게 될 날이 있을것이고 동무들도 꼭 만나게 될거요.》

《?!》

저로서도 알지 못할 흥분에 휩싸인 지영은 한없이 경건한 심정에 젖어 장군님을 우러렀다. 조금전까지의 두렵거나 수치스러운 감정은 말끔히 사라지고 세찬 불길과 같은 감정이 가슴을 활활 태우는것이였다.

장군님과 담화를 하거나 사업에 대해 토론할 때는 물론 오늘처럼 생활에서 나타난 결함에 대해 지적을 받는 경우에도 그 어떤 충동, 각별한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것을 지영은 새삼스레 체험하였다. 그

것은 장군님께서 하시는 충고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동시에 자기에게 어떤 힘, 여태껏 저로서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힘이 있다는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힘을 한번 써보고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것이였다. 그는 그것이 바로 장군님께서만이 지니고계시는 독특한 인격과 그 인격이 풍기는 위대한 감화력이라는것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다시 출입문이 열리면서 서기가 들어섰다. 이번에는 방안분위기가 어떻든 용건을 말씀드리려고 결심한듯 그는 앞으로 나섰다.

《장군님! 무상치료문제와 관련하여 토론할 보건부문 일군들이 다 모였습니다.》

《알겠소!》

장군님의 안색이 한결 부드러워졌다는것을 느낀 서기는 한걸음 나서며 한마디 더 보태였다.

《그리고 림춘호동무가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책상이 있는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던 장군님께서는 곧 서기를 향해 돌아서시였다.

《그렇소? 그래, 그가 지금 어디 있다오?》

《일시적후퇴시기 7군단에 편입되여 싸우다가 재진격할 때 태천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문에 지금 전상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다쳤다오?》

《좀 심한것 같습니다.》

《심하다? 알겠소. 내 알아보겠소.》

림춘호에 대한 말에 지영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재중동포들과의 사업을 위해 중국동북에 파견돼있다가 조국으로 돌아온 후 강원도당위원장으로 일하던 그였으나 일시적후퇴시기 그만 반당분자의 간계에 넘어가 도내인민들의 철수조직을 제대로 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엄중한 당적책벌을 받았던것이다.

서기의 보고로 미루어보아 장군님께서 그런 림춘호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있는가를 알아볼데 대한 과업을 주신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자 지영은 새삼스레 가슴이 뭉클했다.

림춘호와 잘 아는 사이라는데도 있었지만 한 전사에 대한 사랑, 그것도 책벌을 받은 일군에 대한 사랑이 방금 말씀하신 박룡이에 대한 믿음과 겹쳐지면서 은연중 가슴을 후덥게 했다.

《지영동무!》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책상앞으로 다가서시며 문건들을 간종그리시던 그이께서는 다심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난 동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할뿐아니라 그것을 박룡선생에게 실천으로 증명해보이리라 믿소. 그것도 될수록 빨리 말이요. 알겠소?》

지영은 《알겠습니다.》하고 힘찬 대답을 올리려고 했으나 어째선지 입을 열수가 없었다.

8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믿어마지않던 생각이나 견해를 쉽사리 바꾸기 어려워하기마련이지만 반대로 그 생각이나 견해를 한순간의 계기로 바꾸는 사람도 있는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였다는것을 깨닫기만 하면 즉시 행동으로 나타내기까지 해야 시원해하는데 그것은 결코 성격이 조급하거나 경솔해서가 아니라 도리여 남달리 천성이 대바르고 올곧기때문인것이다. 지영이도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하는 젊은이였다.

외무성에 돌아와 뒤마당에 세워놓은 야전용승용차에 오른 그는 차를 곧바로 대성산쪽으로 몰았다. 전쟁 초기부터 직접 몰고다니면서 일보는 쏘련제 《엠. 까.》였다.

당장 비가 쏟아질듯 한 날씨였으나 그의 마음은 맑게 개인 가을하늘처럼 창창했다. 차가 모란봉을 지나 대성벌을 끼고 달리다가 통나무들을 잇대여 설치해놓은 합장강림시다리에 들어섰을 때에는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 코노래까지 흘러나왔다.

그는 자기가 지금 체험하고있는 감정이 더없이 귀중한 감정일뿐아니라 아무나 쉽사리 받아안을수 없는 아주 고귀한 감정이라는것

을 모르지 않았다. 그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신 장군님이 고마왔고 또 그런 기쁨을 마음껏 음미할수 있게 된 자신의 존재가 자랑스러웠다. 한마디로 말해 행복이라고 할수 있는 벅찬 환희의 격정이 가슴속에 꽉 차오르는것이였다.

스레트를 씌운 단층집들이 줄지어 들어서있는 토성동에 들어서기바쁘게 그는 차를 한쪽오솔길에 몰아세우고는 박룡이가 거처하는 집으로 향했다.

해묵은 느티나무아래에서 제기차기를 하던 마을조무래기들이 풍도 치지 않은 야전차를 보고는 마치 좋은 장난감이라도 만난듯이 환성을 지르며 달라붙었으나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키높이 자란 피마주들이 주런이 서있는 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던 지영은 포도넝쿨이 우거진 집앞에 이른 순간 그 자리에 멈춰서고말았다. 마당가에 있는 나무낟가리옆에서 적삼을 벗어붙인 박룡이가 장작을 패고있었다. 자루를 짧게 쥐고 하는 서툰 도끼질도 도끼질이였지만 반백이 다된 헝클어진 머리며 후줄근한 바지가 어쩐지 오늘따라 측은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딸은 일본에, 후처와 아들은 서울에 둬두고 혼자몸으로 왔다고 하시던 장군님의 말씀이 새삼스레 폐부를 찔렀다. 부엌옆에 있는 뽐프장에서는 한 녀인이 가을배추를 손질하고있었다. 분명 장군님분부가 계신 후부터 집안일을 거들어주고있는 녀인같았다.

바지괴춤을 추어올린 박룡이 다시 통나무를 집어 모태우에다 눕혀놓았다. 귀퉁이만 여러군데 벗겨진것으로 보아 이미 여러차례 도끼질을 했지만 매번 헛방만 친게 분명했다. 아니나다를가 이번에도 도끼를 내려치자 눕혀놓은 통나무가 벌떡 뛰여일어나더니 휭하니 옆으로 달아났다.

목에 건 수건으로 땀을 문지르며 고개를 기웃하는 품이 어떻게 해야 요놈을 요정낼가 궁리하는것 같기도 하고 이젠 요만한것조차 박살내지 못하는 자신의 무기력을 허구프게 여기는것 같기도 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우습기도 했으나 그냥두었다가는 다치기라도 할것같아 지영은 마당안으로 들어서며 큰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도끼질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미리부터 준비했던 말이 아니여서 퍼그나 자연스럽게 나갔다. 뜻밖에 나타난 지영이의 모습에 박룡의 두눈은 둥그래졌다.

《자네가 어떻게?…》

《왜요. 제가 이 집에 오면 안됩니까?》

박룡이앞으로 다가선 지영은 다짜고짜 그의 손에서 도끼부터 앗아쥐였다.

흔히 고집이 센 사람들이 그런것처럼 박룡은 자기 얼굴에 나타나있던 의아한 빛을 이내 침울한 표정으로 덮어버리며 태연한 기색을 지었다.

지영은 그가 지금 속으로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째서 불시에 나타났을가 하고 따져보고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자 어쩐지 자기가 찾아온 목적에 대한 말을 꺼내기가 거북해지는것이였다. 그래서 그는 도끼를 쥔 손에 침부터 발랐다.

상처투성이가 된 통나무토막을 모태우에가 아니라 땅바닥에 수직으로 세워놓은 그는 장작은 이렇게 패야 한다는듯이 도끼를 머리우에 추켜들고 힝— 하고 소리치며 힘껏 내리조겼다. 단매에 쩍하고 갈라지면서 허연 속살이 드러났다. 반달형이 된 나무토막을 다시 세워놓고 내려치자 이번에는 그것이 세모꼴로 변했다.

한번씩 내려칠 때마다 형태가 각이하게 달라지군 하는 나무토막을 신기하게 지켜보는 박룡이였으나 미간에 새겨진 주름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점점 더 깊어지는것이였다.

《여보게!》

마침내 지영이앞으로 다가선 박룡은 의미심장한 눈길로 마주보았다.

《자네가 어째서 나를 찾아왔는지 짐작이 가네. 난 자네가 어느땐가는 이렇게 찾아올줄 알았네. 사람의 마음이 흐르는 물같아서 세월이 지나면 지나간 일은 잊게 된다고 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는걸 아네. 흐르는 물옆에는 언제나 소가 있다는걸. 그 소란 세월이 지나도 흐르지 않고 고여있을뿐더러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부식되는 복수심이라는거지. 나 역시 그랬으니까. …》

지영은 그런게 아니라고, 자기가 찾아온것은 오히려 그와는 정반

대로 편협했고 옹졸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지난 일들에 대해 허심하게 속을 터놓기 위해 왔다는것을 말하고싶었으나 심각한 기색을 짓고있는 박룡이를 보느라니 그런 말을 할수가 없었다.
《말해두지만 난 자네의 심정을 충분히 리해하네. 자넨 지금 이 모태우에 통나무가 아니라 나를 올려놓고 박살내고싶을테지. 난 어떤 경우에도 그걸 피할 생각은 없네. 그렇지만 여보게.》
박룡은 갑자기 한걸음 나서며 지영의 팔을 붙잡았다.
《내 말 한마디만 들어주게. 그걸 들은 다음에 마음대로 하란 말일세. 그렇지 않아도 난 자넬 한번 만나려던 참이였네.》
심각한 눈빛으로부터 다시 긴장한 기색으로 변하는 박룡의 표정을 통해 지영은 그가 하려는 말이 지금 순간적으로 머리속에 떠오른것이 아니라 이미부터 가슴속에 품고있던 생각이라는것을 그리고 그것을 털어놓기가 주저되지만 털어놓지 않을수 없어 말한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지영은 그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든 이젠 그것이 자기에게는 대수로운 일로 될수 없으며 하찮은것이라고 치부하면서 너그러이 받아들일 마음으로 마주보았다.
《이건 자네한테만 털어놓는거고 또 자네만이 힘을 써줄수 있기에 말하는거네. 이미 김운해부장하고는 말이 있었네만… 저기 좀 앉지 않겠나?》
퇴마루를 가리켜보이며 서둘러 그리로 다가서는 박룡의 태도는 마치 지영이가 자기 말을 막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하는듯 했다.
《자네야말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지 않나.》
퇴마루에 걸터앉은 박룡은 잠시 지영이를 바라보고나서 조용히 그러나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가며 말했다.
《오욕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내가 어떻게 락조의 황혼기에 이런 인생의 봄을 맞이했는가 하는걸 말일세. 이제 와서야 난 나를 그 썩은 늪에서 건져 환생의 길로 이끌어준 그 은광이 어떤것인가 하는걸 다소나마 깨닫게 되네.

어찌 나쁜이겠나. 일본에 있는 딸 영신이까지도 재생의 길을 걷고있지. 난 우리 부녀에게 이런 새삶을 누리게 해준 그 은혜에 뒤늦게나마 티끌만 한 갚음이라도 하고싶은거네.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지만 나야말로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아닌가!》

지영은 그의 표정이며 목소리에서 그가 말로써는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진정이 가슴속에 소용돌이치고있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박룡이에 대한 새삼스런 생각이 들면서 그를 고깝게만 여기며 외면해온 자기의 처사가 다시금 뉘우쳐지는것이였다.

《사람이 은혜에 보답한다는것이 무엇이겠나? 그건 그 고마움을 마음으로 느끼기만 할게 아니라 행동으로 표시해야 한다는데 있지. 이건 백범이 나에게 하던 말일세. 장군님 만나뵙던 일을 돌이킬적마다 그는 늘 장군님뜻대로 자기가 행동하고있는가를 따져보군 했었네. 나도 지금 바로 그런 심정이란 말일세. 그래, 내 마음을 리해하겠나?》

그의 진정에 감동된 지영은 이젠 그가 어떤 요구를 한다 해도 들어주어야 하리라는 일종의 의무감이 작용했다.

《도대체 제가 도울수 있는 일이란게 어떤겁니까?》

박룡이에게 시선을 옮긴 지영은 주춤하고말았다. 이제까지 긴장한 빛을 띠고있던 그의 얼굴이 금시 근엄한 빛으로 변해 생판 딴사람을 보는듯 했기때문이였다. 분명 그가 하려는 부탁이라는것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것이 틀림없었다.

한동안 말이 없던 박룡이 조용히 숨을 들이긋고나서 입을 열었다.

《자네가 외무성에 있기에 부탁하는건데 나를 일본에 좀 보내달라는거네.》

《예?!―》

지영은 소스라쳤다. 자기가 혹시 잘못 듣지 않았나싶어 쳐다보는데 박룡은 더욱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네. 난 일본에 가야겠네. 꼭 가야겠단 말이네. 자네도 알겠지만 일전에 우리 집에 오신 장군님께서 재일동포들에 대해,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해 얼마나 걱정을 하셨나. 놈들의 탄압과 종파들

의 책동으로 하여 운동이 시련을 겪고있지만 그 방도에 대해 알려주기는 고사하고 안부조차 한마디 전할수 없다고 안타까와하시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고있을 한덕수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였네.
솔직히 말해서 난 요즘 그 일로 해서 견딜수 없는 심정이네. 장군님께서 그처럼 가슴아파하시는데 편안히 있다면 난 벌써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문제는 뭔가?》
박룡은 이것이야말로 중요하다는듯 손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장군님의 그 걱정을 덜어드릴 적임자가 바로 나라는거네. 덕수 그 사람도 내가 가면 얼마나 기뻐하겠나.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참된 보람이 있다고 한 자기의 말이 그대로 증명된 나를 보면 아마 백배의 힘을 낼거네. 나 역시 잘못 산 지난날을 그에게 또 동포들에게 털어놓고 속죄하고싶고… 난 오늘에 와서야 내 한생의 총화는 바로 내스스로가 첫발을 잘못 내디디였던 일본에서 마무리되여야 한다고 믿는단 말일세. 그리고 또 하나의 리유는 지금 못된짓을 하는 원철이나 리종훈이는 누구보다도 내가 가야 그 정체를 발가놓을수 있다는거네.》
박룡은 자기의 원쑤인 원철이와 자기가 《민단》단장으로 있을 때 부단장을 하다가 지금 민전의 책임적인 위치에까지 올라앉은 리종훈이가 어떤 놈인가를 자기만이 아는 사실들을 들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마치 자기의 평생소원이 지영이한테 달려있기라도 한것처럼 그는 온갖 조건들과 가능성을 렬거했다.
박룡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영은 그 어떤 충동과 함께 흥분을 누를길 없었다. 그것은 여태껏 저로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박룡의 가슴속에 간직되여있는 진정에 대한 감탄이였고 한편으로는 그의 부탁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심까지 한 박룡에 대한 놀라움과 고마움이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를 대할적마다 한덕수며 재일동포들에 대해 그처럼 걱정하신 장군님이신데 어째서 자기는 한번도 박룡이처럼 그 걱정을 덜어드릴 생각은 못했을가 하는 후회와 자책이였다.
그런 자격지심으로 하여 지영은 잠자코 있었으나 박룡은 그의 침

묵을 제나름대로 해석한듯싶었다.
《물론 내가 이런 말까지 한다는게 주제넘는 소리라는걸 아네. 수신제가후에 치국평천하라고 제 몸 하나, 제 식솔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나라걱정이겠나. 그러나 이 일만은 그럴수가 없네. 이건 나라일이기 전에 내자신의 일이고 또 내가 해야만 할 일이란 말일세. 안 그런가?》
박룡이의 간절한 표정을 지켜보느라니 지영은 더더욱 어떤 자책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 이는 충격을 다잡으며 말했다.
《선생님의 심정은 리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본에 간다는건 어려울것 같습니다. 우선 서로 국교가 없는데다가 지금은 전쟁이 아닙니까?》
《국교?》
지영이를 마주보는 박룡이의 두눈에는 대뜸 어떤 혐오와 함께 랭소가 어리였다.
《별소릴 다하는군! 그래, 국교가 있어서 그놈들은 우리 땅에 군대며 함대를 마구 들이미는가? 국교가 있어서 소해정을 타고 원산앞바다에까지 기여들어 미국놈들의 길잡이노릇을 하는가 말일세. 놈들은 우릴 먹자고 달려드는데 우린 사람 하나 갈수 없다? 남으로해서 북으로 온 내가 어째서 남으로 해서 일본엔 못 간단 말인가! 헛 그것참!》
지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으나 박룡은 그가 하려는 말을 다 짐작한다는듯 손을 홱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보니 자넨 그새 아주 훌륭한 외교관이 됐네그려!》
지영은 자기에 대한 박룡의 힐난보다도 그의 말에 담긴 진실, 피할길 없는 진실에 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사실 일본은 지금 미제의 앞잡이가 되여 군대와 함선을 우리 나라에 마구 들이밀고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린 국교를 따지면서 안부조차 전하지 못하다니! 어째서 놈들은 국제법을 유린하면서 침략까지 하는데 우린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 우리도 응당 일본에 갈수 있으며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자 대뜸 가슴이 활랑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길을 박룡이가?)
이번에는 이런 의혹이 갈마들었다.
(아니, 그는 갈수도 없고 가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불현듯 지영은 눈앞에 번쩍하고 작열하는 섬광에 놀랐다. 평소에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급작스럽고도 격렬한 충격이였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고개를 쳐든것을 느꼈으며 그것이 자기를 점점 대담한 길로 이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차렸다. 그것은 바로 더없이 중요한 일을 스스로의 결심에 의해 스스로가 결정하게 될 때 체험하게 되는 그런 충동이였다.
(그렇다! 이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맡아야 한다. 이 일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내가 적임자가 아닌가! 장군님의 뜻을 덕수동지에게 전달하는것이며 호소문내용을 일군들에게 알려주는것 역시 내가 해야 할 임무인것이다. 그리고 영신이를 만나…)
숨이 가빠오른 지영은 어느새 자기가 자리를 차고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무언가 억제할수 없는 충동이 가슴을 태웠다. 어느덧 마음은 확신에 넘쳤다. 마치도 난데없이 그 무슨 특별한 권리, 자기는 반드시 일본에 가야 하며 가되 조금도 위구를 느낄 필요가 없을뿐더러 자기를 노리고있는 위험성따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권리라도 부여받은듯 한 심정이였다.
속으로는 더 깊이 따져보면서 결론지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벌써 자기가 새롭게 찾아낸 길에 뛰여들고있다는것을 명백히 깨달았다. 그러나 그런 자기의 속심을 박룡이가 눈치챌가봐 그는 자못 난감한 기색을 지은채 말했다.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위험한 일인데다가 제 혼자 결심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마당으로 내려선 지영은 다시 도끼를 거머쥐였다. 그리고는 아까보다도 더 힘찬 동작으로 나무를 조겨대기 시작했다.

제 4 장

1

우아한 해안미와 수려한 산악미로 하여 일본의 명승지치고도 첫째가는 관광지로 꼽히고있는 이즈반도의 아지로산정에는 아담한 려관 한채가 자리잡고있었다. 그 려관집 창밖으로는 멀리 백설을 이고있는 삿갓모양의 후지산의 설경과 아따미해안에서 기여오르기 시작한 우불구불한 차길이 한눈에 빤히 내려다보이였다. 그 반대편인 태평양이 환히 펼쳐져있는 사가미만쪽에서는 크고작은 섬들이 푸른 바다우에 점점이 떠있어 려관방안에서 좌우량쪽을 바라보느라면 마치 황홀한 절경을 그린 한폭의 풍경화에 둘러싸여있는듯 한 기분이였다.

그러나 방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런 풍치에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두 방사이를 가로지른 미닫이를 터뜨려 옹근 누비돗자리 열여섯조의 널직한 방안에 근 열댓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둘러앉아있었지만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얼마나 분위기가 팽팽한지 막 살벌한 기운이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런 숨막히는 분위기로 하여 방안에 있는 당자들은 물론 방안을 기웃거리던 려관집 번대머리주인까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려관을 통채로 내준데다가 고객들도 모두가 풍채가 좋은 점잖은 사람들이여서 오늘은 한밑천 톡톡히 불구게 되였다고 속으로 쾌재를 올렸는데 웬걸 처음부터 실망에 잠기지 않을수 없었다.

손님들이 방을 차지하기 바쁘게 그중 곱게 생긴 녀급들을 골라 차잔과 오시보리(젖은 수건)를 날라가게 했는데도 누구 하나 녀급을 옆에 붙이지 않았거니와 지어는 술이나 료리를 청하지도 않고 서로 마주 노려보기만 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그러니 무슨 담판을 하러 왔나? 바로 저 사람이 오야붕(우두머리)인가? 두툼한 입술이며 고집스런 생김새가 꼭 오야붕같군그래! 아무튼 빨리 결판을 보고 주안상이나 청했으면 좋으련만…)

사실 방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분노에 휩싸여 마주 쏘아보고있었고 그가 오야붕이라고 점찍은 사람은 바로 한덕수였다.

오늘모임은 며칠후부터 있게 되는 민전 2차전체대회를 앞두고 원철이가 조직한 민대파와 민전일군들의 련합모임이였다. 대회를 앞두고는 의례히 가지군 하는 모임이였으나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보기는 처음이였다. 민전결성후 처음 있게 되는 전체대회라는데도 있었지만 합의를 봐야 할 내용이 그만치 중요했던것이다. 합의내용이란 최근 일본공산당이 새롭게 제시한 강령에 따라 민전도 강령을 개정하자는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민전강령 1조를 삭제하자는것이였다.

원철은 이미 민대부에서 토론된 문제인데다가 몇몇 민전일군들과도 사전토의가 있었기때문에 합의여부에 대해서는 조금도 어렵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모임을 계기로 민전을 일본공산당주위에 더욱 결속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을 자기의 의도대로 이끌수 있다는 확신까지 가지고있었다. 그런 믿음으로 하여 그는 오늘 당재정까지 내여 아지로려관을 통채로 빌렸고 모임을 필하고는 화락한 피로연까지 열 계획이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덕수가 뛰여들줄이야!

조련이 해산된 다음부터 특히는 자기들 민대부가 재일조선인운동을 주관하면서부터는 될수록 모임때에도 덕수를 청하지 않았다. 그래도 꾹꾹 참가하군 하는 그였지만 이번만은 모임의 성격으로 보아 그가 있으면 복잡해지리라 여겨 각별히 신경을 썼었다. 그런데도 온걸 보면 분명 누군가 그에게 알려준것이 틀림없었다.

원철은 곧 사람들속에 있는 김훈과 리심철, 윤덕곤을 뻣뻣한 눈길로 노려보았다. 방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민대파의 핵심들이 아니면 적극적인 지지자, 동정자들이였으나 유독 세사람만은 처음부터 한덕수와 같은 완고한 조국파였던것이다.

어지간히 불쾌했으나 그는 자기의 불만을 일소에 붙였다. 설사 덕

수가 이제 와서 강령삭제를 반대한다 해도 그것은 이미 결정된것이나 다름없는 주지의 사실이기때문이였다. 그리고 이젠 재일조선인운동의 주도권을 확고히 자기가 틀어쥐고있다는 확신은 여기까지 수고로이 찾아온 덕수에게 그 엄연한 사실을 명백히 인식시켜줄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게 했다.

(어디 모임에 참가해보라지! 그러면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리해하지 못하고 완강하게 고집하는 그 고루한 민족주의가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게 될테니까. 만약 이번에도 제 주장을 고집한다면 그땐 자신의 고립을 더욱 촉구하는것은 물론 자기를 스스로 막다른 궁지에 몰아넣는 비참한 꼴이 되고말테니까.)

이런 생각이 들자 원철은 오늘 삭제를 결정하려고 하는 민전강령의 작성자가 바로 덕수라는것이 상기되면서 그처럼 자존심이 강한 그가 자기가 만들어놓은 초석이 허물어지는것을 어떤 표정으로 바라볼가 하는 호기심이 동하기도 했다.

《그럼 모임을 시작합시다.》

원철은 태연한 기색을 지은채 입을 열었다.

《오늘 토론할 문제는 우리가 이미부터 론의해오던 민전강령을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정하자는것입니다. 말하자면 민전2전대회에서 강령 1조에 대한 삭제를 심의결정하자는데 대해 합의보자는것입니다.》

조금도 꺼리낌없이 문제의 본질로 육박해들어간 원철은 어디 할말이 있으면 해보라는듯이 여유작작한 표정으로 덕수를 바라보았다.

《내 먼저 하나 물어보겠는데…》

덕수 역시 기다렸다는듯이 꼿꼿한 시선으로 원철을 주시하며 말을 이었다.

《우선 여기 있는 사람들중 자기 조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사람이 누구요? 명백히 말해두지만 강령 1조에는 민전이 자기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수방위한다는것이 밝혀져있소. 재일조선인운동의 총적방향과 함께 재일동포들의 지위와 사명이 명시되여있단 말이요.》

필경 처음부터 완력적으로 나올줄 알았던 덕수가 의외에도 목소

리를 낮추고 사리를 따지고드는 바람에 원철은 은근히 긴장되였다.

《그런데도 그 1조를 삭제하자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조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는것이며 따라서 자기는 조선사람이 아니라는것이요.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젠 다들 공화국공민이기를 그만두겠다는거요? 국적을 일본사람이나 제3국사람으로 바꾸었는가 말이요?》

《…》

방안은 갑자기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너도나도 정통을 찌르는 덕수의 말에 모두들 화석처럼 굳어져버렸다.

원철에게는 그런 분위기가 더없이 불만스러웠다. 그것은 자기의 급소를 노리고 용의주도하게 달려드는 덕수의 힘에 대한 위구로부터 오는 불만인 동시에 이젠 운동권에 더는 개입하지 못하리라고 여겨온 덕수에 대한 자기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해서 느끼게 되는 불만이였다. 그런 불만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번에는 덕수가 한마디만 해도 소나기같은 공격을 퍼부을줄 알았던 자기의 측근, 자기가 그처럼 믿어마지않는 민대파성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올라 견딜수 없었다.

그는 죽지를 처뜨리고 후줄근해있는 자기의 가소로운 동료들을 아니꼬운 눈길로 일별하고나서 입을 열었다.

《이것 보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중 누가 공화국공민이 아니란 말이요. 공화국공민이기때문에 더 조국을 위해 싸우자는거요. 오늘의 일본정세는 물론 엄혹한 조국의 정세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오? 그것은 무엇보다 혁명의 승리를 위해 포섭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다 민전에 망라할것을 요구하고있소. 민전은 말그대로 광범한 조직들의 통일전선체요. 조련과는 성격이 다르단 말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조련때와 같은 강령을 내세우고 일면적으로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조국앞에 죄를 짓는것이 아니고 뭐요? 오늘의 정세는 우선 우리들에게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가를 알것부터 요구하고있단 말이요.》

《애국!》

이렇게 되뇌이는 덕수의 눈에서는 퍼런 불꽃이 일었다.

《그래, 조국이 가장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는 이때, 그 어느때보다도 공화국을 사수하기 위해 목숨바쳐 싸워야 할 이 시각에 공화국사수조항을 삭제하는것도 애국이요? 특히 얼마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서는 우리들이 조국의 두리에 뭉쳐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소. 그것이 바로 조국이 우리에게 바라는것이요. 그런데 강령을 삭제해? 그것이야말로 매국이요, 매국노가 하는짓이란 말이요!》

《뭐요?》

원철의 거대한 체구가 부르르 떨렸다. 동시에 덕수를 노려보는 두눈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는데 당장 그 눈으로 체내에 몽켜있던 피가 일시에 뿜어져나오려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곧 입귀를 실룩해보이며 미소를 지었다. 흔히 곤경에 처하게 될 때마다 나타내군 하는 버릇이였다. 그는 그 미소를 통해 덕수가 하는 말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작용도 일으키지 않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것을 보여주려는것이였다. 또 실지 그럴만 한 근거가 없는것도 아니였다.

《이것 보시오.》

원철은 다시금 거드름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자꾸 조국, 조국하는데 자기만 조국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러면서도 그는 속으로 이발을 부드득 갈았다.

(어디 보자! 내 다시는 네가 운동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할테다!)

원철이가 덕수에 대해 이렇게 벼르고있었다면 덕수는 덕수대로 어떻게 해야 이자들의 배신적인 책동을 낱낱이 발가놓고 더는 강령문제를 들고나오지 못하게 할것인가를 따져보고있었다.

오늘모임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민전서기장인 리계백을 통해 이자들이 강령삭제를 위한 모의를 한다는것을 알게 된 덕수는 곧 동료들과 마주앉았다. 그들은 조련해산후부터 시종일관 뜻을 같이해오는 민전의장들인 김훈, 윤덕곤과 리심철, 윤봉구, 리진규 그리고 학우서방 사장인 김상기, 도꾜중고 교장 림광철, 《해방신문》

편집국장이였던 최은한이였다.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우선 어떤 일이 있어도 민대파들이 가지는 오늘모임부터 파탄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을 막느냐, 막지 못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재일조선인운동이 제길로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것이 결정되고 또 이것을 저지시키는것만이 동포들을 묶어세워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라는 조국전선호소문을 관철하는것이였다. 아니, 그 호소문자체가 민대파들의 책동을 저지파탄시키라는 조국의 확고한 뜻이였다.

특히 강령 1조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직접 재일조선인운동이 나갈 길을 밝혀주신 근본지침일뿐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생명선이였다. 그 1조에 60만동포들의 운명이 달려있고 희망과 미래가 달려있었다. 만약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동포들이 조국을 잃게 될뿐아니라 앞으로 어떤 처지에 굴러떨어지게 될지 상상하기조차 어렵게 된다.

덕수는 강령을 삭제하려는 민대파들의 목적이 바로 동포들을 조국에서 떼내여 저들의 요구대로 끌고가려는데 있다는것을 밝히고나서 자기는 민전의장들과 함께 놈들의 오늘모임을 파탄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 지방으로 나가 거기에 있는 중앙위원들을 해설설복할 과업을 주었다. 그렇게 해야 하는것은 강령문제가 최종적으로는 민전2차대회에서 중앙위원들의 가결에 따라 결정되기때문이였다.

(절대로 안된다! 그 강령이 어떤것이라고 너희들이 감히… 삭제는커녕 글 한자, 토 하나도 마음대로 다치지 못하게 할테다!)

마음을 도사린 덕수는 로골적인 질시가 어린 눈길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젠 민족의 얼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수 없이 된 민대파의 주역들을 한사람한사람 겨누어보았다.

김충구— 민대부 도꾜지방책임자로서 일관하게 일본공산당로선에 추종해온 원철의 하수인. 해방후 한때 민청활동을 한다고 돌아치다가 감옥에 갇힌것이 계기가 되여 그때부터 그만 일본공산당의 허수아비가 된 사대주의자.

정동은— 워낙 조련시기부터 조직에 대한 불만을 품어오다가 조

련이 해산되자 이제부터야말로 본격적인 재일조선인운동이 시작되였다고 떠들어대면서 학교페쇄령때에는 제일먼저 우리 학교를 팔아먹은 놈.

리종훈— 《건동》에서 《민단》으로, 《민단》에서 다시 《통일동지회》로 뻗어나갔다가 이번에 민전에 기여들어 의장자리까지 타고앉은 정치사기군.

리종훈에게서 덕수가 더 못마땅해한것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누구에게나 갑삭거리면서 비위를 맞추며 돌아가는 행동거지였다. 그가 이쪽저쪽을 돌아보며 헤헤거릴 땐 속에서 구역질이 나면서 그 갑삭거리는 이마때기를 한대 쥐여박아주고싶기까지 했다.

리종훈의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시선이 미치자 덕수는 저절로 미간이 찌프러졌다. 그것은 그에 대한 불만과 함께 어떤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정신적인 고통때문이였다. 그는 바로 인간적으로는 자기와 그중 가까우면서도 사업에서는 어느덧 딴사람처럼 인연이 멀어진 조방대의 책임자 로재호였다.

덕수는 그가 민대파에 속해있지만 다른자들처럼 어떤 야심에서 공명을 바라거나 일시적인 충동에서가 아니라 제딴에는 진정으로 조국과 동포들을 위해 일한다고 믿어마지않고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저 재호만은 어떻게든 돌려세워야겠는데…)

덕수는 못내 안타까운 눈길로 재호를 지켜보았다.

2

《내 의견을 말하면…》

침묵을 깨뜨리고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몸집이 갈람하고 날카롭게 생긴 김충구였다. 원철이와의 관계로 보나 민대부 간또지역의 책임자라는 위치로 보아 아무래도 자기가 나서야 한다고 용단을 내린것 같았다. 충실한 부하들이 그런것처럼 그도 원철이의 의도와 기분을 알아맞추는데는 각별히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있었다.

《지금단계에서 우리가 중시해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민전을 더욱 광범한 대중적인 조직으로 확대강화하는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지금이야말로 민전을 확대할 온갖 조건과 가능성이 주어져있기때문입니다. 어떤 조건과 가능성인가?》

언제나 무슨 말을 할 때면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화제를 끌고가면서 의문을 제기하고는 그것을 스스로 해명하군 하는 그였다.

《이미 〈통일동지회〉를 이끌고 민전에 들어온 리종훈의장이나 김성일의장이 〈해방구원회〉를 민전에 망라시킨것처럼 지금도 많은 단체들이 민전에 들어올것을 희망하고있습니다. 실례로 〈대한청년단〉에서 리탈한 통일파성원들과 〈학동〉(한국학생동맹)에서 분리된 좌파들이 당장 민전에 들것을 요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의 사실에 우려를 품고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는 한손가락을 공중에 쳐들어보이며 목청을 돋구었다.

《그것은 바로 민전강령 1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미 언급이 있었지만 민전은 조련과는 성격이 다른 광범한 조직들의 통일전선체입니다. 그런데도 조련때와 같은 강령을 유지하면서 문을 닫아매고 있는것은 민전의 성격에도 맞지 않을뿐아니라 민전을 더욱 대중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민전의 성격이라는건 뭐고 당의 요구라는건 또 뭐요?》

맞은켠에 앉아있던 김훈이 웅근 목소리로 물었다. 몸집이 거대한 그는 목소리도 굵었지만 자기 주장에 대한 속대도 록록치 않은 사람이였다. 조련 조직국장으로 일하다가 민전시기부터 의장이 되였으나 민전이 점점 일본공산당쪽으로 기울어지자 그에 불만을 품고 민대파와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였다. 의장단회의때면 윤덕곤과 함께 민대부의 지시를 받아무는 다른 의장들과는 의견을 달리하는것으로 하여 매번 마찰이 일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그들에 대한 불만을 스스럼없이 털어놓군 했다. 여느 사람같으면 감히 입밖에도 내지 못할 《당의 요구》에 대해 말한것도 바로 그때문이였다.

《민전을 결성할 때도 우리는 민전이 공화국만을 지지하는 단체

라는것을 명백히 밝혔소.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사람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강령을 삭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동거를 들인다 하여 집문패를 바꾸는것과 다를바가 뭐요? 문제는 그들을 위해 강령을 바꿀게 아니라 그 강령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여야 한다는거요.》
《옳소!》
윤덕곤이 무릎을 치며 응수했다.
《민전은 절충적인 중간조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 조국, 공화국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애국단체요. 그런데도 강령을 삭제하다니? 그럼 과연 우리 조국이 어디라는거요. 남이라는거요, 북이라는거요?》
《아니, 윤의장은 왜 그렇게 일면적으로만 생각하시오?》
가뜩이나 체소한 몸을 한껏 쪼그린채 앉아있던 리종훈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하는 바람에 처음엔 누가 말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곧 주먹만 한 머리를 쳐든 그가 말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라는듯 곱사등같은 허리까지 난딱 추켜올렸다.
《난 말입니다. 이젠 우리가 그런 극단에서 헤여나올 때가 되였다는겁니다. 난 남이고 넌 북이다, 이것이 무엇때문에 필요합니까? 일본에서 사는 우리들만이라도 제발 남이니 북이니 하며 싸우지 말자는겁니다. 그래 우리가 강령 1조를 삭제한다고 해서 일본사람이 되겠소? 일제때도 조선사람으로 남아있은 우리가 해방된 오늘에 와서 일본사람이 되겠느냐 말이요. 내가 민전에 들어올 결심을 한것도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은 다 하나로 뭉치자! 공화국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이면 대동단결하자 이거였소.》
《그렇소! 미제와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사람이면 다 단합하자는거란 말이요!》
정동은이 대뜸 엉치를 달싹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아니, 공화국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미제와 일제를 반대할수 있소?》
김훈이 어처구니 없다는듯이 고개를 저었다.
《미제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지금 미제와 맞서 싸우고있

는 공화국을 지지하지 않을수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김훈동지는 재일동포들은 하나같이 공화국만을 따라야 한다는건데…》
도저히 저로서는 리해되지 않는다는듯이 말꼬리를 길게 끈 리종훈의 눈가에는 살웃음이 스쳤다. 눈귀를 좁히고 새물새물 웃는 그의 모습은 마치 자기가 입을 열면 김훈에게는 결코 리롭지 못한 말이 나오리라는 그런 기색이였다. 그러나 워낙 자제력이 부족한데다 남의 아픈 곳을 건드리기 좋아하는 그는 종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입에 담고야말았다.
《가정을 꾸리는데서는 지역과 사상을 초월한 김훈동지가 사업에서는 왜 그렇게 일면적인지 리해하기 어렵구려!》
그 말에 김훈의 얼굴은 대번에 검붉어졌다. 성미가 과한 사람이 모욕을 받았을 때 터뜨리군 하는 그런 성급하고도 격렬한 분노가 치밀어오른게 분명했다. 가정을 꾸리는데서 지역과 사상을 초월했다는 말은 김훈이 제일 아파하는 곳을 건드리는것으로서 그가 일본녀성과 살고있다는것을 념두에 둔것이였다.
《뭐, 말이면 다 하는줄 아우?》
윤덕곤이 대뜸 눈을 부라리며 리종훈을 노려보았다.
《그게 도대체 지금 토론하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요!》
《난 단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따름이요. 하지만 그게 인신공격으로까지 되였다면 량해하시우, 예!》
그러면서 그는 정말 김훈에게 고개를 갑삭갑삭해보였는데 눈가에는 아까보다도 더 짙은 살웃음이 어리였다. 그 웃음은 바로 너희들이 아무리 이제 와서 강령삭제를 반대한다 해도 소용이 없을뿐더러 그러면 그럴수록 김훈이처럼 망신만 당하게 된다는것을 암시하는듯했다.
의장단성원들은 물론 방안에 모인 사람들모두가 김훈과 리종훈이의 관계를 모르지 않았다. 두사람의 충돌이 사업상견해나 주장때문만이 아니라 보다는 서로의 가슴속에 쌓여있는 타협할수 없는 감정때문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민전을 결성할 때부터 기둥역할을 해왔고 수석의장으로서 누구보

다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은 김훈이였다. 그런데 리종훈이가 민전에 들어오면서부터 민대파들을 등에 업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바람에 이제 와서는 그가 민전의 주인으로 행세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굴러온 돌이 배긴 돌을 밀어낸 형국이였다.

《난 이렇게 생각하오!》

리심철이 확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정세의 요구나 조직의 확대라는 미명아래 우리가 결코 근본을 놓쳐서는 안된다는거요. 민전은 어디까지나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이기때문에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또 래일도 공화국만을 지지하며 목숨바쳐 지켜야 한단 말이요.》

《그게 바로 편협한 민족주의자라는거요.》

갑자기 째지는듯 한 소리를 지르며 방바닥을 두드린것은 정동은이였다.

《그래 지금이 민족이나 조국을 운운할 땐가? 프로레타리아에게는 조국이 없다는걸 모르는가?》

분별이 없고 경솔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흥분에 도취된 그는 벌써 아무것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는 자기보다 나이가 열살이나 우인 리심철에게 마구 삿대질을 해대며 기염을 토했다.

《그래 당신은 당원이요, 아니요? 당의 지시가 안중에 있소, 없소? 당원이라면 응당 당의 지시에 복종해야 할게 아니요.》

그의 말은 여기 모인 사람들은 거의다 당원들이기때문에 당의 지시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것을 즉 원철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것을 암시하는것이였다.

《아, 시즈까니, 시즈까니…》(자, 조용히, 조용히…)

원철이가 곧 손을 들어보이며 나섰다. 저도 모르게 버릇처럼 새나온 일본말이였으나 그는 자기가 마주하고있는 상대가 덕수라는것으로 하여 하려던 말을 중둥무이했다. 그러나 정작 조선말로 바꾸려고 하자 이번에는 자기가 덕수의 눈치를 보는것처럼 여겨져 불쾌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수밖에 없었다.

《오늘 우리가 토의하자는것은 바로 앞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요.

혁명투쟁에서 선차적인 문제가 정확한 투쟁목표와 혁명력량에 대한 옳은 리해라고 한 선행리론에는 누구든 이의가 없을거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누구와 함께 싸우느냐, 바로 여기에 투쟁이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비결이 있소. 혁명선배들은 우리들에게 자기 계급 혹은 계층이나 집단이 매 시기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는가 하는데 대한 정확한 평가와 판단만이 옳은 투쟁과업과 방도를 제시한다고 가르쳐주었소.》

원철은 자기 말 한마디한마디가 마치 천냥이나 되는 무게를 가지는듯이 천천히 또 또릿또릿하게 발음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덕수는 점점 더 비위가 상했다. 원철은 무슨 말을 할 때면 특히 상대방을 납득시켜야겠다고 결심할 때면 언제나 선행리론과 혁명선배를 운운했는데 그것이 참말로 고전가들의 명제를 인용하는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숭배하는 일본공산당의 어떤 일군의 말을 흉내내는것인지 아니면 또 자기 말을 리론으로 가장하는것인지 알수가 없었다. 어떤 경우라 해도 심사가 꼬이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더 참을수 없는것은 그 말을 할 때마다 그의 비만한 얼굴에 떠오르는 숨길수 없는 우월감이였다. 지금도 마치 하늘꼭대기에 틀고앉아 아래를 굽어보는듯 한 그의 거만한 태도에 덕수는 부아가 치밀어 견딜수가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재일동포들이 처해있는 처지와 환경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특별히 중요하오. 물론 우리는 조선사람이요. 그러나 조선이 아니라 일본에서 살고있는 조선사람들이요. 말하자면 조선의 변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변화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게 돼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요. 례를 들어 인민군대가 남조선 전지역을 해방하고 제주도에 붉은 기발을 꽂았다고 합시다. 조국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하잔 말이요. 그러나 우리들, 이 일본에서 사는 재일동포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겠소? 무엇이 달라지는가 말이요. 직업이 해결되오? 생활이 안정되오? 그렇다고 탄압이 근절되오? 우리자신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수 없소. 여전히 미군정과 일본당국의 박해에 시달리지 않을수 없단 말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우리들 문제는 우리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것을 말해주는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건 바로 우리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온갖 반동의 사슬을 우리 손으로 끊어버릴 때에만 즉 일본의 프로레타리아와 함께 일본혁명을 수행할 때에만 우리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는거요. 알다싶이 오늘의 일본정세는 모든 혁명력량이 단합하여 결정적인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소. 이런 사명을 일본로동계급과 함께 수행해야 할 재일동포들이 그전날의 강령, 낡고 고루한 민족적과업을 내세운 강령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력사적인 위업수행에 지장을 주어서야 되겠소? 되겠는가 말이요!》

(낡고 고루한 민족적과업?)

덕수는 당장 《조국도 민족도 모르는 이 반역자야!》하고 소리치며 원철의 유들유들한 상판을 후려갈기고싶었다.

《내 좀 말하겠습니다.》

이때 로재호가 고개를 들고 주위를 돌아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난 강령에서 공화국사수조항을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더. 조국을 위해 살자는 우리가 강령 1조를 없앤다는건 말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전략적인 견지에서 볼 때 그렇단 말입니더. 오늘 우리앞에 놓인 당면과제는 무엇보다도 우리자신이 처한 처지와 조건 그리고 주변정세를 혁명에 유리하게 리용하는 전술을 세워야 한다는겁니더.》

어떤 중요한 말을 할 때면 그렇듯이 재호는 고개를 한번 기웃해보이고나서 말을 이었다.

《오늘의 환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략인 조국을 위해 싸우고 우리자신의 권익을 쟁취할수 있는 그런 전술을 세울것을 요구하지요. 전략에 따르는 전술은 시기와 정황에 따라 달라지기마련입니더. 꿩을 잡기 위해서는 매에다 방울을 달수도 있고 뗄수도 있는것처럼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일시 강령을 삭제할수도 있다는겁니더. 지금이 바로 그런 전술을 요구하는 때라는겁니더. 그렇기때문에 나는…》

덕수와 시선이 마주친 로재호는 얼른 말끝을 흐리였다. 마주 노려보는 덕수의 눈이 칼날같이 번뜩이면서 목언저리를 지나간 퍼런

동맥이 무섭게 살아났기때문이였다.
사실 덕수는 당장 자리를 차고일어나 재호를 정신이 들게 해주고 싶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싶은가 하면 멱살을 틀어쥐고 방바닥에 태질을 하고싶기도 했다.
(이놈아! 뭐가 어찌고어째? 때에 따라서는 강령을 삭제할수도 있다구? 네가 지금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알기나 하느냐? 쓸개가 빠져도 분수가 있지!)
어떤 일이 있어도 재호를 가만놔둬선 안되겠다고 벼르면서 덕수는 원철이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재일동포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로동계급과 함께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는건데 그것이야말로 동포들에게 자기 조국이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호소하는것이 아니고 뭐요. 방금 누군가 이제야 우리가 일본사람으로 되겠는가고 했지만 천만에! 조국을 버리면 일본사람으로 되는거요. 설사 국적은 조선이라 해도 넋은 쪽발이로 되고만단 말이요. 당신들은 동포들을 바로 그런 쪽발이나 반쪽발이로 만들자는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만 해보오. 그런 당신들을 동포들이 가만 놔둘상싶소? 조국이 용서할상싶은가 말이요!》
덕수의 말이 또다시 페부를 찔렀으나 원철은 이번에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듯이 흔연한 기색을 지었다. 아니, 입가에 느슨한 미소까지 띠였다.
(가만 놔두지 않는다구? 그래, 내가 먼저 널 가만 놔두지 않겠다. 더는 용서하지 않겠단 말이다!)
이발을 부드득 하고 간 그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오늘이야말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덕수가 더는 자기에게 맞서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그를 사업에도 비치지 못하게 하리라고 결심했다. 비록 사지가 묶여있는 맹수라 해도 숨통을 눌러놓아야 안심이 되는 법이니까.
《좋소!》
자기의 내심을 사람들이 눈치챌가봐 그는 줄곧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자기 상전의 이런 버릇, 아무 생각이나 결심이 없

는듯이 가장해보이군 할 때가 제일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것을 알고있는 민대파성원들은 하나같이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아니나다를가 그의 두눈에는 갑자기 무서운 독기가 서리였다.

《당신은 오늘 당의 결정과 지시를 거부했을뿐아니라 정면에서 도전함으로써 스스로 조직내 당책임자의 위치는 물론 당원의 자격까지 상실한 사람이요. 난 당 민대부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 사업의 발전을 위해 당신이 다시는 당활동과 민전의 일체 활동에 참가하지 못한다는것을 밝히는바요.》

《…》

원철을 노려보는 덕수의 두눈에서는 불이 이글이글 일었다.

《왜놈들이 나를 공직에서 추방하더니… 이젠 당신이 나를 당에서?…》

지나친 분노로 하여 덕수는 자기 목소리같지 않은 소리로 말했다.

《좋소. 아무 미련도 없소. 그러나 알아둘것은 당신이 나를 당직에서 제외할수는 있어도 결코 운동권밖으로 내몰수는 없다는거요. 왜냐하면 재일동포들을 어느 길로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 하는것은 일본공산당이 아니라 조국이, **김일성**장군님께서 나한테 주신 과업이기때문이요. 알겠소?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해 말한다면 당신이나 민대부야말로 조금도 좌우지할 권한이 없다는걸 똑똑히 알아두시오. 다시 말하지만 강령 1조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다치지 못하오, 절대로!》

덕수가 일어나자 김훈이며 리심철, 윤덕곤이도 따라일어섰다.

하지만 원철은 네사람이 방에서 나가자 마치 그러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던것처럼 두손을 머리우에 쳐들고 탁탁 손바닥을 쳐보였다. 그것은 자기는 여전히 이렇게 여유작작하다는것을 동료들에게 보여주려는 동시에 이제부터는 화락한 술판에 젖어보자는 의도를 려관집주인에게 알리는 신호였다.

이제나저제나 하고 기다리고있던 번대머리주인이 손벽소리를 듣자마자 방으로 달려나왔다. 그러나 그는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자기를 찾은 사람이 분명 그 무섭게 생긴 오야붕인줄 알았는데 그가 아니라 맞은편에 앉아있던 거대한 체구의 사나이기때문이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하지만 그는 그런 의혹을 곧 직업적인 웃음으로 지워버리며 깊숙이 허리부터 숙이였다. 누가 오야붕이든 그에게는 그저 돈을 벌수있게 해주는 사람이 고마왔던것이다. 주방으로 향하던 그는 기분이 좋을 때면 하는 버릇대로 홀딱 벗어진 자기 이마를 찰싹 소리가 나게 두드리였다.

3

덕수는 안타까운 눈길로 재호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말 좀 하자구.》

태길이 어머니가 방에서 나가기 바쁘게 덕수는 재호앞으로 다가앉았다.

《정신이 나가도 분수가 있지 민대파들하고 같이 춤을 추더니 이젠 뼈다귀도 없는 허수아비가 되고말았다는걸 알기나 해? 그게 부끄럽지도 않나 말이야!》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재호를 설복하여 다시는 민대파들하고 같이 돌아치지 못하게 하자고 잡도리를 한 덕수였다. 그래서 장소도 언제나 한두사람을 비밀리에 만나군 할 때마다 쓰는 태길이네 집을 택했던것이다.

환갑나이에 가까운 태길이 어머니였으나 덕수를 위해서라면 온갖 성의를 다했다. 덕수가 자기 집에 들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 별식을 만들어 대접했고 옷가지들도 깨끗이 빨아 손질해주군 했다. 태길이 역시 덕수가 추방된 다음부터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소식들이며 비밀에 속하는 사실들을 어디서 알아오는지 용케 알아가지고 와서는 덕수에게 대주군 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덕수를 위로하기 위해 동네사람들을 집안에 가득 불러들이고는 바가지장단에 곱새춤을 추면서 《날 좀 보소》를 멋들어지게 부르기까지 했다.

이들 모자의 그런 태도는 마치 자기들에게는 덕수를 위하는것 이상 더 중요하고 기쁜 일은 없는상싶었다.

오늘도 덕수가 무슨 일로 재호를 불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태길이 어머니는 무작정 재호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욕마이 봅니더. 어서 올라오이소, 어서요. 우리끼리야 뭘 엔료 (사양)할기 있다꼬.》

누구든 덕수와 함께 온 사람은 다 《욕마이 보는》 사람이고 《엔료》해서는 안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였다.

《오늘은 제발 좀 육꾸리(천천히)하고 가이소, 예? 내 오늘은 뜨끈뜨끈한 보신탕을 대접할랍니더. 쇠주도 한잔 받치지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수가 어째서 자기를 따로 불렀는지 짐작되는바가 없지 않았으나 재호는 히죽이 웃으며 대꾸했다. 오히려 그런 불안을 느끼는것이여서 더 너스레를 떨게 되는지 몰랐다.

《그런데 어머니! 〈천천히〉라는 우리 말이 있는데 왜 하필 〈육꾸리〉라고 하십니까. 〈엔료〉라 하지 말고 〈사양말고〉 하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아이고 우짜꼬.》

어머니는 입을 싸쥐였다.

《그렇잖아도 내 우리 태길이한테 욕마이 먹습니더. 〈벤또〉라 카지 말고 〈점심밥〉이라케라, 〈오까네〉라 카지 말고 〈돈〉이라케라. 그런데 그놈의 〈구세〉(버릇)가 어디 없어집니껴. 하여간 내 또 〈마께루〉(졌다)했니더!》

그 말에 재호는 너털웃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동네사람들로 든든히 망을 보게 했으니 안심하고 이야기하라면서 전등불의 스위치까지 돌려주고야 밖으로 나간 어머니였다.

《그래 말해보게. 아직도 민대파들이 무슨짓을 하는지 모른다는건가? 그게 얼마나 엄중한가를 모른다는거야?》

여느때없이 절절한 덕수의 눈빛이며 억양으로 하여 재호는 자못 긴장해있었다. 이런 때일수록 바싹 정신을 차려야지 그렇지 않다간 어떤 졸경을 치게 될지 모른다는것을 잘 아는 그였다.

《말해두지만 그자들은 지금 우리 동포들을 조국이 아니라 일본을 위해 싸우게 하자는거야. 일본혁명의 돌격대로 내세우자는거란

말이네. 그런데 바로 그 망동의 맨 앞장에 누가 서있나? 누가 춤을 추는가 말이야!》

재호는 무슨 말을 하려고 머리를 들었으나 덕수의 시선을 대하고는 얼른 고개를 비틀었다.

《하는짓들만 보라구. 피땀으로 세운 우리 학교를 팔아먹지 않나, 상공인들을 일본의 상공회에 망라시키지 않나, 거기다가 이번엔 일본공산당이 새 과업을 내놓으니 덩달아서 민전강령까지 고치려구 해? 또 뭐 무장투쟁? 이거야말로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게 아니구 뭔가!》

《그러니까 형님은…》

재호는 아무래도 저로서는 리해가 되지 않는다는듯 의혹이 어린 어조로 물었다.

《우리가 미국놈이나 왜놈들하고 싸워서는 안된다는겁니껴? 미국놈들이 우리 나라를 먹으려 하고 일본당국이 우리를 못살게 구는데도 가만히 팔짱을 끼고있어야 하나말입니더.》

성미가 급한 사람이 그런것처럼 재호도 일단 말을 시작하자 어느새 그 말들이 나타내는 내용에 따라 감정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두눈이 꿋꿋해진 그는 이마살을 찌프린채 덕수를 면바로 주시했다.

《난 교육권이나 생활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더. 그러나 조방대활동,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는 잘못이 없다는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이라는겁니껴?》

《뭐가 잘못이냐구?》

덕수는 어처구니없는 눈길로 재호를 바라보았다. 그 잘못에 대해 말하자니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가 하는 궁리에 앞서 그처럼 명백한것을 일일이 납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 사실자체로 하여 더부아가 치밀었다. 그러나 그는 애써 그런 감정을 누르지 않을수 없었다.

인간적으로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재호가 일본공산당의 허수아비로 되여가는것도 안타까운 일이였지만 보다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재호처럼 점점 더 민대파의 영향을 받는다는 엄연한 사실이 더

욱 가슴을 타게 했다. 민대파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받아물고 일본공산당로선에 추종하는 사람들을 돌려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재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우기는 재호만은 자기가 책임지고 돌려세우겠다고 동지들앞에서 했던 약속이 창황중에도 리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자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한마디한마디에 힘을 주어가며 말했다.

《처음 조방대가 조직되였을 때는 그래도 일을 제대로 했지. 남조선으로의 무기수송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이나 군수물자공급을 반대하는 투쟁 그리고 평화서명운동 등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조방대가 무엇을 하나? 조국을 위한 투쟁을 하나, 동포들을 위한 일을 하는가 말이야! 천만에! 바로 일본공산당이 들고나온 무장투쟁에 나서려는거지. 일본의 권력타도에 앞장서려는거란 말이네. 그래 이게 조국을 위한 일이고 동포들을 위한 일인가? 아—니, 그건 조금도 조국이나 동포들을 위한 일이 아닐뿐더러 일본내정에 대한 간섭이고 그것으로 해서 결국은 동포들이 탄압받게 하는 것외에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그래서 얼마전 조국에서 보내온 조국전선호소문에도 동포들은 오직 공화국을 위해서만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돼있는거야!》

덕수는 심중한 눈빛으로 재호를 지켜보았다.

《그런데도 뭐? 때에 따라 강령을 삭제할수도 있다구? 그게 뭔지 아나? 그게 바로 조국을 배반하는거야. 정세가 좋을 때는 조국만세를 부르다가도 정세가 나빠지면 조국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배신행위란 말이야!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한텐 오직 조국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길뿐이야. 그게 바로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우리자신을 위한 일이란 말이야!》

《…》

재호는 침묵에 잠겼다. 덕수와 마주할 때면 일어나군 하는 현상이 나타났던것이다. 그것은 열을 올려 떠들다가도 덕수의 말을 듣느라면 은연중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것이였다. 마치 물밖에서 마음껏 활개짓을 하던 사람이 강물에 들어갔을 때와 같이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가 점점 드센 물살에 밀리우게 되는 현상이랄가, 어쨌든

덕수와 마주하면 그처럼 확고하던 자기의 주장도 무력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곧 그런 자신을 다잡았다. 아니, 마음을 다잡게 하는 목소리가 뇌리를 쳤던것이다.

《우린 한시도 자신이 새 력사를 창조하는 선봉투사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되오. 그러자면 세상을 새로운 안목으로 봐야 하오. 자— 눈을 뜨고 똑똑히 보시오. 이 일본땅이 또 온 세계가 지금 어떤 혁명의 폭풍우속에 휩싸여있는가를!》

원철의 목소리였다.

재호는 고개를 숙인채 띠염띠염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난 그저 형님이 이젠 눈을 좀 더 크게 떴으면 하는겁니더. 그리고…》

자기를 흘끔 바라보는 재호의 태도에서 뭔가 하기 힘든 말을 하련다는것을 덕수는 직감했다.

《지금 사람들이 형님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압니껴?》

《사람들이 뭐라는지?》

덕수는 재호의 말을 곱씹었다. 그도 일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 않았다. 편협한 주관주의자, 무서운 독선주의자…

그러나 그는 자기를 그렇게 보는 민대파들이야말로 도리여 한쪽눈으로 세상을 내다보는 청맹과니 아니, 절름발이가 아닐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어느 책에선가 절름발이에 대해 쓴 글을 본 기억이 났다. 두다리는 멀쩡하지만 정신이 절름발이가 돼버린 사람에 대한 글이였다. 진짜절름발이는 저는것은 자기라고 인정하지만 이 절름발이정신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건 자기 하나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전다고 믿는다. 그 확신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무리 사실대로 말해준다고 해도 도리여 그 사실을 부정하기만 한다. 때문에 진짜절름발이한테는 동정이 가지만 절름발이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참을수없이 화가 나고 증오가 솟구친다는 이야기다.

정말 화가 났다. 무슨 말로 어떻게 납득시켜야 할지 알수 없을뿐

더러 오히려 자길 이젠 구원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인간으로 치부하는데는 견딜수가 없었다.

《형님! 이걸 한번 생각해보시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재호는 손바닥을 펴보이며 말했다.

《만약 민대부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면 어째서 동포들이 호응하겠습니꺄. 이젠 동포들도 민대부의 지시를 다 지지해나서고있단 말입니더.》

《지지?》

덕수는 대뜸 재호를 흘겨보았다.

《그게 무슨 지지야! 그건 지지도 아니고 호응도 아니야! 동포들이 아직 민대파들 정체를 모르기때문에 속고있을따름이지. 아니, 너희들 민대파가 혁명적인 미사려구로 동포들을 속이고있단 말이야!》

《속이다니요? 형님도 참!》

어이가 없다는듯이 재호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시우. 이젠 세상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졌단 말입니더. 우리가 하는 일이 원철이나 민대부의 지시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당수뇌부의 지시, 도꾸다의 지시라는걸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요. 그리고 도꾸다가 혼자 그런 결심을 한게 아니라 중국당이나 쏘련당과의 련계밑에 내린 결론이라는걸 알아요. 일본공산당의 새 강령은 물론 무장투쟁로선도 그렇게 작성되였다는걸 일본사람들은 말할것도 없고 우리 동포들도 다 안단 말입니더. 온 세상이 다 지지하는걸 글쎄 형님이 어떻게 막는단 말입니꺄. 어림도 없습니더. 안됩니더, 안돼요. 그러니 괜히 그러지 말고…》

《뭐라구?》

덕수는 벼락같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자리를 차고일어났다. 무작정 재호의 멱살을 움켜쥔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수 없었다. 한쪽볼을 싸쥔 재호가 눈을 흡뜨고 쳐다볼 때에야 자기가 그의 뺨을 후려쳤다는것을 알았다.

《뭐가 어째? 어디 다시한번 말해라!》

이번에는 정갱이라도 부러뜨릴 기세로 재호를 쏘아본 덕수였으나

어쩐지 마음은 무거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돌려세우려고 했던 재호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데서만이 아니였다. 자기의 그런 행동이 마치 자기 마음속에 도사리고있는 어떤 불안, 정체를 파악할수 없는것으로 하여 점점 더 커지기만 하는 불안에 대한 객기처럼 느껴져서였고 앞으로 닥쳐올 상서롭지 못한 일에 대한 불안처럼 여겨져 더욱 불쾌한 기분이였다.

4

뻐스가 나까도메정류소에 도착하기 바쁘게 차에서 뛰여내린 현우는 한참 주위를 두리번거리였다. 한번 와본적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똑같은 판자집들이 똑같은 골목을 이루고있어 어디로 발을 들여놓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일본에서도 첫째가는 제철업소인 니홍고깡(일본강판)이 자리잡고있는 가와사끼, 온 도시가 제철제강소들로 이루어져있고 수풀처럼 솟아있는 무수한 야금로의 굴뚝들에서 토해지는 연기로 하여 하늘은 온통 황갈색으로 물들어있었다. 매캐한 슬라크냄새가 코를 찌르는가 하면 공중에서는 산화철가루가 서리처럼 반짝거렸다.

더우기 요즘은 가네헹게이끼라는 말그대로 쇠금변이 붙은 기업들은 하나같이 호경기를 맞고있는 때여서 철이나 동, 연을 제련하는 금속공장들은 말할것도 없고 쇠붙이를 다루는 철물상이나 지어는 땅밑에서 녹쓴 쇠를 파내는 파철상까지도 우쩍우쩍 수익을 올리고있었다. 다 조선전쟁덕이였다. 미제는 조선전선에 투입되는 많은 무기들을 대체로 일본에서 충당보충했을뿐아니라 고장난 무기들까지 일본의 공장들에서 수리해 다시 보내군 했는데 이것은 결국 온 일본땅에 막을수 없는 황금의 조수를 몰고온것이였다.

이 골목, 저 골목 기웃거리던 현우는 곧 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걸음을 옮길적마다 발밑에서 쇠가루와 범벅이 된 먼지가 풀썩풀썩 날아올랐지만 그것조차 가리지 않았다.

그는 지금 최근 몇년사이에는 한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벅찬

흥분과 희열에 넘쳐 덕수의 집을 찾아가는 길이였다. 정확히 말하면 수임이를 돕기 위해 그 집에 가있다는 영신이를 찾아가고있었다.
《동문 당장 이길로 영신이를 찾아가오. 그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되 중요한건 그가 마음의 준비를 갖출수 있게 해야 한다는거요. 알겠소?》
진규가 하던 말이 떠오르자 더욱 가슴이 두근거렸다.
낮에 그는 덕수가 찾는다는 기별을 받고 학우서방으로 갔다. 그렇지 않아도 민전 2차전체대회전후로는 한번도 덕수를 만난적이 없어 몹시 걱정스럽던터였다.
민청이 해산된 후부터 민청의 후속단체인 민애청에서 선전사업을 맡고있는 그였으나 마음은 언제나 덕수에게 가있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덕수는 2차전체대회때 감행한 민대파들의 책동에 격분한 나머지 몸져누워있다고 했고 놈들의 죄행을 폭로하는 무슨 굉장한 론문을 쓰고있다고도 했다.
사실 어떻게든 덕수를 도우려고 마음먹고 그대로 실행하리라 결심한 현우였지만 2전대회를 앞두고는 만나기조차 어려웠다. 오늘은 도꾜, 래일은 오사까 하는 식으로 동분서주하는 덕수인데다가 그만치 사태가 심각해졌기때문이였다.
민전 2차전체대회에서 민대파들은 종내 강령 1조에 대한 삭제문제를 의제에 상정시켰고 저들의 앞잡이들을 동원하여 그것을 결정하는 책동을 감행했다. 놈들은 덕수를 비롯한 애국적인 활동가들의 회의참가를 저지시키기 위해 경찰들의 눈을 피한다는 구실을 대고 첫날은 고베, 다음날은 오사까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회의를 했다. 그래도 덕수와 그의 측근들이 기어이 회의장에 뚫고들어가 그들의 책동에 대해 폭로하자 놈들은 그럴 경우를 예견하여 미리 대기시켜놓았던 행동대를 발동시켜 덕수를 회의장밖으로 몰아냈다. 또한 놈들은 리종훈을 수석의장으로, 김충구를 조직선전부장으로 앉히였는가 하면 다른 주요직책들도 거의 저희들 측근으로 꾸려놓았다. 다만 이전부터 일하던 몇사람의 의장만 류임시키는 형태를 취했는데 그것은 그들마저 배제한다면 동포들로부터 반발이 있으리라는것을 타산했기때문이였다.

현우가 이이다바시에 있는 2층목조건물인 학우서방에 들어서자 사장인 김상기가 언제나처럼 빙그레 웃는 얼굴로 맞아주었다. 성격은 남달리 활달한 그였으나 어째서인지 말만은 한사코 하기 싫어했고 입을 여는 경우에도 마지못해 한두마디 대꾸하군 했는데 그때조차 마치 방금 이발을 뽑은 사람이 바람이 들어갈가 걱정하여 얼른 입을 다물어버리는 그런 태도였다. 말은 죽어라고 하기 싫어했지만 대신 일은 남들보다 곱으로 하는 사람이였다.

해방직후 교과서를 만들어야 할 때 제일 해결하기 어려웠던 국문자모활자를 구해온것도 또 교과서출판을 위해 출판사를 내올 필요성이 제기되자 경영활동이라고는 해보지 못했지만 학우서방을 내오고는 그 운영을 맡아나선것도 바로 그였다. 더우기 덕수가 추방되여 경찰들을 피해다니지 않을수 없게 되자 대뜸 자기 집으로 쓰는 학우서방 웃층을 피신하기 편리하게 개조해놓았다. 그의 처인 녀맹중앙부위원장인 박정현 역시 조국과 조직을 위해서는 무엇도 아끼지 않는 성실하고 정력적인 활동가였다.

김상기를 따라 웃층으로 올라가니 한방에서 덕수의 목소리가 새나왔다.

《모두가 명심해야 할건 이런 때일수록 더 견결하고 억세야 한다는거요. 불이 뜨거워야 생나무를 태우오. 죽어도 놈들의 책동을 막아낸다, 만신창이 되여도 조국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싸워야 한다는거요. 알겠소? 그럼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덕수가 건재해서 여전히 비관을 모르고 완강하게 투쟁하고있다는 사실이 현우에게는 무엇보다 기쁘고 다행스러웠다.

이윽고 모임이 끝났는지 웃방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복도로 나왔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언제나 자리를 같이하군 하는 김훈, 윤덕곤, 리심철, 리계백, 윤봉구, 리진규, 림광철, 최은한, 녀맹위원장인 김은순과 박정현이였다. 새로 보이는 사람으로는 이전 건설통신사 사장이던 김병소가 있었다.

곧 방문이 열리면서 덕수와 함께 진규가 들어섰다. 인사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덕수를 마주본 순간 현우는 저도 모르게 굳어지고말았다.

쑥 두드러진 광대뼈며 살이 빠져 삽날처럼 뾰족해진 턱이 본래의 덕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판이한데다가 한쪽볼편의 근육이 괴상하게 이그러져있었다. 마치 화상을 당한 상처가 그대로 아물어버린듯했다.

그제야 현우는 덕수의 볼이 신경마비에 의해 굳어졌다는것을, 바로 2차전체대회때 민대파들의 책동에 치를 떨던 나머지 그렇게 되였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얼마나 놈들에 대한 증오에 사무쳤으면 저렇게까지 되였을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들었다. 그러나 더 놀란것은 덕수가 하는 말이였다.

《내 말을 듣소. 이건 우선 동무만 알고있어야 한다는걸 명심하오.》

덕수는 현우를 지켜보다가 평소의 그답지 않게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조국에서 사람이 왔소. 어제 돗도리현의 사까이에 도착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동무도 잘 아는 리지영동무요.》

《예?》

현우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지영동지가 일본에 오다니?)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에 얼른 옆에 있는 진규를 돌아보자 그는 지영이를 안전한 장소로 안내하기 위해 벌써 히로시마에 있는 서민이를 그리로 보냈다는것, 장소가 확정되면 련락이 올것이라면서 나직이 말을 이었다.

《동무는 이길로 영신이를 찾아가오. 그에게 지영동무가 온 소식을 알려주되 될수록 그가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만날수 있게 해야하오. 알겠소? 덕수동지가 그를 만난 다음에 만나야 하니까 그렇게 시간을 맞추어 사까이로 데리고 가시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다시 알려주겠소. 영신이는 지금 덕수동지네 집에 있소.》

그 즉시 야마데선을 타고 우에노에서 내려 거기서 다시 게이힝도호꾸선을 갈아타고 가와사끼로 올 때까지만 해도 현우의 눈앞에는 노상 3년전 조국에서 함께 지내던 지영이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나까도메에 이르러 영신이를 찾아가는 지금에 와

서는 그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와할 아니, 절대로 믿지 않을 영신이의 모습으로 하여 진정할수 없는 마음이였다.

분명 덕수의 집이 틀림없다고 확신한 그는 문앞에 서서 한껏 심호흡을 했다. 어째선지 선뜻 들어서기가 주저되였다.

찌글사하니 모로 기울어져있는 판자문사이로 몸을 들이밀던 그는 그만 후닥닥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송아지만 한 누런 세빠드가 두발을 떡 뻗친채 사나운 눈길로 치떠보고 있었던것이다. 여느 개처럼 짖거나 으르렁거리지는 않았지만 대신 밋밋한 허리며 튼튼한 앞가슴은 일단 비위에 거슬리기만 하면 비호처럼 달려들어 멱을 물어메칠듯 한 잡도리였다.

덕수의 신변을 걱정하여 어느 동포가 마련해준 맹견일것이라는 짐작은 하면서도 그 맹견으로 하여 소리를 지르기는 고사하고 편포짝처럼 문짝에 붙어서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 자기의 처지가 더없이 불만스럽기만 했다. 더우기 특별히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온 자기가 이런 불법침입한 도적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있다고 생각하니 맹랑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잔뜩 흘겨보고있는 개를 향해 자기는 결코 의심받을 대상이 아닐뿐더러 이 집과는 남다른 사이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소를, 그것도 타협과 애원이 섞인 어색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런데 그 야릇한 미소가 그만 개한테는 도리여 어떤 각성을 불러일으킨듯 세빠드는 여태껏 처져있던 두귀를 번쩍 세우고 으르렁하며 배속에서 우러나오는 웅근소리를 내뱉았다.

(아이구, 이런 변이라구야!)

이젠 얼굴표정조차 마음대로 지을수 없게 된 현우는 코끝으로 개를 내려다볼수밖에 없었다.

이때 미닫이문이 열리면서 이마가 톡 삐여진데다가 눈알이 또릿또릿한 사내아이가 이쪽을 내다보았다.

《오, 너 호일이구나!》

도꾜에서 살 때 한두번 얼핏 만나본적밖에 없는 호일이였으나 현우는 마치 매일 만나는 동생이라도 되는듯이 반갑게 소리쳤다. 호일이에게 자기를 상기시키는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자기를 도적으

로 취급하는 개한테서 신용을 얻는것이 더 급했던것이다.
《어머니 계시냐?》
얼굴은 호일이쪽을 향해있었으나 눈길은 여전히 개한테만 가 있었다.
의혹이 어린 눈길로 현우를 말똥말똥 쳐다보던 호일이가 방안에 대고 뭐라고 이르자 곧 파란 수건을 쓴 녀자의 얼굴이 문사이로 나타났다. 영신이였다. 발가우리 상기된 그의 표정에는 언제나와 같이 청신한 아름다움이 비껴있었다.
《아니, 최동무가 아니예요? 어떻게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제낀 영신이는 반가움에 넘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올라오세요.》
《올라오라니, 어떻게 올라간단 말이요? 우선 이 개부터 좀 치워주시오.》
그제야 현우앞에 있는 개를 본 영신이는 얼른 호일이를 돌아보았다. 집에 있기는 하지만 그도 개한테는 아직 자신이 없는 모양이였다.
끌신을 신고 문앞에 다가선 호일이가 개의 목덜미에 감겨있는 가죽띠를 움켜쥐였으나 현우는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개가 처음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취했지만 여전히 흘끔흘끔 자기를 곁눈질하는 품이 젊은 주인이 하는 일은 미덥지 않기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더 경각성을 높이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처신하라는듯 해서였다.
방안에 들어서서야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쉴수 있었다. 하지만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던 흥분과 기쁨이 깨진것으로 하여 저으기 못마땅한 기분이였다.
《수임누인 어딜 갔습니까?》
방구석에 수북이 쌓여있는 로보용장갑무지를 보며 현우는 퉁명스레 물었다.
《일감을 구하러 갔어요.》
언제봐야 그저 일에 다몰려사는 수임이, 그러면서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없이 이악하게 살아가는 수임이였다. 그래도 요즘은 영신이

가 옆에 있다는 생각이 들자 한결 마음이 놓였다.

《학교형편은 어떻습니까?》

방바닥에 널려있던 실밥을 손으로 쓸어모으던 영신이가 고개를 돌렸다.

《여전히 수업은 못하지만 조회만은 꼭꼭 하고있어요.》

현우도 얼마전 우리 학생들이 반전삐라를 살포했다는 리유로 근 5 000명이나 되는 무장경관대가 도꾜중고를 습격한 사실을 알고있었다.

경찰들과의 격렬한 란투끝에 수많은 교원들과 학생들이 련행되였는데 그때부터 모든 학교들에서는 수업을 중지하고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었다. 그런데 조회는 무슨 조회란 말인가!

《아침마다 교직원, 학생들이 다 운동장에 모여 인사를 드리지요. 조국을 향해 말이예요. 교장선생님이 〈미제를 반대하여 영웅하게 싸우고있는 조국인민들을 향해 묵례.〉 하고 구령하면 모두 조국이 있는 서북쪽하늘을 우러르며 고개를 숙인답니다. 그러면 가슴에 새힘이 솟군 해요. 참! 얼마전 설날엔 말이예요. 운동장에 나가보니 글쎄 남녀 모든 학생들이 푸른색, 흰색 지어는 붉은색의 저고리를 입고 정렬해있지 않겠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눈여겨보니 바로 그게 공화국기발이 아니겠어요. 놈들이 기발을 띄우지 못하게 하는 조건에서 그렇게라도 기발을 새겨 조국에 설인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린 그길로 경찰서로 찾아가 항의를 들이대고 롱성투쟁을 했지요.》

교원으로 일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나 그새 영신이는 몰라보게 변해있었다. 그의 얼굴표정이며 눈빛, 하나하나의 동작까지도 수도원에서 만났을 때와 같은 그런 소심하고도 조심스러운 태도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에는 늘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가 하는 그 하나의 생각으로 주저하던 영신이였다면 지금은 재미있고 보람있는 일에 몰두하고있는 활기찬 인상이였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얼굴에는 자기자신과 자기를 에워싸고있는 주위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온정이 넘쳐나있었고 그것으로 하여 한결 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확실히 이전과 같은 그런 그늘진데라고는 없어보였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깊은 곳에는 한가닥의 우수가 깃들어있는것 같았다.
그런 영신이를 보느라니 자기가 무엇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말을 듣고 기뻐할 아니, 그 한가닥의 우수마저 말끔히 지워버릴 영신의 모습으로 하여 저절로 가슴이 활랑거리는 것이였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왜요, 내가 나타난게 이상합니까?》
현우는 지금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쳐왔는가 하는것도, 자기 운명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는가 하는것도 모르고 침착해있는 영신이를 보느라니 이상야릇한감이 들었다.
《사실 내가 온건 말이요. 영신동무를 기쁘게 해주자고 왔지요.》
《기쁘게요?》
눈이 동그래진 영신이는 리해가 되지 않는다는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미소를 머금었다.
《내야 언제나 영신동무한테 좋은 소식만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까. 전에는 속세를 떠나 방황하던 영신동무를 구원하러 간 조국의 사도였다면 이번엔 뭐라고 할가? 리도령의 분부를 시행하는 방자라고나 해야 할지…》
《방자요? 아이참!》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면서도 영신이는 기대가 없지 않는 눈길로 지켜보았다.
《그럼 말하지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정신을 잃든가 숨이 막히면 안되니까 우선 맹물이라도 한모금 마시고 마음의 준비부터 하시오.》
현우는 롱담처럼 말하면서도 그 롱담으로 해서 영신이가 마음의 준비를 갖출수 있게 하자고 생각했다.
《됐어요. 이젠 어떤 말을 한대도 정신을 잃지 않을테니, 자-》
영신이는 제법 숨을 크게 들이쉬고나서 손바닥으로 가슴을 쓸어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현우는 입을 열수가 없었다.

지영이가 일본에 와있다는 사실, 지금쯤은 분명 사까이에서 덕수와 만나고있을 그 믿어지지 않는 사실에 대해 말하자니 어쩐지 다시금 가슴이 달아오르는것이였다.

5

오끼해협의 검푸른 파도는 활등처럼 구붓하게 휘여든 사까이항의 백사장을 쉼없이 쓸어대고있었다. 얼마나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는지 이젠 파뿌리처럼 하얗게 바랜 모래불이였으나 그래도 아직 무슨 곡진한 사연이 남아있는지 무수한 갈기를 앞세운 파도는 계속 기슭으로 밀려드는것이였다.

서민이가 잡아놓은 집 뒤골방에서 두시간, 다시 바다가 백사장을 걸으며 두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덕수는 그새 지영이와 무슨 말을 했는지 통 기억할수가 없었다. 줄곧 깊은 생각에 잠겨 지영이 말을 듣다가도 저도 모르게 소스라쳐 고개를 쳐들군 했는데 그땐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있었는지 그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나같이 놀랍고 희한한 소식들이여서 한가슴에 받아들여 소화하기에는 너무나도 아름찼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전선과 후방에 대한 현지지도를 매일처럼 이어가신다는 장군님, 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해 떨쳐일어난 조국인민들 그리고 귀국하자부터 당중앙위원회에서 일한다는 김운해며 끝내 평양으로 들어왔다는 박룡의 소식…

적어둔것 하나없이 머리속에 새겨두었다가 되뇌이는 지영이를 덕수는 줄곧 낯선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그중에도 언제나 이역만리에 있는 재일동포들을 걱정하실 때마다 자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안팎의 원쑤들이 책동하는 살벌한 적구에서 그것도 지하에서 홀로 싸우자니 얼마나 힘들겠는가고, 그런 자기에게 안부조차 전하지 못하는것이 여간만 안타깝지 않다고 하셨

다는 장군님말씀은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았다.

그토록 안타까이 마음쓰시는 장군님을 옆에서 보고만 있을수 없어 박룡이와 김운해와 토론한 끝에 장군님의 안부라도 전해야겠다는 하나의 일념으로 바다를 건너왔다는 지영이의 말은 더더욱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게 했다.

처음에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지영이가 더없이 고맙기만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지영이를 통해 일본에서 벌어진 이러저러한 사실들을 아시게 될 장군님께서 얼마나 커다란 걱정에 잠기시랴 하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쓰려 견딜수 없었다. 장군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본에 온 지영이에게 기쁨은 고사하고 오히려 걱정을 덧쌓이게 할 무거운 걱정만 잔뜩 안겨보내게 될줄이야! 그렇지 않아도 전쟁으로 하여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 장군님이시랴! 이제 와서는 바로 이런 일본에 나타난 지영이가 못내 야속스럽기만 했다.

무엇보다도 민대파들의 책동으로 강령이 삭제된 사실이며 그것으로 하여 초래될 위험이 각일각 커가는 속에서 일본의 권력타도를 위한 무장투쟁에 나서고있는 급박한 정황, 한마디로 말해 재일조선인운동이 자신께서 가리키신대로가 아니라 다른 길로 들어서고있는것을 아신다면…

덕수는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나왔다.

(이 모든 사실을 장군님께서 아신다면… 그리고 나에 대해선 또 얼마나 섭섭하게 여기시랴!)

아무리해도 덕수는 이 엄청난 후과를 달리 변명할 길이 없었다. 그것은 배은, 그토록 고귀한 은정을 베풀어주신 장군님에 대한 가장 수치스러운 배은으로밖에는 달리 변명할수가 없었다. 물론 이전에도 자기가 장군님뜻대로 일하지 못한다는것을 깨닫기는 했으나 그래도 오늘처럼 그것이 그렇게도 큰 과오일뿐더러 돌이킬수 없는 죄악이라고까지는 통감하지 못했던것이다.

그에게는 지영이의 출현이 마치 이미부터 곪아가는 상처로 하여 아픔을 느끼던 사람이 오늘은 무섭게 터진 그 창상을 직접 제 눈으로 들여다보는 심정이였다.

《참! 집에서는 다들 무고하십니까? 아주머니랑 호일이 말입니다.》

사업상얘기를 떠난 지영이의 물음이 괴로와하는 자기를 위안해주려고 그런다는것을 덕수도 모르지 않았다.

《잘있네. 2전대회후로는 집에 가보지 못했지만 이웃에 사는 동포들이랑 일군들이 잘 돌봐주고있네. 요즘은 영신이까지 집에 와서… 참!》

영신이에 대한 생각이 미친 덕수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섰다.

《영신이 얘긴 들었나?》

《서민동무한테서 대충 들었습니다. 이젠 어엿한 교원이 되였다고 하더군요.》

《아마 숙소에 돌아가면 영신이가 와있을거네. 낮차로 도착하게 돼있으니까. 만나보면 알겠지만 몰라보게 달라졌어. 학교일에 얼마나 극성인지 모두가 칭찬이지…》

다시 걸음을 옮기며 덕수는 생각깊은 어조로 말했다.

《이번에 조국에 갈 때 꼭 함께 가라구. 동무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린 영신인가! 동무와 함께 조국에 온 영신이를 보면 장군님께선 또 얼마나 기뻐하실텐가! 박룡이는 더 말할것도 없고.》

이미 그 일에 대해서는 자기도 생각이 있다는듯 지영은 어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영신이도 영신이지만 제가 의장동지 집식구들에 대해 물은건 말입니다.》

지영은 갑자기 심중한 기색을 지었다.

《장군님께서 의장동지 아주머니며 호일이에 대해서 걱정하셨기때문입니다. 늘 경찰들의 감시를 받고있을 의장동지때문에 아주머니가 얼마나 맘고생이 크겠는가고 하시면서 호일이도 이젠 학교에 갈 나이인데 공부는 어떻게 시키고있는지, 끼니나 제대로 에우는지 근심이 된다고 하시였습니다.》

덕수는 가슴속에 불뭉치같은것이 불쑥 치미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가끔씩 집에 들릴적마다 불안한 눈길로 자기를 쳐다보면서도 그

불안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수임의 모습이며 오래간만에 나타난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방 한쪽구석에서 눈치만 흘끔흘끔 살피군 하는 호일이의 측은한 모습이 떠올랐다. 더우기 학교에 갈 땐 꼭 란도셀(멜가방)을 사주마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천가방을 들고다니는 호일이를 볼 때면 은연중 코마루가 저려들군 했다.

《동무가 장군님을 뵈온게 언젠가? 제일 최근에 뵈온게 말일세!》

잠시 바다쪽을 바라보며 생각을 더듬던 지영이가 나직한 어조로 말했다.

《2월 중순입니다. 세균무기를 사용하는 미제의 만행을 폭로하는 대외선전사업방향에 대한 과업을 받으러 당중앙에 갔을 때니까 꼭 한달전이지요.》

지영의 두눈은 어느새 류다른 광채로 빛나고있었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청사 앞뜰에 있는 실개천둔덕에서 애기나무모를 심고계셨습니다. 퍼그나 따뜻한 날씨여서 군복을 벗으신채 겨울내의바람이시였습니다. 부관들이 떠오는 애기나무들을 이미 파놓은 구뎅이에 넣고 손수 흙으로 덮어주고계시였지요.》

덕수는 내의바람으로 한자리에 앉으시여 어린 모를 심고계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상상해보려고 했으나 좀처럼 눈앞에 그려지지 않았다. 우선 전쟁이라는 엄혹한 정황과 나무를 심으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일치시키기도 어려웠거니와 보다는 눈앞에 모란봉을 거니실 때의 그 자애로운 모습이 먼저 떠올랐기때문이였다. 어느덧 장군님을 그릴 때면 언제나 그날의 모습부터 새겨지군 하는 덕수였다.

《우리가 갔을 때 마침 총참모부에서 조직한 회의에 참가할 군부대지휘관들도 거기에 도착했는데 장군님께서는 그들속에서 한 지휘관을 찾으시고는 그를 각별히 반갑게 맞이하는것이였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최현동지였지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걸음을 멈춘 지영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덕수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도 장군님께서는 덕수동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

덕수는 어리둥절해졌다. 국제정세나 해외교포운동에 대해 언급하

실 때라면 몰라도 성격이 판이한 군사회의에 참가할 군부대지휘관들앞에서 자기 말씀을 하셨다는것은 뜻밖의 일이 아닐수 없어서였다.

《저도 후에야 알았는데 그날 장군님께서는 오래간만에 최현동지를 만나셨던것입니다. 최현동지는 1211고지전투를 치른 후 얼마동안 후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참이였습니다. 그의 건강상태에 대해 일일이 알아보신 장군님께서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한손으로 그의 어깨를 힘껏 두드리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지휘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최현이를 보시오! 1211고지를 지켜낸 영웅이요! 놈들의 포격과 폭격에 고지가 몇메터 낮아지기까지 했지만 조국의 고지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배기싸움군이고 영웅이 아니겠소!〉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곧 한손가락을 세워보이시고는 이런 영웅이 또 한사람 있는데 어디 알아맞춰보라고 하시였습니다. 모두들 그가 누굴가 하고 얼굴을 마주보는데 장군님께서는 그 사람도 바로 이 최현이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장령들이 더욱 고개를 기웃거리자 그이께서는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는 바로 일본에 있는 한덕수동무요. 그도 지금 적구나 다름없는 곳에서 조국을 위해, 동포들을 위해 억세게 싸우고 있소. 미제와 일제, 거기다가 요즘은 종파들까지 못된짓을 하지만 그는 끄떡없이 동포들을 조국의 두리에 묶어세우고있소. 누가 감히 조국과 아무런 련계도 련락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싸울수 있겠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요. 나는 그를 동무들을 만나는것처럼 쉽게 만나지도 못하오. 그렇지만 믿소. 확고히 믿는단 말이요. 어째서 믿는가? 그것은 그가 조국의 의도와 요구를 자기의 심장으로 체득하고있기때문이요. 조국의 뜻을 심장으로 체득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간고한 처지에 있다 해도 오직 조국이 바라는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법이요. 그 어떤 절해고도에 있다 해도 조국이 바라는대로 사색할뿐아니라 행동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고 혁명가가 아니겠소!〉》

덕수는 저도 모르게 신음같기도 하고 비명같기도 한 소리를 터뜨리고말았다. 장군님께서 하신 그 한마디한마디의 말씀이 살점을 에이고 심장을 찢는듯 했기때문이였다. 입을 열기만 하면 당장 울음이 터져나올것 같아 얼른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조국이 바라는대로만 사색하고 행동하는 애국자, 혁명가!)

저절로 숨이 막히면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새삼스레 자신이 죄스럽고 저주롭기만 했다. 차라리 장군님께서 자기한테 꾸지람을 하시였더라면 이다지 마음이 쓰리고 고통스럽지 않을것 같았다.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그대로 받아안을수 없는 자기의 처지때문에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기고 또 찢기는것이였다.

(내가 어떻게 조국이 바라는대로 산 애국자고 혁명가란 말인가! 아니, 나야말로 도리여…)

덕수는 그만 털썩 그 자리에 무릎을 꺾고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세차게 머리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장군님!》

그는 자기자신을 용서할수 없다는것을 느낄 때에만 터뜨리는 그런 처절한 자책과 비탄이 어린 어조로 부르짖었다.

《전… 장군님께서 믿어주시는 그런 애국자가 못됩니다.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행동한 혁명가도 아닙니다. 도리여 장군님께서 호소문을 통해 주신 과업대로 종파들이 강령을 삭제하는것도 막아내지 못했을뿐아니라 그놈들을 따라가서는 안된다는걸 동포들에게 똑똑히 알려주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죽어도 지켜내야 할 조국의 고지를 놈들에게 빼앗긴 패배자입니다. 벌을 주십시오! 장군님의 뜻을 저버린 이 배은망덕한 놈에게 엄벌을 내리십시오.》

어깨를 떨며 흐느끼는 덕수의 두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그 눈물은 슬플 때 나오는 눈물이 아니였다. 가슴속에 쌓인 울분을 풀어주는 눈물도, 말 못할 애수와 번민을 덜어주는 그런 눈물도 아니였다. 마음속 갈피갈피에서 한방울한방울씩 떨어지는 그야말로 심장을 비틀어짜서 나오는 피방울같은 눈물이였다. 덕수는 난생처음 그런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그만하십시오.》

덕수를 부축하여 일으켜세운 지영이였으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뼈저린 자책과 회오에 몸부림치는 덕수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수 없었던것이다.

그럴수록 놀랍게 변한 일본현실, 자기가 있던 때와는 너무나도 달라진 재일조선인운동의 실태에 경악을 금할수가 없었다. 이젠 민대부가 공공연히 동포들을 일본혁명의 위력한 세력으로 여기면서 무장투쟁의 선봉에 나설것을 강요하고있었다. 그들은 그 리유로서 일본반동정부가 지금 아시아해방투쟁의 불길이 일본에 파급되는것을 막고 일본을 침략기지로 전환시키며 일본인민들에게 배타적인 민족감정을 고취시키기 위해 혈안이 돼있는 조건에서 그 책동을 누구보다도 소수민족들, 특히 재일조선인들이 앞장서 막아야 한다는것이였다. 최근에 발표한 《민대전국대표자회의》 결정서에는 이렇게 찍혀있었다.

《재일조선인들은 일본혁명의 확고한 동맹군으로서 앞으로 동맹관계를 더욱 긴밀히 해야 한다. 그를 위해 재일동포들에게 일본혁명이 수행되지 않으면 자신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것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모두가 일본의 민족해방민주통일전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할것이다.》

한편 일본반동들은 내외 민주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달부터 남조선괴뢰들과 남조선일본회담을 벌려놓고 재일동포들을 탄압, 추방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령》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였다.

이 모든 사실들이 지영이에게는 말할수없이 복잡했을뿐아니라 재일동포들앞에 가로놓인 난관치고는 너무나도 크고 험한것들이여서 도무지 이렇다 할 견해가 서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덕수에게 위로의 말을 비칠수가 없는것이였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저도 모르게 새나온 물음이였다. 물음이라기보다 가슴속에 도사리고있는 가실길 없는 불안이였다.

《어떻게 하다니?》

이렇게 되뇌이며 입속으로 뭐라고 웅얼거리는 덕수의 목소리는 마

치 먼곳에서 다가오는 천둥소리같았다.

《다시 강령을 채택하고 동포들을 조국의 두리에 뭉쳐세워야지!》

덕수의 대답이 어찌나도 확정적인지 지영은 그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할지 어쩔지 종잡을수 없었다.

《우린 5월에 있게 될 민전6차확대중앙위원회에서 기어이 강령을 다시 채택할 결심이네. 그걸 위해 곧 복간되는 〈해방신문〉을 철저히 우리가 장악하고 위력한 무기로 하자는거네. 신문을 장악해야 동포들을 쟁취할수 있으니까. 신문뿐아니라 통신사도 재건하고 조국의 방침을 해설하는 조선문제연구소도 새로 내올 결심이네. 어쨌든 당장은 공화국사수조항을 강령에 채택하는것, 이것이 최대의 과업이지. 나한테 이걸 하라고 가르치시였고 그걸 관철하라고 일본에 보내신 장군님이신데 그걸 못한다면 내 어떻게 장군님앞에, 조국앞에 머리를 들수 있겠나. 아니, 나한테 목숨이라는게 있어 무엇하겠나 말일세.》

결심이라기보다 어떤 절규를 토해놓는듯 한 덕수의 표정은 분노와 증오와 격정이 한데 합쳐져 무시무시한감을 자아냈다.

《쏴ㅡ》

훈훈한 봄바람이 갈기를 세운 파도를 몰고와 온 백사장을 하얗게 뒤덮었다. 지영이에게는 그 파도가 마치 지금 덕수의 가슴속에서 사품치는 격랑처럼 느껴졌다.

6

어둠에 싸인 포구쪽에서는 마을사람들이 즐기는 봄맞이놀이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려오고있었다.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하고 날이 흐리기로 유명하며 또 온천이 많기로 소문난 이 돗도리지방사람들은 봄이 오면 일본에서 제일먼저 봄명절놀이를 하는것으로도 소문나있었다.

워낙 어부들이 많은 고장이여서 노래들도 거의 바다생활과 관련된것이였다. 주렁주렁 매달아놓은 꽃불초롱아래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며 추는 춤동작도 대체로 조개를 캐거나 고기그물을 잡아당기는 시늉들이였다. 한사람이 선창을 떼면 모두가 다같이 《얏사— 에》, 《얏사— 에》하며 후렴을 따라부르는데 어떤 노래는 장밤 불러도 끝이 나지 않는것도 있었다.

어이타가 조개잡이 되였느냐
불쌍쿠나 불쌍해
얏사 에— 얏사 에—

살타고 몸여위는줄
내 어이 몰랐더냐
요사노 삿사 요사노 사—

제법 신명이 나서 부르는 노래였으나 지영이한테는 그 노래소리가 왜서인지 메마르고 답답하게만 느껴졌다. 어딘가 아득히 먼곳에서 들려오는 구슬픈 호곡같은가 하면 어떤 때는 귀전에서 앵앵거리는 모기소리처럼 귀찮게 들리기도 했다.

그처럼 애타게 그리던 영신이, 만나는 순간에 와락 그러안고 불같은 애무를 퍼부으리라 여겼던 영신이였으나 어째서인지 그런 감정은 고사하고 이상하게도 그 어떤 소외감,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와 같은 어성버성한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 느낌은 자기만 아니라 영신이도 마찬가지인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서로가 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지기만 하는것이였다.

사실 영신이를 생각할 때마다 지영은 늘 심장을 비트는듯 한 아픔을 느끼군 했다. 그 아픔은 그와 있었던 모든 사실들이 언젠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자기도 역시 그 모든것을 기억하고있으나 어쩐지 자기 아닌 누군가가 이전에 있었던 일을 자기의 기억속에 남겨둔것처럼 메마르고 빈약하게 느껴지면서도 그것으로 하여 더욱 성급하게 오는 아픔이였다.

영신이를 마주한 지금에 와서도 그는 그 생생하게 살아서 겁질기게 달라붙는 추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자기가 일본에 오게 된 사정이며 입북한 아버지의 소식을 전할 때도 영신이는 놀라거나 기뻐할 대신 줄곧 고개를 숙인채 듣기만 했다. 그의 그런 태도는 마치 굳게 닫겨진 문을 마주했을 때의 기분, 그것도 안에 사람이 있다는것을 알고 두드리지만 종내 열리지 않을 때의 소외된 느낌이 들게 했다.

지영은 자기와 영신이사이에 가로놓여있는 장애가 무엇인가를 모르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는 지금껏 조국에서 영광의 절정에서 온갖 행복을 누리며 생활했지만 영신이는 반대로 일본땅에서 갖은 고생을 다했다는 너무나도 상반된 처지에서 오는 차이, 생활이 준 감정의 차이였다. 자기가 행복했던것만치 영신이는 불행과 설음을 느끼고있으리라 여겨 그는 될수록 자기 생활에 대해서는 비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막상 그러자니 할말이 없었다. 사랑하는 처녀앞에서 하고싶은 말은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것이 그로서는 마치 숨을 쉬지 않고 노래를 불러야 하는것만치나 어렵고 힘든 일이였다. 더우기 영신이에게는 꼭 해주어야 할 말이 있었던것이다.

《영신이!》

지영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영신이를 바라보았다. 곱게 다듬어진 턱이며 굽슬굽슬 흘러내린 머리칼 그리고 꼭 다물린 자그마한 입술은 여전히 옛모습 그대로 단아하고 아름다왔으나 말없이 한곳을 응시하고있는 두눈만은 이전과는 달랐다. 눈도 그때의 맑고 순진한 눈이였으나 그 눈으로 보는 시선이 전과는 달랐다. 그 시선이 나타내는 의미는 이제는 인생이 어떤것이라는것을 알고 그 과정에 숱한 슬픔과 번민을 겪어보았으며 또 그 슬픔과 번민을 견디여낸 사람만이 지닐수 있는 그런 의지와 자신심이 어려있었다.

새롭게 변모된 영신이의 모습이 오늘따라 자기에게는 더욱 과만한 존재로 느껴졌고 그럴수록 바로 래일이면 이 아릿다운 처녀가 자기와 함께 조국으로 가게 되며 조국에 가서는 여태껏 그처럼 바랐지만 이룰수 없었던 생활, 그래서 더욱 행복하고 황홀한 새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막 어질어질해지면서 현기증이 일었다. 그런 감정은 은연중 애써 마음속에 숨기려 했던 말을

터놓지 않을수 없게 했다.

《영신이! 난 사실 영신이가 일본에서 어떤 고생을 하는지도 모르고… 될수록 영신이를 잊으려고 했소. 아무리 영신이가 그립고 보고싶어도 소식을 전할수도 없고 만날수도 없으니 잊을수밖에 없다고 여겼댔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심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신분은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였소.》

《?!》

비로소 고개를 든 영신이는 조심스러운 눈길로 지영이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은 놀라움이라기보다 어떤 의혹, 지금 지영이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혹시 자기를 놀래우려고 하는 말이 아닐가 하는 의혹이 서려있었다.

《사실이요. 내 말을 믿어주오. 그때 장군님께서는 나에게 사정이 있다 해서 흔들리는 사랑이라면 그게 무슨 사랑인가고, 이역땅에서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도 오직 동무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신이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수 있느냐고 하시면서 내가 미처 터놓지 않았던 마음속 비밀까지도 꿰뚫어보시는게 아니겠소.

그날 장군님께서는 나에게 동무가 영신이를 잊을수밖에 없다고 하는것이 다만 그를 만날수 있겠는지 하는 리유 하나때문인가고 물으시였소. 난 어쩐지 속이 뜨끔했으나 부지중 그렇다고 말씀올렸소.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아니.〉하고 고개를 저으시고는 내가 보건대 동문 지금 제 량심을 속이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혹시 영신이 아버지가 〈민단〉단장이였다는것과 어머니가 일본녀자라는데 대해 우려하는건 없는가고 다시 물으시는것이 아니겠소. 난 가슴이 철렁했소.

사실 난 영신이를 생각할 때마다 늘 영신이의 부모들, 특히 동포들을 배신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끓어올랐소. 영신이가 보고싶을 때도 그 아버지에 대한 저주를 되새기며 감정을 달래군 했소. 조국을 배반한 반동의 딸이다 하고 말이요. 그러면서도 난 내가 영신이를 잊으려 하는것은 그때문이 아니라 단지 영신이와 다시 만날 길이 없기때문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기만했던거요. 그런데 누구도 모

르게 감춰온 그 마음속 비밀을 바로 장군님께서 들여다보신거요. 장군님께서는 내가 아무 대답도 올리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있자 바로 그런 처지에 있는 영신이기에 더 열렬히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런 영신이가 동무 아니고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가겠느냐고 하시면서…》

지영은 목이 잠겨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

방금전까지만 해도 지영이의 말이 사실인가아닌가를 의심하던 영신이의 낯빛이 돌연 백지장처럼 새하얘졌다. 까딱 움직이지도 않고 지영이를 지켜보는 품이 숨조차 쉬지 않는상싶었다. 너무나도 커다란 충격이 생각은 물론 호흡까지도 방해하는게 분명했다.

지영은 될수록 영신이가 자기 말을 새겨들을수 있도록 여유를 두면서 말을 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소. 〈그렇기때문에 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장가를 가라고 하지만 동무한테는 그런 말을 못하는거요. 아니, 안하는거지. 알아두오만 동무마음만 변함없으면 어느땐가는 꼭 영신이를 만나게 되오, 또 만나야만 하는거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건 단지 영신이 한사람 운명때문이 아니요.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모두가 다 복잡다단한 운명의 길을 헤쳐온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같이 수난자들이란 말이요. 이역땅에 목숨을 붙이고 살자니 무슨 일인들 없었겠소. 간혹 조선사람의 얼을 지키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몰리운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그들모두가 다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들이고 겨레들인데 그 이상 무슨 전제나 조건이 필요하오. 우린 언제나 그들모두를 한품에 안고 운명을 같이해야 하오. …〉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장군님께서 영신이에 대해, 재일동포들에 대해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가 하는것을 비로소 절감했소.》

《…》

갑자기 한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영신이가 고개를 비틀며 모로 돌아앉았다. 마음을 진정시키려는듯 두눈을 꾹 감았는데 감긴 눈시울

이 바르르 떨리는가싶더니 어느새 그 긴 속눈섭끝에는 수정같은 맑은 눈물이 가랑가랑 맺히였다.

《영신이! 일시나마 시련앞에 맥을 놓고 주저앉아 영신이를 잊으려 했던 나를 용서해주오.》

고개를 젓던 영신이는 얼른 두손에 얼굴을 묻었다. 무슨 말을 하고싶었으나 말보다 앞서는 격정으로 하여 자신을 다잡지 못하는상싶었다.

《아… 아니예요. 저 역시, 저 역시… 지영씨를.》

영신이의 가냘픈 목소리는 제대로 이어지질 않았다.

《아버지때문에… 또 어머니때문에… 저같은건 지영씨의 반려가 될수 없다고… 그래서 이 세상을 버리고 수도원에까지 갔댔지요. 다시는 지영씨를 못 볼줄 알았지요. 그게 내 운명이라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그런데… 아, 그런 우리를…》

영신이는 와락 방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치였다. 무작정 소리내 울고싶은 욕망이 온몸을 엄습했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에 대고 자기의 진정을 토로하고싶은 욕망, 자신이 이제까지 겪은 고통을 하소하면서 몸부림치고싶은 욕망이 끝없이 치밀어올랐다.

그러면서도 그는 무어라고 형언해야 할지 알수 없는 또 하나의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난생처음 겪어보는 그런 벅찬 흥분과 열광이 자기를 어떤 알지 못할 신비스런 세계로 휘몰아가는것 같았다. 아니, 육체를 떠난 자기의 넋이 그 황홀한 열광에 실려 어디론가로 훨훨 날아가는것만 같았다.

흔히 사람들은 뜻밖의 행복에 접할 때면 지나간 과거의 불행을 추억하기마련이고 그 불행한 과거로 하여 오늘의 행복을 더 값지게 느끼는 법이라고 하지만 영신이의 경우에는 행과 불행을 따져볼 경황이 아니였다. 그것은 자기에게 차례진 행복이 너무나도 크고 아름찬 나머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가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먼저 마음을 차지하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한가지만은 똑똑히 깨닫게 되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가 오늘까지 살아온것이 그것도 제 길을 따라 걸을수 있은것은 바로 저로서는 짐작할수도, 상상할수도 없었던 그렇듯

고귀하고 따사로운 은정이 미쳤기때문이라는 그것이였다. 이미 덕수를 만난 후부터 그도 자기에게 어떤 힘이, 단순한 인정이나 동정에서 출발되는것이 아니라 그보다 몇배 더 크고 억센 힘이 미치고 있다는것을 어렴풋이 느끼기는 했지만 그 사랑이 이처럼 따사롭고 광휘로울줄은 미처 짐작도 못했다. 자기만이 아니였다. 오욕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던 아버지까지도 그 품이 있어 재생의 길을 걷고있는것이 아닌가! 이 모든것이 상기되자 새삼스레 자기며 아버지는 물론 지영이의 존재까지 자못 의심스러워지는것이였다.

(그러니 이 모든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나한테 정말 이렇게도 크나큰 영광과 행복이 닿았단 말인가!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내가 뭐길래 그처럼 애타게 바라고 찾던것이 이렇듯 일시에 이루어진단 말인가!)

늘 의혹으로만 느껴지던 그것이 오늘은 현실이 되여 눈앞에 펼쳐졌다는것을 깨닫게 되자 지난날 외우던 성서의 구절들이 다시금 되새겨지는것이였다.

(정녕 이것이 주의 구원이 있기를 바라며 땅을 그러안은채 밤낮으로 기도를 드린 대가란 말인가? 이것이 과연 안타까이 문을 두드리며 목메여 찾고 부르던 나에 대한 지존막대하고 무소불능한 하느님의 은총이란 말인가.)

불현듯 마태복음 한구절이 생각났다.

《주님은 악한자에게도 선한자에게도 골고루 해빛을 주시였고 바른자에게도 바르지 않은자에게도 다같이 비를 주시였나니…》

(아니, 아니다! 주님은 나에게 단 한줄기의 해빛도, 단 한모금의 단비도 주지 못하였다. 허구한 날 갈길 몰라 헤매던 연약한 소녀에게 자기 운명의 길을 틔워주고 힘을 주며 이끌어준 애국의 빛발… 우리 교단에 세워주고 그 길에서 참된 삶의 보람을 알게 한 그 빛발은 바로 장군님의 다함없는 사랑이고 은총이 아니랴!)

영신이의 두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여태껏 가슴속에 서려있던 해묵은 설음과 고뇌를 가셔주는 눈물이였고 불쌍하기 그지없던 자기가 행복의 요람속에 안기였다는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였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목놓아 울어도 자기를 알

아주고 지켜주는 따사로운 품이 있다는 벅찬 행복으로 하여 솟구치는 눈물이였다.

《영신이, 난 래일은 일본을 떠나야 하오. 덕수동지소식이랑 이 일본의 실태에 대해 장군님께 한시바삐 보고드려야겠단 말이요. 시간이 급하오. 그러니 영신이도 빨리 준비를 해야겠소.》

《?!》

지영이의 이 말은 이제까지 구름우에 둥둥 떠있던 영신이를 대번에 현실로 끌어내렸을뿐아니라 여태껏 자기가 못내 의심스러워하던 모든것이 사실이며 실지 자기가 짐작하는것보다 몇배 더 값지고 황홀하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그의 눈앞에는 장군님앞에서 두손을 모으고 깊숙이 고개숙여 인사올리는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는가 하면 그런 자기를 회오와 자책 그리고 이젠 진정이 어린 눈길로 지켜볼 아버지의 모습도 보이였다. 그런가 하면 여태껏 바랐지만 이룰수가 없었던것으로 하여 더 행복할 지영이와의 생활의 순간순간이 영화화면처럼 새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의 의미들을 느끼게 되자 불시에 어떤 새로운 충격이 마음을 사로잡는것이였다. 그것은 마치 더없이 값진 보석을 손에 쥐게 된 사람이 하도 그 사실이 놀랍기도 하거니와 자기가 혹시 보석을 어지럽히지나 않을가보아 은연중 내밀었던 손을 움츠리게 되는것과 같은 심정이라고 할가!

사실 영신이는 너무나도 과분한 행복앞에 서있는 자기의 존재가 두려웠다. 고스란히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분에 넘치는것이여서 그런 행복을 안겨주신 장군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고싶었다. 아니,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마음에 걸리여 두고두고 자기를 후회하게 될것만 같았다.

《지영씨!》

흐르는 눈물을 씻을념도 않고 마주보는 영신이의 얼굴에는 그 어떤 결심이 어려있었다.

《전 저에게 돌려주신 장군님의 사랑이 어떤것인가를 알게 될수록 또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은정깊은것인가를 깨닫게 될수록 어쩐지…》

북받쳐오르는 격정에 영신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저도 조국에 가고싶어요. 가서 장군님께 인사를 올리고… 정말이지 마음껏 행복해보고싶어요. 그런데 제가 장군님께서 조국에 오는것을 바라신다고 해서 그대로 행동한다면 제자신은 무슨 면목으로 장군님을 뵙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신이의 눈빛과 표정에는 자기가 생각하는것이 옳으리라는 확신과 함께 그것을 지영이가 리해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가 비껴있었다.

《더우기 장군님께서 늘 덕수동지에 대해 걱정하고계시는데 그를 곁에서나마 도울수 있는 제가 조국으로 간다면… 그래도 제가 덕수동지를 돕고있다면 장군님께서도 다소나마 마음을 놓으시지 않겠어요. 정말이지 전 이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장군님께서 절 지켜주시고 지영씨가 절…》

영신이의 두눈에는 무엇인가 빛나게 타오르고있었다.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초월한 더없이 고결한 희열이라고 해야 할 그런것이 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있던 비애를 뚫고 힘차게 솟아오르는듯싶었다. 그런 영신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는지 지영이에게는 마치 그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도 남는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꺼리여하면서 될수록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쓰는듯이 보였다.

《영신이!》

지영은 저도 모르게 영신이의 손을 잡았다. 여태껏 느끼지 못했던 영신이에 대한 새로운 애정이 심장을 활활 태우면서 손으로 또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자기가 이미 알고있는것보다 몇곱절이나 더 아름답게 변모된 영신이의 정신적내면과 원했던바대로 행복하지 못했던 과거를 이제부터는 오직 장군님을 위해 바치려는데서 찾으려는 그의 불같은 마음에 대한 찬탄이였다.

지영은 어떻게 자기가 영신이를 그러안았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쿵쿵 하는 심장의 박동소리만 들려올뿐이였다. 영신이의 타는듯 한 입김을 귀가에서 느꼈으나 그는 그것이 입김이 아니라 무엇인가 영원히 생기발랄한 어떤 힘과 기쁨처럼 여겨지는것이였다.

《영신이 ―》

《지영씨 ―》
그 시각부터 지영이와 영신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다만 뜨거운 불이 주위에서 무서운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듯 한감을 느낄뿐이였다. 두사람사이에는 그들만의 새로운 대화 즉 마음과 마음의 신비로운 대화가 이루어지고있었던것이다.

돌아가는 배길은
노잡이 성수나지
얏사 에― 얏사 에―

그리운 랑군님이
나를 기다린다네
요사노 삿사 요사노 사―

밤은 깊었으나 명절노래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7

사위는 쥐죽은듯 조용했다.
이따금씩 골목을 지나는 자동차의 경적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멀리에서 요나끼소바(밤국수)장사군의 손나팔소리가 간간이 들려올뿐이였다. 어느덧 자정이 가까와온다는것을 알리고있었다.
학우서방의 2층 다락방에 앉아있는 덕수의 마음은 초조하기 짝이 없었다. 얼마후에 있게 될 민전6차확대중앙위원회에서 공화국사수강령을 채택하기 위해 여러 지방으로 파견한 일군들의 전화보고를 기다리는 참이였다.
그는 측근들에게 매 사람들이 중앙위원들을 얼마나 포섭하는가에 따라 강령문제는 물론 앞으로의 투쟁에서 주도권을 쥐는가 못 쥐는가 하는것이 달려있다는것을 강조하고나서 그동안 자기가 쓴 《애국진영의 순화와 강화를 위하여》라는 론문을 나누어주었다.

《중앙위원들을 쟁취하자면 무엇보다도 그들이 민대파들의 정체부터 똑바로 알게 해야 하오. 그들의 책동을 구체적으로 폭로한 글이니 참고로 하시오. 이젠 놈들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정을 고려해서 일하길 바라오.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밤 10시후에 전화련계를 가지기로 합시다.》

오늘이 토요일이였다.

히로시마에 있는 서민이한테서는 벌써 전화가 걸려왔다.

조련이 해산된 후부터 히로시마에 내려간 서민은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덕수에게 보고하고 결론을 받아 일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에 일군들을 파견하면서도 그가 있는 쥬시고꾸지방에는 따로 사람을 보내지 않았던것이다.

매사에 남달리 민감하고 예민한 그는 어떤 문제인 경우에도 철저히 조국의 의도, 장군님의 뜻에 비추어 판단하고 분석했으며 때에 따라서는 그 분석에 기초한 자기의 견해까지 첨부했는데 그때마다 그의 예리한 주장에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군 했다. 오늘 전화에서도 그는 지금상태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무엇이라는것을 알고있을뿐더러 그것을 위해 벌써 많은 일을 벌려나가고있었다.

전화종소리가 따르릉 하고 울리였다.

얼른 수화기를 들자 웅글면서도 힘찬 최은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호꾸지방에 가있어 천리가 넘는 곳에서 오는 전화였으나 자정이 가까와서 그런지 바로 옆에서 하는것처럼 잘 들리였다.

《그래 거기 일은 어떻게 돼가오?》

《그저 그런대로 되여갑니다.》

늘 성과가 있거나 자랑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될수록 표현하기를 저어하는 최은한은 다른 사람같으면 떠들썩하게 기뻐할 일도 여느때의 시무룩한 어조로 《그저 그런대로.》하고 대꾸할뿐이였다. 그러나 그가 써내는 글들을 보면 얼마나 조리있고 론리가 명백한지 놀라울 지경이였다.

《역시 민대파들의 정체를 폭로하는데서 기본은 조국에 대한 그자들의 립장입니다. 공화국사수강령을 삭제하려는 그들의 의도

를 설명해주니까 첨엔 고개를 기웃거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끄덕끄덕하더란 말입니다.》

《그렇다? 그럼 다른데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 경험을 알려주어야겠구만. 그러니 도호꾸중앙위원들은 다 강령채택을 지지할것 같다 그 말이요?》

《지금상태로 나가면 그런대로…》

또 《그런대로…》라는 대답이였으나 거기에 담겨있는 그자신의 확신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만큼 말보다도 실천을 중시하는 그였고 그래서 그만치 더 믿음직하게 여기는터였다.

문득 지영이에게 기어이 강령을 다시 채택하겠다는 결의를 장군님께 말씀드려달라고 했던 일이 떠올랐다.

《알겠습니다. 덕수동지의 결심을 꼭 장군님께 보고드리지요. 그러면 장군님께서도 한결 마음을 놓으실것입니다.》

전쟁의 무거운 중하로 잠시도 마음놓지 못하실 장군님, 특히 복잡해진 재일조선인운동으로 하여 심뇌가 크실 장군님께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릴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여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어쩐지 눈앞에 뜨거운 눈물이 핑하니 어리였다.

이때 갑자기 아래쪽에서 마루를 밟는 소리가 쿵쿵 하고 들려왔다. 늘 계단을 조심스럽게 오르내리는 박정현이가 아닌것은 물론 누구를 만날 땐 사전에 통고가 있군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조차 무시되고있는것이 분명했다. 틀림없이 아무 예고없이 집에 뛰여들어 2층으로 올라오는 사람이라는것이 명백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미닫이문이 주르르 열리였다. 미처 알아볼새도 없이 꾸벅하고 허리를 굽혔다펴는 사람은 현우였다. 무엇이 들었는지 잔등에는 불룩한 배낭이 지워져있었으나 그는 이마살을 잔뜩 찌프린채 푸념부터 해댔다.

《아직도 녀맹부위원장동진 제가 의장동지의 특별보좌관이라는걸 모릅니까? 글쎄 나를 막 쫓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처구니가 없다는듯이 고개를 한쪽으로 비틀어꽂았다.

그제야 현우를 따라 2층으로 올라온 박정현이 난처한 표정으

로 덕수를 바라보았다. 그런 박정현이앞에 대뜸 배낭을 벗어놓은 현우는 와락 아구리부터 풀어헤쳤다. 자기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보좌관인가 하는것을 실물로 증명해보이려는것 같았다.

《자, 이건 집에서 보낸 수임누이 편집니다. 호일이 편지도 있지요. 그리고 이건 나까도메동포들이 보내는 식찬인데 고등어절임과 낫또구요. 그리고 이건 그새 민대파들이 뗘군 지시문과 신문 〈북극성〉들인데…》

그의 태도에는 자, 이래도 내가 쫓겨나야 하느냐는 불만이 어려있었다.

《됐네. 내가 미처 자네에 대해 말해주지 못했으니까…》

덕수는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량해를 바라는 어조로 말했다. 그처럼 자기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현우의 마음을 몰라준것이 자책이 되기도 한 그는 현우의 불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온건 말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듯이 심각한 눈길로 마주보는 현우의 기색에 덕수는 긴장했다. 그제야 이렇게 밤늦게 찾아온것이 단지 편지나 반찬때문이 아니라는 짐작이 갔다.

《좀전에 입수한 소식인데 래일모레가 5.1절이 아닙니까. 일본의 민주단체들이 조직한 이 메데행사에 민대파들이 조방대원들을 동원시킨답니다.》

《그건 나도 알고있네.》

낮에 태길이가 그 소식을 전해주었었다. 그때 덕수는 조방대가 시위에 참가하면 복잡해질수 있기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참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행사가 끝난 다음 일부 시위대를 인민광장에 다시 모이게 하고는 거기서 군국주의타도를 위한 성토대회를 열고 무장투쟁의 봉화를 드는데 그걸 위한 기본행동대를 조방대로 꾸렸다는겁니다.》

《뭐라구?》

덕수는 와뜰했다.

(폭동이구나!)

그러니까 이자들이 5.1절기념행사를 폭동적인 행사로 유도함으로써 온 일본땅에 무장투쟁의 불길을 지피자는것이다. 그 도화선에 바로 조방대가 먼저 불을 달게 하자는것이다.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에 숨이 막히였다.

덕수는 얼른 시계를 보았다. 벌써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였다. 그러나 당장 무슨 대책을 취해야 했다. 아니 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안되겠네. 자넨 밖에 나가 택시를 한대 잡아오게.》

덕수는 벽에 걸린 웃옷을 손에 들며 현우에게 말했다.

《어디로 가시려구요?》

박정현이 걱정스레 물었으나 그는 대답대신 전화가 오면 알려주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일러주었다.

밖으로 나온 덕수는 그길로 현우와 함께 택시를 타고 메구로로 향했다. 메구로에 있는 원철의 집을 찾아가려는것이였다. 아무래도 그부터 만나지 않을수 없었다. 필경 그의 계획에 의해 민대부전체가 뒤에서 움직이고있는것이 틀림없었기때문이였다.

아따미의 아지로려관에서 그와 다툰 일이며 다시는 맞서지 않겠다고 침을 뱉고 돌아섰던 일이 떠올랐으나 지금은 그런것을 가릴 계제가 아니였다. 이미의 감정이나 체면이 무엇이란 말인가! 동포들, 특히 수천명의 청년들의 운명이 바람앞의 초불같은 위험에 직면해있지 않는가!

택시가 메구로의 신주택지구에 들어서자 덕수는 현우를 차안에 남게 하고는 곧바로 판자울타리를 둘러친 한 집앞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만에야 현관등이 켜지더니 가정부인지 원철의 처인지 분간할수 없는 몸집이 실한 녀자가 문짬으로 빠끔히 내다보았다.

《급한 일로 주인을 찾아왔소. 꼭 만나야 한다고 전해주오.》

《들어오세요.》

순순히 문을 여는 녀인의 태도로 보아 이미 누구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들여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것이 헨둥했다. 어쨌든 마음이 놓였다. 원철이가 집에 없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가셔졌기때문이였다.

녀인을 따라 복도굽인돌이에 이른 덕수는 비스듬히 열려진 미닫이사이로 들여다보이는 방안풍경에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방금까지 여러 사람이 있은듯 담배연기가 뽀얗게 서려있는데 누비돗자리바닥에는 무슨 략도를 그려놓은듯 한 커다란 종이장들이 무수히 널려있었다. 그 략도들에 하오리를 입은 원철이가 허리를 굽힌채 무슨 표시들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분명 각 시위대들의 행동방향들을 표시하는것 같았다. 방구석에 있는 원다반우에는 정종독구리병들과 락화생껍질이 수북이 담겨있었다.

《이렇게 갑자기 뛰여들어 안됐소.》

고개를 들고 덕수를 바라보던 원철은 한참만에야 허리를 폈는데 그의 표정엔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하는 놀라움과 《혹시 내가 무슨 착각을 하는게 아니야?》하는 의혹이 어려있었다. 그러나 결코 자기가 꿈을 꾸고있는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는지 대뜸 꿋꿋한 눈길로 덕수를 마주보았다.

《놀라지 마오. 내가 온건 단지 한가지 부탁때문이요.》

덕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격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된다고 마음다지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네들이 5.1절행사를 어떻게 계획하고있는가를 알고왔소. 행사자체를 폭력적으로 이끈다는데도 의견이 있지만 그 폭력시위의 앞장에 우리 청년들을 내세운다는건 절대로 찬성할수 없소.》

원철의 두눈이 가느스름하니 좁혀졌다. 도대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왔을가 하고 따져보는것 같기도 하고 이 드센 상대를 어떻게 물리쳐야겠는가를 타산해보는것 같기도 했다.

《간또대진재때만 해도 2만 3천여명의 동포들이 생죽음을 당했소. 탄광이나 광산, 군용기지건설장에서 흔적도 없이 죽은 사람은 또 얼마요. 해방이 되여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살이를 하거나 강제추방당하지 않았소. 그런데 오늘은 당신들이 동포들에게 스스로 목에 올가미를 걸게 하고있단 말이요. 그래 여태껏 갖은 천대를 받으며 살아온 동포들이 불쌍하지도 않소? 그들을 또다시 죽음의 함정에 몰아넣어야겠느냐 말이요.》

《죽음의 함정?》

원철은 천천히 덕수쪽으로 돌아앉았다. 그 바람에 앞을 여미고있던 하오리앞자락이 헤쳐지면서 털이 부얼부얼한 장딴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당신은 계급적의무를 자각한 동포들의 투쟁이 무모하다는거요? 자기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떨쳐나선 동포들의 투쟁을 희생으로 보는가 말이요. 그래, 우리 무산자들에게 혁명승리를 위해 싸우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일이 뭐요? 알아두오만 계급은 어디까지나 민족우에 있소. 민족우에 있는 계급을 도리여 민족의 울타리안에 놓고 생각하는 그런 무식한 견해는 버리시오.》

《뭐요?》

덕수는 울컥 화가 치밀어올랐으나 참고 말했다.

《나는 어떤 계급도 민족우에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오. 더우기 자기 몸에 조선사람의 피가 조금이라도 흐르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동포들을 그런 무모한 행동에 내몰진 않을거란 말이요.》

《그것 참!》

원철은 털이 가득한 자기의 장딴지를 철썩 때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심각한 눈빛으로 덕수를 직시했다.

《좋소! 다른건 다 부정하시오. 당신이 우리의 의도를 리해하지 않아도 좋고 반대해도 좋소. 당신이야 이미 민대부와 담을 쌓은지 오래고 당활동에서도 손을 뗀 사람이니까. 그러나 한가지,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원칙, 재일조선인운동이 지켜야 할 원칙만은 인정해야 하오.》

《무슨 원칙이요?》

《그거야 당신도 잘 알지 않소!》

원철의 비만한 얼굴이 확고한 자신심으로 굳어졌다.

《일국일당원칙이요. 그렇소! 우리는 오직 이 하나의 원칙과 요구에 충실할뿐이요. 이 원칙은 이미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보편화되였으며 지금도 엄연히 일반화되고있소. 그래 이 원칙대로 운동을 이끄는것이 잘못이라는거요, 아니면 그 원칙이 잘못되였다는거요? 어디 말해보오!》

《…》

덕수는 대꾸할 말을 찾을수가 없었다.

그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건 아니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커다란 담벽이 되여 정면으로 앞을 막아나서지는 않았다. 일국일당원칙, 국제적으로 일반화돼왔으며 지금도 의연히 로동계급당들에 적용되고있는 활동원칙, 한나라안에 있는 진보세력은 그 나라 전위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이 원칙대로 하면 재일조선인운동도 응당 일본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공산당 즉 민대부의 지시를 받아문다면 재일조선인운동을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조국이 바라는대로 이끌어가기 어려운것이였다. 더우기 그 원칙을 민대파들이 들고나온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이젠 일본공산당지도부자체가 그 원칙에 복종할것을 요구하는데 있었다.

덕수는 저절로 신음이 샜다. 그런 덕수를 위로라도 하듯이 원철은 나직이 그러나 힘을 주어 말했다.

《바야흐로 혁명의 폭풍이 이 땅을 휩쓸게 되오.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자각한 무산자들이,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거나 똑똑히 지켜보시오.》

덕수는 자기가 어떻게 밖으로 나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속이 활랑거릴뿐이였다.

밖에서는 현우가 웬 젊은이와 함께 택시옆에 서있었다. 다가가보니 뜻밖에도 태길이였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는 물음에 그는 재호를 찾아다니는길이라고 했다. 땀밴 이마를 주먹으로 씻어대며 씩씩거리는 품이 여기까지 줄창 달려온듯싶었다.

《재호는 왜?》

《글쎄 덕수동지의 지시대로 조방대가 시위에 참가해선 안된다는걸 전하려고 갔는데 사무실에서는 전학련대표와 조방대참모가 서로 옥신각신하고있는게 아닙니까. 들어보니 래일 시위때 경찰들의 저지를 뚫고 인민광장으로 돌입할 과업을 받은 전학련친구들이 그걸 맡지 못하겠다면서 그것까지도 조방대가 맡아야 한다는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고나서 조방대는 광장돌입은커녕 시위에도 안 참가할것이라고 하자 전학련에서

는 이미 그 파업을 조방대책임자가 수락했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호동지를 찾아다니는데 어디 있어야지요.》

(재호가?)

사태가 여간 심각하지 않음을 직감한 덕수는 창황중에도 더우기 방금 원철이가 말하던 일국일당원칙의 장벽에 부딪쳐 머리속이 복잡한 속에서도 오직 동포청년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만은 떠나지 않았다.

《그래, 재호가 지금 어디에 있을것 같나?》

어떻게든 재호를 찾아내여 폭동을 제지시켜야 했다.

《글쎄요. 산별회관이 아니면 시위대지휘부에나 있겠는지…》

《당장 그리로 가자구!》

덕수가 택시쪽으로 다가서려고 하자 현우가 얼른 앞을 막아나섰다.

《안됩니다. 거긴 위험합니다.》

따라나선 태길이가 뒤를 달았다.

《그렇습니다. 거긴 벌써 래일 시위에 대한 냄새를 맡은 형사들이 한벌 깔려있습니다. 재호동진 제가 찾아보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조방대가 앞장서 괜한 희생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단 말입니다.》

《아니, 난 그래도 그를 찾아야겠네. 만약 다른데서 그를 만나면 일러주게.》

덕수는 태길이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다.

《폭동은 절대로 우리가 할일이 아니라고, 조국이 바라는게 아니라고 말이네. 알겠나?》

그러고도 덕수는 망연자실한채 서있었다.

(과연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8

드디여 일본력사에서는 처음으로 있게 될 사변적이고도 충격적인 시각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있었다.

도꾜 징그가이엔을 뒤덮은 50만이나 되는 대군중의 물결을 바라

보는 원철은 숨이 막히다못해 온몸이 전류에 감전되기라도 한것처럼 부르르 떨리기까지 했다.

로동계급의 명절인 5.1절에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보기는 처음이였다. 동서남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사람 또 사람의 파도였다. 프랑카드를 흔드는 사람, 조합기를 휘두르는 사람, 이마에 붉은 띠를 동이고 주먹을 하늘높이 쳐드는 사람, 말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열기띤 연설들이 계속될 때마다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와 함께 힘찬 구호의 합성이 5월의 창공을 뒤흔들었다.

《민족의 독립을 완수하자!》

《재군비, 재무장을 반대한다!》

《저임금을 통일행동으로 분쇄하자!》

원철은 집회장 한가운데 세워져있는 두개의 아치형구호에 시선을 멈추었다. 집회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별도로 지시해서 만들어세운 구호였다.

《일본인민의 적은 조선인민의 적이다!》

《3반투쟁은 조선사람의 과업이다!》

그는 이 구호를 통해 오늘집회가 단지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위한 일본인민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일본혁명을 함께 수행하고있는 조선사람들과의 공동모임이라는것을 보여줌으로써 일본사람들에게는 자기옆에 언제나 믿음직한 동맹자, 조선사람이 있다는것을 깨닫게 하고 또 조선사람들에게는 일본혁명수행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인식시키려고 했다.

사실 그는 자기에게 그토록 중요한 임무를 맡겨준 일본공산당의 기대에 보답할 일념으로 하여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이미 봄에 있은 남조선일본회담반대투쟁과 《출입국관리령》을 반대하는 3.7국회투쟁을 통해 원철의 지도능력을 새롭게 인식한 당지도부에서는 이번 5.1절기념행사에서 그 솜씨를 다시한번 시위할 과업을 일임했던것이다.

따져보면 그럴만도 한 일이였다. 당의 무장혁명방침을 집행한다고 하면서도 여태까지는 소소한 롱성투쟁이나 산발적인 시위정도가

고작이였으나 원철이가 맡아 지도한 3.7국회투쟁은 온 일본땅을 법석 끓게 만들었던것이다.

잘 준비된 천여명의 조방대원들이 국회청사에까지 돌입하여 들이댄 드세찬 실력투쟁은 로농당, 개진당 등 일본의 각 정당들은 말할것도 없고 외무성과 법무성을 비롯한 내각까지 비틀거리게 만들었었다. 국회와 내각에서는 즉시 림시 휴회를 선포했지만 그것으로도 사태를 무마시킬수 없게 되자 법안에 대한 재심의를 결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원철은 일약 당내에서 리론가로서뿐만아니라 실천투사로서의 새로운 인정도 받게 되였다.

원철은 이번 5.1절행사 역시 일본로동계급투쟁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지게 할 대담한 결심을 품고 준비를 다그쳐왔다.

요즘에 와서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 어떤 비상한 일, 세상을 깜짝 놀래울 일을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참을수 없는 욕망을 느끼군 했는데 이번 일이야말로 바로 그런 중대사가 아닐수 없었다.

오늘의 실력투쟁을 준비하면서 그는 민전일군들과 조방대원들에게 이렇게 강조했다.

《동무들! 기다리던 시각은 마침내 도래했소. 더는 주저하지 말고 단호한 공격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단 말이요. 만약 이러한 때 우리가 주저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자신의 후퇴와 패배를 의미하오. 나는 이번 5.1절실력투쟁에서 우리 동포들이 특히 조방대원들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어떻게 싸우는가를 일본사람들과 온 세상에 다시한번 뚜렷이 시위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소.》

오늘투쟁에서 그가 중심에 둔것은 우선 집회가 끝난 다음 여러 방향으로 나뉘여져 하게 되여있는 시위를 폭동으로 이끄는것이였다. 그다음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다시 궁성앞 인민광장에 집결시켜 거기에서 일본반동당국의 타도를 위한 전민항쟁을 호소하는 성토대회를 열자는것이였다.

일본의 각계인사들에 이어 민전 의장인 리종훈이 단상에 나서서 축사를 한다. 축사로서는 그가 마지막차례였고 그의 축사가 끝나면

군중들이 동서남북과 중앙에 있는 다섯개 방향의 도로를 따라 행진하게 되여있었다.

원철은 곧 오늘투쟁의 지휘처로 정해놓은 뻐스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제때에 정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면서 지휘하자면 자동차가 편리하다고 여긴 그는 뻐스에 십여명의 시위참모들과 련락원들을 미리 대기시켜놓았던것이다.

리종훈의 축사가 끝나자 이번에는 《인터나쇼날》의 우렁찬 노래소리가 터져오르면서 또다시 축기와 조합기들이 하늘높이 펄럭이였다.

일어나라 저주로 인맞은
주리고 종된자세계
…

원철은 절로 가슴이 달아올랐다.

(그래, 이것이 바로 혁명이 아닌가! 주리고 종된자들이 새 세계를 위해 결사전을 벌리는 이것이야말로 당이 바라는것이 아닌가! 아니, 바로 이것을 위해 몸바쳐온 내가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정신적희열에 만족해있는 순간처럼 자기본위가 되는적은 없는것이다. 그런 순간에는 이 세상에 자기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는 없는것처럼 여겨지는 법인데 지금 원철이도 바로 그런 심정이였다.

격정에 북받쳐 걸음을 옮기던 그는 문득 한덕수를 만났던 일이며 그가 쓴 《애국진영의 순화와 강화를 위하여》라는 론문을 보고 놀랐던 일이 떠올랐다. 이런 때에 어째서 그 불쾌한 일이 떠오르는지 알수 없었으나 이상하게도 론문의 자자구구까지 선명하게 되살아나는것이였다.

서두에서 애국적인가 그렇지 못한가를 규정하는 기준은 철저히 조국의 정책을 받들고 싸우는가 싸우지 않는가 하는데 있다는것을 지적한 론문은 강령을 삭제한 자기들, 민대파성원들과 민전의 일부 지도일군들을 반민족적인 집단으로 준렬히 타매하고있었다. 그러

면서 만일 이 엄중한 사태를 그대로 묵과한다면, 재일조선인운동의 지도권을 민대부와 민전의 매국매족분자들에게 맡겨놓는다면 앞으로는 동포들이 조국을 잃어버리게 될뿐아니라 다시금 망국노의 처지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 때문에 더는 지체하지 말고 모두가 떨쳐일어나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고 처절하게 호소했던것이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무분별한 한덕수의 태도에 아연했댔으나 다시 읽었을 때는 그가 무엇을 노리고 누구를 향해 비수를 겨누고있는가를 깨닫고는 은연중 긴장했다. 그러나 세번째 보았을 때는 만약 이 글을 일군들이나 동포들이 본다면 어떻게 될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로 오싹 소름이 끼쳤다. 더우기 덕수가 이달에 있게 될 민전 6차확대중앙위원회에서 다시 강령을 채택하기 위한 준비를 필사적으로 하고있다는것과 적지 않은 중앙위원들이 벌써 그에게 공감하고있다는것을 그도 알고있었다. 그런 조건에서 이 론문이 공개된다면…

이미 론문이 수천부나 인쇄되여 학우서방에 보관돼있다는것을 안 그는 그시로 행동대원들을 시켜 몽땅 회수해오게 했을뿐아니라 민전일군들과 민대파성원들이 보지 못하게 소각해버렸던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왜 자기가 그렇게까지 불안해했을가 하는것이 리해되지도 않았거니와 그랬던 자신이 가소롭게 여겨지기도 했다. 혁명을 위해 한몸바칠 각오로 용약 일선에 나서서 맹활동을 하고있는 자기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오늘은 50만이나 되는 대군중이 자기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고있다는 엄연한 사실은 그때 일이 흡사 어떤 그림자를 보고 놀랐던 사람이 자신을 비웃을 때와 같은 허구픈 심정에 휩싸이게 하는것이였다.

《혁명 만세!》

가슴속에 용솟음치는 흥분으로 하여 원철은 흔히 엄숙한 순간에 짓게 되는 그런 비장한 미소를 띠우며 사람들을 향해 힘껏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도로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시위를 구경하기 위해 전차지붕에 올라가있는 사람들까지도 모자를 벗어 흔들거나 주먹을 쳐들어보이며 《혁명 만세!》하고 따라 웨치는것이였다.

지휘차가 대기하고있는 주차장에 이른 그는 곧 걸음을 멈추고 멀리에서 이쪽방향으로 다가오는 한 대렬, 히비야공회당앞길을 거쳐 네거리교차점을 가까이 하고있는 시위대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히비야공회당으로부터 도꾜역전거리를 지나 미군사령부앞으로 빠지게 되여있는 이 중부방향시위대가 오늘 투쟁의 봉화를 지피게 되여있었다. 일본의 전학련성원들과 조방대청년들로 구성된 이 시위대는 민대부도꾜지역 책임자인 김충구가 인솔하고있었다.

한자리에 서서 긴장하고도 초조한 눈길로 대오를 지켜보던 원철은 시위대선두에 섰던 청년들이 손나팔을 만들어 구호를 웨쳤을 때에야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모두다 인민광장으로 가자!》

《인민광장에서 성토대회를 열자!》

이 구호에 따라 시위대는 일시에 궁성에 있는 히비야음악당쪽으로 꺾어들었다.

인민광장이란 《천황》이 있는 궁성앞 넓은 공지인데 일본당국은 거기에서 일체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게 엄격히 단속하고있었다. 하지만 원철은 오늘 투쟁의 중요성과 의의로 보아 바로 거기에서 기어이 성토대회를 가진 다음 실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였다.

《요시다권력집단을 타도하자!》

《민주정부 수립하자!》

연방 구호를 웨치며 궁성쪽으로 밀려가는 시위대는 어느덧 구보로 달리고있었다.

쿵쿵 하고 흉벽을 치는 심장의 박동을 느끼며 뻐스에 오른 원철은 차를 궁성쪽으로 몰게 했다. 도화선에 불이 달렸다고는 하지만 안심할수는 없었다. 이제 그 불꽃이 장약된 폭약을 어느만치 효과적으로 터뜨리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

대오의 선두가 히비야음악당앞에 이르자 거기에 있던 수백명의 경찰들이 일시에 도로를 막아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벌써 시위대의 위세에 압도되여 주밋거리기 시작했다.

터진 보뚝에 던져지는 돌멩이가 무슨 맥을 출것인가! 아니나다를가 대하처럼 들이닥치는 시위대의 격류에 경찰들은 가랑잎처럼 뿌

리워나갔다. 일차 저지선을 뚫고 미군사령부앞을 지나 궁성으로 향하는 대오는 어느새 격류가 아니라 질풍노도로 변해있었다. 노도가 휩쓰는 곳이면 모든것이 폐허로 되듯이 시위대가 지나가자 미군사령부앞에 서있는 승용차, 군용차들의 유리창이 박산나는가 하면 어떤 차는 통채로 벌렁 뒤집혀지기도 했다.

도로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벌써 오늘 시위가 여느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있다는것을 직감하고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다.

뻐스가 인민광장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른 순간 원철은 새로운 정황에 놀라고말았다. 궁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니쥬바시를 사이에 두고 완전무장을 갖춘 천여명의 경찰들이 전투서렬을 지은채 서있기때문이였다. 결코 이곳만은 통과시킬수 없다는듯이 또 바로 거기에 목숨을 건 자기들의 임무가 있다는듯이 자못 엄엄한 태세로 모여있었다. 모자끈들을 턱에 단단히 걸었을뿐아니라 손에는 총과 곤봉을 들고 마주오는 시위대를 무섭게 노려보고있었다.

(과연 저 저지선을 돌파할수 있을것인가! 하지만 조방대의 결사대가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고 기어이 광장으로 들어갈것이다.)

원철은 곧 한 련락원을 시켜 요요기방향으로 행진해가는 동부시위대를 이쪽으로 돌아서게 했다. 그 시위대는 로재호가 지휘하는 기본행동대로서 이럴 경우를 예견하여 미리 궁성가까이에서 행진하도록 했던것이다.

마침내 시위대는 니쥬바시를 바라보는 공지에서 경찰들과 마주서게 되였다. 완전무장한 경찰들의 도도한 위용에 일시 주춤한 시위자들이였으나 다시 대오를 수습하고 서렬을 지었다. 그리고는 한걸음한걸음 경찰들을 맞받아나가기 시작했다.

무엇때문인지 대오가 다시 흔들리는 바람에 앞쪽을 바라본 원철은 흠칫하지 않을수 없었다. 한자리에서 시위대를 맞이할 태세였던 경찰들이 일제히 시위대를 향해 마주오기때문이였다. 틀림없이 한자리에서 방어만 할수 없다는, 이런 때야말로 도리여 주동적인 공격으로 넘어가 시위대가 다리를 건느기 전에 대오를 분산시키려는 타산이 분명했다.

이때 예상외로 한무리의 경찰들이 불시에 시위대의 뒤쪽으로 들

이닥쳤다. 음악당앞에서 밀려난 경찰들이 대오를 수습하여 다시 달려든것이였다. 그 바람에 시위대는 결국 앞뒤에 있는 경찰들의 포위속에 갇히고말았다.

《절대 흩어지지 말라고 하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대오를 유지해야 하오! 이제 곧 저지선이 돌파될거요.》

원철의 지시에 따라 련락원들이 시위대를 향해 달려갔다.

바로 그때였다.

《와—》하는 우렁찬 함성과 함께 손에 공화국기를 들고 이마에 붉은 띠를 동인 수백명의 조방대원들이 마치 성난 갈범처럼 방금 시위대를 포위한 경찰들의 뒤덜미를 덮쳤다. 로재호가 인솔하는 동부시위대였다. 얼마나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던지 경찰들은 혼비백산하여 뺑소니를 쳤다.

그 사품치는 와류속에서 한 청년이 누군가를 찾고있었다. 새벽부터 재호를 찾는 태길이였다. 목언저리며 얼굴에는 진액같은 땀방울이 돋아있고 찢어진 남방샤쯔의 한쪽소매가 어깨우에서 너펄거렸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재호를 만나 덕수의 지시를 전달해야 했고 그래서 광장돌입을 저지시켜야만 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폭동에는 절대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하던 덕수의 격노한 얼굴이 얼른거릴뿐이였다. 그러나 재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사태처럼 밀려드는 인파속에서 재호를 찾을길이 없었다.

재호를 찾는것을 단념한 그는 곧 광장으로 흘러가는 대오의 선두를 향해 나가기 시작했다.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던것이다. 광장으로 가는 대오의 선두에 있는 조방대원들을 설복하여 대오를 전진시키지 말자는 결심이였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정황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며 덕수가 바라는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것이다.

담벽처럼 빼곡이 들어선 사람들의 잔등이며 어깨를 비집고 겨우 제일 앞머리로 나선 그는 다짜고짜 대오앞에 나서며 두팔을 벌렸다.

《동무들—》

한쪽어깨우에서 너펄거리던 소매자락이 언제 떨어져나갔는지 한팔은 맨살 그대로였다.

《조방대동무들!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함성에 삼켜 들리지도 않았다. 다시 손나팔을 만들어 웨쳤으나 이번에는 조수처럼 밀려드는 사람들의 물결에 그자신이 뒤로 물러나지 않을수 없었다. 잠시도 멈춰서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대오여서 그는 뒤걸음질하며 소리쳤다.

《동무들! 그 자리에 서시오. 전진하지 말아야 하오! 우리가 멈춰서야 뒤사람도 멈춰서고 그래야…》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누구도 듣지 못했고 들을념도 안했다. 무작정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웨치며 전진할뿐이였다.

문득 자신의 고립무원함에 태길은 눈물이 났다. 오직 자기 하나뿐이라는 소외감이 어떤 분노를 촉발시켰지만 아무리 분해도 자기 힘으로는 어쩔수 없다는 안타까움으로 하여 가슴이 터지는것 같았다.

갑자기 무엇때문인지 맨 앞장에 서있던 조방대원들이 흠칫하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뒤돌아본 태길은 그만 저도 모르게 소스라쳤다. 다리목을 지키고있던 수백명의 경찰들중 서렬에 있던 놈들이 일제히 총구를 겨누어든것이 아닌가!

《안되오! 절대로 전진해선 안되오!》

급해난 태길은 두팔을 마구 휘저으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하지만 곧 대렬뒤쪽에서 겁을 먹지 말라, 총을 겨누긴 했지만 쏘진 못한다, 계속 전진하라는 소리가 왕왕 울려퍼졌다. 시위참모들의 지시였다.

다시 대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무들! 제발 서시오, 그 자리에 멈춰서란 말이요.》

두팔로 대오를 막아선 태길이가 아무리 용을 쓰며 뻗디디여도 그는 계속 뒤로 밀리우기만 했다. 총을 겨누고있는 경찰들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와졌다. 15메터, 10메터, 7메터…

숨이 막히고 가슴이 떨리였다. 언제 터질지 모를 무시무시한 정적이 온 광장을 휩쓸었다. 멀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녀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가 하면 눈을 가리우고 뒤로 돌아서기도 했다.

순간 갑자기 야무진 구령소리와 함께 나란히 겨누어든 총구들에서 탄알이 몰방으로 터져나왔다.

《탕! 타탕— 땅 땅!》

맨앞에서 대오를 향해 돌아서있던 태길이가 앞청년을 그러안은채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동시에 네댓명의 청년들도 허리를 비틀며 꼬꾸라졌다. 삽시에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올랐다. 대오는 말그대로 쑤셔놓은 벌둥지처럼 되고말았다. 시위자고 경찰이고 피를 본 맹수가 되여 서로 때리고 차고 받고 찌르고 하는 류혈참극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시위대를 지휘하던 로재호는 그제야 사태의 심중성을 깨달았다. 이젠 어떤 힘으로도 대오를 수습할수 없다는것이 명백했다. 광장돌입이 이처럼 어려워질줄은 모르고 경찰들의 저지를 뚫을 임무를 말아나선것이 후회되였다.

어제 저녁 전학련책임자가 달려와 갑자기 임무가 달라졌다면서 자기네가 일선에 서기는 하지만 경찰들이 광장에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경우에는 조방대가 그 돌파구를 뚫어야 한다는것이였다.

(우리가?)

응당 맡을수 있는 일이였으나 어째선지 화가 났다. 오늘 투쟁이 일조공동의 인민투쟁인데 어째서 자기네는 몸을 사리고 조방대를 앞세우는가 하는 불만이 스며들었던것이다.

《그러니 당신넨 무서우니 피한다는거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다른 임무가 있다잖소. 어쨌든 지휘부에서는 저지선을 돌파하는건 조방대가 맡아야 한다고 했소.》

여전히 비위가 상했지만 설마 무슨 일이 있으랴싶었는데 경찰들이 총까지 란사하며 발악하지 않는가.

그는 무작정 총소리가 난 앞쪽을 향해 달리였다. 정신없이 달려가던 그는 발치에 무엇인가 걸리는 바람에 내려다보았다. 온통 얼굴이 피범벅이 된 사람이 가슴을 부둥켜안고 모지름을 쓰고있었다. 누군지 알아볼수 없었으나 젊은 청년임이 분명했다.

(조선사람인가?)

문득 이런 생각부터 뇌리를 쳤다. 오금을 꺾고 주저앉은 그는 얼른 청년의 팔부터 겨드랑이에 꼈다.

《자, 일어나라구!》

누군가가 자기를 부축한다는것을 의식했는지 청년은 감았던 눈을 힘들게 쳐들었다.

《아— 재호… 동지…》
《?!》
재호는 와락 달려들어 청년의 두볼을 감싸쥐였다.
《아니 이게, 태길이가 아닌가? 엉!》
《찾았습니다… 재호동지를… 왜 이제야…》
《나를?》
피가 흐르는 태길이의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스쳤다.
《덕수동지가… 무장투쟁은… 폭동은… 절대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조국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그걸 재호동지한테…》
(그러니 그걸 전하자고?)
불현듯 얼마전 네가 얼마나 조국을 배반하고있는지 아느냐고 뺨을 후려치던 덕수의 모습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자— 업히라구, 어서!》
재호가 등을 돌려대자 태길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전… 전 이젠 틀렸습니다… 그런데 재호동지…》
재호의 손목을 붙잡은 태길이는 간절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어째서… 어째서 조방대가… 저지선을 뚫어야 합니까? 예? 어째서 우리 조선청년들이… 일본혁명의 돌격대로 나서서 총알받이가… 돼야 하나 말입니다…》
(어째서?)
우리의 임무는 일본혁명이고 그러자면 무장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부르짖던 자기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그러자 어째선지 여태껏 귀전에서 왕왕거리던 울부짖음들이 가뭇없이 사라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당장 터질것만 같은 가슴을 그는 저도 모르게 움켜쥐였다.
태길이를 업으려고 팔을 꼈으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가쁜숨을 몰아쉬던 그는 말없이 재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손을 내밀었다.
《재호동지… 내 손에… 기발… 공화국기발을…》
재호는 황황히 주위를 두리번거리였다. 멀지 않은 곳에 그가 쥐였던 기발이 있었다. 그 기발을 쥐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자기의 손을 무자비하게 걷어차는것이였다. 쳐다볼새도 없이 저만치 달려간 그들은 주먹을 쳐들며 목청껏 부르짖는

것이였다.

《일본의 독립과 해방 만세!》

《요시다정권을 타도하자!》

여태껏 버릇처럼 외우며 쓰던 말이 어쩐지 새삼스럽게 들리였다. 처음 들어보는 말처럼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태길이를 껴안고 일어나긴 했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 알수 없었다. 방금 어째서 우리가 저지선을 뚫어야 하는가고 하던 태길이의 말이 가슴을 때렸다. 그러자 다시금 자기를 노려보던 덕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가 하면 동포들의 운명은 오직 일본혁명을 완수하는데 있기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서야 한다고 하던 원철의 말도 생생하니 상기됐다.

《아—》

재호는 가슴이 무너지는듯 한 신음을 토했다.

류혈참극은 멎지 않고 계속되였다. 피범벅이 된 사람들이 여기저기 길바닥에서 나딩굴었다. 가슴을 부여안고 땅을 허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쳐들고 뭐라고 울부짖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경찰들의 주먹안에 머리칼을 움켜잡히운채 마대자루처럼 질질 끌려가는 사람도 있었다. 인민광장으로 불리우는 궁성앞은 그야말로 피의 광장으로 변해버렸다.

원철은 저로서도 알지 못할 흥분에 몸을 떨었다. 눈앞에 벌어지고있는 처참하고도 무시무시한 광경에 소름이 끼치는가 하면 또 어떤 비장하고도 장렬한 쾌감으로 하여 가슴이 뻐근해지기도 했다.

그의 머리속에는 장엄하면서도 매혹적인 장면들이 연방 떠올랐다. 가슴이 답답해진 그는 와락 목깃을 풀어헤쳤다.

《쾅! 콰광 쾅쾅!》

갑자기 천지를 뒤흔드는듯 한 요란한 폭발소리에 놀란 그는 얼른 그쪽을 바라보았다. 주차장가까이에 있는 연유탕크가 폭발하면서 무시무시한 불기둥들이 공중으로 솟구쳐오르고있었다. 연거퍼 하늘로 날아오르는 휘발유통들은 지붕우에서 폭탄처럼 무섭게 작렬했다.

타래치는 시꺼먼 연기로 하여 궁성일대와 히비야교차점, 도꾜역

상공은 온통 먹칠을 해놓은듯싶었다. 도꾜역사앞 네거리에 있는 미군사령부건물도 검은 연기에 휩싸여버렸다. 그 바람에 사령부옥상에 나붓기는 성조기와 유엔기발은 조기처럼 까맣게 물들어있었다.

(그렇다! 혁명! 바로 이것이 혁명이다!)

원철은 다시금 비상한 전률을 온몸에 느끼며 궁성쪽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9

《〈피의 메데!〉 전후 일본최대의 류혈사건! 사상자 200여명, 검거자 1 300명!》

《선혈로 물든 궁성앞 인민광장!》

《무엇을 위한 누구의 시위인가?》

온 일본땅이 법석 끓었다. 신문이라는 신문은 옹근 1면이 하나같이 5.1절폭력시위에 대한 기사와 사진들로 메꾸어져있었다. 어느 신문이나 다 사건의 책임을 조선사람들에게 돌리고있었고 사진역시 공화국기를 든 청년들이 경찰들과 결투를 벌리고있는 장면들이였다. 제목부터 로골적인 조선인들을 규탄한 기사들도 많았다.

《일본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장본인— 재일조선인들!》

《〈민전〉, 일본에서 무엇을 노리는가?》

《민주발전의 암, 재일조선인들 즉시 추방해야》

이런 특호활자의 제목아래 민전과 재일동포들에 대해 전에없이 신랄한 비난을 퍼부어댔다.

신문들은 법무총재 우에다가 발표한 담화내용도 게재했다. 서슬푸른 담화에서 우에다는 《위험한 폭력단체》인 민전에 대한 법적대책을 즉시 강구하겠다는것과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일동포들을 《외국인등록법》과 《출입국관리령》에 근거하여 철저히 조사장악한 후 사소한 위법현상인 경우에도 가차없이 추방할 방침이라는것을 단호히 언명했다.

특히 신문들에서 눈길을 끄는것은 일본의 정계, 학계, 사회계의

이름있는 인사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발표한 소감들이였다. 그들은 하나와 같이 이번 사건을 《유감》으로 여기며 《불만스럽게》 생각한다는것이였고 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 전쟁의 울화를 일본에 쏟아놓은 란폭한 야쯔아다리(화김에 하는 행동)에는 조소를 금할수 없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재일조선인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일본에 수출하려는 무모한 의도를 버려야 한다.》고까지 한 정객도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이번 5.1절폭력시위를 계기로 민전과 재일동포들은 일본사람들속에서 풀길없는 불만과 반감을 사게 된것이였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내용의 기사가 실린 신문도 있었는데 그것은 민대파들이 발간하는 일본판신문 《새조선》과 《북극성》이였다.

거기에는 《이번 5.1절혁명적시위는 미제의 식민지정책에 대한 전후 최대의 반미저항투쟁이였을뿐아니라 요시다반동정권의 매국파쑈정책을 반대하는 거대한 민족해방독립투쟁으로서 일본혁명의 일대 전환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인민적봉화》라고 지적하고 《5 000여명의 동포들이 일본의 민주력량과 단결하여 영웅적투쟁을 벌림으로써 조선사람의 불굴의 기개를 온 세상에 다시한번 시위하였다.》고 대서특필했다. 그리고 《이번 투쟁에서 얻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위력을 앞으로는 전국적인 무장투쟁으로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력점을 찍어 강조했다.

덕수는 여러장의 신문들이 널려있는 편집탁주위에 둘러앉아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5.1절폭력시위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이전 해방신문사에 모인 일군들이였다.

민전에서는 김훈, 리계백, 언론활동가들로는 리심철, 윤봉구, 김병소, 최은한, 김병식, 교육부문에서는 림광철, 리진규, 리동준이 참가했는데 늘 자리를 같이하던 윤덕곤과 김상기는 빠졌다. 그들이 참가하지 못한 리유는 5.1절사태에 불만을 품은 일본사람들이 야밤에 윤덕곤의 집과 학우서방에 달려들어 《조선사람들을 몰아내라!》고 소리치며 돌멩이와 빈 병들을 마구 던지는 바람에 부상을

당했던것이다. 윤덕곤은 그다지 심하지 않았지만 격분한 일본사람들을 설복하러 나섰던 김상기는 날아드는 돌멩이에 머리와 어깨를 다쳐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형편이였다.

《이젠 같이 있는 일본학생들까지도 뭐라는지 압니까? 민전을 〈불순한 단체〉나 〈위험한 단체〉라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폭파해야 할 단체〉라고 한단 말입니다.》

도꾜중고 교장인 림광철이 모난 얼굴을 쳐들고 분에 넘쳐 말했다. 학교《페쇄령》직후 일본인교장이 배치되여오자 그는 한 학교에 어떻게 두 교장이 있을수 있느냐며 어디까지나 학교교장은 자기라는것을 만장에서 선포하는 바람에 일본인교장은 아예 주눅이 들어버렸고 그의 남다른 배짱과 결패에 감동된 일본학생들까지도 그를 교장으로 여기며 따랐던것이다.

《이젠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교장이 아니라 대장이라고 수군거리지요. 폭력대장이라는거지 뭡니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 대한 집단폭행도 꺼리낌없이 하고있단 말입니다.》

《어제 밤에 이웃에 사는 대학교수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지 않겠소.》

이번에는 건설통신사 사장이였던 김병소가 편집탁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교단에 나서기만 하면 학생들이 묻는다는거요. 묻는게 아니라 따지고든다는거지. 〈교수님은 언제나 조선사람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해왔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선 어떻게 리해하십니까?〉 하고 말이요. 그때마다 자긴 말문이 막히군 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좀 대달라는게 아니겠소. 글쎄 내가 뭐라고 하겠소.》

《내가 걱정스러운건 무엇보다도…》

잠자코 앉아있던 리계백이 코잔등으로 미끄러져내린 안경을 밀어올리며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민전 초기부터 서기장으로 일해오는 그였으나 요즘에 와서는 한사코 일을 못하겠다고 덕수에게 들이대군 했다. 그 리유는 민대파들이 하는짓이 옳지 않다는것을 알고도 남는 그가 그들의 지시를 받아물어야 할뿐아니라 집행까지 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였다.

사실 민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일들은 의장들보다도 서기장인 그가 주관해야 할것이 더 많았다. 사업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집행하는것은 그가 직접 전문부서들을 통해 하게 되여있으나 문제는 어느것 하나도 자기가 의도하거나 주장하는대로 진척시키기는커녕 도리여 매번 민대파들의 지시를 좇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워낙 웬만한 불만쯤은 나타내지 않는 진중한 사람이였지만 서기장노릇만은 못하겠다고 뻗대군 했는데 그때마다 덕수는 타이르는듯 말했다.

《계백동무! 우리가 지금 자신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따질 때요? 조국이 시련을 겪고있고 동포들의 운명이 생사갈림길에 놓여있지 않소. 참읍시다, 조국을 위해 참고 동포들을 위해 참아야 한단 말이요.》

남다른 처지로 하여 요즘에 와서는 우울해있는 리계백이였으나 될수록 그런 티는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을 이었다.

《문제는 동포들과 청년들이 이젠 민대파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받아물고있다는 사실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지시가 조국의 뜻인가 한단 말이요.》

리계백은 옆에 앉아있는 덕수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자기 말에 어떤 대꾸가 있으리라 여기고 쳐다보는 눈길이였지만 덕수는 여전히 책상우에 놓여있는 신문을 뒤적거리기만 했다.

공직에서 추방된 다음부터 특히 최근에 오면서 덕수에게는 하나의 버릇이 생겼는데 그것은 무슨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면 여느때처럼 먼저 의제를 상정시키고 거기에 대해 토론하는것이 아니라 서로가 털어놓는 이러저러한 얘기를 한참씩 듣군 하는것이였다. 그 얘기가 개인에 한하는것이든 다른 사람의 일이든 또 그 자신의 감정이든 다른 사람의 견해든 상관치 않았다. 공식적인 모임에 못 참가할뿐더러 사람들조차 마음대로 만날수 없는 처지여서 그렇게 하는것이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기도 했거니와 그 과정에 자기가 세워놓은 판단이나 견해를 재확인해볼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습관에서라기보다도 마음을 차지하고있는 강한 충격으로 하여 더 입을 열지 못하고있었다.

낮에 그는 일군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는 태길이네 집에 갔었다. 당장 령구차에 실려 화장터로 떠나는 태길이의 널을 붙들고 통곡하던 그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데 있습니껴, 예? 관동대진재땐 남편이 놈들의 죽창에 찔려죽더니 오늘은 또 태길이까지 놈들의 총에 맞아 죽었으니, 아이-고- 난 이젠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껴, 예? 말 좀 하이소, 아- 하늘도 무심해라. …》

덕수는 머리를 풀어헤친채 가슴을 쥐여뜯는 태길이 어머니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할수 없었다. 생각같아서는 태길이 어머니를 붙들고 같이 울고싶은 충동, 그토록 자기를 위해주던 태길이 어머니 심장에 대고 진정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고싶은 욕망에 견딜수 없었다. 당장에라도 태길이를 죽인건 민대파들이라고, 조국을 배신한 그놈들이 동포들을 죽음에로 내몰았다고 소리치고싶었지만 목이 메여 말이 나가지 않았다.

《어머니!》

덕수는 태길이 어머니를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다 내 잘못입니다. 태길이가 잘못된거며 숱한 동포들이 피해를 본건 다 내가 일을 제대로 못했기때문입니다. 태길이는 정말 마지막까지…》

《아이-고, 세상에-》

와락 덕수에게 달려든 태길이 어머니는 또다시 가슴이 찢어지는듯 한 통곡을 쏟아놓았다. …

《내 이번에 오사까에 가보고 깜짝 놀란건 말이요.》

언제나 무슨 말을 할 때면 마른침부터 꿀꺽 삼키군 하는 윤봉구가 긴 목을 빼들면서 가랑가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벌써 무장투쟁과업을 받아물고 준비를 다그치고있는 지부가 열세군데나 되는데 그 준비란게 하나같이 경찰서나 파출소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할 계획이더란 말입니다. 어떤데는 벌써 부대가 편성되고 훈련요강이 작성돼있길래 훈련은 어디에서 하는가고 물었더니 산에 들어가서 한다는겁니다. 모두들 윽윽 하고 벼르는게 당장 무슨 일을 칠것만 같더란 말입니다.》

《옳소! 그것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안되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우려가 자기 견해와 같다는 것을 느낀 덕수는 확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 민전 6차 확대중앙위원회에서 무장투쟁로선문제를 기본안건으로 내세운거요. 동시에 이미 군중토의에 붙인 민전강령을 저들의 의도대로 최종확정하자는것인데 이것 역시 그 결정에 따라 동포들을 무장투쟁의 일선에 내세우자는거요. 그렇소. 정황은 이처럼 위급하오. 이 위급한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생각을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긴장한 눈길로 덕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번 6차 확대중앙위원회에서 기어이 강령을 다시 채택해야 하오. 이것이 첫째요. 강령을 채택하지 못하고는 놈들의 책동을 막을수 없고 우리의 주장을 관철할수도 없소. 강령을 채택하는것, 이것이 지상의 과업이요. 또 이 과업이 곧 조국을 지키는것으로 되며 탈선한 재일조선인운동을 제 궤도에 올려세우는 담보로 되오. 강령을 놓고 벌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놈들이 이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물론 재일 60만동포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결사전을 벌립시다.》

《…》

모두들 숙연한 침묵에 휩싸였다. 마치 마지막계선까지 후퇴한 전사들이 최후결사전을 벌릴데 대한 명령을 받아안았을 때처럼 엄숙하고도 비장한 표정들이였다.

《이번 투쟁에서 모든 동지들이 꼭 알아야 할것은》

덕수는 한결 엄숙한 표정을 지은채 말을 이었다.

《바로 우리가 종파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다시 공화국사수강령을 채택하며 그리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옳바른 길로 돌려세우겠다는것을 이미 장군님께 보고드렸다는 사실이요. 지금 장군님께서는 일본의 이런 실태를 알고계실뿐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가를 지켜보고계시오. 때문에 우린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이번 싸움에서 꼭 이겨야만 하오. 모두가 이걸 꼭 명심해주길 바라오.》

격식을 차린 모임은 아니였으나 마치 모두들 큰 회의에 참가하여 더없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안은 사람처럼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특히 자기의 활동이 동포들의 운명과 직접 련결되여있으며 그것을 장군님께서 지켜보고계신다는것으로 하여 모두의 얼굴들에는 한결같이 결연한 의지와 결심이 넘쳐있었다.

10

어느새 누렇게 황이 들어 한잎두잎 떨어지기 시작하는 느티나무며 삼나무의 잎사귀들을 밟으며 덕수는 우에노공원의 소로길을 걷고있었다.

빽빽이 줄지어 늘어선 삼나무밭주변으로는 품을 들여 손질한 꽃밭이 펼쳐져있는데 거기에는 다리아며 수국, 찔레꽃들이 때이르게 찾아온 가을철을 원망하는듯 한풀 처진 모습으로 생기를 잃고 서있었다.

덕수는 자기가 지금 공원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발길이 닿는대로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감각이 온통 마비되여버린것 같았다. 다만 왕청같이 엉뚱하고도 기묘한 상념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머리속에 불쑥불쑥 떠올랐다가는 사라지군 할뿐이였다.

사실 그는 지금 전에는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극도의 혼란과 허탈상태에 빠져있었다. 드센 타격을 받고 정신이 혼몽해질 때처럼 모든것이 이중으로 헛갈려보이기만 했다. 여느때는 아무리 괴로와도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번쩍 쳐들면 멀리 산들이 보이고 그 산들너머에 있을 조국땅이 눈앞에 새겨지면서 팔과 다리에 저절로 힘이 생기군 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했다. 힘은 고사하고 오직 끝장이다 하는 절망이 덜미를 집어 온몸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는듯싶었다.

그는 얼마전에 있은 민전 6차 확대중앙위원회에서 결심한대로 기어이 공화국사수강령을 다시 채택하고야말았다. 놈들의 저지를 박차고 회의장에 뚫고들어갔을뿐아니라 강령문제에 대한 가결에서

도 중앙위원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얻고야말았다. 그야말로 운명을 건 고심참담한 필사적인 투쟁의 결과가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된것이 아니였다.

강령채택이 어쩔수 없는 기정사실로 되자 민대파들은 놀랍게도 그에 대한 보복을 곧 저들의 책동을 더욱 로골화하는 방향으로 나왔다. 겉으로는 강령을 인정하는것처럼 하면서도 안으로는 무장투쟁방침을 한층 더 발악적으로 내리먹이였다. 실로 상상도 못했던 일이였다. 말하자면 너희들의 강령채택을 우린 무장투쟁으로 대답한다는 식이였고 이제 강령을 채택한다고 해서 결코 재일조선인운동의 성격이나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뿐더러 달라지게 할수도 없다는 배심이였다. 일단 발동이 걸려 내닫기 시작한 기관찬데 이제 와서 행선지를 바꾼다고 하여 그 기차가 다른데로 갈리 만무하다는, 그 밑에 깔아놓은 철길이 일본혁명이라는 종착점을 향하고있는데야 무서울게 무어냐 하는 뻔뻔스러운 태도였다.

실제로 그랬다. 그 기관차는 점점 더 무서운 속도를 내면서 종착점을 향해 달리고있었다. 5.1절시위가 있은 이후 한두달사이에 일어난 폭력사건들자체가 그것을 뚜렷이 실증하고있었다.

6월 중순 오사까의 조방대원 1 000여명이 산속에 들어가 훈련을 한 후 그동안 준비한 사제폭탄과 화염병으로 야밤에 미군병영을 기습하고 군용렬차를 습격한 사건이 터졌다. 뒤늦게 달려온 경찰들과의 격전으로 하여 50여명의 부상자가 나고 300여명이 체포되였다.

며칠후 오사까의 호오보공장이 조방대원들이 설치한 시한폭탄에 파괴되면서 공장은 물론 린근일대가 무서운 불바다로 화했다.

7월초 나고야의 오오수에서는 시위자들이 불시에 경찰서, 파출소들을 기습하고는 무기를 탈취한 다음 그 무기로 경찰들과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치렬한 조우전을 벌리는 바람에 또다시 숱한 사상자가 나고 300여명의 청년들이 체포되였다.

일본신문들은 이젠 유감이나 불만이 아니라 재일본조선인들에 대한 응징과 보복에 대해 떠들었고 드러내놓고 집단강제추방을 부르짖었다. 지어는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정권을 잡으려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망발까지 웨치면서 적대감정을 고취하였다.

백주에 일군들에 대한 테로행위가 감행되는가 하면 널려있는 동포들의 집들에 대한 습격이 잦아졌다. 기관들과 학교들이 무시로 기습을 당하거나 방화를 당했다. 동포들은 불안해하고 학교들이나 기관들에서는 밤에는 물론 낮에까지도 경비를 서야 하는 형편이였다.

이럴 때 중국에 망명해있는 일본공산당 서기장 도꾸다가 《아까하다》에 발표한 《일본공산당창건 30주년에 즈음하여》라는 론문이 또한 충격적이였다.

론문은 혁명을 일면적인 실력투쟁으로 대치하려는 인기주의적 경향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보다 대중적이고 전민적인 항쟁을 벌려야 한다는것과 그러기 위하여서는 합법적인 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를테면 뒤에서 소소하게 소요를 일으킬것이 아니라 정면에서 합법적인 투쟁을 과감하게 벌리라는것이였다.

그 요구에 따라 민대부에서는 곧 민전이 앞으로는 모든 활동을 합법적으로 전개할데 대해서와 당면하게는 명년 3월에 있게 될 총선거에 모든 력량을 집중시킬것을 지시했다. 그 지시를 받아문 민전은 서슴없이 《재일조선인선거강령》을 작성하여 동포들에게 총선거를 자신의 선거로 여기고 일본의 민족해방민주국민정부를 수립하는데 적극 떨쳐나서라고 호소했다.

특히 엄중한것은 민전의 전민항쟁에 대한 일본공산당의 요구에 따라 조방대를 유격대와 같은 군사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전국통일사령부를 설치하고 그밑에 세개의 지방사령부를 내오며 체계적인 군사훈련과 무기획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것이였다. 금년중으로 조방대원들을 4만여명으로 보강할 지시도 각 지방본부들에 시달했다. 그야말로 일본혁명의 전초선에 나설 무장대, 돌격대로서의 준비였다.

이 모든 조치들은 이젠 일본공산당이 합법적인 투쟁을 호소하고 있고 그 투쟁을 뒤에서 지켜주고 밀어준다는데서 오는 배심에서 출발되였다.

이런 사태를 놓고 며칠째 뜬눈으로 모대긴 덕수였다. 아무리 생

각해도 이렇다 할 대책은커녕 앞으로 어떻게 하리라는 궁냥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캄캄한 밤중에 등불을 켜들고 헤매던 사람이 그 등불마저 꺼져버렸을 때와 같은 암담한 심정이라고 할가? 거기다가 발밑에 천길 아득한 낭떠러지를 마주한 사람의 심정이기도 했다. 아래는 캄캄한 심연, 한점의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미로의 나락이였다.

무엇보다 괴로운것은 탈선된 재일조선인운동을 바로잡겠다고 그처럼 거듭 장군님께 굳게 다지였던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였다.

일단 강령이 채택된 이상 이제부터는 민대파들의 책동을 정면으로 분쇄하리라던 계획은 고사하고 도리여 더욱 발악적으로 나오는 그들의 책동으로 하여 이젠 재일조선인운동이 막다른 지경에 이르고만것이다. 이 모든 사태를 자기 힘으로는 더는 어쩔수 없다는 무서운 좌절감이 가슴을 찢었다. 아무리 그것을 인정하고싶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이 엄연한 현실이야말로 그에게 더없는 고통과 헤아릴길 없는 절망을 안겨주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기를 쓰고 싸워온 그였지만 이젠 솟아날 구멍은 보이지 않고 통채로 무너져내린 하늘에 깔려 숨조차 쉬기 어려운 형편이였다.

《아－》

그는 터져나오는 신음을 삼키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젠 분노나 저주라는것도 의의를 가지지 못했다. 위험하다든가 급하다든가 하는 감각조차 없었다. 덮어놓고 이젠 끝장이라는 미칠것 같은 절망뿐이였다.

(과연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정녕 재일조선인운동은 이렇게 끝장이 나고야마는가!)

며칠동안 그는 이 하나의 고민에 휩싸여 몸부림쳤으나 해결책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러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한가지 결심에 이르렀다.

(할수 없지! 우리에게 그외에 무슨 방도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자기의 결심이 옳은가 어떤가를 다시 몇번이고 따져보고난 그는 전화로 김훈을 찾아 우에노공원으로 나오라고 이르고는 그길로 공원에 왔던것이다.

고개를 숙인채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던 그는 문득 자기 몸에 무엇이 부딪치는 바람에 고개를 들었다.

화판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의아한 눈길로 마주쳐다보고있었다. 그는 자기에게 부딪치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없는 덕수를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다가 필경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는지 얼른 화판쪽으로 돌아서는것이였다.

그제야 덕수는 공원에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것을 알았다. 본래 벚꽃이 만발하는 봄철이래야 초만원을 이루는 공원이였지만 요즘같은 가을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있었다. 대개가 가을마다 전통적으로 열리군 하는 미술전 《우에노의 가을》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였다.

또다시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쉰 그는 은연중 자기앞에 있는 동상에 시선이 미쳤다. 유까다(사무라이들의 여름옷)를 걸친 사이고다까모리가 개를 끌고 가는 모습을 형상한 동상이였다.

오래동안 지속된 전국시대의 일본을 통일한 도요도미 히데요시처럼 조선을 정복함으로써 저들 파벌 내각의 위기와 인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사이고, 얼핏 보면 거뜬한 차림으로 아침산보를 나선듯 한 모습이지만 실은 가는 옹노를 허리에 꽂고 산토끼를 잡으러 가는 길이였다. 뒤에 따라걷는 개도 방안에서 딩구는 애견이 아니라 포악한 사냥개였다. 그런 사이고의 모습이 오늘따라 어쩐지 덕수에게는 새삼스레 느껴졌다.

(산토끼를 잡으러 가는 저 사이고야말로 아무 죄도 없는 동포들을 무모한 투쟁에로 내몰아 희생시키는 원철이와 무엇이 다른가! 사이고가 60년전에 우리 나라를 먹으려 했다면 원철이는 오늘 동포들한테서 조국을 빼앗으려는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유들유들한 상판에 군턱이 진데다가 눈섭까지 치켜올라간 사이고의 모습이 신통히도 원철이와 비슷했다.

(그래, 저 끈에 매달려 졸졸 끌려가는 사냥개는 원철의 하수인인

민대파들이지. 《정한론》을 주장한 사이고나 동포들에게 일본혁명을 주장하는 원철이가 무엇이 다른가! 하나는 침략을 해서 지배자가 되려고 했다면 다른 하나는 스스로 지배자의 겨드랑이에 기여들어가려는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젖어있느라고 덕수는 자기앞에 김훈이가 다가선것도 알지 못했다.

《아니, 화초원으로 오라고 해놓고 여기 와있으면 어떡합니까?》

김훈이 살집이 좋은 목덜미를 손수건으로 문지르며 말했을 때에야 덕수는 그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것이 상기됐다. 화초원에서 한참 헤맨듯 김훈의 얼굴은 땀에 젖어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언제나 에돌기를 싫어하고 직방 들이대군 하는 김훈이였으나 지금은 이미부터 덕수가 오늘의 사태를 놓고 고민하고있음을 알고있다는, 그래서 이젠 어떤 결심이 섰으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는 기대가 어려있었다.

《…》

덕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나무의자에 걸터앉았다. 그에게 해야 할 말들을 되새겨보느라니 어쩐지 가슴이 저려들어 입을 열수가 없었다.

《김훈동무! 내 동무한테야 무얼 숨기겠소. 동무도 알다싶이 우린 지금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있소. 이젠 민대파들이 가면을 벗어던지고 로골적으로 책동하고있고 적잖은 동포들은 덮어놓고 그놈들을 따르고있는 형편이요. 특히 이젠 일본공산당자체가 일국일당원칙을 내대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좌우지하고있단 말이요!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막을수 있겠는가를 따져보았지만 난 아무런 방도를 찾을수가 없소. 당장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떠오르지 않거니와 이젠 그 무엇으로써도 이 사태를 바로잡을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소.》

덕수의 입에서는 절로 무거운 한숨이 터져나왔다.

《?!》

눈이 휘둥그래진 김훈이 얼른 자리를 고쳐앉으며 덕수를 마주보았다. 과연 이 사람이 덕수가 맞긴 맞나 하는 표정이였다. 어떤 경우에도 비관과 좌절을 모르고 불사신처럼 일떠서군 하던 덕수가 이런 말을 한다는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였다.

《그럼 어쩐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묻는 김훈의 목소리에는 의혹과 함께 감출길 없는 불안이 서려있었다.

《솔직히 말해 난 지금 벼랑끝에 서있는 심정이요. 재일조선인운동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경각에 이른 동포들의 운명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 도무지…》

덕수는 말을 이을수 없었다. 요 며칠사이 자기 가슴속에 쌓이기 시작한 무력한 분노와 생살이 찢기는듯 한 고통, 짓눌려있던 어떤 반항과 절망감이 새삼스레 왈칵 솟구쳐올랐기때문이였다.

《난 우리가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조차 잡을수 없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취할수 있는 대책이 뭐겠소? 그건 오직 하나밖에 없소.》

덕수는 심중한 눈길로 김훈을 바라보았다. 호흡이 가빠지면서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김훈이 역시 숨을 죽이고 덕수의 말을 기다렸다.

《이 실태를 한시바삐 장군님께 보고드리는 길밖에 없다는거요.》

《예?—》

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덕수가 차마 그런 결심까지 했으리라고는 미처 짐작하지 못한듯싶었다.

《나도 몇번이고 따져보았소. 지금 전쟁으로 분망하실 장군님께 이런 보고까지 올려야겠느냐 하고 말이요. 더우기 그이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일을 하지 못하여 사업을 망쳐놓고도 이제 와서 이런 보고를 드린다는것이 더없이 괴롭소.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야 더는 어쩔수 없지 않소. 우리가 동포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벌은 후에 받기로 하고 우선은 이 실태를 장군님께 보고드리는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실분은 오직 **김일성**장군님뿐이시오.》

《…》

깊은 생각에 잠긴 김훈은 화석처럼 굳어져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 실태를 장군님께 보고드리느냐 하는건데…》

다시한번 김훈을 마주본 덕수는 나직하나 확고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으로 보나 임무의 중요성으로 보아 난 바로 동무가 이 과업을 맡아주었으면 하는거요.》

《?!》

덕수를 바라보는 김훈의 눈에서는 불꽃이 펑끗 했다.

《제가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해도 주저하거나 동요하는 일이 없이 즉시로 결심을 내리는 그였으나 자기앞에 닥친 임무가 너무나도 중대하고 아름찬것이여서 선뜻 용단을 내릴수가 없는상싶었다.

《내 생각은 이렇소. 조국으로 가는 문젠데 밀선을 리용할수도 있겠지만 그건 불안전하고 미덥지 못하기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자는거요. 10월 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평화회의〉에 민전도 공식대표로 참가하게 되여있는것만큼 바로 그 회의에 동무가 대표로 참가한 후 그길로 조국으로 가 장군님께 보고드렸으면 하는거요. 장군님께서 어떤 결론이 계시면 그 즉시 다시 베이징에 돌아와 우리와 련계를 취해야 하오. 하지만 이건 아직 내 혼자의 생각일따름이요. 심중한 문제니만치 깊이 생각해보고 결심을 내리시오.》

덕수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난 김훈은 아무말없이 걸음만 옮기였다. 공원을 나서서 퍼그나 먼길을 걸어올 때까지 한마디의 대꾸도 없던 그는 덕수가 역전쪽으로 꺾어들려 하자 걸음을 멈추며 흔연한 기색을 지어보였다.

《덕수동지, 너무 걱정마십시오. 누구든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거야 명백한 일이 아닙니까. 내 생각해보겠습니다.》

뜨거운 눈길로 마주보던 두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던것처럼 다시 역전으로 향했다.

그길로 학우서방에 도착한 덕수는 거기서 뜻밖의 소식,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에 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것은 호일이가 위급한 상태니 당장 ×병원으로 오라는 수임이의 련락이였다.

11

흰 위생복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분주스레 자기앞을 오갔지만 구급실앞에 서있는 수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옆에서 자기의 팔에 매달려 한사코 앉으라고 권하는 간호원의 말조차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다만 까만 눈을 반짝거리며 쳐다보는 호일이의 모습과 당장 구급실문을 박차고 《엄마!》하고 뛰여나올것만 같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릴뿐이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의 육신같지 않게 덜덜 떨리기만 하는 어떤 공포에 전률하면서 제발 이 순간이 악몽이기만을, 그 악몽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뿐이였다.

조금전 수도가에서 빨래를 하던 그는 낯빛이 새파래서 달려온 옆집 아이의 말에 그만 가슴이 철렁했다. 호일이가 무슨 음식인지 잘못먹고 길가에 쓰러진걸 누가 병원으로 업고갔다는것이였다.

《음식이라니?》

대뜸 요즘 배를 곯는 호일이가 찬장우에 얹어놓은 고구마를 잘못먹고 체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요즘 점심은 아예 건느다싶이 하고 아침저녁으로만 보리밥이나 양파로 겨우 끼니를 에우는 형편이였다. 워낙 쌀이 귀하기도 했거니와 쌀을 구할 돈이 없었다. 더우기 돌잡이 호철이가 자주 앓는 바람에 그 약값을 장만하기에 경황이 없었던것이다.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온 수임은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체했으리라고 여겼던 호일이가 구급실에 들어가있다는것도 놀라왔지만 아무리 떼를 써도 의사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것이였다. 자기가 나타나길 기다리기라도 한듯 앞을 막아선 나어린 간호원이 구급처치를 하고있으니 마음을 놓으라는 말만 반복할따름이였다. 그러면서도 수임이를 정면으로 마주보기는 꺼려했다.

《우리 애가 그렇게도 위급한가요? 말해주세요, 도대체 무엇을 잘못먹었길래…》

수임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빨래를 하느라고 걷어올렸던 팔소매는 물론 헝클어진 머리조차 쓰다듬을 경황이 없었다.

《애가 끼니를… 끼니를 제대로 에우지 못했더군요.》

옆에 있는 의자에 수임이를 앉힌 간호원은 손을 마주비벼대며 마른침을 삼켰다.

《오늘도 점심을 굶었는지 위가 텅 비여있었는데… 그렇지요? 물론 생활이 어렵다는건 리해돼요. 그래도 한창 먹을 나인데 점심을 싸주어야…》

그 말에 수임은 아무 대꾸도 할수 없었다. 자기나 영신이는 점심을 건늬여도 호일이만은 굶길수 없어 학교에 갈 때마다 꼭꼭 동전 두잎씩은 들려보내군 했다. 20엔이면 빵 한개는 사먹을수가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호일이는 처음 몇달동안은 빵을 사먹지 않고 동전을 고스란히 가지고 돌아오군 했다. 왜 빵을 사먹지 않느냐고 묻자 대뜸 볼부은 소리로 대꾸했다.

《엄마도 영신아지미도 못 먹잖아?》

수임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으나 화가 치밀었다.

《엄마나 영신아지미는 누룽지도 있고 참대순도 있지 않니. 그리고 어른들은 배고픈줄 모르는거야. 이제부턴 빵을 사먹어라. 안 사먹으면 성을 낼테다. 알겠니?》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온 호일에게 빵을 사먹었느냐고 물으니 호일이는 대답대신 책가방고리부터 풀었다. 천으로 만든 들가방안에서 종이에 싼 빵을 꺼내는 순간 수임은 가슴을 찔리우는듯 한 아픔과 함께 정말 참을수 없는 화가 솟구쳐올랐다.

《이걸 왜 가지고 왔어, 왜 먹지 않고 가지고 왔냐 말야. 당장 먹어! 엄마앞에서 어서!》

여느때의 엄마답지 않게 무섭게 다그어대는 바람에 어리둥절해있는 호일이를 수임은 더욱 엄한 눈길로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꾸지람에 빵을 손에 쥐기는 했지만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야 할지 어쩔

지 망설이던 호일이는 다시 재촉하는 바람에 엉겁결에 빵을 입으로 가져갔다. 빵을 한입 깨문 그때까지만 해도 호일의 표정은 어딘가 어줍어하면서도 미안해하는 기색이였다. 그러나 그런 기색은 곧 빵맛이 입안에서 나타내는 효력, 여태껏 참아오던 허기에 포로가 되여버린데로부터 폭신폭신한 빵이 주는 달콤하면서도 감미로운 효력으로 바꿔지기 시작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차마 그냥 보고있을수가 없었던 수임은 얼른 물을 뜨러 가는척 하면서 방을 나섰다. 그러나 방앞에 벗어놓은 아들의 깁고 또 기워 뒤굽이 다 무너진 운동화를 보는 순간 그만 앞치마로 입을 싸쥐고말았다. 책가방은 못 사줘도 신발만은 꼭 새것을 신기여 학교에 보내려고 했댔으나 그것조차 뜻대로 되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니 변질된 음식을 먹었는가요?》

수임의 물음에 고개를 저어보인 간호원은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대꾸했다.

《글쎄 인공호흡을 시키던 끝에… 위액을 추출해보니까…》

만약 의학에 약간한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간호원이 한 말을 무심히 듣지 않았을테지만 수임이로서는 인공호흡을 시키고 위액을 추출하는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짐작조차 할수 없었다.

《다른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오뎅국물이 약간 나왔을뿐이였어요.》

《오뎅》이라는 말에 수임은 피뜩 정신이 들었다. 낮에 출장을 떠나는 영신이를 바래주고 왔을 때였다. 영신이는 요즘 덕수의 지시로 지방에 있는 조직들이며 사람들을 만나러 자주 출장을 다니군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호일이가 가방을 놓기 바쁘게 자기앞에 다가와 얼른 손바닥을 펴보였다. 거기에는 구멍이 뚫린 5엔짜리 동전이 놓여있었다. 빵을 사먹기는 했지만 20엔짜리가 아니라 15엔짜리를 사먹고 남긴 돈이 분명했다.

《왜 돈을 남겼니?》

《15엔짜리 고빼빵이 더 큰데 뭐.》

《그래도 속이 있는 빵이래야 맛도 있고 근기도 있는거야. 이제부턴 그걸 사먹도록 해라. 알겠지?》

5엔을 남겨온것을 대단한 일로 여기는 아들을 바라보며 수임은 웃으며 말했다.

《네가 남긴 돈인데 네가 쓰려무나.》

그러나 5엔이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사지 못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문득 호일이가 두눈을 반짝이며 쳐다보는것이였다.

《엄마, 나 이걸로 오뎅 사먹을가? 곤냐꾸 하나에 5엔이야!》

녀석이 오죽 그걸 먹고싶었으면 그런 말을 하랴 하는 생각이 든 수임은 얼른 주머니를 뒤지였다. 마침 출장을 떠나면서 영신이가 주고간 돈이 있었다. 10엔짜리 동전 한잎을 호일이 손바닥우에 놓아주며 수임은 말했다.

《자, 이걸 가지고 가서 사먹어라!》

《야ㅡ》

호일이는 대뜸 신이 날 때면 그런것처럼 한팔을 빙빙 돌리며 거리쪽으로 뛰여갔다.

포장마차에 커다란 화로를 싣고 가마에다 찌꾸와(고기떡의 일종)며 곤냐꾸(묵의 일종), 우봉 등을 끓여서 가라시(겨자)에 찍어 먹을수 있게 만들어 파는 오뎅을 아이들은 말할것도 없고 어른들까지도 무척 좋아했다. 오뎅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는 곳이면 그 구수한 냄새에 끌리여 마을조무래기들이 다 모여들군 했다.

《그러니까 그 오뎅을 잘못먹었다는건가요?》

따지는듯 한 수임의 독촉에 놀란 간호원은 어망결에 대꾸했다.

《잔뜩 허기진데다가 뜨거운걸 급히 먹다나니 그게 그만 기도로 들어가 숨구멍을…》

《숨구멍을?》

뚫어지게 간호원을 쏘아보던 수임은 불시에 후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럼 호일이가… 우리 애가?》

그리고는 비명같은 소리를 지르며 황황히 구급실을 향해 달려갔

다. 그제야 자기의 실수를 알아차린 간호원은 두손을 모두어쥐고 발을 동동 굴렀다.

구급실안으로 뛰여든 수임은 방복판에 놓여있는 침대를 보는 순간 한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왜서인지 의사나 간호원은 한사람도 없었다. 다만 댕그라니 놓여있는 침대우에는 침대길이의 절반이나 되나마나한 자그마한 체구우에 백포가 씌워져있을뿐이였다. 일시에 싸늘한 공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퍼져나갔으나 수임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아니, 여기 있는건 호일이가 아니야! 호일이는 분명 다른데 있고 여기엔 다른 아이가 누워있는게 틀림없어!)

그러면서도 수임은 침대로 선뜻 다가설수가 없었다. 무언지 모를 힘이 그의 온몸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는것이였다. 언제나 다급한 정황에 부딪칠 때면 그러하듯이 수임은 벌써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다잡을 능력도 의지도 다 잊어버리고말았다. 다만 《아니다.》, 《아니다.》하는 말만 입속으로 되뇌이며 침대로 다가가 후들후들 떠는 손으로 조심스레 백포를 들치였다.

《아!》

수임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터뜨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웨침이라기보다 어떻게 들으면 반가움의 탄성같기도 했다.

침대에 반듯이 누워있는 호일이의 모습은 너무나도 눈에 익은 모습, 언제나 깊은 잠에 곯아떨어졌을 때의 그 귀엽고도 사랑스러운 모습이였다.

《호일아!》

늦잠을 자는 호일이를 깨울 때처럼 수임은 두손으로 아들의 목을 감싸안으며 조용히 불렀다. 그럴 때면 늘 두팔을 쳐들어 기지개를 켜면서도 눈을 뜨지 않은채 웃음을 짓군 하던 호일이였다. 지금도 자길 안아일으켜주길 바래 당장 팔을 벌릴것만 같았다.

《자, 눈을 떠라! 내가 왔다, 엄마가 왔어!》

이부자리에서 안아일으킬 때마다 하는 버릇대로 호일의 뺨에 볼을 갖다대던 수임은 그만 흠칫하고말았다. 늘 보동보동한 보드라운 살결에 전해지군 하던 따스한 체온대신 여태껏 한번도 느껴보지 못

한 싸늘한 촉감이 가슴을 지졌기때문이였다.

얼른 옷을 들치고 가슴이며 배를 쓸어보았으나 온통 다 싸늘하였다.

《아니, 얘가? 얘 호일아! 호일아!》

호일이의 어깨를 흔드는 수임은 벌써 제정신이 아니였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흔들었으나 그래도 대답이 없자 점점 세차게, 그러다 나중에는 마치 과실나무에서 열매를 떨어뜨릴 때처럼 그렇듯 맹렬한 기세로 흔들어댔다. 이리저리 흔들리우면서도 호일이는 여전히 두 눈을 감은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뒤늦게 달려들어온 의사들이며 간호원이 팔을 쥐자 수임은 와락 호일이를 부둥켜안으며 부르짖었다.

《호일아— 이게 웬일이란 말이냐? 어쩌면 네가… 아— 호일아—…》

호일이를 껴안고 몸부림치던 수임은 갑자기 한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였다. 그리고는 목을 비틀며 괴로운 신음소리를 토하더니 온몸을 늘어뜨리였다. 그의 맥없는 몸뚱이가 털썩 침대아래로 미끄러져 내렸다. 주체하지 못할 비통함이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진 그를 실신케 했던것이다.

의사들이 그에게 달라붙었다. 호일이대신 이번에는 그의 응급처치를 시작하였다.

덕수가 병원에 온것은 호일이의 시체가 령안실에 옮겨진 후였다.

진정제주사를 맞은 수임이는 호일이가 누워있던 그 침대에 누워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있었다.

리계백, 윤덕곤, 김상기 등과 함께 령안실에 들어선 덕수는 검은 널우에 반듯이 누워있는 호일이를 아무말없이 내려다보기만 했다. 한참 그렇게 서있던 그는 그앞에 천천히 주저앉으며 나직한 소리로 아들을 찾았다.

《호일아!》

조용히 입속말로 아들을 불러보는 그 순간에야 그는 자기가 여태껏 오늘처럼 다정하게 호일이를 불러본적이 없었다는것을 상기했다. 그러자 언제나 자기를 두려운 존재로 여기면서 오래간만에 만나지만 방 한구석에 오도카니 서서 눈치만 살피던 호일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았다.

두손으로 호일이의 볼을 감싸쥔 덕수는 목메인 소리로 중얼거렸다.

《용서해라, 널 한번 따뜻이 안아주지도… 배불리 먹여주지도 못한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라.》

저도 모르게 와락 호일이를 그러안은 그는 아들의 가슴에 머리를 박으며 사자의 울부짖음같은 소리를 토했다.

《아— 호일아! 불쌍한 내 아들아—》

덕수의 이 절통한 부르짖음에 뒤에 서있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어깨를 들먹이였다.

제 5 장

1

서른네번째로 미합중국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가 조선전선에 펼쳐놓은 《신공세》로 하여 전선형편은 살벌했다.

2차 세계대전시기 련합국군사령관이였다는 군사적관록을 등에 지고 《우리의 번영은 전쟁번영》이라며 전쟁미치광이로서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조선전선을 시찰하고는 대량살륙무기를 비롯한 원자무기의 사용까지 타산한 《신공세》를 준비했다.

서해안의 한천과 남포, 동해안의 원산에 대규모의 무력을 상륙시켜 우리의 전선과 후방을 차단하고 기본전선에서의 공격과 배합하여 아군주력을 《소멸》할것을 꾀한 놈들은 어리석게도 이 공세를 통해 련속적인 패전으로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진 전쟁국면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전환시켜보려고 했다. 《신공세》에 전적으로 전쟁의 운명을 건 놈들은 미국본토와 일본으로부터 함선과 비행기 그리고 지상병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했을뿐아니라 지어는 새로 건설된 일본의 《자위대》무력과 장개석도당의 군대를 끌어들일것을 타산했다. 그래도 안되면 원자탄까지 사용할 계획이였다. 놈들의 이 모험적인 계획에 기가 질린 세계는 바야흐로 조선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있었다.

전선형편은 이처럼 엄혹했으나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최고사령부의 자그마한 앞뜰을 거니시면서 며칠전부터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한가지 문제를 놓고 생각이 깊으시였다. 그것은 전쟁과는 인연이 먼것이였다. 하지만 요즘은 한시도 그 생각에서 떠날줄 모르는 그이이시였다.

놈들의 《신공세》를 파탄시킬 작전을 구상하다가도 또 적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안길 명령을 하달하다가도 그 생각이 떠오를 때면 은연중 창밖을 내다보군 하시였다. 밤에는 잠조차 이룰수가 없으시였다.

얼마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였던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평화회의》에 민전대표로 참가했다가 조국에 온 김훈의 보고는 심각하기 그지없었다. 재일조선인운동이 이젠 위험계선을 넘어 막다른 지경에 이른것이였다. 이미부터 재일조선인운동이 시련을 겪고있다는것은 알고계시였지만 이처럼 급전직하로 낭떠러지에 떨어질줄은 짐작 못하시였다.

반년전 일본에 갔다온 지영이의 보고를 들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험악한 형편은 아니였다. 놀랍기도 하고 노엽기도 했으나 일이 바로잡히리라는 믿음 또한 크시였었다.

일본에까지 갔다온 지영이가 영신이를 떨궈두고 온것이 노여우셨다면 민대파들이 공화국사수강령을 삭제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못내 놀라우시였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그런 놀라움보다 놈들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억척같이 싸우고있는 덕수, 기어이 강령을 사수하고 동포들을 묶어세우고야말겠다는 그의 불같은 마음을 더 믿으시였다.

사실 덕수는 그 믿음대로 싸웠다. 수많은 일군들을 애국진영에 결속함으로써 놈들이 삭제한 강령을 다시 채택하고야말았고 《해방신문》을 비롯한 여러 출판물들을 복간하거나 새로 내왔으며 그것을 통해 동포들을 조국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동포들의 기세는 충천했다. 하지만 그 열화같은 기세가 지금은 일본공산당이 몰아온 무장혁명의 돌풍에 휩쓸려 처참하게 쓰러졌다.

장군님께서는 무참하게 희생된 동포들 생각에 쉬이 손에 일감을 잡지 못하시였다. 통분하기 그지없으시였다. 이제 또 어떤 참변이 일어날지 모른다. 숱한 조선사람들의 주검을 쌓아놓고도 일본공산당은 여전히 민대파를 내세워 일국일당원칙을 부르짖으며 우리 동포들에게 돌격대의 기발을 추켜들라고 호소하고있다. 조국도 겨레도 안중에 없는 민대파들은 국제로동계급의 위업이라는 엄엄한 간판뒤에서 일신의 공명과 출세를 꿈꾸며 배신의 길을 줄달음치고있

다. 놈들은 민족의 피가 무엇보다도 귀중한것임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장군님께서는 격한 심정을 누를 길이 없으시였다. 문득 최근에 적발된 박헌영, 리승엽도당의 반혁명적책동이 상기되시였다. 조사과정에 놈들이 오래전부터 미제의 고용간첩이였다는것이 폭로되였다. 놈들의 죄행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별로 놀라지 않으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자면 침략자들과 외세를 등에 업은 혁명의 원쑤들과도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각오를 이미 다지신 그이이시였다. 인민의 원쑤들은 못하는짓이 없었다. 박헌영, 리승엽도당이나 민대파나 다같이 외세에 민족을 팔아먹으려 책동한 용서 못할 배신자들이였다.

장군님께서는 고드름이 조롱조롱 달린 키낮은 추녀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송곳처럼 뾰족뾰족한 고드름들이 저녁해빛을 받아 마치 보석처럼 령롱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조국에는 당이 있고 대중이 있고 또 놈들을 조사할 법기관이 있지만 일본이야 그렇지 못하지 않는가! 오히려 덕수자신은 놈들한테서 박해를 받고있는 형편이 아닌가!)

《장군님, 괴롭습니다.》

덕수는 편지에 쓰고있었다.

《이 모든 사실이 장군님뜻과 다르다는것을 알고 장군님께서 바라시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지만 그걸 바로잡지 못했기때문에 괴롭습니다. 또 이젠 바로잡을 힘이 없기에 더욱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눈앞이 캄캄할뿐입니다.》

덕수의 그 괴로움이 장군님의 마음을 시시각각 아프게 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면 얼마전에 죽은 나어린 아들에 대해서는 단 한줄도 쓰지 못했겠는가. 늦게 본 자식이여서 그토록 사랑스러웠으련만 종파들에 대한 사무친 증오로 하여 또 앞날에 대한 참담한 절망으로 하여 뼈를 에이는 그 슬픔조차 터놓지 못했으리라.

장군님께서는 번쩍 머리를 드시였다. 순간 그이의 안광에서는 단호하면서도 결연한 불꽃이 펑끗하고 작렬했다.

(안된다! 더는 미룰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된다!)

단호한 결심이, 며칠동안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던 분노와 번민과 격정이 일시에 하나의 분출구를 뚫고 무섭게 터져나오는것을 의식하시였다.

(조국앞에 닥친 《신공세》가 조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면 재일동포들앞에 가로놓인 난관은 벌써 그들의 운명을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게 하고있지 않는가! 미제가 벌리려는 《신공세》는 이제부터 우리 인민이 어떻게 싸우는가에 달려있지만 재일조선인운동은 어느새 다시 추서지 못할 구렁텅이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만약 이제 더 지체한다면 60만재일동포들은 다시금 조국을 잃고 방황하는 망국노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 더는 수수방관할수 없다. 당장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과연 어떻게 해야 놈들의 정체를 발가놓으며 모든 동포들을 애국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킬것인가! 어떻게 해야 조국땅도 아닌 일본에서 벌어지는 이 위급한 사태를 바로잡을수 있을것인가.)

한껏 숨을 들이그으신 그이께서는 놈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리도 무분별하게 날뛰는가 하는 생각에 미치시였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이라 해도 자기 범죄를 합리화하는 구실이 있는것처럼 종파들인 경우에도 자기 책동을 타당화하기 위한 구실은 있는 법이다.

민대파들이 재일동포들을 조국에서 떼내여 일본혁명의 돌격대로 복무케 하려는데서 찾는 리론적근거는 무엇보다도 재일동포들이 조국과 떨어져 사회경제제도가 전혀 다른 일본땅에서 살고있다는 조건이다. 말하자면 지역의 공통성,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민족의 징표로 보는 선행리론을 처방으로 내세우고있다. 그 견해로 하여 놈들은 재일동포들은 일본혁명이 승리하고 일본이 민주화되지 않고는 그 어떤 권리도 행복도 보장받을수 없다고 하면서 동포들을 일본혁명에로 내몰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민족의 징표를 경제생활이나 지역의 공통성에 기준할수 있는가! 특히 나라와 민족이 둘로 갈라진 우리 나라에서 민족문제를 그렇게 규정한다는것은 천만부당하며 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다. 만약 그 주장대로 한다면 남과 북으로 갈라져있는 조선사람은 한민족이 아니라 두개의 민족이라는것으

로 되며 조국통일문제 역시 미제에 의해 강요된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는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민족을 합치는 문제라는것이 아닌가!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처지와 립장으로부터 민족의 기본징표를 거주지역이나 경제생활이 아니라 혈통과 언어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남녘동포들은 말할것도 없고 일본에서 사는 재일동포들도 우리와 한피줄을 이은 사람들이며 조선말을 하며 조선의 넋을 간직하고 사는 한겨레이다. 지금 일본에서 투쟁하고있는 한덕수와 일군들도 결코 일본혁명을 위해 그곳에 있는것이 아니다. 비록 몸은 일본에 있지만 그들은 조국을 위해 투쟁하는 조선의 애국자들인것이다. 때문에 아무리 일본에서 산다고 해도 일본의 소수민족이 아니며 될래야 될수도 없다.

여기에 또하나의 문제가 있다. 덕수도 편지에 쓴것처럼 일국일당원칙이라는 장애다. 지난 시기에는 물론 지금도 해외교포운동이 대체로 이 원칙에 근거하여 진행되고있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이 원칙에 의거하고있으며 이젠 일본공산당자체가 이 원칙을 내대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좌우지하고있다. 하지만 이 원칙은 한 나라에서 전위당을 표방하는 조직이 여러개 나올수 있는 위험성을 막으며 로동계급이 벌리는 투쟁에 대한 지도의 분산성을 막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해서 나온것이다. 그런 조건에서 일국일당원칙을 지키도록 한것은 공산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의의를 가지였다. 물론 지금도 그 원칙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해외교포운동이 공산주의운동은 아니지만 진보적인 사회정치운동인것만큼 거주국안에서 그 나라 로동계급의 전위당과 령도권을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할뿐아니라 거주국 전위당이 그 나라 인민들의 혁명을 령도하는데 대해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만 재일조선인조직은 결코 일본공산당과 령도권을 다투는 그런 조직이 아니며 재일동포들 역시 일본사람과 같은 리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도 아니다. 따라서 재일조선인운동이 일본혁명의 한고리가 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더우기 운동을 지도할 조국이 있고 조선로동당이 있고 자체의 핵심력량이 있는 오늘에 와서까지도 그들에 대한 지도를 일본공산당이 맡아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 선행리론에 대한 교조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 대국주의적경

향이 아닐수 없다.

또한 이 두 문제, 일국일당문제와 민족문제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문제다. 민족이라는 대의앞에서는 계급적인 문제는 물론 계층의 주장이나 견해상차이도 먼저 나설수 없다. 민족이 전체라면 계급이나 계층은 그 구성부분이기때문에 민족이라는 대의에 철저히 복종되여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인 재일동포문제를 절대로 일본공산당에 맡겨둘수 없을뿐더러 맡게 해서도 안된다.

공산주의운동이 시작되여 한세기가 지나는 동안 국제당의 로선을 절대시해온 공산주의자들속에서 새로운 관점을 세운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운동은 기존공식이 아니라 자기의 실정에 맞는 로선을 세우며 그것을 관철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지체할수 없다. 결정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

오직 그것만이 60만재일동포들의 운명을 책임지는 조국의 응당한 의무로 되며 도리로 된다.

어깨에 걸친 외투를 한번 추스르신 그이께서는 곧 몸채옆에 달린 부관실로 향하시였다.

《최진동무!》

장군님께서는 문소리와 함께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는 최진에게 말씀하시였다.

《홍명희부수상과 김운해부장동무를 부르시오. 그리고 외무성 숙소에 있는 김훈동무도 함께 오게 하시오.》

《알았습니다.》

최진이 힘찬 대답을 올리고 통신결속소로 달려갔다.

장군님께서는 다시 마당을 거닐기 시작하시였다.

2

《내 결심은 이렇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 작전실의 커다란 책상앞에 앉아있는 홍명희와 김운해 그리고 김훈을 차례로 바라보시며 확고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 재일조선인운동을 바로잡는것입니다.

동무들도 알다싶이 지금 재일조선인운동은 위험에 직면해있습니다. 강령에서 공화국사수조항을 삭제하고 일본인민의 투쟁과업인 3반구호와 일본의 주권타도를 재일동포들의 기본과업으로 내세운 사대주의자, 민족허무주의자들이 이젠 조국정책을 구현하는것까지 방해하고있습니다. 더 엄중한것은 재일동포들을 일본반동정부를 반대하는 무모한 폭력투쟁의 앞장에 내몰아 많은 희생을 가져오게 하고있는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나는 재일조선인운동을 바로잡자면 무엇보다도 일본혁명을 위해 복무하는 길로 나가는 재일조선인운동로선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일본혁명을 위한 재일조선인운동로선을 조선혁명을 위해 복무하는 로선으로 전환하자는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군님께서는 량손으로 작전대를 꾹 짚으시며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재일동포들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인것만큼 일본에서 산다 하더라도 조선혁명을 해야지 일본혁명을 해서는 안된다는것입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은 자기 조국과 민족의 발전을 위한 운동이지 일본혁명에 종속되는 운동이 아니라는것이고 일본공산당이 지도할 운동이 아니라 공화국정부의 령도밑에 벌려나가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럼 이 로선을 어떻게 관철하겠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됩니다. 바로 그것을 동무들과 토론해보자는것입니다.》

《…》

방안에는 엄숙한 정적이 깃들었다.

언제나 긴장할 때면 코수염을 쓰다듬군 하는 홍명희였으나 지금은 긴장의 도수가 지나쳐서인지 꼿꼿한 눈길로 한곳을 바라보기만 했다. 김운해는 물론 김훈이 역시 앞에 수첩을 펼쳐놓기는 했지만 받아쓰는 일을 잊은듯 망연자실한 기색이였다.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조국형편은 어느때보다 준엄합

니다. 미국놈들이 당장 〈신공세〉를 감행하려 하고있고 당내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분자들은 정부를 전복할 흉계까지 꾸미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우리앞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있다 해도 재일조선인운동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기에 처해있는 재일조선인운동실태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자— 의견들을 말하시오.》

《장군님.》

홍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태도는 어떤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저로서는 도저히 리해가 되지 않아 묻는다는 기색이였다.

《위기에 처해있는 재일조선인운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바로잡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일본에서 벌어지는 운동이니만치 우리가 관여할래야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로선은 조국에서 우리가 내놓지만 그것을 실현할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해야 할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바로잡겠는가 하는건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 힘으로 로선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동포들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의 임무라는데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벌써 손을 쓸래야 쓸수 없는 형편이기때문입니다. 그만치 재일조선인운동은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야 이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겠는가 하는걸 여러모로 따져보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장군님께서는 심중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지금 재일조선인운동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민대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거하는것은 일본공산당입니다. 처음에는 종파들이 저들의 지시를 동포들에게 내리먹이였지만 지금은 일본공산당자체가 좌경모험주의로선을 동포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들 마음대로 운동방향을 정하는가 하면 무모한 무장투쟁에 나설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정은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을 바로잡자면 이젠 민대파가 아니라 일본공산당, 그것도 중국에 망명하고있는 당수뇌부와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말해줍니

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와 일본공산당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 중국에 있는 일본공산당 도꾸다서기장에게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장군님의 안광에는 결연한 의지가 어리였다. 혁명의 앞길을 막아서는 난관이 아무리 크고 험해도 절대로 물러설수 없다는 단호한 각오와 결단이 력연하시였다.

《난 그 편지에서 당신들이 일본혁명을 하려면 일본사람만으로도 되겠는데 무엇때문에 우리 조선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가, 어째서 돌격대로 내세우는가, 공산주의자들이 국제적으로는 어느 나라 혁명을 하든지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자기 나라가 있고 자기 민족이 있는 오늘에 와서는 자기 나라 혁명을 해야 한다고 본다, 난 이것이 국제혁명에도 충실한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제부터 조선사람 자체의 조직을 가지고 자체로 운영할 결심이니 앞으로는 일본공산당에서 관계하지 말라는것을 명백히 밝히려고 합니다.》

《?!》

홍명희는 물론 김운해며 김훈은 아연한 표정을 지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단언하시는 장군님의 그 결심이 저들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해본 일이기때문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방구석에 있는 원탁으로 다가가시여 그우에 있는 주전자를 드시고 고뿌에 물을 따르시였다.

《나도 우리의 이런 요구에 도꾸다서기장이 의견이 있으리라는것을 짐작합니다. 일국일당원칙과 어긋난다는것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일국일당원칙에 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재일동포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우리 나라의 민족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끝까지 관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산에서 싸울 때부터 철저히 이런 립장을 주장해왔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문득 오래전 요영구에서 있은 일이 생각나시였다.

요영구회의에서 반《민생단》투쟁의 좌경적인 후과에 대해 총화하신 장군님께서는 조선혁명을 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자주적의무이므로 조선혁명을 위해 국경지대에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시였다. 그때 대국주의자들은 한사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땅에서 투쟁하는 이상 중국당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국경지대로 진출하는것은 일국일당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동만당특위였던 위증민까지도 명백한 견해를 세우지 못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하신 장군님께서는 론쟁을 중단하시고 위증민과 동만공청특위로 있던 윤병도를 함께 국제당에 보내시였다. 그때 국제당에서는 장군님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였었다. 장군님께서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조선혁명앞에 닥친 난국이 쉬이 풀리지 않았을것이다.

《김운해동무는 어떤 의견입니까?》

장군님께서는 사뭇 긴장한 표정을 짓고있는 김운해를 바라보시였다.

실상 누구보다도 김운해의 견해가 궁금하신 그이이시였다. 그것은 그가 도꾸다와 함께 오랜 감옥생활을 했을뿐아니라 일본공산당수뇌부에서 일해왔고 바로 그를 중국에 있는 도꾸다에게 파견하실 계획이였기때문이였다. 도꾸다에게 우리의 립장을 납득시킬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운해라고 생각하시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장군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눈길을 아래로 내리깐 김운해는 주밋거리는 태도로 입을 열었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로선전환방침을 도꾸다가 어느 정도 납득하겠는가 하는것이…》

장군님께서는 김운해가 십분 그렇게 생각할수 있으리라는데 대해 수긍하시며 다음말을 기다리시였다.

《무엇보다 제가 우려되는것은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로선인데 이제까지 해외에서 사는 교포들이 자기나라 혁명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런 로선을 세운 실례가 없다는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실례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해보자는것입니다.》

김운해는 의아한 눈길로 장군님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다른 리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본혁명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도꾸다서기장이 자기 혼자의 결심에 의해 풀어나가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그는 사소한 문제도 쏘련당과의 긴밀한 련계와 동의밑에 국내당에 지시를 떨구고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던 김훈이 입을 열었다.

《도꾸다서기장이 작년에 발표한 〈일본공산당 새 강령기초〉도 쏘련에 가서 작성한것이고 여태껏 서로 대립되여있던 소감파(노사까의 평화혁명론문에 대한 지지파)와 국제파의 당내분규도 쏘련당의 조정에 의해 화해가 이룩되였습니다. 쏘련당과의 이런 관계를 국내당지도부는 물론 일본사람들까지도 다 알고있습니다.》

김훈의 말에 힘을 얻은 김운해는 한결 명백한 어조로 말씀올렸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우선 도꾸다서기장자신이 우리의 로선전환방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뿐아니라 설사 마음을 돌린다 해도 쏘련당에 문의할것이 명백한데 쏘련당이 과연 그걸 어떻게 대하겠는가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부한다면 도꾸다서기장의 성격입니다.》

김운해는 도꾸다가 오끼나와의 가난한 집에서 태여나 대학법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경력이며 그때 사회주의사상을 접해 직업적인 혁명가로 되였다는것,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다가 체포되여 감옥살이를 한데 대해 언급하고나서 6.6추방후 얼마간 그와 함께 겪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올렸다.

추방령을 받은 즉시 도꾸다는 중국화교의 집에 피신해있었으나 곧 어느 지구당간부네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나 거기서도 역시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또 다른데로 가지 않으면 안되였는데 그것은 경찰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도꾸다자신의 과격하고도 괴벽스런 성격때문이였다.

그는 자기가 피해다니는 처지라는것은 안중에도 없이 수시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가 하면 밤새껏 누구를 호되게 질책하기도 했다. 그런것으로 하여 불안해진 집주인들은 감히 도꾸다자신에게는 말을 못하고 비서나 측근들에게 제발 거처지를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도꾸다의 불같은 성미를 잘 아는 비서는 비서대로 집주인의 요

구라는 말은 못하고 경찰들의 감시가 뻗쳤다는 구실을 대면서 도꾸다에게 자리를 옮기자고 했다.

어떤 문제나 깊이 생각하고 결심을 내리는 사람이지만 일단 결심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든 무작정 내미는 완고한 도꾸다였다. 그래서 그의 성과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독규》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특급 즉 언제나 특급렬차와 같이 무섭게 내닫는다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창문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김운해가 하는 말들을 되새겨보시였다.

일본공산당과 쏘련당과의 호상관계, 도꾸다자신의 성격, 물론 무시할수는 없는것이다. 어떻게 보면 있을수 있는 일들을 예견성있게 내다보는 말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그대로 본다고 하여 또 앞날에 있을수 있는 일을 내다본다고 하여 정확한 판단이 되는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에 대한 옳은 반영일수는 있지만 자기의 문제, 자기가 책임져야 할 문제에 대한 독자성과 창조성은 결여되여있기때문이다. 만약 모든 문제를 그렇게만 본다면 자신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 주위환경과 국제적인 정세가 유리하게 달라지지 않는 한 자기 문제는 해결할수 없다는것이 아닌가. 지금 일본공산당이 모든 문제를 쏘련당에 의거하고있기때문에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재일동포들의 처지도 달라지지 않는다는것이 아닌가! 천만에!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였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수수방관할수 없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남들에게 맡길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주인이 되여야 하고 또 우리가 의도하는대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김운해동무!》

장군님의 눈빛은 엄엄했고 얼굴에는 준엄한 기상이 어리였다.

《나는 재일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의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설사 그 누가, 그 어느 나라 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또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때문에 우

리에 대한 립장을 바꾼다 해도 우리는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행에 처한 동포들의 운명을 뒤전에 밀어놓고 우리가 무슨 원칙을 지키고 도리를 지킨단 말입니까? 일본공산당의 지도자들도 아니, 그 누구도 우리 동포들의 피를 우리처럼 귀하게 생각할수는 없습니다. 혈육들의 피는 혈육이 지켜야 합니다!》

《…》

눈길을 떨구며 생각에 잠기는 김운해를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과연 그를 도꾸다한테 보내여 로선전환의 성과를 기대할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시였다. 그가 말아수행해야 할 임무가 의례방문이나 외교사절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 그것도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새로운 로선을 관철해야 할 더없이 어려운 과제인것이다.

윤병도를 국제당에 보내기 전날 그와 함께 요영구귀틀집에서 밤새껏 앞으로 있을수 있는 정황에 대해 토론하던 일이 상기되시였다. 조선사람은 어디에서 살든 조선혁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주장을 그땐 국제당, 오늘은 일본 및 쏘련당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것은 비슷했으나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각오와 리해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확실히 김운해는 아직도 일본공산당에서 일하면서 체질화된 기성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오랜 기간 일본혁명의 소용돌이속에서 살다나니 기성원칙과 주장들에 습관된 나머지 자기 문제는 자체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지와 신념이 부족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그를 믿고싶으시였다.

《나는 사실 김운해동무가 도꾸다서기장을 만나 우리의 립장을 전달했으면 했는데…》

《…》

김운해는 흠칫 놀랐다가 다시 머리를 떨구었다.

《자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할수 없습니다. 확신이 없는 일을 하라고 할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하는 일이 성과도 있을수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생각에 잠기시였다.

(그럼 누구를 보낸단 말인가! 책임적이고도 신념이 확고한 사람

이여야겠는데…)

문득 한사람의 모습이 떠오르시였다. 이럴 때 그가 상기된것이 못내 기쁘시였다. 그는 바로 일시적후퇴시기에는 비록 반혁명분자들의 간계에 넘어가 과오를 범했지만 이젠 과오를 심심히 뉘우치고있을뿐아니라 새로운 결심까지 다지고있는 림춘호였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사업과 생활을 료해하시고는 그를 얼마전 황해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시였던것이다. 일단 확신을 가지기만 하면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이 줄기차게 들이대는 그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만족스러우시였다. 이미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경험과 파악이 있는 그를 지영이와 함께 도꾸다에게 보낸다면…

《좋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세사람을 돌아보시며 힘찬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훈동무! 동무는 덕수동무와 약속한대로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가 오늘 토론된 로선전환방침에 대한 내용을 그에게 알려주시오. 될수록 빨리 말입니다. 갈 때 국문활자와 초중급학교 교과서도 한질 가지고 가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새로 복간된 〈해방신문〉이나 조선문제연구소에서 국문활자가 필요될것이고 4월에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는 동포자녀들이 조국의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김훈은 감사와 경탄이 어린 눈길로 장군님을 우러르기만 했다.

3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루개에 있는 내각사무국 집무실에서 국제정세자료들을 보고계시였다. 내각에 들리면 의례히 최근 외국통신들과 정세자료들부터 보는것을 일과로 삼으시였다.

한 자료묶음을 다 훑어보신 그이께서는 옆에 있는 다른 묶음을 당겨놓으시였다. 어느것이나 다 우리 나라 전쟁에 대한 외국신문들과

통신들의 반향들을 묶은것이였다.

《미군의 세균탄투하에 대한 국제조사단 북조선 현지파견 결정!》

《미국 부득불 정전담판에 응해나설듯!》

기사들은 한결같이 조선전쟁에 대한 제나름의 판단을 내리면서 불안과 위구를 표시하는가 하면 어떤건 턱없는 거짓과 악담을 퍼붓기도 했다.

《아이젠하워 〈신공세〉, 북조선의 드세찬 반격에 또다시 파탄!》

이런 제목아래 쓴 한 외국군사평론가의 글에는 릿지웨이를 대신한 클라크도 맥을 추지 못했다는것을 로골적인 야유를 섞어가며 지적하고있었다. 아이젠하워와 클라크를 이리 치고 저리 치며 떡굴리듯 하다가 마지막엔 넝마쪼각이라고 조소한걸 보면 그 평론가가 어느 정도 결패는 있는 사람 같았다.

옆방에 있는 통신결속소들에서 전건 두드리는 소리며 교환수특유의 맑고도 선명한 목소리가 간간이 들려왔으나 장군님께서는 자료들을 보기에 여념이 없으시였다.

대개가 놈들이 최근에 벌린 《신공세》에 대한 글들이였다. 특히 정형고지전투와 관련해서는 어느 신문이나 다같이 상세하게 보도하고있었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미제가 그 전투에 앞서 서울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들이며 기자들에게 자기들이 공산군을 어떻게 《소멸》하는가를 보라면서 굉장한 《초청》놀음까지 벌리였던것이다.

1월말, 놈들은 미 제8군사령관 밴프리트의 지휘밑에 철원 서쪽에 있는 정형고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것으로써 《신공세》의 막을 올리였다. 해발고가 400메터도 안되는 자그마한 고지였으나 미제는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수백대의 비행기로 맹렬한 폭격을 들이대고 대구경포들로 포탄을 마구 퍼부은 다음 땅크의 엄호밑에 대병력을 공격에로 내몰았다. 그러나 고지를 지켜선 인민군용사들은 견고한 갱도방어진지에 의거하여 완강한 반타격을 들이댔다. 결국 놈들의 공격은 저들이 점령하기로 계획했던 시간이 되기도 전에 도리여 완전히 좌절되고말았던것이다.

전투를 구경하기 위해 초청되였던 외국대사들과 기자들은 하나같이 대경실색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대규모의 무력을 보잘것도 없

는 자그마한 고지에 쏟아붓는데 놀랐고 그다음은 그 고지가 순식간에 터진 묵사발처럼 되는데 아연했다. 그러나 더 기절초풍한것은 이젠 개미 한마리 살아남지 않았을것 같던 그 고지에서 인민군전사들이 만세를 웨치며 반돌격에로 나서는 불사신같은 모습이였다.

《이것이야말로 전쟁사가 몰랐던 기적이 아닌가!》

《전쟁신화의 새로운 주인공들, 북조선인민군!》

《첫 반타격에 비틀거리는 유엔군, 아이젠하워 원자탄을 쓸것인가?》

신문들은 서로마다 대서특필하였다.

사실 놈들의 발악적인 공세에 대처하여 장군님께서는 처음부터 무자비하고도 결정적인 반격을 가함으로써 놈들이 더는 추설수 없도록 할 결심이시였다. 아이젠하워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신공세》에 된매를 안긴다면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지 오래지 않은 그의 정수리를 후려갈기면서 적들내부의 모순을 격화시키는것으로 될뿐더러 우리에게는 반대로 전쟁승리를 촉진시키는것으로 될것이기때문이였다. 또한 군사적으로 전전선에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유리한 국면이 열림으로써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게 될것이였다.

어떤 신문에는 만화가 실려있기도 했는데 그것은 한쪽볼을 싸맨데다가 팔까지 부상당한 클라크가 무릎을 꿇고앉아 앞에 있는 인민군대전사에게 바른쪽뺨을 내대고있는 꼬락서니였다. 한데 걸작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 맥아더가 곰방대를 입에 문채 《로병은 지켜본다.》하고 지껄이고있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은연중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시였다. 전건 두드리는 소리며 교환수의 목소리가 아까보다도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장군님께서는 다음자료를 펼치시였다. 요즘 새로 드러난 박헌영, 리승엽도당의 자료였다.

박헌영의 죄행은 조사가 심화될수록 점점 더 엄중했다. 림화, 주녕하를 조사하는 과정에 그의 정체는 더욱 명백히 드러났던것이다.

벌써 1925년부터 일제와 내통하고있었고 1939년에는 미제와도

결탁한 박헌영이였다. 해방직후 남조선당조직들을 파괴하고 인민들의 투쟁을 계통적으로 말아먹은것은 물론 북에 들어와 불순분자들을 중요직책에 등용하고 그자들을 조종하여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린것도 다 미제와의 약속에 의한것이였다. 드디여 그 결정적인 시기가 왔다. 이미 당과 정부의 《새 지도부》까지 구성해놓은 놈은 미제의 《신공세》와 때를 갈이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일거에 당과 정부를 전복할 계획이였다. 무장폭동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지원할 대책들까지 다 세워져있었다. 자기 민족을 외세에 팔아먹고 외세에 빌붙어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려는자들은 언제든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는 법이다. 박헌영, 리승엽도당도 끝내는 력사의 시궁창에 굴러떨어지고만것이였다.

세계정치사를 더듬어보면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그런자들이 적지 않지만 박헌영이처럼 오랜 기간 자기의 목적을 위해 교활하게 책동한 놈은 쉽지 않았다.

장군님께서는 언젠가 서방의 한 정객이 쓴 수기를 본 기억이 되살아나시였다. 20년간에 걸치는 파란만장의 정치편력끝에 끝내 최정상에 오른 그는 자기의 솔직한 심정이라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있었다.

《한때 대학강당에서 수재를 키워냈을 때 나는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창조에 있다고 여기였다. 그후 부실기업을 살찌워 억만재부를 가진 유수재벌이 되였을 때는 재부가 곧 인간이 창조할수 있는 최대의 가치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생애를 놓고 오늘은 이런 좌우명을 가지게 되였다.

〈자기 두뇌에 만족하는자 있어도 자기 재산에 만족하는자 없고 자기 재산에 만족하는자 있어도 자기 권력에 만족하는자 없다. 권력이야말로 온갖 가능성을 창출하는 최대의 무기이다!〉》

인민과 등지고 일신의 공명과 출세를 위해 한평생 돈을 찾아, 권력을 찾아 방황한자의 인생관, 그 인생관에는 자기만족이라는 일념밖에 없다. 그 만족을 위해 인민에게 도전하고 인민을 팔아먹고 인민의 머리우에 서슴지 않고 군림하는자들, 박헌영이도 그런자들과 다를바가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으로, 전군중적으로 벌릴 결심을 다지시였다. 이미 당중앙정치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토론했지만 다시금 철저히 벌려야 할 필요를 느끼시였다.

이때 문이 열리면서 정서기가 들어섰다.

언제나 장군님의 사색에 방해를 끼치지 않는것이 자기의 임무라는것을 철칙으로 여기는 그는 최진이와는 달리 응당 보고드려야 할 일인 경우에도 몹시 송구스러워했다. 오늘도 그의 손에는 전지가 쥐여져있었는데 그것은 자체발전기를 쓰는 조건에서 있을수 있는 정전에 대비한 그나름의 세심한 행동이였다.

《장군님, 전화가 왔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곧 탁우에 놓여있는 송수화기를 손에 드시였다.

《국내전화가 아니여서 이쪽으로 돌릴수가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의문이 실린 눈길로 정서기를 바라보며 물으시였다.

《어디서 오는 전화요?》

《중국에서 오는 전화입니다.》

《중국?》

장군님의 눈가에는 곧 밝은빛이 어리시였다. 얼마전 중국으로 떠나간 림춘호와 지영이의 모습이 떠오르시였던것이다. 그들이 떠난지도 이젠 한주일이 가까와오고있었다.

《림춘호동무한테서요?》

《아닙니다, 주은래총리한테서 오는 전화입니다.》

《주은래총리?》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의아한 눈길로 정서기를 바라보시였다.

전혀 예견치 못했던 주은래한테서 오는 전화라는 말에 잠시 한자리에 서계시던 장군님께서는 곧 옆방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4

장군님께서는 서둘러 송수화기를 손에 드시였다. 귀에 익은 주은래의 목소리가 귀전에서 울리고 뒤따라 녀자통역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일성**동지, 안녕하십니까? 주은래가 전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은래동지, 어떻게 총리동지가 갑자기 전화를 다 합니까?》

장군님께서는 통역원의 목소리가 멎기 전에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목소리라도 듣고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하지요, 하하!》

장군님의 눈앞에는 문득 49년초 쏘련방문을 위해 모스크바로 가시던 도중 잠간 만났던 주은래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도 분명 한 손을 양복앞섶에 찌른채 송수화기를 들고있을 그의 모습이 보이는듯싶었다.

그때 그는 이젠 전중국이 해방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하면서 중국인민은 언제나 중국혁명을 위해 피흘려 싸운 조선동지들을 잊지 않을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항미원조보가위국운동의 기치아래 조선전선에 떨쳐나선 중국인민지원군들에게 피로써 맺어진 중조인민의 빛나는 전통을 더욱 훌륭히 꽃피워야 한다고 당부하였고 국제회의때마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준렬히 규탄했다. 얼마전에는 미제가 투하한 세균탄에 대한 진상을 세계에 고발하기 위한 국제조사단을 조직할것을 호소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은래가 전화를 한것이 필경 최근에 제기된 정전협정문제와 관련되리라고 짐작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이미 그가 중국정부의 이름으로 우리의 정전협정에 대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고계시였다.

《요즘 얼마나 분망하시겠습니까? 미제가 〈신공세〉를 벌리려다가 또다시 혼이 났다지요?》

통역원이 《혼이 났다》는 말을 《도망쳤다》는 말로 바꾸어번졌으나 장군님께서는 본래의 의미대로 해석해들으시였다.

《된매를 안겼더니 어느 정도 혼쌀이 난것 같습니다.》

《놈들이 이제야 할수없이 흰기를 들고 정전협정에 응할수밖에요. 이미 정부성명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조선의 립장을 지지합니다. 미제가 정전협정장에 나올 땐 중국과 조선이 힘

을 합쳐 다시한번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김일성**동지! 나는 이번 전쟁을 통해 조선인민들이 참말로 용감한 인민들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인민이 잘 싸우는데도 있지만 우리를 피로써 도와주는 중국인민의 지원이 있기때문에 오늘과 같은 성과가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난 주은래동지와 만난 이 기회에 우리 인민의 이름으로 영용한 중국인민지원군동무들에게 그리고 형제적중국인민과 당과 정부에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거야 **김일성**동지께서 이미 마련해놓은 중조 두 나라 인민들의 빛나는 전통이 있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수상동지의 뜻을 모주석과 우리 인민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 내가 오늘 이렇게 전화한것은 말입니다.》

그제야 장군님께서는 주은래가 전화를 거는것이 정전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때문이라는것을 깨달으시였다.

《다름이 아니라 모주석동지의 부탁이 있어섭니다.》

《모주석의 부탁이라니요?》

장군님께서는 은연중 주은래의 말을 되받아외우시였다.

《며칠전 베이징에 와있는 일본공산당 도꾸다서기장이 모주석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 그에게 보낸 편지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는 **김일성**동지가 일본에서 사는 재일조선인문제에 대해 이런 요구를 하고있다고 하면서 자기로서는 의견이 다른데 중국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알고싶다는것이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제야 모든것이 명백해지시였다. 림춘호한테서 편지를 받아본 도꾸다가 처음엔 자기의 생각을 그에게 말했으리라. 그러나 림춘호가 견결한 립장을 취하자 그 편지를 가지고 곧 모주석한테로 간것이 분명했다. 언제나 쏘련당의 견해를 중시하는 그가 중국당에 찾아갔다는 사실이 뜻밖이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을수 없었던 그의 심정이 리해되기도 하시였다. 더우기 어떤 문제도 그 시로 해명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하는 성미임에랴.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의견이 어떤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갔기때문에 우린 우선 그에게 보낸 **김일성**동지의 편지부터 보

았습니다. 모주석과 나는 그 편지를 두번씩이나 읽었습니다.
김일성동지는 편지에 재일동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 쓰면서 그들과 일본공산당과의 관계를 이미의 기존관계가 아니라 오늘의 변화된 정세에 토대하여 새롭게 밝혔습니다.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것을 느꼈습니다. 모택동동지는 2차 세계대전전에는 제기되지 않았고 제기될수도 없었던 새로운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탁견에 감탄을 금치 못해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일성**동지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니 감사합니다.》

송수화기를 다른 손에 옮겨쥐신 장군님께서는 통역원이 통역할 여유를 주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단지 일본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의 운명을 일본공산당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립장을 밝혔을뿐입니다. 재일동포들은 대개가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은 일본공산당의 무장투쟁로선으로 하여 무모한 희생을 당하고있습니다. 아무리 계급적인 형제당이라 해도 자기 겨레의 운명을 맡길수야 없지 않습니까. 당활동과 민족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모택동동지도 바로 그 동포애, 민족애에 감탄하고있습니다. 나 역시 **김일성**동지의 편지를 보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재일조선인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화교들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일성동지도 알다싶이 세계 어느 나라에건 우리 화교들이 가있지 않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수천만의 화교가 세계 각곳에 널려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이 우리에게는 큰 과제였는데 **김일성**동지의 편지를 보니 많은것이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사실 아편전쟁이 있은 후 영국의 강요에 남경조약이 체결되자 미국, 프랑스, 로씨야 등이 서로마다 강요하는 조약으로 문을 연 중국은 급속히 유미렬강의 반식민지로 화해버리였다. 그때부터 식민

주의자들은 중국근로대중의 극심한 생활고를 악용하여 수천수백만에 달하는 인력자원을 략탈해갔다. 영국이 동남아시아의 식민지를 《개발》한다는 명목밑에 《쿠리》무역을 벌려 끌어간 중국인들만도 수백만, 그후 중국을 침략한 일제 역시 수백만의 중국인들을 일본과 남양지방으로 끌어갔다.

《그런데 오늘 아침 도꾸다서기장이 우리의 의견을 듣겠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김일성**동지의 편지를 보고 느낀 소감을 그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화교들의 실정과도 결부해가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립장을 지지할뿐아니라 감동되고있다고 명백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처음엔 놀랐고 그다음엔 심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한참후에야 입을 열었는데…》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은래의 억양을 통해 그가 어지간히 흥분해있음을 느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주장에 왜 모주석과 내가 공감하는지 자기로서는 리해가 된다는것이였습니다. 그것은 우선 조선과 중국이 옛날부터 류사한 력사발전단계를 거쳐왔고 오늘 역시 같은 혁명의 로정을 걷고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지금 조중인민이 함께 치르고있는 조선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더우기 조중 두 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같이 받았을뿐아니라 그것으로 하여 두 나라의 수백만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 박해를 받았다는 사정은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립장도 부득불 같을수밖에 없다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 문제를 어디까지나 민족주의적인 립장이 아니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립장, 다시말해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요구하는 원칙에서 보기때문에 견해를 달리한다는것과 그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 쏘련당에 문의를 해야겠다는것입니다.》

이미부터 예견하고있던 일이여서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나도 도꾸다서기장이 납득하기 어려워하리라고 짐작했습니다. 이미부터 국제적으로 정식화되여오던 일국일당원칙과는 다른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오늘의 새로운 현실은 매개 나라 공산

주의자들이 우선 자기 나라 혁명을 잘 수행할것을 요구하고있고 또 그것이 바로 국제공산주의운동에도 충실한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견도 바로 그것입니다. **김일성**동지가 편지에 쓴것처럼 오늘에 와서까지 일국일당원칙을 교조적으로 적용하여 해외교포운동을 거주국당에 복종하도록 하는것은 시대의 요구로 보나 세계혁명의 추세로 보아 어페가 있다는것입니다.》

《어페》라는 말을 이번에는 《결함》이라는 말로 통역했으나 장군님께서는 웃으며 들으시였다.

《사실 이 내용을 모택동동지가 직접 **김일성**동지께 알리겠다고 하는걸 내가 맡겠다고 했습니다. **김일성**동지와 한 약속도 있고 해서 말입니다.》

(약속?)

장군님께서는 약속이라는 말에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였다.

《그래 언제 나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4년전 비행장에서 한 약속이 생각나십니까?》

장군님께서는 그때 일이 기억되시였다. 베이징비행장에서 만났을 때 그가 이젠 중국도 멀지 않아 인민정부가 수립되겠는데 그땐 국경을 사이에 둔 형제국가로서 또 동방의 첫 사회주의국가의 사절로서 꼭 중국에 와야 한다는 부탁이였다. 그러겠노라고 확약하신 장군님이시였으나 새 중국이 창건된지 얼마 안되여 그만 전쟁이 터지고말았다.

《총리동지와 한 약속을 전쟁때문에 지키지 못했는데 전쟁이 끝나면 꼭 지키겠습니다. 조중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미제를 족치고 서로 만나는 상봉이야말로 얼마나 더 의의가 크겠습니까.》

《좋습니다. 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김일성**동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모택동동지에게도 나의 인사를 전해주기 바랍니다.》

송수화기를 놓으신 장군님께서는 잠시 그대로 서계시였다. 밝은 빛이 어리여 마치 영사막처럼 보이는 맞은편 벽에 단정한 닫긴깃옷차림을 한 주은래의 미소어린 모습이 뚜렷이 어리였다. 그러나 그

모습은 곧 다른 사람의 모습, 심각한 기색을 짓고있는 도꾸다의 모습으로 바뀌였다. 손을 흔들며 무슨 말을 하다가 불쑥 자리를 차고 일어나는가 하면 앞에 앉아있는 두사람, 림춘호와 리지영을 말없이 쏘아보기도 했다.

(그러니 재일조선인문제가 일본공산당뿐아니라 중국 및 쏘련 나아가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관계되는 복잡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젖어 집무실로 들어서시던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서기가 따라서는 바람에 뒤로 돌아서시였다.

《장군님! 김운해부장이 급히 보고드려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 찾아왔습니다.》

서기뒤에 따라 들어서는 김운해의 표정은 평소의 그답지 않게 상기되여있었다.

《장군님! 방금 련락을 받았는데 한덕수동무가 조국에 왔다고 합니다.》

《뭐요?》

너무도 뜻밖의 말에 장군님께서는 다그쳐 물으시였다.

《한덕수라니? 아니, 그가 어떻게 조국에 온단 말이요?》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신포에 있는 해군부대에서 보내온 보고인데 그가 한 처녀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아마 영신이가 아닌가 짐작됩니다.》

《영신이?!》

장군님께서는 덕수가 조국에 온게 틀림없다는 확신이 드시였다. 그러나 어쩐지 잘 믿어지진 않으시였다. 지금쯤 중국에 있을 김훈과 련계가 취해졌을가 하고 따져보시던 장군님이시였다. 그러니 김훈이와는 아무 련계가 없었던게 분명했다. 그럼 혹시 그새 무슨 다른 일이? 또 새로운 정황이라도 생겼는가? 아니면 더는 일본에 있을수 없는 사정이라도…

이런 의문들이 뇌리에 떠올랐으나 그처럼 보고싶던 덕수가 조국에 왔다는 반가움이 잠자코 서있을수 없게 하시였다.

《신포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장군님께서는 김운해에게로 다가서시였다.

《그를 마중하러 부장동무가 직접 신포로 내려가시오. 공습이 있을수 있으니 갈 때 경위소대를 데리고 가시오. 참, 영신이가 왔다니까 박룡동무도 함께 가는것이 좋겠구만. 어쨌든 신포에 도착하는 즉시 나에게 전화를 하시오.》

장군님께서는 곧 송수화기를 드시고 경위련대를 찾으시였다.

5

자동차가 당중앙을 가까이 할수록 덕수의 마음은 진정할수 없었다. 무슨 사연부터 장군님께 말씀드렸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이미 신포에서 조국에 오지 않을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 장군님께 전화로 보고드리기는 했지만 정작 장군님을 마주한다고 생각하니 그 기막힌 사연들이 다시금 상기되면서 목이 메여올랐다.

민대파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을 이젠 저들이 틀어쥐였다고 확신하자 민전자체를 일본공산당에 내맡기려고 했다. 이전에는 그래도 민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당원활동가들은 민전내의 당그루빠가 맡아보았으나 이때부터는 민전의 매 단위, 매 부서마다에 당세포를 따로 내오고 모든 활동을 세포의 지시에 따라 해나가게 했다. 회의때도 원철이나 민대파들이 아니라 일본공산당 국내지도부의 거두들이 뻐젓이 나타나 앞으로의 과업을 제시하는가 하면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겉은 민전이였지만 속은 나날이 일본공산당의 지시를 집행하는 산하조직처럼 변해갔다. 동시에 그들은 덕수가 발을 붙이고 활동하는 《해방신문》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악착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덕수의 측근들을 철저히 배제해야 조국파세력들을 말끔히 청산하게 될뿐아니라 그 어떤 문제도 아무 장애없이 저들 마음대로 처리할수 있다는 타산이였다.

그러나 《해방신문》을 유일한 무기로 삼고 싸우는 덕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문만은 그들에게 빼앗길수 없다는 단호한 결심을 품고 결사전을 벌리였다. 신문사일군들에 대한 꾸준한 교양사업과 함께 기사들을 더욱 조국을 옹호하는 사상으로 일관시켜나갔다. 그러자니 더욱 발악적으로 나오는 그들의 책동을 막기 위해 주야로 경비를 서야 하는것은 물론 신문사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도 동분서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돈이 없으면 단 한호의 신문도 낼수가 없었던것이다.

《해방신문》을 저들의 기관지로 만들기 어렵다는것을 알자 놈들은 곧 도쿄중고교장인 림광철과 《학우서방》사장인 김상기를 공격하는데로 화살을 돌렸다. 그자들은 수시로 학교와 《학우서방》에 나가 세포회의를 지도하면서 교원들과 일군들앞에서 공공연히 교장과 사장의 《사상적과오》를 비판했다. 그 과오라는것은 그들이 덕수가 쓴 《애국진영의 순화와 강화를 위하여》라는 론문을 선전함으로써 《민족적편향》을 범했으며 조직의 분렬과 모순을 꾀했다는것이다. 이와 함께 덕수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악담을 퍼부었는데 이젠 민족파나 조국파라는 정도가 아니라 《평양나팔》이라고 꺼리낌없이 떠들어대는 판이였다.

《보시오, 그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랭대를 받고있는가. 이젠 동포들로부터도, 운동권으로부터도 완전히 고립당하고말았소. 지금은 세상의 움직임을 똑똑히 보고 나팔을 불어야지 평양소리만 듣고 나팔을 불어서는 안된다는거요. 평양나팔에 귀를 기울이며 춤추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와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두시오.》

덕수는 자기에 대한 비난은 참을수 있었지만 진정으로 조국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민전이 일본공산당의 산하조직으로 전락되여가는것만은 참을수가 없었다. 그런 절망과 분노를 느낄수록 조국에 보낸 김훈이의 소식이 기다려졌으나 김훈은 중국에서 조국으로 들어간다는 련락만 보내왔을뿐 더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일각이 삼추같기만 했다. 다시 조국에 련락을 띄우고싶었으나 그럴 형편도 못되였다. 아니, 이젠 자기가 직접 장군님께 보고드리고 가르치심을 받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었다. 또 자기가 아니고서는

이 절망적인 사태를 장군님께 정확히 보고드리지 못할것 같았다.
그리하여 사선을 뚫고 다시 조국에 온 그였다. 그러나 신포에서 장군님의 로선전환에 대한 방침을 전달받는 순간 그는 말뚝처럼 굳어져버렸다. 놀라왔다. 아니, 신기했다. 저절로 환성이 터져오를 지경으로 경탄스러웠다. 어쩌면 복잡한 재일조선인운동의 실태를 그리도 정확하게 꿰뚫어보시고 내리신 결심인가! 어쩌면 남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용단을 내리시였단 말인가! 그야말로 온 세상을 줌안에 놓고 들여다보시며 나라와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난관도 서슴없이 맞받아나가시는 장군님이시였다.
하지만 불안도 없지 않았다. 그 로선이 위기에 처해있는 재일조선인운동과 경각에 달해있는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구원하는 길이라는것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그것이 아직 해외교포운동에서는 전대미문의 로선이라는것과 또 그것을 실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였다.
자기 나라 문제이긴 하지만 동포들이 사는 일본이라는 환경과 결부되여있고 자기 동포들에 대한 문제라고는 하지만 여태껏 해외교포들의 활동이 규범화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원칙과 관련되여있는것이 아닌가! 과연 기성관례나 리론이 장군님의 새 로선을 어떻게 받아들일것인가? 또 일본공산당 수뇌부는 그것을 어떤 립장에서 받아들일것인가!
줄곧 이 하나의 생각에 젖어있던 덕수는 자동차가 당중앙청사마당에 도착하는 순간 그만 저도 모르게 탄성을 터뜨렸다. 마당을 가로질러 자기를 향해 마주오시는 장군님모습, 군복을 입으시고 목이 긴 장화를 신고계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보았기때문이였다.
(아— 장군님!)
전쟁이 한창이며 그 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기 위해 밤낮을 이어 분투하시리라 짐작하면서도 장군님께서 군복을 입고계시리라는데 대해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덕수였다. 언젠가 지영이한테서 군복을 입으시고 묘목을 심더라는 말을 들을 때에도 실감으로 느끼지는 못했었다.

바로 저 군복을 입으시고 해방된 남녘땅에 가셨을것이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셨으리라. 저 군복을 입으시고 1211고지에 나가시여 미제에게 죽음을 선고하시였을것이며 당과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던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분쇄하셨으리라. 항일의 20여성상 입고계셨던 그 군복을 오늘까지도 벗지 못하신 장군님! 어째서 장군님 한생은 남다른 시련과 고생으로만 계속되는것인가.

그러나 그 수수한 군복을 입으신 장군님의 온몸에서 내뿜기는 위엄은 첫눈에도 벌써 세계《최강》을 떠드는 미제가 벌벌 떠는 까닭을 직감할수 있게 하는것이 있었다. 얼굴모습은 5년전 그때와 다름없는 품위와 조화, 활기를 그대로 간직하고있었고 후리후리한 몸매는 용솟음치는 젊음과 불같은 열정, 강철같은 힘을 드러내고있었다. 간고한 전쟁의 시련은 장군님을 무척 변하게 하였지만 그것은 장군님의 모든 비범하고 초인간적인 자질을 더욱 완성하고 더욱 빛내이고있었다.

《장군님!—》

《덕수동무!》

장군님께서는 덕수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나는 덕수동무가 이렇게 불시에 조국에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덕수는 자기가 조국에 오지 않을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 다시 말씀올리려 했다.

《알고있습니다. 종파들이 얼마나 못되게 놀고 그것으로 해서 동무의 맘고생이 어떠했으리라는것을 다 알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청사안으로 덕수를 이끄시며 물으시였다.

《그래 집에서는 어떻게 지냅니까? 아주머니는 건강합니까? 호일이가 잘못된 후 몸져누웠다는 말을 들었는데…》

《예, 이젠… 몸도 추서고 아이들도…》

고개를 숙인채 띠염띠염 말씀올리던 덕수는 얼른 얼굴을 들고 죄스러운 눈빛으로 장군님을 우러렀다.

《장군님! 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심

려가 많으신 장군님께서 저의 일때문에… 정말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

장군님께서는 말없이 덕수를 지켜보시였다. 어쩐지 가슴이 미여지는듯 하시였다. 그처럼 순박하고 활기찬 모습대신 고생의 흔적이 력연한 창백하고도 여윈 모습은 거의 딴사람같은 인상을 느끼게 했다. 허울만 남은것 같은 사나이가 후렁후렁한 옷을 너풀거리며 서있는 모양은 갖은 풍상고초를 헤쳐오신 장군님의 눈에도 너무나 가슴아픈 모습이 아닐수 없으시였다. 더우기 그 어떤 경우에도 좌절을 모른다는 그가 짓이겨진 떡잎처럼 후줄근해서 오로지 모든것은 자기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때문이라고 여기면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있는것은 얼마나 기막힌 모습인가! 그이께서는 가슴이 찢어지는듯 하시였다. 그럴수록 기어이 로선전환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결심, 그래야 재일동포들을 구원하게 될뿐아니라 여태껏 고생만 시켜온 덕수에게도 다소나마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게 된다는 각오로 굳어지시였다.

사실 덕수를 대하는 순간 장군님께서 느끼신 감정은 살벌한 적구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용감한 전사에 대한 다함없는 미더움과 그런 전사에게 너무나도 무심했다는 자책이시였다. 그것은 덕수가 남다른 고생을 하면서도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수도, 구원을 바랄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것과 바로 그를 그런 외롭고도 고독한 처지에 놓이게 한것이 바로 자신이신것만 같은 피할길 없는 자격지심이였다.

그를 혁명의 요구라는 원칙에 복종시킨것으로 하여 그자신에게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이 따랐는가. 생활의 보람도 가정의 행복도 모든것을 다 혁명을 위해 바쳤건만 혁명이 그에게 준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사실을 되새길수록 어쩐지 덕수에 대한 련민의 정과 함께 무언가 열배, 백배의 보상이 되는것을 가슴가득 안겨주고싶으시였다. 마치 남의 집에서 갖은 수모와 천대를 받는 자식이라는것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한 부모의 심정이라고 할가. 아니, 살이 터지고 온

몸이 멍든 자식이 두팔을 벌리고 와락 달려들 때의 심정이기도 하시였다. 다시는 품에서 떼놓을수 없으시였고 떼놓고싶지도 않으시였다. 또 다시는 그 위험한 적구에 들여보낼수도 없으시였다.

《덕수동무!》

장군님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덕수의 팔을 뜨겁게 잡으시였다.

《내가 여태껏 동무를 너무 고생시켰습니다. 동무가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5년전 조국에 그냥 떨어졌으면 하던 동무의 소원을 풀어주지 못한것이 여간 마음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제부턴 우리 함께 일합시다. 더는 헤여지지 말고 조국에서 함께 일하잔 말입니다.》

덕수의 손을 잡아흔드는 장군님의 눈가에는 어느덧 눈물이 맺혀있었다.

이때 출입문이 열리면서 박룡이와 영신이가 방안으로 들어섰다.

6

장군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들어서는 영신이의 단정한 모습을 통해 첫눈에 벌써 이 처녀가 무엇 하나 꾸밈이 없이 소박하고 깨끗한 마음씨를 가진 처녀라는것을 알아보시였다.

은연중 옆에 서있는 박룡이에게로 시선이 갔으나 그의 우둥부둥한 얼굴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섬세한 영신이의 용모는 도저히 두사람이 부녀지간이라는것을 믿기 어렵게 했다. 흔히 영신이처럼 아련하게 생긴 처녀는 마음이 섬약하기마련이라는 말이 떠올랐으나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였다. 영신이야말로 그 어떤 유혹이나 시련에도 휘말려들지 않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꿋꿋이 지켜낸 처녀, 지향의 절개뿐아니라 사랑의 절개까지도 끝까지 지켜낸 안팎으로 아름다운 미인이 아닌가! 그런 영신이가 더없이 대견하고 기특하시였다.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장군님께서는 앞에 서있는 덕수와 박룡이를 일별하시고는 밝은 표

정을 지으시며 영신이에게로 시선을 옮기시였다.

《영신동무! 난 동무에 대한 말을 들을 때마다 동무가 과연 언제 조국에 있는 지영동무와 만나게 될가 하고 생각하군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렇게 오고야말았습니다.》

웃음어린 눈길로 영신이를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다시 박룡이에게로 돌아서시였다.

《그래 딸과 이렇게 만나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버릇처럼 두손을 모두어쥔 박룡은 입가에 어줍은 미소를 띠웠다.

《어떻다고 말씀드려야 할지… 아직은 그저 심봉사가 심청이를 만난것처럼 어리둥절할뿐입니다.》

《심봉사와 심청이라… 하긴 그렇게 말할수도 있지요. 앞 못 보는 심봉사가 갈길을 찾지 못해 일본, 남조선을 오락가락한 박룡동무라면 그 아버지를 위해 임당수에 빠진 심청이는 바로 영신동무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봉사는 룡궁에서 딸과 만나 눈을 떴는데 그렇다면 그 룡궁은 결국 이 조국이란 말이 됩니다, 하하.》

롱담처럼 하시는 장군님말씀이였으나 박룡은 물론 영신이까지도 생각에 잠기였다. 그런 부녀를 보시며 그이께서는 더 밝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부녀간의 상봉이 심봉사와 심청이의 상봉이라면 이제 있게 될 지영동무와 영신이의 상봉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 생각엔 두사람의 상봉은 견우와 직녀의 상봉이라고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견우와 직녀를 위해서는 까마귀들이 은하수에 오작교를 놓아주었다면 지영동무와 영신이를 위해서는 바로 이 덕수동무가 다리를 놓아준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군님!》

장군님앞으로 한걸음 나선 박룡이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올렸다.

《저희들 부녀가 이렇게 장군님앞에 서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꿈만 같습니다. 딸애하구 평양으로 오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와 이 애는 오로지 장군님의 사랑으로 재생한 몸입니다. 오욕에 찬 길을 걷던 저에게 참된 삶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국의 광야에서 부평초처럼 떠다니던 딸애까지 이렇게… 과연 무슨 말로 그 은정을 다

아뢰일수 있겠습니까. 이 행복을 어찌 심봉사나 심청이에게 비길수 있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듯 손을 저으시였다.

《박룡동무의 부녀가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건 누구의 덕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국이 있기때문입니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국의 운명이자 민족의 운명이고 민족의 운명이자 곧 개인의 운명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박룡동무 부녀가 이렇게 조국에서 만난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재일동포모두가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리라는걸 새삼스레 확신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덕수동무?》

《옳습니다. 저도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덕수는 장군님께서 그 물음이 계시리라는것을 기다리기라도 했던것처럼 힘차게 대답올렸다.

《이렇게 장군님앞에 서있다고 생각하니 한가지 사실이 떠오릅니다.》

무엇때문인지 박룡은 옆에 있는 덕수를 돌아보고나서 상기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해방직후 이 덕수동무가 조련을 조직하고 동포들을 조국의 두리에 묶어세울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재일동포들을 몽땅 이북으로 끌고가려고 하는데 고향이 남쪽인 동포들이 북으로 쏠릴것 같은가 하고 말입니다. 그때 덕수동무는 고향이 무슨 상관인가? 고향이 남이든 북이든 동포들이 갈길은 하나다, 그것은 바로 **김일성**장군님품이다, 왜냐하면 장군님이 계시여 조선이 있기때문에 조선사람의 고향은 누구나 다 장군님의 품이라는걸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 그 말이 얼마나 옳았는가 하는것을 오늘에 와서야 절감하게 됩니다. 저와 딸애의 운명을 두고 다시금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진정에 넘친 박룡의 말은 이미부터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고있었고 어느땐가는 꼭 장군님께 말씀드리기로 작정하고있었던것이 틀림없었다.

장군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 지나간 이야기는 그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것부터 말해봅시다. 나는 무엇보다도 지영동무와 영신이를 위해 집을 한채 마련하는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지영동무가 곧 돌아올테니 말입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갑자기 영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자기를 마주보고계신다는것을 알자 얼른 다시 머리를 숙이였다. 무슨 말을 장군님께 올리고싶지만 말보다도 먼저 솟구쳐오르는 격정으로 하여 입을 열수가 없는듯싶었다.

《저는…》

가슴밑창에서 울려나오는듯 한 그의 목소리는 벌써 울음에 젖어있었다.

《저는 이때까지 버림만 받아오던 몸이였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부모한테서 버림받고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서까지…》

떨리던 목소리마저 가늘어지다가 뚝 끊어지고말았다. 일시에 지나간 모든 추억들이 가슴을 허비는게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전 저에게 쏟아지는 가혹한 운명의 세례앞에서 처음엔 그저… 죽을수밖에 없다고 여겼댔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냥 죽을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죽기에는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들어간 곳이 바로 수도원이였습니다. 하느님밖에 저의 번뇌와 고통을 리해해주지 못하리라 믿었기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느님께 빌었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빌고 저의 앞길을 막는 문이 열리기를 바라서 빌었습니다.》

어느새 고개를 들고있는 영신이의 두눈에는 맑은 눈물이 한가득 고여있었다. 흥분과 열정이 어려있는 그의 표정은 마치 성상앞에 서있는 열광적인 신도의 모습 그대로였다.

《저는 성심을 다해 바랐고 있는 힘을 다해 찾았으며 기를 쓰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찾을수도 없었으며 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처럼 애

타게 찾고 바라고 원하던 모든것을 바로… 바로 장군님께서…》
영신이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목소리도 눈물에 잠겨 이어지질 못했다.
《그렇습니다. … 바로 장군님께서는 제가, 제가 그토록 찾고 바라던것을 다… 모조리 주시였으며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인생의 새 대문까지 활짝 열어주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장군님이시야말로 저를 구원해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저의 앞날을 환히 열어주신 하느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영신이는 두손을 모두고 정중히 머리를 숙이였다. 어깨우로 흘러내린 머리칼이 세차게 물결쳤다.
자못 난감하신 눈길로 덕수며 박룡이를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영신이를 자리에서 일으키시였다.
《자, 일어나시오. 난 오늘의 모든것이 영신동무 자신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도 억울한 운명에 순종할수 없다는 그 각오가 결국 영신동무를 조국에 오게 했고 이렇게 아버지나 지영동무와 만나게 한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난 영신이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곧 옆에 놓여있는 바구니를 들고 다시 장군님앞으로 다가섰다. 그가 바구니우에 덮여있는 흰 천을 들자 그안에는 놀랍게도 갖가지 색갈의 종이로 접은 작은 새가 셀수도 없으리만치 꽉 담겨져있었다.
《장군님! 우리 풍속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나 기어이 실현되길 바라는 소망이 있을 때면 천마리의 학을 종이로 접는 풍습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돌려주시는 장군님의 사랑을 안 그날부터 장군님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라서 더우기 준엄한 전쟁의 나날속에서도 부디 옥체만강하시기를 축원하여 학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의 은정으로 다시 태여난 이 소녀의 보잘것 없는 성의로 여겨주신다면 그 이상 영광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구니를 여겨보시는 장군님께서는 이름할수 없는 감정과 함께 그 어떤 새로운 결심에 넘치시였다. 어찌 이것이 영신이 하나의 심정

이랴! 재일동포들모두가 지금 영신이가 겪은 그런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안타까이 조국을 바라보고있지 않는가! 하루빨리 그 위험한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길 바라고있지 않는가!

침묵이 깃든 집무실로 서기가 들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일순 그에게로 집중되였다.

《장군님! 중국에 가있는 림춘호동무로부터 련락이 왔습니다.》

《그래?》

장군님의 물으심에 언제나처럼 송구한 표정을 지은 서기는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대답을 올렸다.

《다른 말은 없이 그저 오늘 저녁차로 조국을 향해 떠난다고만 했습니다.》

《저녁차라…》

혼자소리처럼 하시는 말씀이였으나 그 어조에 색다른 긴장이 어려있다는것을 방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7

《도꾸다서기장의 특사로 모스크바에 갔던 가마다사무장이 베이징에 돌아온것은 2월 중순이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침착하고 대범한 림춘호였으나 오늘은 저으기 흥분된 표정이였다.

김일성동지와 함께 홍명희, 김운해 그리고 일본에서 온 덕수까지 앉아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보고내용이 너무나도 놀라운것이여서 자칫 실수하여 설치거나 빼놓지나 않을가 하는 불안이 더 흥분을 촉발시키는것이였다.

아침, 평양에 도착한 즉시 역에 마중나온 일군과 함께 장군님께서 계시는 당중앙청사로 온 그였다. 지영이는 영신이부터 만나라는 장군님의 지시대로 역에서 곧바로 그가 있는 려관으로 갔다.

장군님께 먼저 베이징에 있는 김훈이 일본에 련락을 띄울 길을 찾

지 못해 안타까와하고있는 사실에 대해 보고드린 림춘호는 한덕수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곧 응접실로 들어가 베이징에 도착한 즉시 일본공산당 수뇌부를 찾아가던 일에 대해서부터 말하기 시작했다.

일본공산당 수뇌부성원들이 청나라시기 태후가 쓰던 어느 한 고궁에서 합숙생활을 하고있는데 대해서와 그들이 저마다 중국성인 《손》가나 《주》가로 불리우고있는데 대해, 또 그들이 국내당과의 련계를 위해 지하방송을 운영하면서 기관지도 발행하고있는 사실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도꾸다는 고혈압병으로 남방에 가서 료양생활을 하고있었으나 림춘호가 왔다는 보고를 받고는 그 다음날로 베이징에 돌아왔다는것과 그가 장군님의 편지를 보자마자 모택동주석을 찾아간데 이어 다시 특사를 쏘련당에 파견한 사실로 넘어갔다.

림춘호는 말을 이었다.

《본래는 도꾸다서기장자신이 직접 쏘련에 갈 예정이였으나 건강이 좋지 못한 관계로 이미 국제당에서 오래동안 일했으며 그때부터 쏘련당과 친분이 두텁고 로어에도 능한 가마다사무장을 보냈습니다.》

《가만.》

장군님께서는 림춘호의 말을 중단시키고 물으시였다.

《내가 보낸 편지를 보고 도꾸다서기장이 의견이 있어 한다는건 알고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였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군님께서 무엇을 중시하고계시는가를 안 림춘호는 대뜸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본래의 국제공산주의운동원칙과는 다르다는것인데 그는 그 실례로 조선공산주의자들도 혁명이 승리할 때까지는 중국땅에서 일제를 반대해 싸우지 않았는가고 하면서 그때는 어디에서 싸우든지 제국주의를 반대해 싸우면 계급적의무를 다하는것으로 여기다가 오늘에 와서는 어째서 다른 주장을 내놓는가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당에도 의견이 있다고 한 그는 이왕에는 그처럼 일국일당원칙에 철저하던 중국당이 오늘에 와서 **김일성**동지의 견해를 긍

정하는것은 조선과 중국이 같은 처지에 있을뿐아니라 중국도 혁명이 승리했기때문이라는것이였습니다.》

《그러니 의견이 아니라 불만을 품고있었구만. …》

《그래서 저는 도꾸다서기장이 잘못 생각하고있다고 말해주면서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초시기부터 어디에서 혁명을 하건 철저히 조선혁명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대로 투쟁했다는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리립삼의 좌경로선으로 일어난 5.30폭동에서 뼈저린 교훈을 찾으신 장군님께서 조선사람은 어디까지나 조선혁명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으로부터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고 국내에로 진공할데 대한 문제, 조선인당원들로 당조직을 따로 내올데 대한 문제들을 그때 벌써 해결했다는데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놀라기도 하고 의심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지영동무가 자기도 일본에 있을 때 조련에서 일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때는 일본공산당이 조련에 간섭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일본공산당이 재일조선인들을 일본혁명을 위한 돌격대로 무장투쟁에까지 내몰지 않느냐고 하면서 장군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반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시였다.

《지영동무가 옳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고싶은것이 바로 그것이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림춘호에게 계속하라고 이르시였다.

《우리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던 도꾸다서기장은 **김일성**동지의 주장이 어떻다는건 알겠다, 그러나 우리도 일본혁명에 대한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이 옳다고 확신한다, 그런것만큼 이 문제를 쏘련당에, 쓰딸린동지께 문의하자, 나는 쓰딸린동지께 **김일성**동지가 보낸 편지와 함께 나의 견해도 따로 써보내겠다, 이것이 결코 일본공산당과 조선당과의 관계뿐아니라 앞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니만치 그럴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는 곧 가마다사무장을 모스크바로 보냈던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당의 립장을 재천명하기 위해 사무장을 쏘련에 보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궁금한 눈길로 마주보시는 장군님을 대하자 림춘호는 숨이 가빠올랐다. 바로 이제부터 해야 할 보고내용이 은연중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것이다.

사실 가마다가 떠났을 때부터 림춘호는 불안했다. 일주일을 예견하고 떠났던 그가 열흘이 되여도 돌아오지 않을 땐 더욱 조바심이 났다. 그러나 실은 그가 일주일만에 돌아왔는데 자기가 모르고있었을뿐이였다. 아니, 그들이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것이다.

그가 돌아왔다는것을 안것은 별채에 있는 《아까하다》기자가 지영에게 귀띔해주어서였는데 그는 그 소식과 함께 사무장이 돌아오자부터 수뇌부에서는 무엇때문인지 매일처럼 밤늦게까지 론쟁이 벌어진다는것도 말해주었다.

실지 수뇌부가 자리잡은 고궁은 장밤 불이 꺼지지 않았을뿐아니라 어떤 때는 도꾸다서기장의 격노한 목소리가 새나오기도 했다. 분명 더없이 심각한 문제가 론의되고있다는것은 짐작했지만 그것을 알아볼수 없는것으로 하여 초조했다.

마침내 나흘째 되는 날, 도꾸다서기장이 만났으면 한다는 련락을 받은 림춘호는 지영이와 함께 그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를 마주한 순간 림춘호는 주춤하지 않을수 없었다. 단 며칠사이에 그의 모색이 몰라보게 수척해있었기때문이였다. 처음 만났을 때의 왕성한 기력과 열정은 어데로 갔는지 마치 병상에서 일어나앉은 환자를 마주하는 기분이였다.

《난 워낙 에돌줄 모르는 사람이요. 숨길것없이 사실대로 말합시다.》

도꾸다의 표정은 여느때의 과묵한 기색이 아니라 피곤과 함께 어떤 불만이 어려있었다.

자기 말을 지영이가 미처 통역하기도 전에 다시 입을 열었다.

《쏘련당 정치위원회에서는 **김일성**동지편지와 내가 써보낸 의견서를 놓고 여러차례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 그들은 재일조선인문제를 비롯한 이여의 문제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견해에 동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김일성**동지의 견해에…》

왜서인지 도꾸다의 목소리는 갈리기 시작했다.

《민족문제와 국제공산주의운동 또 일국일당원칙이 **김일성**동지의 주장대로 오늘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적용되여야 한다는데 일치한 합의를 보았답니다. 정치위원회에서는 곧 자기들의 견해를 쓰딸린동지께 그대로 보고했는데…》

잠시 천정을 쳐다보던 도꾸다는 눈을 감은채 아무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쓰딸린동지 역시 전적인 긍정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첨부했는데 그것은 이제부터 국제공산주의운동을 틀어쥐고나갈 정치가는 바로 조선의 **김일성**동지라고 말했다는것입니다.》

《…》

도꾸다는 물론 그의 말을 통역하는 지영이의 목소리까지 떨리고 있었다.

《쓰딸린동지는 자기의 이런 립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 내가 써보낸 의견서와 자기의 견해를 밝혀서 평양주재 쏘련대사관을 통해 **김일성**동지께 직접 전달하겠다고…》

《…》

림춘호는 숨이 멎을것만 같은 충격에 휩싸여 도꾸다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다시 눈을 감은채 숨을 가다듬은 도꾸다는 이번에는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물론 나로서는 많은 문제들이 리해되지 않거니와 접수하기도 어렵습니다. 다시 료양지에 내려가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김일성**동지의 주장이 옳다는것은 인정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

림춘호는 대뜸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방침이 어쩌면 이렇게도 정당하고 이렇게도 힘이 있을가 하는 감탄과 이것으로 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은 물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가 새롭게 펼쳐지게 되였구나 하는 이름할수 없는 감격이 가슴을 후려쳤다. 마치 력사의 전환점에 선 자

기가 장군님의 뜻에 따라 바야흐로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드는 새 시대의 거류를 두눈으로 똑똑히 보는것만 같았다. 남호두회의때의 일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자기에게는 그처럼 거대한 승리로 여겨지는 사변이 도꾸다서기장과 일본공산당에는 전에 없던 타격으로 된다는것을 그다음에야 깨달았던것이다.

그날 저녁 조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는 자기들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노사까 산조였다. 선량한 생김새처럼 성격도 온후한 그는 목소리까지도 남달리 부드러웠다.

《조국에 돌아가면 **김일성**동지께 나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면목이 없다는 말도 첨부해주길 바랍니다. 45년말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양에 들렸을 때 그처럼 재일동포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셨는데 도리여 우린 그들을 위험한 처지에 빠뜨렸으니 말입니다. 물론 본의는 아니였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번에 새로 깨닫게 된것은 재일조선인문제만이 아닙니다. **김일성**동지의 편지가 재일조선인운동의 전환만이 아니라 우리 당이 이때까지 견지해온 무장투쟁로선을 비롯한 모든 로선들을 새로운 눈으로 따져보지 않을수 없게 했다는것입니다. 말하자면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로선전환방침이 일본공산당자체의 로선전환의 시발점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는것입니다.

나는 그런 각도에서 도꾸다서기장을 도와 재일조선인운동은 물론 우리 당의 로선들을 다시 검토하고 대책들을 세울 결심입니다. 저의 이런 결심을 꼭 **김일성**동지께 전달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 **김일성**동지께서 자기에게 외투감을 선물로 주시였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전쟁을 겪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장군님께 선물을 올리겠다면서 양털담요를 내놓았다. …

보고를 마친 림춘호는 감격에 넘친 얼굴로 그러면서도 혹시 자기 보고에 미흡한데가 없지 않을가 하는 불안이 섞인 눈길로 장군님을 우러렀다.

언제나처럼 두손을 모두어쥐신 장군님께서는 생각깊은 눈길로 책

상우의 어느 한 곳을 지켜보고계시였다. 그러나 홍명희며 김운해, 한덕수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이름할수 없는 격동이 넘쳐있었는데 그 표현형태는 각이했다. 꼿꼿이 허리를 편 홍명희는 아직도 모든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지 부동자세로 굳어져있는가 하면 김운해는 반대로 고개를 깊숙이 떨군채 깊은 생각, 어떻게 보면 모진 자책과 회오에 휩싸여있는듯 했다. 그런가하면 한덕수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체할 길이 없어 이쪽저쪽을 돌아보았다. 그의 번뜩이는 눈빛은 어째서 모두들 벙어리처럼 잠자코있느냐고 불만스러워하는듯 했다. 못마땅한 눈길로 홍명희와 김운해를 바라보던 그는 자기로선 더는 참을수 없다는듯이 아니, 자기가 모두의 심정을 대신하겠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장군님!》

얼마나 큰소리로 말했던지 고개를 숙이고있던 김운해가 놀라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나 그는 더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됐습니다. 이젠 재일동포들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였단 말입니다.》

두손을 번쩍 쳐들며 방안이 떠나갈듯이 웨치는 한덕수의 모습에 장군님께서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시였다.

8

자리에서 일어나신 장군님께서는 대나무화분이 놓여있는 창문쪽으로 다가서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쏘련당이 우리의 립장을 지지해준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공산당에서 자기 로선을 검토하고 새로운 길로 나서겠다는것 역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것은 이웃나라 당들의 지지와 변화가 곧 우리 주장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것입니다.》

《?…》

방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금 긴장해졌다. 더우기 덕수는 이젠 일

본공산당자체가 자기의 잘못된 로선을 시인했고 중국당이나 쏘련당이 그것을 인정하고있는데야 무슨 문제가 더 있을가싶어 얼떠름한 눈길로 장군님을 우러렀다.

《왜냐하면 잘못된 재일조선인운동을 바로잡는것은 바로 우리자신들이기때문입니다. 주변나라의 지지와 성원은 어디까지나 우리에 대한 응원이지 직접 운동장에 나서서 꼴을 넣는 선수는 아닌것입니다. 일본공산당이 자기 로선이 옳지 않았다는것을 인정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국내에는 든든한 방어진, 철벽같은 요새가 그대로 구축되여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실제로 그 방어진을 뚫고들어가 꼴을 넣어야 하는것은 우리자신입니다. 말하자면 로선전환은 우리 힘으로, 그것도 통쾌한 꼴을 넣을 때만이 이룩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부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니 장군님께서는 로선전환을 결심하실 때부터 벌써 오늘의 사실을 예견하고계시였다는것이 아닌가! 오늘의 변화된 정세가 그에 맞는 새로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길을 요구하고 또 그 길로밖에 나갈수 없다는것을 이미 확고히 믿으시고 그에 기초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망까지도 모색하고계시였다는것이 아닌가!

이런 새로운 충격으로 하여 덕수는 다시금 굳어지고말았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까지 걸어온 재일조선인운동입니다.》

앞으로 다가서신 장군님께서는 손바닥을 세우시고 책상우에 금을 죽 그으시였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방금 그은 금에서 수직으로 뻗은 금을 또하나 그으시였다.

《말은 로선전환이지만 이미 가던 길을 고쳐가는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비유해 말하면 병이든 질환을 고치는것이 아니라 피를 완전히 새로운것으로 바꾸어야 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러자면 무엇이 장애로 되는가?》

장군님께서는 방금 그은 금앞에 책상우에 있는 재털이를 놓으시였다.

《우선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골수에까지 꽉 들어차 이제까지 일본공산당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받아물던 종파분자들이 우리의 로선을 반대해나설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서는 우리의 주장을 리해할수도 없거니와 설사 리해한다고 해도 인정할수가 없기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것은 곧 저들이 조국과 민족을 배반했다는것을 자인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에 놈들의 책동은 더 발악적일것입니다. 당과 민족을 배반한자들일수록 자기들의 죄행을 감추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는 법입니다. 박헌영이나 리승엽의 실례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애는…》

이번에는 또다시 성냥곽을 집어놓으시며 사람들을 둘러보시였다.

《놈들의 책동으로 하여 적지 않은 일군들과 동포들이 조국에서 멀어지고 무관심하게 된 사정, 종파들의 정체를 모르고 그저 그들이 시키는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정도 애로로 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결국 로선전환을 쉽게 또 빠른 시일내에 실현하기는 어렵다는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수동무?》

《?!…》

덕수는 저도 모르게 흠칫했다. 저로서는 전혀 생각도 해보지 못한 문제들을 장군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명백하게 지적해주시는지 거듭되는 감탄을 누를 길이 없었다.

문득 쓰딸린이 말했다는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가라는 말이 새삼스런 의미로 느껴지면서 가슴을 후덥게 했다.

《그럼 로선전환을 위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하는것입니다. 나는 우선 우리 재일조선인조직이 앞으로는 철저히 일본의 그 어떤 세력이나 단체에 구속되거나 복종되지 않는 완전히 자주적이고 애국적인 조직으로 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과 동포들이 일본공산당과의 조직적인 련계를 끊는 동시에 그들이 동포들에게 내리먹인 일본혁명을 위한 투쟁과업을 우리가 이미 천명한바 있는 조국을 사수하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고수하는 과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군님께서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듯 손을 들어보이시였다.

《종파들의 책동의 본질을 동포들에게 꾸준히 해설하여 동포대중이 놈들의 죄행을 똑바로 알게 하는것입니다. 로선전환의 성과는 동포들이 종파들의 죄행을 어느 정도 깊이 파악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동포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심화시켜 애국핵심력량을 키워내야 합니다. 새 로선을 관철해나갈 새형의 일군들을 미리부터 준비해놓아야 첫걸음을 힘차게 뗄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과업을 수행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일본인민들과의 친선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민대파의 책동으로 하여 일본사람들이 민전이나 조선사람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있는것만큼 일본인민들과의 친선을 도모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덕수는 장군님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 점점 그 어떤 절대적인 불가항력에 끌리여들어가는것만 같은 착각에 휘말리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을 허비는 뼈저린 자책에 휩싸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재일조선인운동이 과연 얼마나 위험한 구렁텅이에 빠져있는가 하는 새삼스런 느낌이였고 그런 엄청난 후과가 차례진건 전적으로 자기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때문이라는 자책감이였다.

《장군님!》

덕수는 자기의 그런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어쩐지 장군님께 죄를 짓는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장군님말씀을 듣고보니 제가 장군님뜻을 너무나도 받들지 못했다는 자책이 재삼 가슴을 허빕니다. 제가 장군님 가르치심대로만 운동을 이끌었다면…》

《아닙니다!》

장군님께서는 덕수를 마주보시며 고개를 저으시였다.

《오늘의 시련은 결코 덕수동무가 일을 잘못해서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조국이 아닌 이역땅에서 투쟁한다는 어려움, 특히 여느나라 해외교포들이 걸어보지 못한 새길을 개척하자니 부득이하게 제기되는 시련이고 난관입니다. 나는 도리여 우리가 오늘과 같이 해외교포운동사에서는 처음으로 되는 그런 길을 개척하게 된데는 바로 덕수동무를 비롯한 애국적인 활동가들과 재일동포들이 잘 싸웠

기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약 재일동포들이 해방후부터 조국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면, 조국을 견결히 옹호하지 않았다면 벌써 미제와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굴복했을것이고 또 종파들의 책동으로 하여 조국을 잃어버렸을것입니다. 오늘의 성과는 어디까지나 그런 시련속에서도 조국을 위해 싸워온 재일동포들과 애국적인 활동가들이 이룩한 성과입니다.》

그러면서 장군님께서는 조국에서 취해야 할 대책들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시였다.

먼저 조국전선호소문을 통해 재일동포들이 로선전환에 대해 옳게 리해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는 일본정부에도 재일동포들이 우리 나라의 해외공민인것만큼 일본인민들과의 관계에서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을 밝힘으로써 동포들에 대해 적대시정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것이 바로 일본정부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립장인 동시에 동포들의 로선전환투쟁에 대한 조국의 의사를 정책으로 선포하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정녕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덕수는 장군님말씀을 되새길수록 그 말씀에 담긴 심오한 뜻과 함께 장군님모습에 더 어리둥절해지는것이였다. 군복을 입고 장화를 신고계시는 장군님이시였지만 마치 하늘이 내린 어떤 성인을 대하는듯 한 심정에 빠져들기만 했다.

문득 5년전 장군님을 처음 뵈왔을 때의 일이 떠오르면서 그때는 젊으신 모습과 뛰여나게 수려한 미목으로 하여 정신을 가다듬을수 없었다면 오늘은 전혀 새로운 모습과 함께 남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엄두도 내지 못할 문제들을 환히 내다보시고 서슴없이 해결하시는 그 심원한 사상과 담력에 감동되는것이였다. 새삼스레 그는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을 되살리시고 우리 인민을 강자로 키우시며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에 올려세우시는분이라는것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은연중 그런 장군님의 품에 안겨산다는 긍지와 자랑으로 하여 가슴이 터질듯 했다.

(아— 이런 행복! 나 하나만이 아닌 60만재일동포들 아니, 전체

우리 민족이 누리는 이런 행복은 오로지 장군님을 모시고있기에 누리는 무상의 행복이 아닌가! 누가 과연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고 했는가! 아니다!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 장군님같은 특출한 인걸이 새시대를 낳고 새 력사를 창조해간다는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책이나 론리에서 얻은 결론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 절감하게 된 이 절대적인 진리로 하여 덕수는 흥분을 억제할수 없었다. 어쩐지 코허리가 저려들면서 눈굽이 달아오르기만 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하는 일을 계속하시는듯 한 그런 평범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림춘호동무! 오늘 여기서 토론된 내용을 중국에 있는 김훈동무에게 알려주어야겠습니다. 될수록 구체적으로 말이요.》

이것으로 모임을 끝내자는듯 책상앞에서 물러서신 장군님께서는 무엇때문인지 곧 덕수에게 시선을 멈추시였다.

《덕수동무!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덕수동무가 옆에서 도와주어야겠습니다.》

《?…》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인지 몰라 덕수가 긴장해지자 장군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다름이 아니라 지영동무와 영신이의 결혼식입니다. 집은 마련했다지만 준비가 어떻게 돼가는지… 영신이를 봐서도 그렇고 지영동무를 봐서도 덕수동무가 주인이 되여야 할것 같아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제 힘껏 돕겠습니다.》

덕수는 기꺼이 힘찬 목소리로 대답올리였다.

9

흔히 생활일반이 그런것처럼 어떤 경사로운 일이 있게 되면 그 일을 치르어야 할 당사자보다도 옆에서 거들어주어야 할 사람이 더 바쁘고 분주하기마련이다. 그것도 결혼식쯤 되고보면 방조자의 부담

이란 실로 이만저만한것이 아니다.
덕수도 그랬다. 신랑신부인 지영이와 영신이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오직 그가 집안팎을 돌아치면서 집을 거두기도 하고 방안치장을 하기도 했으며 문보들을 고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집안팎을 드나들던 그가 음식들을 실은 내각 후방차가 들이닥치자 이번에는 또 그 음식들로 큰상을 차리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우스운것은 신부의 아버지이고 신랑의 장인이 될 박룡이는 덕수가 하는 일을 뒤에서 물끄러미 지켜보기만 하는것이였다. 참견은커녕 거들지도 못하다가 덕수의 지시가 떨어지면 그제야 부랴부랴 움직이는데 마치 결혼할 당자의 아버지가 덕수라면 박룡이는 그저 옆에서 분부나 시행하는 심부름군같았다.
사실 처음엔 오늘의 실권을 위해 서로 아웅다웅했으나 영신이의 혼례복을 놓고 하는 첫 접전에서 그만 덕수가 완전히 주도권을 틀어쥐고말았다. 한사코 영신이의 혼례복장을 칠보단장에 쪽도리까지 쓰게 해야 한다는 박룡이의 주장을 덕수는 한마디로 일축했다.
《칠보단장이라니? 그건 안되네!》
《왜 안된단 말인가?》
《이미 준비해놓은 분홍치마저고리가 어때서? 그래,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건가?》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걔야 자네도 알다싶이 일본땅에서 일본어머니의 품에서 난 애가 아닌가. 그런 애가 오늘 장군님의 사랑으로 어엿한 조선처녀로 태여났는데 이왕이면 순수한 조상전래의 차림으로 장군님앞에 세우고싶어서 그러네.》
《그렇다면 더욱 치마저고리를 입혀야지. 장군님사랑으로 새로 태여난 영신이는 새 조선의 영신이지 그전날의 춘향이가 아니거던!》
도대체 신부의 단장과 새 조선이 무슨 상관인가고 의아해한 박룡이였다.
《어떻든 난 꼭 칠보단장을 시켜야겠네.》
《천만에! 치마저고리가 더 좋다는데.》

덕수를 마주보던 박룡이가 어처구니 없다는듯이 말했다.
《아니, 오늘 시집가는게 도대체 누구의 딸인가?》
《누구의 딸?》
박룡의 말을 곱씹는 덕수의 입귀가 실룩했다.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제 딸이 아니라고 내쫓은건 누군데?》
그 말에는 대꾸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비트는 박룡이였다. 그런 그를 보며 덕수가 확정적으로 말했다.
《내 말 안하자다가 하네만 명심해 들으라구. 내가 왜 치마저고리를 입히자는지 아나? 장군님께서 칠보단장보다 치마저고리차림을 더 좋아하시기때문이네.》
《뭘?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알아?》
놀라는 박룡이에게 덕수는 자기 가슴을 손바닥으로 탁 두드려보였다.
《내가 그것도 모르고 결혼식을 주관하는줄 아나? 장군님께서 결혼식준비를 나한테 일임하신 때에야 벌써 그쯤한 지시는 다…》
뒤말을 얼버무리는 덕수였으나 박룡은 아연한 기색을 지었다.
정말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든 모양이였다. 그때부터 그는 다소 의견이 있더라도 함부로 나서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더는 덕수가 하는 일에 간참할념을 못했다.
지금도 그는 큰상을 차리는 덕수를 미덥지 않은 눈길로 지켜보면서도 정작 입을 열지는 못했다. 마침 덕수가 곶감이 담긴 접시를 상 앞머리에 놓자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그건 왜 거기다 놓나?》
《왜?》
《왜라니? 그건 그 자리가 아닐세.》
아무렴 상을 차리는것까지야 장군님 지시랴싶었던지 박룡은 얼른 상앞으로 다가섰다.
《관혼상제에는 다 법도가 있는 법일세. 유전견후라고 무른 음식은 앞에 놓고 굳은 음식은 뒤에 놓게 돼있단 말이네. 곶감처럼 무른것이 굳어진건 이렇게 중간쯤에 놓는거지. 그런 문제에서야 아무렴 내가 자네보다야 낫지!》

방금 놓은 곶감접시를 뒤에 가져다놓고 이미 놓인 파일그릇들을 다시 손질하는 박룡을 보며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하긴 자네야 아마데라스 오오미까미에다 새우젓을 발라놓으면 〈천황〉이 죽는다는것까지 다 알고있으니까.》

《하하!》

갑자기 박룡이 큰소리로 웃어댔다. 잘 웃지 않는 그였으나 일단 웃기만 하면 천진한 어린애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고 온몸을 들썩거리였다. 그러나 그가 호탕하게 웃는것은 이젠 덕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게 되였다는 일종의 만족감에서였다. 그렇게 웃던 박룡이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곧 진중한 표정을 지으며 덕수에게 다가앉았다.

《여보게!》

새삼스런 시선으로 덕수를 여겨보는 그의 두눈에는 왜서인지 물기가 번뜩이였다.

《옛날엔 서로 원쑤가 되여 싸우던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나란히 앉아 딸애잔치상을 차리고있네. 이렇게 같이 있는 우릴 재일동포들이 본다면 뭐라고 하겠나. 난 이 사실이…》

박룡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덕수 역시 생각에 잠기였다. 정녕 장군님이 아니시고야 어떻게 자기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있을수 있을것인가! 이미부터 조선사람은 다 장군님품에 안겨야 하며 그래야 진정한 희망도 보람도 있다는 말은 해왔지만 그 말이 이처럼 값진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줄은 덕수자신으로서도 미처 알수 없었던것이다.

《참!》

한가지 사실이 떠오른 덕수는 얼른 박룡이를 마주보았다.

《내 한가지 걱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네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할것 같네.》

박룡의 두눈에는 금시 의아한 빛이 어리였다.

《내가 오늘 잔치의 주례를 맡지 않았나.》

《그런데?》

《장군님께서 몸소 참석하실텐데 우선 주례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근심이 돼서 그러네. 일반적으로 하는 일엽편주요, 일심동체요 하는 말이야 할수 없지 않나. 주례도 주례지만 보다 중요

한건 말이네…》
덕수의 표정은 어느덧 안타까움에 젖어있었다.
《내가 오늘은 꼭 장군님앞에서 노래를 불러야겠는데 주례를 서가지고야 어떻게 노래를 부른단 말인가? 이게 난사란 말일세.》
《노래?》
노래라는 소리에 박룡은 대뜸 심중한 기색을 지었다. 그도 덕수가 노래부르기를 좋아하며 괜찮게 부른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주례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건 모르겠네만 노래는 내가 책임지지.》
《어떻게?》
《분위기를 보다가 내가 자연스럽게 자네가 노래를 부를수 있게 하겠단 말이네. 그러니 다른 걱정은 말고 준비나 잘해두라구.》
그제야 덕수는 한시름 덜었다는듯 비죽이 웃었다. 그런 덕수를 보며 박룡이 뒤를 달았다.
《한데 조건이 있네! 노래를 꼭 한절 아니면 두절로 끝내야 한다는거네. 알겠나? 자네야 노래를 부르면 보통 3절, 4절짜리를 다 부르니 그게 문제거던. 그래 오늘은 몇절짜린가?》
《전에 조국에 올 때 지은 가사에 곡을 붙인건데 본래는 3절이였지만 이번에는 내가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된 행복까지 덧붙이였으니 모두 넉절이지.》
《넉절? 안되네. 그건 너무 길어!》
박룡이 손을 젓자 덕수는 박룡의 팔을 덥석 잡았다.
《아니, 노래야 곡도 중요하지만 가사에 진미가 있는건데 두절로야 어떻게 감정을 다 담는단 말인가. 한번 들어보겠나?》
창문쪽으로 돌아앉은 덕수는 곧 몸을 기울거리며 《조국애에 불타는―》하고 정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이 행복― 끝이 없다네〉로 끝나는데 좀 빨랑빨랑 부르면 안되겠나?》
사실 덕수는 오늘 결혼식에서 자기가 맡은 주례도 주례지만 한번 노래를 멋들어지게 불러 장군님의 칭찬을 꼭 받고싶었다. 그리고 그 노래에 그처럼 조국을 애타게 그리던 자기 마음과 이젠 조국의 품

에서 장군님을 모시고 살게 된 무상의 행복을 격조높이 웨치고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였다.

…그 시각 지영이와 영신이는 청류벽밑으로 휘우듬히 뻗은 대동강변길을 거닐고있었다. 립춘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강가에는 구들장같은 얼음들이 우쭉비쭉 솟아있고 추위에 언 물오리떼들은 깃을 접은채 옹크리고있었다. 그러나 두사람은 조금도 추운줄 몰랐다.

오늘로서 자기들이 부부가 된다는 사실이 이전에는 그처럼 간절히 바라던 일이기는 했으나 이들에게는 어쩐지 못내 놀랍기도 하고 불안스럽기도 했다. 몸은 서로 만리에 떨어져있으면서도 마음은 언제나 하나로 이어져있던 5년세월, 그 5년이 짧았는지 길었는지 이제 와선 그것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다.

《전 말이예요.》

외투주머니에 두손을 찌른채 깎아세운듯 한 청류벽의 바위돌을 쳐다보던 영신이가 생각깊은 어조로 말했다.

《오늘의 이 모든 사실들이 어쩐지 두렵기만 해요. 이 과만한 행복이 꿈이나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의 두눈에는 이것만은 저로서도 어쩔수 없는 일이라는듯 한 진정이 어려있었다.

《왜, 성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예언자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피스카산정에 올라 눈을 뜨고 동서남북을 살펴보아라. 그대가 요단강을 건늘수 없기때문이다.〉하고 말이예요. 피스카산에 오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이 있지만 요단강이 가로막아 가지 못하니 자세히 살펴보기라도 하라는 뜻이지요. 예언자의 말을 따라 피스카산정에 올라 약속된 땅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했던 모세처럼 저도 지영씨가 있는 조국을 하루에도 열번, 스무번 그려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소원이 현실로 되였으니 그래, 이게 과연 꿈이 아니란 말이예요?》

《꿈이라니?》

지영은 퉁명스레 대꾸했다. 그도 지금 영신이가 자기가 표현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 행복과 환희에 휩싸여있는가 하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그런것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범상하게 말했다.

《난 도리여 우리가 벌써 찾아야 할 행복이 늦어진것이 아쉽기만 하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라도 그 밑진결 봉창할수 있을가 하는 생각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응당하다는건가요?》

《응당하지 않구!》

영신이는 미소를 머금었는데 그 미소는 지영이가 속으로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부러 그런 말을 한다는 이를테면 다정한 사람의 낯익은 버릇을 감촉했기때문이였다.

《그래도 우리 두사람의것이라기엔 너무나도 크고 귀중한 행복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흔히 애인은 있었지만 교제가 없이 고독하게 지내온 처녀가 그렇듯이 영신이도 지영이와의 상봉으로 하여 지금까지의 자기 생활은 생활이 아니였다는것을 새삼스레 느끼는것이였다. 사색이며 감각이며 행동의 힘이 한순간에 열배나 되는듯이 느껴지는가 하면 당장 남편이 될 지영이가 전에없이 선량하고 용감하며 또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의 머리속에는 미래의 가정생활에 대한 수천가지의 공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것이였다.

다시금 고개를 들고 모란봉이며 릉라도일경을 바라보던 영신이는 호ㅡ 하고 한숨을 내쉬였다. 그 한숨은 가슴속에 이는 격정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몰라 내뿜는 탄성이였다.

《이런 말 한다고 웃지 마세요.》

지영이를 바라보던 영신이는 제먼저 고개를 숙이며 방그레 웃었다.

《전 사랑이라는걸 처음엔 한사람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라고 여겼댔어요. 사랑은 곧 믿음이다, 이것이였지요. 지영씨가 우리 삼촌집에 하숙할 때는 말이예요. 그러나 그후 아버지문제로 우리사이가 복잡해지고 지영씨가 서울로 가게 되였을 때에는 사랑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때에만 성취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아마 당장 사랑을 잃어버릴것만 같은 불안이 저에게 그런 생각을 품게 했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오늘에 와서 전 다르게 느껴요. 제 자신의 체험을 통해 바로 사랑이란 이런것이 아닐가 하는 확신이 들기도 하구요.》

《?》

지영은 영신이가 확신을 가지게 된 사랑이 어떤것인지 궁금했다. 자기 역시 그것으로 하여 숱한 번민을 겪었고 그것으로 하여 헤여날수 없는 고통과 좌절을 겪었기때문에 더 호기심이 생기는지도 몰랐다.

《전 사랑을 결코 믿음이나 성취로 설명하기는 부족하다고 봐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것이 있다는걸 느껴요. 믿음이나 성취라는건 어디까지나 자기로부터 출발하는것이고 또 자신을 위한것이 아니겠어요. 전 진정한 사랑이란 자기의것이 없는것,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한것, 말하자면 오직 상대를 위하려는 마음의 크기에 따라 규정된다는거예요. 다시말해 자기자신을 위한 감정을 분모로 하고 상대를 위한 감정을 분자로 하여 나눈 그 값의 크기가 바로 사랑의 크기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나 즉 분모는 없어지고 타인, 말하자면 분자만 커질 때 이루어지는것이 아닐가요. 그것이 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든 집단이나 지어는 조국에 대한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분자에 사람대신 조국을 올려놓았을 때 그 값이 얼만가 하는것이 바로 그자신의 애국심의 크기겠지요. 전 이것을 바로 장군님께서 저와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시는 다함없는 사랑을 통해 깨달았고 배우게 되였어요.》

《?!…》

지영은 새삼스런 눈길로 영신이를 바라보았다.

문득 장군님께서 영신이의 처지를 재일동포들모두에 비유해서 하시던 말씀이 상기되면서 장군님의 사랑이 새로운 의미로 가슴에 사무쳐왔다.

《전 이제부턴 우리들의 사랑은 오직 장군님 한분을 그 공식의 분자에 놓고 매일 아니, 매 시각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마주보는 영신이의 모습, 반짝이는 두눈이며 홍조가 어린 볼 그리고 어깨우로 굽실굽실 물결쳐내린 윤기도는 머리칼을 보는 순간 지영은 어쩐지 숨이 막혔다. 얼마나 영신이가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귀중한것을 가진 행복자가 없다는 기

뽐에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영신이!》

지영은 저도 모르게 영신이의 손을 꽉 잡았다.

영신이도 자기 손에 힘을 주는것으로써 대답했는데 그것이 두사람사이에는 백마디 말보다 더 열렬한 사랑의 약속이 되여 온몸을 뜨겁게 달구는것이였다.

10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덕수와 함께 내각사무국입구옆에 있는 가루개둔덕길을 걷고계시였다. 덕수와 꼭 나누어야 할, 그것도 지영이와 영신이 결혼식전에 아퀴를 지어야 할 문제가 있어 그를 부르시였다.

빽빽이 서있는 다박솔들사이로 나있는 오솔길이였으나 그 길마저 폭격에 파헤쳐져 제대로 걸음을 옮기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걸으니 5년전 모란봉을 거닐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장군님께서는 나무들이 우거진 모란봉쪽을 바라보시며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땐 설을 앞둔 한겨울이였는데 지금은 추위가 풀린 초봄입니다. 어쩐지 난 그해 겨울에 걷던 길을 우리가 계속 걷고있는듯 한 느낌이 듭니다.》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드시고 버드나무가지들에 눈길을 주시였다.

아직 추위에 얼어있으나 가느다란 아지끝에는 분명 연한 록색물이 올라있었다. 봄! 어느덧 봄빛이 완연했다.

《그때 우리가 한 말들이 기억납니까?》

《생각납니다.》

덕수는 그때 장군님께서 재일조선인운동의 방향이며 방도에 대해 하시던 말씀이 그대로 떠오른다고 대답올렸다.

《아니, 내가 하는 말은 그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한 약속입니다.》

《…》

《그때 난 덕수동무에게 두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젠 공화국이 창건되였기때문에 조국에서 재일동포들을 힘자라는껏 돕겠다는것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놈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군님께서는 말끝을 흐리시였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덕수를 부르시였고 자신의 심중을 속시원히 털어놓자고 가루개에 오르시였으나 정작 말씀을 하자니 뒤를 이을수가 없으시였다.

열흘전 몰라보게 달라진 덕수의 초췌한 모습을 대하는 순간 장군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그를 일본으로 보내지 않으리라는 결심, 여태껏 고생한것만큼 행복하게 아니, 이미 한 고생의 열배, 백배가 되는 보상을 조국의 품에서 받게 하리라 결심하시였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그토록 고생한 덕수에게 너무 무정한것 같으시였다. 더우기 덕수의 모든 고생이 바로 자신께서 그를 일본에 되돌려보냈기때문이라는것으로 하여 더 마음이 아프시였다. 덕수에게 이제부터 무슨 일을 시키며 일본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데리고 올것인가에 대해 그리고 시간을 내여 그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까지도 세워보시였다.

그러나 그 계획은 앞으로의 재일조선인운동, 당장 그 실현을 위해 판가리싸움을 벌려야 할 로선관철이라는 무거운 혁명과업을 생각할 땐 점점 뒤전으로 밀려났다.

그 로선전환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그에 대한 정당성을 확신하고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완강한 투지와 전개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발악적으로 나올 종파들과 맞서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종파들의 영향하에 있던 일군들과 동포들을 한덩어리로 묶어세우기 위해서도 처음부터 조국을 옹호하면서 놈들과 견결히 싸운 사람이여야 했다. 그런 사람은 두말할 여지없이 한덕수였다. 덕수이상 적임자는 없었고 있을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를 다시 일본으로 보내야 한단 말인가!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쓰리시였다.

어떻게 그를 다시 일본에 보낼수 있단 말인가! 추방령을 받은 후

부터 밥 한끼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발편잠 한번 자보지 못한 그, 그런 시련속에서도 원쑤들과 싸우다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가 아닌가! 그런 고통과 슬픔을 안고 조국에 온 그를 또다시 일본으로 가라고 하다니? 너무나도 의리도 인정도 없는 매정한 처사가 아닐수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이미부터 마음을 괴롭혀오던 한 인간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과 혁명의 요구와의 불가분리의 모순에 다시금 휩싸이게 되시였다. 그래도 그전에는 곧 리성이 감정을 다잡군 했으나 이번에는 도저히 그 리성에 납득되지 않는 감정이였다. 아니, 납득될수가 없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말을 꺼내기는 했으나 뒤를 이을수가 없으시였다.

《덕수동무!》

한자리에 멈춰서신 장군님께서는 폭격에 재더미로 변한 서평양일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다.

《그전에도 그랬지만 난 요즘에 와서 더욱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혁명하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생활적인 요구와 혁명임무가 언제나 서로 대치되는것일가 하고말입니다. 물론 혁명을 하자니까 어려움이야 있겠지요. 그러나 혁명이 결코 인정을 무시한 가혹하고 무자비한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장 뜨거운 인간애를 요구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런데도 매번 그것을 무시해야 할 립장에 서게만 하니…》

《…》

덕수는 뒤짐을 지고계시는 장군님모습을 경건히 우러렀다. 무언가 쿵 하고 심장을 때리는 충격과 함께 어째선지 오늘따라 장군님의 모습이 이전과는 전혀 달리 느껴지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 자기를 데리고 가루개둔덕을 오르실 때부터 무슨 긴한 말씀이 있으리라는것을 직감하고 은근히 긴장돼있던 덕수였다.

그러나 5년전에 자기와 한 약속에 대해 상기하시다가 문득 인정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는 순간, 특히 말없이 먼 하늘가를 바라보시는 심려어린 표정을 대하는 순간 장군님께서 무엇때문에 자기를 찾았으며 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신다는것을 깨달을수 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지금 괴로와하신다. 바로 나때문에 상심하고계신다. 로선전환을 하자니 부득불 나를 일본에 다시 보내야겠는데 이미 조국에서 함께 일하자고 한 그 약속으로 하여 괴로와하신다.)

그렇다는것을 깨닫게 되자 대뜸 명치끝을 칼로 허비는듯 한 아픔을 느끼였다. 그것은 한 전사에 대한 사랑이 귀중하여 마땅히 해야 할 명령에 대해서까지 주저하시는 장군님의 인품, 그런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장군님에 대한 새삼스런 느낌이였다. 그러면 그럴수록 한가지 의혹이 떠올랐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과업이 무엇이라고 명령하시기만 하면 응당 알았습니다 하고 집행할 의무밖에 없는 전사앞에서 이미 한 약속때문에 선뜻 입에 담기 저어하시다니? 과연 우리 장군님께서 이렇게도 인정에 무르실줄이야.)

이미부터 자기는 누구보다도 장군님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해온 덕수였으나 이 시각에는 저로선 전혀 알지 못했던 장군님의 새로운 모습에 어안이 벙벙해질뿐이였다. 100만 관동군을 삼대베듯 쓸어눕히고 오늘은 세계《최강》을 떠드는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은 전설적령장이신 장군님께서 이다지도 마음이 여리실줄이야! 그 인정에 목이 메였다. 눈굽이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인정이라고 하랴! 그것이야말로 나같은 평범한 인간을 아니, 우리 3천만겨레모두를 강철로, 불사신으로 만드는 숭고한 사랑이 아니고 뭐랴! 우리 조국을 온 세상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조국으로 만드는 위대한 힘, 오직 장군님께서만이 지니신 위대한 천품이 아니고 뭐랴!)

덕수는 부지중 탄성을 터뜨렸다. 이런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아끼고 주저하랴 하는 불같은 용기와 함께 장군님께서 바라신다면 일본을 두번이 아니라 스무번이라도 가야 한다는 의지와 각오가 불같이 용솟음쳤다. 또 그렇게 한다 한들 어떻게 장군님의 사랑에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하는것으로 되랴 하는 생각에 안타깝기도 했다.

《장군님!》

성큼 장군님께로 다가서며 덕수는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5년전 장군님께 조국에 떨어지겠다고 하던 때의 일이 떠오르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장군님의 아픈 마음을 다소나마 풀어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혔다.

《장군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제 압니다. 무엇때문에 상심하시는지도 압니다. 저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군님의 심중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또 그 뜻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제 어찌 장군님의 전사라고 하겠습니까?》

《…》

장군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이 덕수를 바라보시였다. 그이의 뜨거운 시선에는 덕수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과 함께 믿음이 어려있었다. 그러면서도 어떤 량해를 바라시는 간절한 기대도 력연했다.

《덕수동무! 동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고마울뿐입니다.》

장군님의 목소리가 갈려있다는것을 느낀 덕수는 더욱 활달한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상심하지 마십시오, 장군님! 이미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고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라고 말입니다. 전 그 어디에 있어도 장군님품에 안겨있다는것으로 하여 조금도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만은 마음속 깊숙이 자리잡은 진정이라는듯 덕수는 가슴을 활짝 펴면서 밝은 표정을 지었다.

《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한데 그런 말까지 하니… 그러나 내 심정도 리해해주시오. 앞으로의 재일조선인운동을 따져볼 때마다 나는 덕수동무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재일조선인운동에서는 덕수동무가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지 내 생각만이 아니라 조국의 요구이며 혁명의 요구라는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고싶은 말은…》

장군님께서는 다시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아까도 말했지만 조국이 아직은 재일동포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멀지 않아 그 빚을 갚을 날이 올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저렇게 페허로 되였지만…》

앙상한 전주대와 굴뚝들만 드문드문 서있는 서평양일대를 바라보신 장군님께서는 덕수에게로 돌아서시였다.

《이제 정전이 되고 복구가 시작되면 우리는 복구건설과 함께 재일동포들에 대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한두개의 공장이나 건물을 짓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우선 동포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부터 관심을 돌릴 작정입니다. 난 덕수동무가 동포들의 야학을 운영하기 위해 돈을 꾸러 다니던 일과 학교터전을 잡아놓고도 돈이 없어 천막을 치고 아이들을 공부시켰다는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초중급학교는 물론이고 앞으로는 대학까지 내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돈이 없고 학교가 없어 공부를 제대로 못하던 동포자녀들이 대학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동포들을 조국에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도 하려고 합니다. 조국에 오겠다는 동포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본정부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포들이 조국으로 귀국할 땐 그야말로 온 세상이 보란듯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오게 해야 합니다.》

덕수에게는 장군님말씀이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라 어쩐지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고있는 현실처럼 느껴졌다. 조국의 따뜻한 사랑에 목이 메인 동포들모습이며 웅장한 대학청사에서 공부하는 름름한 대학생들, 그런가하면 동해의 푸른 물결을 가르는 귀국선에 올라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

《참! 부인한테도 나의 인사를 전해주기 바랍니다. 수임동무말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덕수의 팔을 잡으시며 다정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숱한 고생을 하면서도 덕수동무를 돕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우겠습니까. 그저 그가 기뻐서 웃을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

덕수는 목이 메여올랐다. 궂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힘들다는 말조차 한번 해보지 못한 안해, 이젠 고생을 남편한테서조차 위로

받을것을 잊고 살아오는 수임이, 온갖 고역들을 어느덧 자기에게 쏟아지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데 습관된 수임이가 장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것을 안다면…

새삼스레 가슴이 후더워지면서 눈앞이 흐려졌다. 무슨 말씀을 올리고싶었으나 뭐라고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이때 내각사무국입구앞으로 한대의 승용차가 와서 멈춰섰다. 차에서는 곧 두사람이 내렸는데 한사람은 신랑복차림의 리지영이였고 다른 사람은 언제나 입던 조선옷을 양복으로 갈아입은 박룡이였다. 결혼식준비를 끝내고 장군님을 모시러 온것이 분명했다.

《갑시다. 이젠 마음놓고 지영동무와 영신이의 결혼을 축하해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제서야 밝은 미소가 어린 눈길로 덕수를 바라보시였다.

종 장

1

유난히 맑게 개인 날이였다.

가없이 푸르게 펼쳐진 하늘이였다.

일본 도꾜의 한복판, 한복판치고도 가장 번화한 곳에 자리잡은 아사꾸사공회당앞의 드넓은 공지에는 명절차림을 한 수많은 동포들이 손에손에 공화국기를 들고 모여있었다. 이른아침부터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해가 퍼지는 지금에 와서는 벌써 공지를 가득 메우고있었다. 거뜬한 양복차림의 남자들이며 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녀인들, 백발을 날리는 로인들과 까까머리 아이들… 나이차림은 각양각색이였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싱글벙글 웃음이 피여있었다. 미리 조직한것도 아니고 누가 알린것도 아니였으나 오늘을 손꼽아기다리던 동포들이 너도나도 여기로 모여든것이였다.

1955년 5월 25일.

여태껏 갈길을 찾지 못해 비극적인 수난을 겪어오던 재일동포들이 머리우에 무겁게 드리웠던 암운을 밀어던지고 마침내 자기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해외공민이라는것을 자랑차게 시위하는 날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독창적인 해외교포운동사상의 빛나는 산아이며 그리하여 인류해외교포력사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첫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장엄한 탄생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하는 날이였다.

공회당입구쪽에서 새납소리와 장구소리가 들려오는가싶더니 곧 요란한 꽹과리소리와 함께 울긋불긋한 바지저고리차림을 한 농악대가 어깨춤을 추며 들어서고있었다. 어느 지부에서 오늘을 축하하기

위해 조직한 농악대가 틀림없었다.
《꽹과당 챙— 꽹과당 챙!》
《삘리리— 삘리 삘리 삘리리 리—》
늙은이들은 벌써 농악대속에 섞이여 어깨를 들썩이는데 신명이 나서 어쩔바를 모르는듯 손벽을 치며 소리까지 질러댔다.
《쭈우— 타!》
《조—오 치!》
사람들은 하나같이 흐뭇한 시선으로 그들을 지켜보았고 아이들도 덩달아 좋아라 농악대주변을 맴돌이쳤다. 농악대뒤를 따르며 까치걸음을 치는 놈이 있는가 하면 손나팔을 만들어 새납부는 흉내를 내기도 했고 어떤 놈은 갑자기 귀청을 찢는 꽹과리소리에 화닥닥 질겁을 하며 귀를 막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가운데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열두발상모를 신기한 눈길로 지켜보다가 그 상모끝이 자기 눈앞을 피끗피끗 스칠 때마다 한마디씩 지껄여댔다.
《히야— 히얀하제, 그치?》
《저기 우리 조선춤이라는기다.》
《춤이 뭐꼬. 저건 춤이 아니고 사까스다.》
《사까스가 아니라 춤이란데.》
《아니야, 사까스야!》
《춤이야!》
《사까스야!》
《춤!》
《사까스!》
코를 맞대고 춤과 사까스를 겨끔내기로 웨쳐대던 두녀석은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것처럼 《쟝— 께이.》하고 손을 공중에 쳐들어올렸다가 《쉿!》하며 내리였다. 아마 론쟁으로 결판나지 않을 때에는 쟝 께이를 해서 결정하기로 약속돼있는것 같았다.
《온다!》
드디여 누군가가 이렇게 웨치자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공회당으로 들어오는 입구쪽으로 쏠리였다. 《축》이라고 쓴 커다란 초롱이 매달려있는 아치형대문으로 오늘 회의를 주관할 사람들이 무리

를 지어 걸어오고있었다.

얼굴에 웃음을 띠운 한덕수가 량옆에 있는 리계백, 윤덕곤, 리심철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으며 걸어오는데 그뒤로 김상기, 림광철, 리진규, 윤봉구가 녀맹위원장 김은순, 구월서방 사장 로병우, 조선통신사 사장 김병소, 통일동지회 회장 문동건 등 각 단일단체 책임자들과 함께 따르고있었다.

《저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연설을 한 사람이요?》

누군가 옆사람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유명한 연설이라니?》

《왜 민전 19차중앙위원회에서 민대파들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민전을 뒤집어엎은 그 연설 말이요.》

《뒤집어엎다니?》

안경을 낀 사람이 펄쩍 뛰였다.

《이 량반 큰일날 소리 하는구먼. 민대파들이 범한 과오를 비판하고 바로잡은게지 뒤집어엎었다는게 뭐요?》

《아따, 둘러치나 메치나 한가지가 아니요.》

《하긴 그 소리도…》

펄쩍 놀라던데 비해서는 너무나도 수월하게 수긍하는 안경쟁이였다.

이번에는 반대쪽에 서있던 사람이 다시 그에게 물었다.

《저 의장이 조국에서 파견돼왔다는 말이 맞소?》

《뭐－요?》

안경쟁이가 이번에는 더 화들짝했다.

《이 량반 정말 큰일날 소리 하는구먼. 저 사람이 바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결국 조국에서 파견된거나 같은게 아니고 뭐요.》

《하긴 그것도 그래.》

이번에도 역시 제꺽 고개를 끄덕이는 안경쟁이였다.

모든 사람들이 한덕수를 선망이 어린 눈길로 지켜보는데 갑자기 두 젊은이가 그앞으로 달려나갔다. 현우와 서민이였다.

《축하합니다, 의장동지!》

두사람의 손을 잡은 덕수의 얼굴에도 밝은 웃음이 어리였다.

《나도 대표자명단에서 동무들 이름을 봤소. 현우동문 해신(《해방신문》)대표고 서민동문 히로시마대표라지?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네. 특히 해신이 이번에 큰일을 했어. …》

말을 이으려던 덕수는 옆에서 웬 로파가 다가와 덥석 팔을 붙잡는 바람에 그리로 돌아서지 않을수 없었다.

《이보이소, 의장요. 그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기요.》

태길이 어머니 박할머니였다.

《내 이제사 우리가 바른길을 가는갑다 하니 눈물이 납니더. 우짜믄 이 길로 가는기 그렇게도 힘이 들었습니껴, 예? 태길이… 그눔이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아할고 생각하믄… 그렇지만 걱정마이소. 내 울지 않습니더. 오늘같은 날 눈물을 보여서야 안되지요. 내 울지 않습니더.》

그러나 박할머니의 두눈에는 눈물이 그렁하니 고여있었다.

《어머니!》

덕수는 박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진정이 넘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우리가 괜한 고생을 하지 않게 되였습니다. 남들때문에 목숨을 잃지도 않고 더는 피를 흘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된것이 다 태길이의 영웅적투쟁이 있었기때문이고 또 어머니같은분이 우리를 적극 도와주셨기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자— 우리와 함께 회의장으로 가십시다.》

덕수가 태길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회의장으로 향하자 옆에 있던 리계백이며 윤덕곤은 물론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까지도 하나같이 박수를 치며 환영해주었다.

태길이 어머니와 함께 걷노라니 덕수의 눈앞에는 은연중 조국에서 돌아와 로선전환을 준비하고 실천하던 2년세월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치였다. 정말 간고하고 치렬했던 2년이였다.

어떻게 하면 장군님께서 주신 로선전환의 력사적인 과업을 관철하겠는가에 대해 이다바시에 있는 자그마한 목조려관방에서 매일처럼 밤을 새워가며 토론하던 일이며 먼저 조국통일호소문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동포들을 조직하면서 조선대학 건설위원회와 구월서방

을 창립하던 일, 박룡이가 준 자료에 근거하여 리종훈의 정체를 《해방신문》에 폭로하고는 민전 4차전체대회에서 저들이 결정한 3반투쟁을 반리승만투쟁을 첨가하여 4반투쟁에로 돌려세우던 일, 그런가 하면 앞으로의 사업을 위하여 젊고 패기있는 일군들을 투쟁일선에 인입하던 일…

그러나 민대파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일본공산당 수뇌부로부터 로선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시가 떨어지자 그들은 아연실색했다. 아니, 당황망조했다. 여태까지 그처럼 완강하게 주장해온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지도와 무장투쟁로선에 대한 포기가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이 아닐수 없었다. 처음에 놀라던 일이 다음에는 반발을 불러일으키는것처럼 민대파들도 곧 발악적으로 책동하기 시작했다. 놈들은 4반투쟁에로 전환한 투쟁방침을 다시 3반투쟁으로 돌려세웠는가 하면 민전서기장 리계백대신 그 자리에 김충구를 들여앉히였다. 또한 도꾜중고교장인 림광철을 종내 몰아내고 저네들 주구를 박아넣었으며 다시금 《해방신문》을 민전기관지로 만들기 위해 자기의 심복을 편집국장으로 밀어넣으려했다. 그러나 덕수는 원철의 민전기관지책동은 기관결정위반일뿐더러 새 편집국장파견도 날조된것임을 폭로하고 놈들이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리심철과 최은한에게 과업을 주었다.

그러자 이젠 저들로서도 로선전환을 막을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민대파들은 비렬하게도 교활한 책동에 달라붙었다. 그것은 《정세가 발전되였기때문에 재일조선인운동도 투쟁방법과 조직형태가 전환된다》는 소위 정세발전론과 전술전환을 들고나온것이였다.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여태껏 재일조선인운동을 그릇되게 이끌어온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는 동시에 설사 비판이 되는 경우에도 전술상과오이지 로선상과오는 아니라는것을 인식시키자는것이였다. 그러면서 로선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덕수를 비롯한 애국적인 활동가들을 도리여 청산주의자니 편협한 민족주의자니 하면서 악착하게 헐뜯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놈들의 책동에 대해 료해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곧 54년 8월과 55년 2월 두차례에 걸치는 공화국외무상성명을 발

표하도록 하시였다.

성명들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인 립장을 천명한것이였다. 재일동포들은 일본의 소수민족이나 민족의 파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화국공민이라는 립장으로부터 일본의 주권과 법을 존중하는 대신 일본정부도 동포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것을 요구한것이였다. 성명은 결국 일본과의 관계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재일조선인운동이 일본의 주권타도의 앞장에 섬으로써 일본내정에 간섭한데로부터 일본인민들로부터 고립되였고 중요하게는 조국이 부과한 임무에서 완전히 리탈되고있었다는것을 명백하게 지적한것이였다. 말하자면 민대파들이 범한 과오에 대한 철추인 동시에 앞으로의 투쟁방향과 투쟁형태를 밝힌것이였다.

(그렇다! 바로 이것은 장군님께서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일본정부에 밝히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로선전환의 결정적인 시기가 왔다는것을 알리는것이다. 더는 주저하지 말고 로선전환을 위한 총공격을 개시해야 한다는 장군님의 명령이다!)

이런 확신과 신심에 충만된 덕수는 곧 그 공격을 3월에 열리는 민전 제19차중앙위원회로 정했다. 이 회의를 통해 동포들에게 민대파들의 과오를 전면적으로 폭로하는 동시에 장군님의 로선전환방침의 정당성을 똑똑히 알게 해야 했다. 놈들의 과오가 얼마나 반민족적이고 반애국적인가를 낱낱이 밝혀내고 온 세상에 새로운 재일조선인운동의 장엄한 포성을 울려야 했다.

그날부터 덕수는 운명이 판가리되는 날까지 단 하루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그 방도들에 대해 모색했던것이다.

2

민전 19차중앙위원회는 신바시에 있는 시바공회당에서 열리였다. 4백～5백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크지 않은 공회당이였으나 근 배나 되는 사람들이 회의장을 메우고있었다.

중앙위원들은 말할것도 없고 방청들까지도 이 회의에서 재일조선

인운동의 근본문제가 토론된다는것으로 하여 특히는 심각하게 론의되여오던 로선전환문제가 어떻게 결판나는가 하는것으로 하여 처음부터 긴장한 표정들이였다.

덕수는 주석단입구쪽에 있는 문앞에서 연단에 나선 민전서기장 김충구의 정세보고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그의 보고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로선의 근본적인 전환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가 해서였다. 그러나 보다 긴장시키는것은 이제 김충구의 보고가 끝나면 자기가 《재일조선인운동의 전환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해야 하기때문이였다.

예정되지 않았던 연설을 그것도 민대파들의 과오를 근 1시간동안이나 렬거하면서 해부할수 있겠는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느라고 했지만 중앙위원들과 회의참가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겠는지, 민대파들의 소란을 예견하여 사범학교학생들로 조직된 질서유지대를 회의장 곳곳에 배치해놓기는 했으나 결코 안심할수 없었다.

이윽고 김충구의 정세보고가 끝났다. 그의 보고는 예견했던바대로 최근정세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에 이어 재일조선인운동도 이젠 정세발전의 요구에 따라 로선을 전환해야 한다는 판에 박은 소리였다.

회의장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의례히 휴식시간이겠거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리계백이 단상으로 나서서 다음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인 한덕수동지의 연설이 있겠다고 소개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옆사람을 돌아보며 뜨아해했다. 그러나 서슴없이 주석단앞을 성큼성큼 지난 덕수는 연단에 나섰다. 그리고는 침착하면서도 엄숙한 눈길로 장내를 돌아보았다.

《방금 서기장은 정세보고에서…》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문제의 본질로 육박해들어갔다.

《우리가 로선을 전환하는것이 마치 이젠 국제적으로 평화적공존이 가능하게 되고 정세가 발전되였기때문인것처럼 지적했는데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며 구실입니다.》

《?!》

어리둥절해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왜 궤변이고 구실인가? 량진영의 평화공존과 평화정책은 오늘에 비로소 제기된것이 아니라 이미부터 확정된것이고 정세 역시 최근에 갑자기 좋아진것도 아닙니다. 운동이 전환되는 리유는 어디까지나 최근 수년간의 재일조선인운동이 자기의 로선에서 멀리 벗어나 옳게 전개되지 못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환은 단순히 정세발전에 따르는 전술전환이 아니라 로선상오유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옳소!》

《로선전환이지 전술전환이 아니란 말이요!》

회의장 여기저기에서 호응이 터져올랐다. 측근들의 응원이였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소?》

갑자기 회의집행을 맡은 민대파의 주구인 박의장이 손을 저으며 소리쳤다.

《사전에 계획에도 없던 연설을 하는 법이 어디 있소? 이런 문제제기방법이 어디 있는가 말이요?》

《계획에 있고없고가 문제요?》

그옆에 앉아있던 윤덕곤이 벌떡 일어났다.

《문제제기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가 더 중요한거요. 더우기 민전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소속된 한개 단체이며 한덕수동지는 개인으로가 아니라 바로 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중앙위원자격으로 연설하고있다는걸 알아두시오.》

《…》

그 말에는 누구 하나 찍소리 못했다.

덕수는 창황중에도 민대파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쪽지를 돌리는것을 놓치지 않고 주시했다.

덕수는 연설을 계속했다.

먼저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교시를 밝히고 그 교시에 비추어 지난 기간의 재일조선인운동의 과오를 시기적으로 또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가며 낱낱이 폭로했다. 그리고는 그 원인과 엄중성에 대해 지적한 다음 여

덟가지로 된 앞으로의 투쟁방향까지 제시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하여 놀란 사람들이 점점 덕수의 토론에 심취되다가 그가 연설을 끝냈을 때는 열렬한 박수를 보내였다. 하지만 민대파들은 대뜸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 어떤자는 의자를 주먹으로 쾅쾅 두드려대기도 했다. 마치 불맞은 짐승처럼 날뛰였다.

바빠맞은 박의장이 보고에 대한 토론은 래일로 미룬다고 해서야 회의장은 진정되였다.

다음날 벌어진 토론은 처음부터 맹렬한 론쟁이였다. 민대파들도 하루사이에 단단히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게 분명했다.

미에현대표가 이제까지의 재일조선인운동에서 근본적인 탈선은 없었으며 분석도 정확했기때문에 서기장의 보고를 무수정 지지한다고 하자 뒤따라일어난 민애청대표가 로선전환은 어디까지나 정세발전에 따르는 전술전환이여야 한다면서 그 리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되여서는 안되고 그렇게 될수도 없소!》

조선문제연구소 대표 김병식이 주먹을 휘두르며 자리를 차고일어났다. 그는 덕수가 장군님께서 앞으로의 운동을 위한 핵심을 키울데 대해 가르치신대로 로선전환투쟁과정에 인입한 리론에도 밝고 투지 또한 만만치 않은 사람이였다.

《이제까지의 운동은 한덕수동지가 지적하다싶이 방법상오유가 아니라 로선상오유에 있소. 일본공산당로선에만 추종한 사대매국행위란 말이요. 그런데도 보고를 지지하며 전술전환을 떠드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바로 자기들의 잘못을 가리우고 책임을 회피하자는것이요. 그것외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요.》

《옳소!》

《솔직하게 비판해야 하오!》

《아니요! 그런 주장을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과거의 운동을 일체 부인하자는 청산주의자들이요.》

앞자리에 앉아있던 정동은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쳐들며 주먹을 흔들었다.

《바로 당신들의 행동은 렬세에 몰린 저들의 처지를 우리들에 대

한 공격으로 만회해보자는 〈편협한 민족주의자〉들의 객기에 지나지 않소! 도대체 여태까지의 로선이 무엇이 잘못이며 어떤것이 조국을 위한것이 아니였단 말이요. 우리의 투쟁은 시종일관 조국의 리익에도 부합되게 지향되고 전개돼왔소. 있다면 3반투쟁을 과업으로 정한것인데 그것은 보고서에서도 좌경적이였다는것이 언급됐소. 그러나 그것도 방법상결함일뿐이요. 거기에 무슨 사상적 문제가 있다는거요. 인정할수 없소! 절대로!》

《인정할수 없다니?》

이번에는 교동부위원장 리동준이 야무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 역시 덕수가 각별한 관심을 돌려온 사람으로서 불같은 열정과 함께 대쪽같은 결패를 지닌 서른안팎의 젊은이였다. 특히 이번 회의를 준비하면서 그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되는 장군님의 저작집인 《자유와 독립을 위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라는 책을 내였고 그 사상으로 일군들을 꾸준히 준비시켜왔던것이다.

《만약 조국에 대한 립장이 철저하다면 어째서 서기장보고에 조국에 대해서는, 조국의 성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소? 어째서 3개년계획의 자랑찬 성과며 무상치료제실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느냐 말이요. 그리고 어째서 민전을 조국에서 떼내여 조국을 외국처럼 취급하면서 일본의 민주민족통일전선의 일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데 대해서는 피했소. 그래 이것도 방법상오유요? 이것도 조국을 배신한 본질적이며 사상적인 과오가 아닌가 말이요. 때문에 이번 로선전환의 기준은 철저히 조국이냐 아니냐의 각도에서 분석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오.》

《심판?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거요?》

《잠꼬대같은 소리는 하지도 마시오.》

《민족파들을 몰아내라!》

누군가의 고함소리에 이어 째지는듯 한 휘파람소리가 나더니 회의장 한쪽 입구로부터 사납게 생긴 젊은이들이 여럿이 나타났다. 분명 민대파들이 끌어들인 행동대들이였다. 삽시에 분위기가 살벌해졌다. 이미 분담을 정해놓은듯 그들은 대상자들을 찾아 회의장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반대쪽 입구에서 수십명의 청년들이 우르르 밀려나왔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것을 미리부터 예견한듯 삼삼오오 짝을 지은 그들은 순식간에 행동대들을 제압해치웠다. 이미 대기시켜놓았던 사범학교학생들이 그들과 합세했다.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에 모두들 눈이 휘둥그래있는데 한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청년들에게 말했다.

《놈들을 몽땅 회의장밖으로 몰아내시오. 다시 회의를 파탄시키려는 놈이 있으면 그땐 용서하지 마오!》

그를 바라보는 순간 덕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로재호였다.

(아니, 재호가?)

로선전환을 준비하면서부터 자주 재호를 만나 민대파의 본질이며 과오에 대해 충고해주었지만 그때마다 그자신은 이렇다 하게 한마디의 견해도 표명하지 않았었다. 여느때는 속에 품고있는것을 다 털어놓아야만 시원해하는 그였으나 갑자기 딴사람이 되기라도 한것처럼 일체 묵묵부답이였다. 그런 재호를 보며 이젠 다소 자기의 결함을 깨닫고있다는것을 느끼였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분간할수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것처럼 장내를 한번 돌아보고난 재호는 고개를 떨구며 나직한 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도 아다싶이 나는 조방대책임자로서 민대부의 지시를 앞장에서 집행해온 사람입니더. 서기장의 보고에도 지적되였고 방금 토론에서도 언급된 그 3반투쟁을 제일선에서 집행해온 사람이란 말입니더.》

그의 흥분된 목소리에는 자책이 어려있었다.

《나 역시 방금 어느 대표가 토론한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미제와 일제를 반대하면 그것이 곧 조국을 위하고 동포들을 위한 일로 된다고 여겼고 그래서 동포들과 청년들을 3반투쟁에로 이끌었지요. 그러나 그게 조국을 위한 일이 아닐뿐더러 동포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더.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는가를 말하기 전에 나는 먼저 바로 나때문에 3반투쟁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청년들, 무모한 피를 흘리고 지금도 옥중에 갇혀있는 동포들에게 심

심한 사죄를 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격정을 누르는듯 잠시 입을 다물고있던 그는 곧 고개를 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3반투쟁이란 한마디로 말해 일본혁명앞에 나서는 일본인민의 과업이지요. 우리 재일조선인들이 그 과업을 수행한다는것은 일본혁명에 나서는거고 그래서 무모한 희생까지 내야 한다는겁니다. 난 지금도 일본경찰의 총에 맞아 숨이 지면서도 어째서 우리가 일본혁명의 돌격대로 나서서 총알받이가 되여야 하느냐고 안타까이 소리치던 한 청년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일본혁명이 수행돼야 우리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는건 어떻게 보면 주인집이 잘돼야 자기 처지도 좋아진다고 여기는 하인들의 노예근성이지요. 그래 우리가 주인을 위해 목숨을 내대는 하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하인이 아닐뿐아니라 당당한 공화국의 공민이란 말입니다.

나도 처음엔 미제와 일제를 반대하면 그게 조국을 위해 싸우는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미제를 반대하고 일제를 반대했다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조국을 옹호고수하지 않고 조국을 위한 투쟁을 하지 않았다는데 있단 말입니다. 방금 한덕수동지의 연설에 지적되여있다싶이 재일동포들은 어디까지나 조국의 두리에 뭉쳐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싸우는기 첫쨉니다.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을 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투쟁하지 않았으면 그게 민족을 배반하고 조국을 반대한것이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새 로재호의 눈에서는 불꽃이 번뜩이였다.

《나는 내자신이 조국앞에, 동포들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를 가슴저리게 느끼고있습니다. 또 그 벌을 받을 각오도 돼있습니다. 난 나서겠습니다. 나처럼 죄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서시오. 비겁하게 꽁무니를 사리지 말고 대담하게 나서서 동포들의 심판, 조국의 심판을 받잔 말입니다.》

그의 표정이며 목소리가 얼마나 처절한지 회의장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껏 떠들어대던 민대파들까지도 아무 대꾸를 못했다.

덕수는 고개를 숙인채 자리에 앉는 재호를 당장 달려가 부둥켜안

아주고싶은 충동을 억제할 길이 없었다.
(고맙다, 재호!)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울컥 치밀어올랐다.
회의는 결국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로선전환방침에 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을 근본적으로 전환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 결정이 전달되자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은 일시에 자리를 차고일어나 폭풍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였다.
다음날 덕수는 리계백, 윤덕곤, 김상기와 함께 일본공산당본부를 찾아갔다. 이젠 일본공산당과도, 민대부의 원철이와도 명백한 계산을 할 때가 된것이다. 말하자면 일본공산당으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전환을 받아들이게 해야 할뿐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조선인운동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받아내야 했다.
요요기역에서 당본부청사까지는 불과 2～3분의 거리였으나 덕수는 어쩐지 발걸음이 쉬이 옮겨지지 않았다. 이 요요기며 시바, 신바시, 얼마나 감회와 추억이 깊은 곳인가! 조련준비위원회로부터 조련결성, 조선인조직의 발족과 출발이 바로 이 지역이였다. 조련중총회관이 이 신바시에 있었고 여기에서 매일처럼 일군들과 함께 화물차짐칸에 올라 출근하군 했었다. 재일조선인운동이 시작된 곳에서 다시 과거의 허물을 벗어던진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려는것이다. …

3층 옥상에 붉은기가 나붓기는 공산당본부청사에 이르자 정문앞에는 국내당림시중앙지도부의 가스가가 덕수를 마중했다.
방안에 들어서기 바쁘게 일본군대옷인 누런 잠바를 입은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했는데 그가 바로 국내당활동을 주관하는 아끼야마였다.
일본공산당5전협이후 당활동과 당내사정에 대해 언급하고난 그는 무슨 변명이라도 하는듯 한 어조로 말했다.
《사실 중국에 있는 당수뇌부의 지시에 따라 우리도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지도에서 과오가 있었다는것은 이미 인정했습니다만 그 집행이 본의아니게 늦어졌습니다. 우리도 이젠 재일조선인운동

과 조선인당원들에 대한 지도에서 범한 과오가 바로 그들이 조국을 위한 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데 있다는것을 심심히 뉘우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환은 결코 전술전환이 아니라 로선전환이며 따라서 그에 맞는 당민대부의 해산을 비롯한 조선인당원들의 리당문제 등 일련의 조치들을 곧 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전환을 성실하게 협력하겠다는것을 약속했다.

덕수는 다시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을 잡으면서도 그뒤에 서있는 원철과 김충구, 정동은의 수수떡같이 시커멓게 죽은 얼굴을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여보시오!》

덕수는 원철에게 한마디 하지 않을수 없었다.

《사람이 제정신을 잃으면 어떤 허수아비가 된다는걸 알겠소? 이젠 제정신을 가지고 사시오.》

그날부터 덕수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의 운동방향과 조직형태, 강령, 규약초안들을 준비했다. 그리하여 어제 있은 민전 6차림시대회에서 민전시기의 과오들을 다시금 철저히 비판한 다음 민전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를 결성한다는것을 결정했던것이다.

바로 오늘이 그 력사적인 총련의 결성을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였다.

3

덕수의 눈에는 감격에 겨워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회의장을 진감시키는 우렁찬 환호소리조차 어딘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우뢰소리같기만 했다.

방금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채택된 새 조직, 총련의 선언과 강령과 규약의 구절구절들이 아직도 귀가에 울리면서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의 환호가 마치 장중한 선률이 되여 자기를 그 어떤 황홀하고도 신비스러운 세계로 이끄는듯싶었다.

(과연 이제부턴 우리가 새 출발하게 된단 말인가! 아직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장군님께서 몸소 열어주신 그 휘황한 큰길을 따라 그 누구의 간섭도 받음이 없이 힘차게 걸어간단 말인가!)

그는 해외교포들로서는 도저히 믿을수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사실로 하여 동포들이 더 감격해마지 않는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다음은…》

회의 사회를 맡은 리계백이 단상에 나서서 사람들을 둘러볼 때에야 회의장은 다소 진정되는듯싶었다.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60만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 올리는 감사편지를…》

그제야 정신이 든 덕수는 탁우에 놓여있는 편지를 두손에 들었다. 어쩐지 가슴이 후두둑 뛰면서 그 흥분이 온몸을 쩌릿하게 지지였다. 이제 자기가 장군님께 올리는 감사편지를 읽어야 했다. 자자구구를 다듬고 또 다듬어 뜯금으로 외울수 있는 편지였으나 왜서인지 제대로 읽을수 있겠는지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는 심장의 박동이 서서히 박차를 가하는것을 아니, 어떤 나사에 감긴 악기의 현처럼 점점 팽팽하니 헹기우는것을 느끼며 연단으로 나섰다. 정히 접은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여 첫장을 펼쳐든 순간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어떤 불가사의한 현상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여태껏 자기의 귀가에서 울리던 우렁찬 합성이 서서히 잦아들고 대신 더없이 부드럽고도 그윽한 선률이 자기를 포근히 감싸는것이였다. 은연중 그 선률에 이끌리여 어디론가로, 멀리 아득히 푸르른 잔디가 펼쳐진 드넓은 광야로 활보하던 자기가 어느새 억센 수리개마냥 창공높이 훨훨 날기 시작하는것이였다. 높은 산과 깊은 강이 있고 아슬한 절벽들이 무수히 솟아있는 계곡들을 넘고넘어 흰갈기를 일으키며 설레이는 무연한 망망대해우를 힘차게 힘차게 날아가는것이였다. 온 세상을 한눈에 굽어보며 기세좋게 날아가다가 갖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만발해있고 고운 새들이 지저귀는 무릉도원으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정경에 그는 그만 어

리둥절해지고말았다. 저쯤 앞쪽에서 꽃밭을 거니시는분이 분명 장군님이시였고 장군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신채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기때문이였다.

《아— 장군님!》

덕수는 저도 모르게 목메여 부르짖으며 그이께로 달려가 두손을 잡고 엎드리였다.

《제가 왔습니다. 장군님께서 주신 로선전환의 과업을 관철하고 총련을 결성한 한덕수가 장군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갈길을 몰라 헤매일 때에는 앞길을 밝혀주시고 힘을 잃고 쓰러졌을 때에는 따뜻이 안아 일으켜세워주시더니 절망의 나락에 굴러떨어져 다시는 일어설 념을 못하자 이번에는 온 세상을 뒤흔들어 이렇게 남들이 다 쳐다보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였습니다. 이국의 모진 풍파속에서 눈물로 살아오던 저희들, 조선사람도 사람이냐며 죽창에 찔리워 죽고 생매장당해도 어디에 하소할 곳 없었던 저희들이였습니다. 조직을 해산당했을 때에도, 학교를 빼앗겨 한지에 나앉은 불쌍한 어린것들을 볼 때에도 가슴만 치던 저희들이였고 지어는 〈프로레타리아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구호아래 애꿎은 피를 흘리고 억울한 목숨을 잃을 때에도 그저 남의 나라에서 사는 기구한 운명만 저주하며 몸부림치던 저희들이였습니다. 그러나 장군님!》

덕수는 어느새 고개를 들고 떳떳이 긍지에 넘쳐 말씀올리였다.

《그런 저희들이 오늘은 이렇게 밝게 웃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로선전환의 방침에 따라 칠칠흑야에 묻힌 가시덤불길을 헤치고 이렇게 긍지높이 서있습니다. 바로 장군님께서 온 세상이 쳐다보는 그런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였습니다.》

덕수는 무거운 암운이 뒤덮인 하늘에서 갑자기 천지를 진감시키는 우뢰소리와 함께 푸른 번개가 번쩍하는것을 느끼였다. 그러자 신기한 조화, 그 천층만층의 먹장구름이 산산이 흩어지면서 희붐히 열리는 하늘가에 서서히 자태를 드러내는 눈부신 태양이 똑똑히 보이였다.

아— 태양!

《그렇습니다, 장군님! 태양이 비칩니다. 해빛이 쏟아집니다. 태양이 있어 이 땅에 봄이 있고 만물이 존재하듯이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태양을 숭배해왔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숭배한다고 하여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것은 아니였습니다. 어떤 종족은 태양신에게 사람제까지 지냈고 또 어떤 종족은 태양가까이에 닿으려고 안데스의 높은 산정에 올라가 살았지만 이끼낀 태양신전과 고대문화만을 쟝글속에 남기였습니다.

이 일본땅에 사는 저희들 역시 태양을 목마르게 그렸습니다. 천조대신을 해의 신으로 숭배하면서 그때부터 국호를 〈해의 뿌리〉라고 했다는 일본이지만 도리여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사나운 날씨여서 더욱 태양을 애타게 바라던 저희들이였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이젠 태양이 따뜻이 비쳐옵니다. 어지러운 구름장들을 갈가리 찢어발기고 이젠 이렇게 저희들을 따뜻이 안아줍니다. 어찌 저희들뿐이겠습니까. 온 3천만겨레가 아니, 온 세상이 다 장군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합니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서 무수한 행성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을 가진 구심체라면 장군님이시야말로 온 세상의 중심에서 태양과 같은 인력으로 저희들과 온 겨레들 또 온 세상을 하나로 끌어당겨 천지만변을 주도해가시는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장군님! 장군님은 정녕 우리의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만— 세—》

《**김일성**장군님 만— 세—》

갑자기 터져오르는 열광적인 합성에 덕수는 정신이 들었다. 그제야 그는 자기가 편지를 다 읽었다는것을 그리고 자기의 볼이 눈물에 젖어있다는것을 알았다.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하나같이 뜨거운 눈물이 줄지어내리고있었다. 그 눈물은 자기들을 한품에 안아주신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눈물이였고 자기들의 탄생을 기뻐하는 환희의 눈물이였으며 또 영원히 절망에서 벗어난 긍지와 행복에 넘친 눈물이였다.

덕수는 자기들이 그처럼 힘들게 걸어온 지나간 생활들이 저아래 아득한 골짜기로 어슴푸레 사라지면서 넓고도 광휘로운 앞길이 환히 펼쳐지는것 같았다. 환히 트인 앞길우에는 푸른 하늘이 가없이 펼쳐져있는데 그 하늘 한복판에는 유난히 밝은 태양이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태양찬가**(증보판)

저 자	**남 대 현**	편 집	**조 상 호**
표 지	**김 광 석**	편 성	**리 설 희**
교 정	**김 정 옥**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2

인 쇄 주체100(2011)년 6월 20일

발 행 주체100(2011)년 6월 25일

ㄱ—16061 값 210원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1
D P R Korea

ISBN 978—9946—22—387—2